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



전북대학교 | 산학협력단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 | |
|---|----|
| I. 서론 | 1 |
| 1. 연구목적 | 3 |
| 2. 연구내용 | 8 |
| II. 19C 서세동점(西勢東漸)과 21C 동세서점(東勢西漸) 속의 한국문화 동향과 플랫폼 사업 | 13 |
| 1.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漸) 시기의 문화 현상 | 16 |
| 1) 음악 분야-피아노 | 16 |
| 2) 체육 분야-야구 | 19 |
| 3) 미술 분야-유화 | 21 |
| 2. 21세기 한국문화의 세계 진출 현황과 미래 지향적 가능성 | 24 |
| 1) 국악 | 24 |
| 2) 태권도 | 27 |
| 3) 대중음악 | 29 |
| 4) 영화 | 33 |
| 3. 서예의 세계문화시장 진출 가능성과 진출 시도의 필요성 | 37 |
| 4. 21세기 세계 문화시장의 플랫폼 사업 추세 | 39 |
| 1) 세계 10대 기업의 동향 | 39 |
| 2) 디지털 플랫폼과 한류 콘텐츠 | 44 |
| 5. 미술시장의 플랫폼화 가능성 | 46 |
| 1) 미술시장의 플랫폼화 현황 | 46 |
| 2) 미술시장의 플랫폼화 전망 | 48 |
| 6. 서예 시장의 플랫폼화 진단 | 50 |
| III. 서예의 ‘동세서점(東勢西漸)’ 경향과 지속적 확산 가능성 | 55 |
| 1. 이탈리아 서예 단체 FEIMO | 57 |
| 2. 러시아 세계서예박물관(世界書法博物館) | 60 |
| 3. 프랑스 이응노 파리동양미술학교 | 64 |
| 4.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참여 서양 작가 | 68 |

IV. 현대 예술로서의 서예의 매력 73

1. 21세기에 서예가 세계적 예술이 될 수 있는 이유 75
2. 한자문화권의 예술정신 및 서예의 예술적 성격과 가치 78
 - 1) 한자문화권의 전통 예술정신 78
 - 2) 서예의 ‘순수’ 예술적 성격과 가치 83
 - 3) 서예 ‘디자인’의 부가가치 93
 - 4) 서예의 심신 수양과 심리치료 효과 96
 - 5) 서예의 인성교육 효과 103
 - 6) 서예의 ‘공연문화’ 속성과 그 가치 107

V. 왜 한국서예인가 111

1. 중국서예와 일본서예 113
 - 1) 중국서예 113
 - 2) 일본서예 116
2. 중국서예의 해외 진출 노력과 허점 119
 - 1) 공자학원 119
 - 2) 공자학원의 국제서예 활동 120
 - 3) 중국서예 해외 활동의 문제점 123
3. 한국서예의 문제점과 장점 125

VI.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실적 분석과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 131

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133
 - 1) 1997년 이후 12차 비엔날레의 성과 133
 - 2)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확대방안 145
2.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 148
 - 1) 한국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세계 서예행사의 중심 148
 - 2) 적극적인 해외 전시개최와 특강을 통한 세계화 151
 - 3)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이미 시행한 서예전의 선례와 시행 가능한 서예전의 예 .. 153
 - 4) 서예와 타 장르와의 연계를 통한 세계화 163
 - 5) 한국서예 연구와 연구실적 외역을 통한 세계화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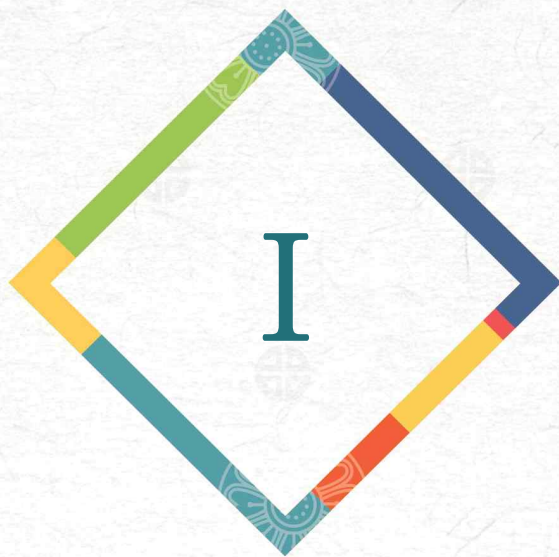
VII.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국가사업 진행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필요성 .. 171

| | |
|---|-----|
| 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국가사업 진행과 안정적인 국비확보 방안 | 173 |
| 1) 광주비엔날레관 개관 당시 국비 지원 현황 | 173 |
| 2) 청주공예비엔날레 개최 초기 국비 지원 현황 | 174 |
| 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자구(自救)노력 | 176 |
| 4) 서예교육과 서예진흥에 진력하는 중국 정부의 경우 | 178 |
| 2.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의 필요성 | 183 |
| 1)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시공간의 활용 면에서 | 184 |
| 2) 수장공간 확보 | 189 |
| 3) 상설전시의 필요성 면에서 | 191 |
| 4) 기획전시 면에서 | 192 |
| 5) 기존 예술공간과의 차별성·학술·연구·교육 공간 확대 | 193 |
| 3.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추진위 구성방안 | 199 |
| 1) 구성방향 | 199 |
| 2) 주요역할 | 203 |
| 4. 세계서예비엔날레관 후보지 검토 및 공간 설명 | 205 |
| 1) 비엔날레관 후보지 검토사항 | 205 |
| 2) 비엔날레관 3개 후보지 | 206 |
| 3) 비엔날레관 가능 사업부지 | 209 |
| 5.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후 운영계획 및 자립방안 | 210 |
| 1) 운영계획 | 210 |
| 2) 자립방안 | 213 |

VIII.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 215

| | |
|---------------------------------------|-----|
| 1. 세계기록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 및 절차 | 217 |
| 1)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 및 절차 | 217 |
| 2)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 및 절차 | 220 |
| 2.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가능성과 추진 방향 | 223 |
| 1) 한글궁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 | 223 |
| 2) 한글서예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 226 |
| 3)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방향 | 231 |

| | |
|---|-----|
| IX.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 필요성과 예상 기구의 운영계획 | 235 |
|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당시 준비 상황 | 237 |
|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서예진흥법’)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 237 |
| 2) 제안 당시의 쟁점 사항 | 238 |
| 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 | 243 |
| 3. 2019년 서예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45 |
| 4. 서예진흥법 제정 이후의 당면 과제 | 247 |
| 5. 서예진흥법 시대, 서예의 학교 교육 확보 방안 제안 | 250 |
| 1) 한·중·일 「쓰기」 교육 현황 | 250 |
| 2) 국어 교과 「쓰기」 교육의 서예로 대체 그 문화적 의미 | 255 |
| 3) 국어 교과 「쓰기」 교육을 서예로 대체했을 때의 활용 | 257 |
| 6.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 필요성과 가능성 | 260 |
| 1) 필요성 | 260 |
| 2) 가능성 | 267 |
| 7.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 예상 기구의 운영계획 | 283 |
| 1) 서예진흥법 제정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조직한 서예진흥위원회(서예진흥재단)와 긴밀한 협조 | 283 |
| 2)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을 위한 기구설립과 예상 조직의 구성 | 283 |
| 3) 서예의 진흥을 담당할 예상 기구의 운영방안 | 288 |
| X. 결 론 | 291 |
| 결론 | 293 |
| ◆ 참고자료 | 298 |
| ◆ 발표자료 | 301 |



서론



I. 서론

1. 연구목적

20세기 말인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서예는 도태를 염려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전북에서는 1997년에 과감하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출범시켰다.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문화행사로 시작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이후, 조직을 강화하고 사단법인을 꾸려 지속적인 발전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7년 제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는 「21세기의 서예, 발전할 것인가, 도태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당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참가했던 나라의 서예가와 서예 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논문은 서예의 발전 가능성과 도태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하였다.

■ 발전 가능성

① 수예술(手藝術), 수제품(手製品)에 대한 향수

기계화가 가속될수록 인간은 인간미의 상실을 안타까워하며, 인간의 체온을 그리워하게 된다. 기계가 만든 것이 아닌, 인간이 손수 만든 것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다. 기계화된 공정을 통해 나오는 비단보다는 소위 ‘수직(手織)’ 비단에 대해 정을 느끼고, 기계로 깎고 기계로 붙인 가구보다는 손으로 다듬은 가구, 기계로 찍어낸 그릇보다는 손으로 빚은 자기에 더욱 애착을 느끼는 것은 다 인간의 체온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21세기를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욱 기계화될 21세기에는 인간미, 인간의 체온에 대한 그리움 또한 배가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서 나온 말일 것이다. 인간의 생활은 거의 모두 기계가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21세기 사람들은 기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영역인 문화와 예술에 부쩍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는 예견 아래 사람들은 21세기를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서예는 아직 과학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자연예술이며, 인간성, 인간미, 인간의 체온을 가장 잘 반영하는 예술이다. 왜냐하면 ‘서여기인(書如其人)’ 즉, ‘서예는 바로 그 사람을 반영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기계화되는 21세기에는 기계 속에 사는 인간들이 잃어버린 인간미에 대해

강한 향수를 느끼게 될 것이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예술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될 터이기 때문에 서예는 그 향수에 대한 충족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21세기를 대표하는 예술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동양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세계문화의 조류

자연정복 위주로 발전해 오던 세계문화가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자각 아래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동양문화, 특히 한자문화권 문화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에 바탕을 둔 동양문화의 정수요, 한자문화권 고유의 예술인 서예는 세계문화의 한복판에 우뚝 설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문화예술의 시대에 서예는 세계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핵심장르로서 세계 속의 문화예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한자의 세계문자화(世界文字化)

중국이 개방되면서 한자는 다시 세계 속의 문자로 등장하였고, 더욱이 ‘동양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세계문화의 새로운 조류로 인하여 한자와 중국어는 배우지 않아서는 안 될 중요한 문자와 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개방되면 될수록, 한자문화권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문화예술의 시대에는 국제사회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위력이 영어 못지않게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한자가 세계문자화될 때, 서예는 자연스럽게 세계 속의 문화 예술로 부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예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1982년대부터 중국 내부에 일기 시작한 「서예열(서예Boom)」은 서예 발전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 도태 가능성

① ‘쓰는 행위’ 자체의 소멸

21세기는 컴퓨터의 위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로 인하여 ‘쓰는 행위’ 자체가 소멸하고, 또 컴퓨터 문자의 미감에 맞 들인 사람들이 서예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서예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예의 존립에 일대 위기가 닥치고 있다.

② 한자문화권 국가의 서양화와 자문화(自文化)에 대한 자학의식

세계문화가 동양으로 회귀를 지향하고 있음은 분명한데, 그러한 회귀조류는 오히려 서양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정작 동양에 사는 동양인들은 아직도 지난 1백 년간의 서양 선진국에 대한 선망에 젖어 동양문화의 우월성과 가치에 대해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동양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선진(先進)으로 가는 지름길일 텐데, 과거 1백 년 동안 구미(歐美)를 모델로 한 선진으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온 동양인들은 오히려 구미 사람들이 버리려 하는 문화를 아직도 선진이라는 이름으로

신봉하며 그것을 배우려 하고 있다. 이것은 백 년 이상을 이어온 타성적 자학이다. 이러한 자학을 청산하는 데는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문화에 대한 자학의식이 청산되지 않는 한 동양예술의 정수요, 한자문화권의 고유 예술인 서예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서예는 도태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③ 모든 예술의 대중 예술화 경향

서예는 한자문화권 정신예술의 정수로서 고도의 지적 수준과 고아하게 다듬어진 인품을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아예술(雅藝術)이며, 문인 사대부 예술이다. 근본적으로 통속예술(通俗藝術)이나 대중예술이 아니며 그 예술적 속성상 대중예술로의 변형이 거의 불가능한 독특한 장르의 예술이다. 따라서 대중예술이 팽배하고, 그 대중예술에 의해 순수예술이나 아예술이 인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서예는 그 본원적 예술성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점차 도태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 천리마라 해도 천리마를 천리마로 볼 수 있는 구방고(九方臯)와 같은 인물이 있을 때 비로소 천리마는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텐데, 서예의 예술적인 가치가 아무리 천리마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예술이 팽배한 현대에 서예를 천리마로 볼 수 있는 구방고 같은 눈이 없다면 서예는 어쩔 수 없이 도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¹⁾

비록 논문에서는 발전 가능성과 도태 가능성을 다 언급했지만, 당시 학술대회에 참가했던 연구자와 작가들은 발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도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컴퓨터 시대의 도래’였다. 당시는 이미 컴퓨터의 갑작스러운 보급으로 인하여 세상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런 변화는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이 다 겪어야 했는데 서예가 받은 컴퓨터의 영향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컸다. 성인들의 필기 생활은 물론, 초등학생들의 과제나 일기 쓰기 등도 대부분 컴퓨터 자판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손으로 쓰는 활동’ 자체가 소멸의 위기에 처하면서 붓으로 글씨를 쓰는 서예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론을 펴는 사람이 많았다. 바로 그러할 때인 1997년 1월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당시 무주에서 열린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문화 행사로 태동하였다. 서예의 위기론이 대두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발의 뜻을 올린 것이다.

그 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여 명실공히 한국의 서예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가 높은 종합적인 국제서예 행사로 성장하여 세계서예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8년에는 중국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벤치마킹하여 ‘제1회 청도 국제서예비엔날레’를 개최하였지만, 참여작가 수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면에서 아직 한국의 세계서

1) 김병기, 〈21세기 서예, 발전할 것인가, 도태할 것인가?〉, 《제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p.1~20 참조, 1998,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예전북비엔날레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한국서예가 세계를 향해 이론 패거이자, 한국서예의 자랑이고 세계 미래서예의 희망이다. 인류가 유사 이래 이어온 손으로 글씨를 ‘쓴다.’라는 문명을 길이 보전하며 실용적 서사가 아닌 하나의 예술 행위로 그 전통을 이어갈 서예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로 인하여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 한국의 서예계는 이러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세계의 예술계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21세기 예술의 새로운 출로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저변에는 아직도 서예의 도태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깔려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 대두된 이른바 ‘AI’ 즉 인공지능으로 인해 서예의 도태 가능성은 다시 부상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1999년도 당시에든 그랬듯이 2020년을 맞은 지금도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하게 서예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다행히도 2018년 11월 23일에 ‘서예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서예는 범국가적인 관심 아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서예진흥법의 통과로 인하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도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서예진흥법 시대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용틀임을 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고, 전북 또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서예진흥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그 용틀임과 새로운 정책 수립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숙원사업으로 거론됐던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할 공간으로서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건립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정적 전시공간의 확보, 창의적 프로그램의 기획, 체계적인 홍보 활동의 전개, 소장작품의 안전한 수장 및 효과적인 활용 등 여러 방면에서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의 건립이 필요한 것이다. 두 가지 방향 중 다른 하나는 서예진흥법에 따라 장차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기구로 설립하게 될 서예진흥 기구를 전라북도로 유치하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용역에서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21세기 세계문화의 큰 조류 속에서 서예 문화의 세계적 동향이 어떠한지를 국내외의 예를 들어 조사 검토하고 건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건립방안과 건립 후의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필요성을 첫째 19C 서세동점(西勢東漸)과 21C 동세서점(東勢西漸) 속의 한국문화 동향과 플랫폼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해 보기로 한다. 둘째, 서예의 ‘동세서점(東勢西漸)’ 경향을 파악하고 지속적 확산 가능성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셋째, 현대 예술로서의 서예의 매력과 흡인력을 학문적 근거로 연구하기로 한다. 넷째, 서예의 종주국임을 자부하는 중국의 서예도 있고 우리보다 선진국임을 자랑하는 일본의 서예도 있는데 왜 한국의 서예가 나서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세계의 서예를 선도할 생각을 하는가?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답을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다섯째, 그동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이론 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한국서예가 전북의

서예를 중심으로 세계를 향해 진출할 수 있을지를 진단하기로 한다. 여섯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국가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제기하고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일곱째, 한국서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한글서예를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여덟째, 전라북도가 나서서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안을 조사하고 대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라북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할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수록하고, **전북이 중심이 되어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함으로써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중앙 정부를 설득하는 데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또한 면밀하게 조사하여 수록하기로 한다.

이 연구용역 보고서가 장차 전라북도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에 ‘백과사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용역이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받은 과업지시서 내용은 대략 A 항과 같으며 본 연구용역이 실시한 과업 내용은 대략 B 항과 같다.

| | 내용 |
|----------------|---|
| A 과업 지시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서에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필요성, 개요, 운영계획, 국비 지원 타당성 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서에 비엔날레 전용관의 필요성(상설전시, 기획전시, 소장작품의 체계적인 수장공간 확보, 기존 예술공간과의 차별성 등) - 전용관 후보지(3곳 내외) 검토 및 공간구성 - 건립 후 운영계획 및 자립방안 - 안정적인 국비확보방안, 전용관 건립추진위 구성방안 ○ 서예 문화의 과거와 현재, 위상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현황 분석,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이후 12차 비엔날레의 성과(참여작가 수 및 작품 추이 분석, 소장작품 1,619점의 가치, 경제적 파급효과 등) - 세계 최초·최대 서예 예술 행사로서의 위상 유지 및 제고 방안 - 한지산업(문방사우 산업)과 연계방안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확대방안 ○ 서예진흥법 개정을 통한 서예진흥원 및 서예진흥 관련 추진기구 설립 방안 ○ 서예진흥원 설립 시 조직 및 운영방안 ○ 전라북도 서예진흥조례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론적 제안에서 탈피하여 실행 가능한 비전과 실행과제를 포함하는 진흥계획 수립 - 연도별, 우선순위별 재정 확보 및 투자 세부계획 등 ○ 정부 서예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관련 제안사항 |
| B 결과 보고서 | <p>II. 19C 서세동점(西勢東漸)과 21C 동세서점(東勢西漸) 속의 한국문화 동향과 플랫폼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漸) 시기의 문화 현상 2. 21세기 한국문화의 세계 진출 현황과 미래 지향적 가능성 3. 서예의 세계문화시장 진출 가능성과 진출 시도의 필요성 4. 21세기 세계 문화시장의 플랫폼 사업 추세 5. 미술시장의 플랫폼화 가능성 6. 서예 시장의 플랫폼화 진단 <p>III. 서예의 '동세서점(東勢西漸)' 경향과 지속적 확산 가능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탈리아 서예 단체 FEIMO 2. 러시아 세계서예박물관(世界書法博物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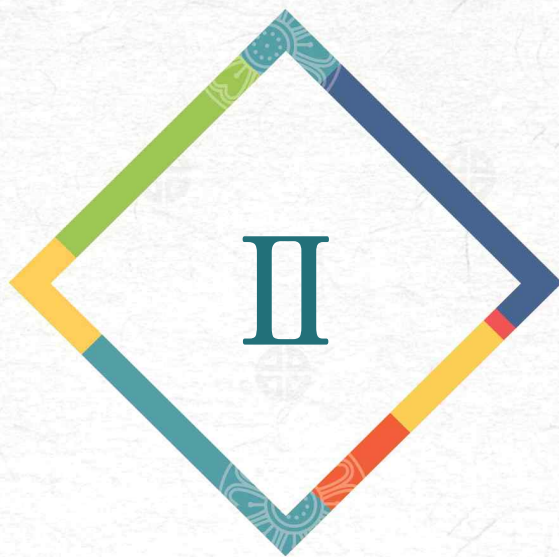
| | 내용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이응노 파리동양미술학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참여 서양 작가 |
| | IV. 현대 예술로서의 서예의 매력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기에 서예가 세계적 예술이 될 수 있는 이유 한자문화권의 예술정신 및 서예의 예술적 성격과 가치 |
| | V. 왜 한국서예인가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서예와 일본서예 중국서예의 해외 진출 노력과 허점 한국서예의 문제점과 장점 |
| | VI.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실적 분석과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 |
| | VII.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국가사업 진행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필요성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국가사업 진행과 안정적인 국비확보 방안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의 필요성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추진위 구성방안 세계서예비엔날레관 후보지 검토 및 공간 설명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후 운영계획 및 자립방안 |
| | VIII.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기록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 및 절차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가능성과 추진 방향 |
| | IX.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 필요성과 예상 기구의 운영계획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당시 준비 상황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 2019년 서예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예진흥법 제정 이후의 당면 과제 서예진흥법 시대, 서예의 학교 교육 확보방안 제안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 필요성과 가능성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 예상 기구의 운영계획 |

A, B 대조표

| 결과보고서 장 | A 과업지시서 내용 | B 결과보고서 내용 | 증감 | 증감 이유 |
|------------|---------------------|---|----|--|
| II | | II. 19C 서세동점(西勢東漸)과 21C 동세서점(東勢西漸) 속의 한국문화 동향과 플랫폼 사업 1.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漸) 시기의 문화 현상 1) 음악 분야-피아노 2) 체육 분야-야구 3) 미술 분야-유화 2. 21세기 한국문화의 세계 진출 현황과 미래 지향적 가능성 1) 국악 2) 태권도 3) 대중음악 4) 영화 3. 서예의 세계문화시장 진출 가능성과 진출 시도의 필요성 4. 21세기 세계 문화시장의 플랫폼 사업 추세 1) 세계 10대 기업의 동향 2) 디지털 플랫폼과 한류 콘텐츠 5. 미술시장의 플랫폼화 가능성 1) 미술시장의 플랫폼화 현황 2) 미술시장의 플랫폼화 전망 6. 서예 시장의 플랫폼화 진단 | 증가 | 서예의 세계화가 가능한 배경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국서예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 III | | III. 서예의 '동세서점(東勢西漸)' 경향과 지속적 확산 가능성 1. 이탈리아 서예 단체 FEIMO 2. 러시아 세계서예박물관(世界書法博物館) 3. 프랑스 이응노 파리동양미술학교 4.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참여 서양 작가 | 증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예에 대한 서양의 관심 파악 |
| IV | ● 서예 문화의 과거와 현재, 위상 | IV. 현대 예술로서의 서예의 매력 1. 21세기에 서예가 세계적 예술이 될 수 있는 이유 2. 한자문화권의 예술정신 및 서예의 예술적 성격과 가치 1) 한자문화권의 전통 예술정신 2) 서예의 '순수'예술적 성격과 가치 3) 서예 '디자인'의 부가가치 4) 서예의 심신 수양과 심리치료 효과 5) 서예의 인성교육 효과 6) 서예의 '공연문화' 속성과 그 가치 | 보완 | 서예가 가진 고유 가치에 관한 판단 |

| 결과보고서 장 | A 과업지시서 내용 | B 결과보고서 내용 | 증감 | 증감 이유 |
|------------|--|--|----------|----------------------------------|
| V | | V. 왜 한국서예인가 1. 중국서예와 일본서예 1) 중국서예 2) 일본서예 2. 중국서예의 해외 진출 노력과 허점 1) 공자학원 2) 공자학원의 국제서예 활동 3) 중국서예 해외 활동의 문제점 3. 한국서예의 문제점과 장점 | 증가 | 한국서예의 우수성 진단 |
| V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현황 분석, 개선방안 ● 1997년 이후 12차 비엔날레의 성과 (참여작가 수 및 작품 추이 분석, 소장작품 1,619점의 가치, 경제적 파급효과 등) ● 세계 최초·최대 서예 예술 행사로서의 위상 유지 및 제고 방안 ● 한지산업(문방사우 산업)과 연계방안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확대방안 | VI.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실적 분석과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 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1) 1997년 이후 12차 비엔날레의 성과 2)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확대방안 2.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 1) 한국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세계서예 행사의 중심 2) 적극적인 해외 전시개최와 특강을 통한 세계화 3)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이미 시행한 서예전의 선례와 시행 가능한 서예전의 예 4) 서예와 타 장르와의 연계를 통한 세계화 5) 한국서예 연구와 연구실적 외역을 통한 세계화 | 수정 보완 |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 진단 |
| VI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필요성, 개요, 운영계획, 국비 지원 타당성 확보방안 ●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의 필요성 (상설전시, 기획전시, 소장작품의 체계적인 수장공간 확보, 기존 예술공간과의 차별성 등) ● 전용관 후보지(3곳 내외) 검토 및 공간 구성 ● 건립 후 운영계획 및 자립방안 ● 안정적인 국비확보 방안, 전용관 | VII.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국가사업 진행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필요성 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국가사업 진행과 안정적인 국비확보 방안 1) 광주비엔날레관 개관 당시의 국비 지원 현황 2) 청주공예비엔날레 개최 초기 국비 지원 현황 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자구(自救)노력 4) 서예교육과 서예진흥에 진력하는 중국 정부의 경우 2.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의 필요성 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시공간의 활용 면에서 2) 수장공간 확보 3) 상설전시의 필요성 면에서 4) 기획전시 면에서 5) 기존 예술공간과의 차별성-학술·연구·교육 공간 확대 3.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추진위 구성방안 1) 구성방향 2) 주요역할 | 수정 보완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국가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 강조 |

| 결과보고서 장 | A 과업지시서 내용 | B 결과보고서 내용 | 증감 | 증감 이유 |
|------------|---|---|----------|----------------------------|
| | 건립추진위 구성방안 | 4. 세계서예비엔날레관 후보지 검토 및 공간 설명 1) 비엔날레관 후보지 검토사항 2) 비엔날레관 3개 후보지 3) 비엔날레관 가능 사업부지 5.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후 운영계획 및 자립방안 1) 운영계획 2) 자립방안 | | |
| VIII | | VIII.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1. 세계기록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 및 절차 1)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 및 절차 2)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 및 절차 2.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가능성과 추진 방향 1) 한글공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 2) 한글서예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3)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방향 | 증가 |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필요 |
| I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예진흥법 개정을 통한 서예진흥원 및 서예진흥 관련 추진기구 설립 방안 서예진흥원 설립 시 조직 및 운영방안 전라북도 서예진흥 조례에 의한 서예진흥기본계획 수립 원론적 제안에서 탈피하여 실행 가능한 비전과 실행 과제를 포함하는 진흥계획 수립 연도별, 우선순위별 재정 확보 및 투자 세부계획 등 정부 서예진흥기본 계획 수립 시 세계서예비엔날레 관련 제안사항 | IX.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 필요성과 예상 기구의 운영계획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당시 준비 상황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서예진흥법')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 제안 당시의 쟁점 사항 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 3. 2019년 서예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서예진흥법 제정 이후의 당면 과제 5. 서예진흥법 시대, 서예의 학교 교육 확보방안 제안 1) 한·중·일 「쓰기」 교육 현황 2) 국어 교과 「쓰기」 교육의 서예로 대체 그 문화적 의미 3) 국어 교과 「쓰기」 교육을 서예로 대체했을 때의 활용 6.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 필요성과 가능성 1) 필요성 2) 가능성 7.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 예상 기구의 운영계획 1) 서예진흥법 제정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조직한 서예진흥위원회(서예진흥재단)와 긴밀한 협조 2)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을 위한 기구설립과 예상 조직의 구성 3) 서예진흥을 담당할 예상 기구의 운영방안 | 수정 보충 | 전북의 선점적 서예 진흥 전략 |



19C 서세동점(西勢東漸)과
21C 동세서점(東勢西漸) 속의
한국문화 동향과 플랫폼 사업

II. 19C 서세동점(西勢東漸)과 21C 동세서점(東勢西漸) 속의 한국문화 동향과 플랫폼 사업

19세기 동양 특히 한자문화권 문화는 서양에서 밀려든 문화에 의해 점령당하다시피 했다. 이 시기에 동양 사회는 ‘굴복이나, 파괴나’의 양자택일에 몰려 있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동양의 힘에 눌려있었던 서구 유럽은 새로운 과학기술과 당시의 최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동양에 진출하였다. 이후 동양의 각종 삶의 양식은 서구적으로 변모되었고, 그러한 경향은 21세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면이 많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거 100년 이상 일방적으로 이어온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경향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서 동세서점(東勢西漸) 즉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문화가 세계의 문화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음악,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에서 일고 있는 ‘한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동세서점을 대표하는 우리의 한류는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통하여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고 있는가?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A 분야의 현재 모습은 B 분야의 스승이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역사는 흘러간 사실을 기록한 사문서(死文書)가 아니라 이 시대를 비춰보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철학자 베네데토 크로체(Benedetto Croce, 1866~1952)는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All history is ‘contemporary history’)”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의 문화를 세계의 문화예술 시장에 내놓고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국토도 좁고 천연자원도 부족한 우리는 사실 가진 거라곤 우리 민족의 탁월한 문화적 감각과 역량, 그리고 그러한 감각과 역량으로 빚어낸 찬란한 문화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21세기를 글로벌 시대, 지식산업의 시대, 문화예술의 시대, AI의 시대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지식산업의 시대’, ‘문화예술의 시대’라는 말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지식산업과 문화예술이기 때문이다.

탁월한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난 19세기에 밀려드는 서양의 과학 문명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학 문명의 위세 앞에서 우리의 문화에 대한 자학과 함께 서양의 문화에 대한 선망의 도가 깊어졌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문화가 서양문화의 위세를 제치고 세계의 문화예술 시장에 우뚝 서기 시작했다. ‘한류’가 그 대표

적인 예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19세기에 서양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떤 모습이었고, 당시 서양문화를 보는 우리의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파악해야만 당시 우리가 서양의 문화에 경도되었듯이 오늘날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에 경도되게 할 수 있다. 19세기가 ‘서세동점(西勢東漸:서양의 문화 세력이 동양에 젖어 들어 옴)’의 시대였다면, 21세기인 지금은 ‘동세서점(東勢西漸:우리의 동양문화가 서양에 젖어 들어감)’의 시대이다. 19세기가 ‘서세동점’의 역사를 거울삼아 이제는 ‘동세서점’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1.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漸) 시기의 문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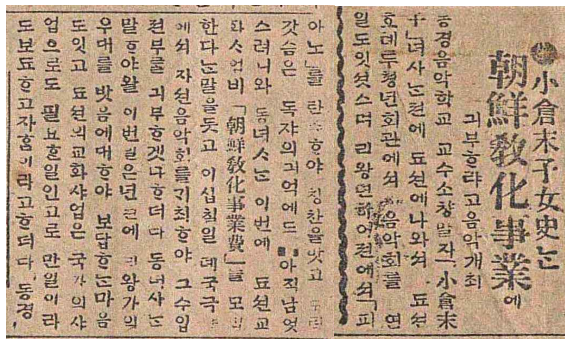
18세기 말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예술의 서세동점 현상은 막강하였다. 그 막강한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21세기에 태동하기 시작한 동세서점의 문화 현상을 지속해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19세기에 일었던 동세서점의 문화 현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절에서는 우선 19C 서세동점의 문화 현상을 음악, 체육, 미술 등 세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음악 분야-피아노

음악 분야에서 서세동점은 단연 피아노라 할 수 있다. 피아노는 이미 유입되어 있던 풍금(오르간)을 대체하며 한국 근대음악의 표상으로 등장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피아노가 들어왔을 때 통 속에서 나는 소리는 듣고 이를 마치 귀신의 소리로 여겨 당시 사람들은 피아노를 ‘귀신통’이라 불렀다고 한다.

피아노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최초의 피아니스트인 김영환(1893~1978)은 《남기고 싶은 이야기: 양악백년》에서 1894년 우리나라 광무국 기사로 초빙된 프랑스인 에밀 마르텔이 1905년 초 결혼을 하면서 피아니스트인 그의 아내 아말리가 가져온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음악이론가 손태룡은 이보다 5년이나 앞서 미국의 북장로교 해외선교사인 리처드 사이드보텀(한국명 사보담·史保淡)이 1900년 초에 가져왔다고 주장한다.²⁾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 피아노가 들어온 것은 1900년 전후로 보인다.

2) 파이낸셜뉴스, <이용득의 관문백물(26)- 우리나라 최초 피아노>, 2013.06.02.



① 〈小倉末子여사는 조선교화사업에 기부하려고 음악개최〉 每日申報, 1918.04.24.



② 〈梨花동산에 흐르는 노래 象牙鍵 위에 春魂이 亂舞 사람의 발 멈추는 피아노의 멜로디〉 每日申報, 1926.05.27

피아노는 다른 악기와 달리 보조 악기가 필요치 않고 독립해 있는 악기이다 보니 근대 시기 신 문화, 한국 근대음악의 표상으로 등장했다. 조선에서 열린 최초 피아노 독주회는 일본인 ‘코쿠라(小倉末子)’에 의해 이루어졌다. 매일신보(每日申報) 1918년 4월 24일 자 신문 기사를 보면 ‘코쿠라’가 조선 황실 어전에서 피아노 독주를 한 기사가 보인다. 피아노를 고급화 귀족화, 즉 ‘위엄’ 있는 악기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으로 한국 최초로 피아노를 소유’하고, ‘한국 최초의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사람은 김영환이다. 그는 매우 부유한 가정환경과 개화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가풍 속에서 자랐다. 선교사(W. M. Baird, 裴緯良)로부터 풍금을 배웠던 그는 1905년 13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도오요오(東洋) 음악학교와 도쿄(東京) 음악학교를 잇달아 졸업하고 1918년 귀국했다. 특히 그는 해방 후 한국 피아노 연주계의 대모 격인 김원복과 이애내를 길러내게 된다.

피아노는 ‘다른 악기와 다른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보조 악기가 필요치 않고 독립해 있는’ 악기였다. 특히 1916년 조선 최초의 독주회를 연 코쿠라(小倉末子)의 무대는 피아노를 고급화 귀족화, 즉 ‘위엄’ 있는 악기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조선 황실의 관심과 더불어 신문 잡지의 대대적인 관련 보도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피아노는 오랫동안 ‘매우 귀한’ 악기이자, ‘선택된 자’만의 악기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악기였다. 나아가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악기이기도 했다. 이로써 음악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저급’에서 ‘고급’으로, 음악인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음악개념은 전통음악에서 서양음악으로 바뀌었다. 즉 피아노는 신문명의 첨병이자, 조선 근대음악의 표상으로 화려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초기 피아니스트들의 음악 입문은 주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및 근대식 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기독교 문화를 통한 서양음악의 세례였다. 당시 기독교 계통의 학교로는 숭실전문 음악부, 연희전문 음악부, 이화여전 음악과 등이 존재했다.

평양의 숭실전문 음악부는 주로 선교를 목적으로 한 음악 활동을 했지만, 서양음악이 조선에 뿌리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숭실전문 음악부는 1909년에 내한한 선교사 마우리(E. M. Mowry, 전공은 화학, 한국명은 모의리(牟義理) 박사에 의해 변화를 거듭했는데, 여기에 합창단 음악대·찬양대는 물론, 소녀합창단·취주악대를 만들어 서양음악의 저변 확대를 꾀했다.

당시 동아일보에 게재된 박경호, 김매리의 피아노 독주회 보도를 통해 피아노 독주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처음 ‘귀신통’이라 불렸던 피아노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근대음악을 대표하는 대상이자 신문명에 대한 동경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❶ 〈김매리嬢 피아노獨奏會-八時부터 貞洞 모리스홀에서 助演은 韓福德嬢〉 동아일보, 1935.02.09



❷ 〈樸慶浩氏 피아노독주회 성황 간밤 공회당서〉 동아일보, 1933.06.03

현진건의 소설 〈피아노〉(1922)를 보면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일본유학과 남자와 중등교육을 받은 여자가 이상적 가정을 꾸미는 과정이 묘사된다. 부부는 자신들의 신분에 맞는 신가정의 필수 구비 품으로 피아노를 장만하지만 실상 피아노를 다룰 수 있는 이는 집안에 없으므로 자신들이 집에서 피아노에 앉아있는 모양새만으로도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교양 있고 부유한 지식인의 스위트 홈을 상징하는 가구였고, 문화적 과시 거리였다. 노동과는 상관없는 활동을 하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부유한 인텔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소품인 피아노가 있었고, 피아노는 서구 사회에서 같이 ‘가족애’와 ‘사생활’의 표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피아노는 일본을 통하여 유입된 후 보급이 늘어난 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계급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이상의 지위와 교육수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악기로 인식됐다. 따라서 중산층의 성장이 대두되던 시대의 각 가정의 거실에는 피아노가 장식품처럼 놓여 있었으며 현재에도 고급 호텔의 라운지나 고급 아파트의 모텔하우스, 또는 새롭게 리모델링한 명문 대학의 라운지에는 고가의 그랜드 피아노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19세기 서구에서 피아노가 교육 잘 받은 여자아이의 상징이었듯이, 한국에서 역시 피아노는 중산층 이상의 경제와 교육수준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피아노는 해방 후와 한국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상류계급을 유지했던 일본강점기 지배계급의 악기였고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 발전기에는 피아노는 수출 주력 상품이 되어 국내에서도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산층 성장이 뚜렷이 나타났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피아노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피아노는 대중의 교양이 되었다.

대중의 교양이 되어 버린 피아노는 마치 우리의 음악교육의 지표이자 문화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 문화가 되고 있다. 즉 피아노 교육, 소양을 통해 우리 사회계층의 양극화, 계급 간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 구조의 불편한 단면을 드러내며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³⁾

2) 체육 분야-야구

체육 분야에서 서세동점은 야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를 소개한 영화 <YMCA 야구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송강호와 김혜수가 주연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야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 제 목 YMCA야구단
- 개봉일 2002.10.03
- 출 연 송강호, 김혜수, 김주혁, 황정민
- 내 용

<YMCA 야구단>의 배경은 조선 시대 말기이다. 1900년대 초 조선 시대 말기 양반들은 나라의 혼란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견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양반은 몸을 경박스럽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반이었던 주인공 이호창(송강호 역)은 몸을 움직이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주인공 호창이 공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본 미국인 선교사는 호창에게 야구를 알려주게 되고 이후 남

3) 음악 분야-피아노에 관한 내용은 <피아노 도입기 수용계층의 특성과 피아노의 사회문화적 의미> (서우선, 《음악과 민족》, 2007), <피아노와 근대 -초기 한국 피아노 음악의 사회사>(김미현, 《음악학》, 2010), <한국 사회에서의 피아노의 문화적 의미: 예술적 취향에 내재한 계급성을 중심으로> (박해성, 《한국예술연구》, 2014) 논문을 참고하였다.

주인공 호창과 신여성인 여주인공 정림을 주축으로 YMCA 야구단이 결성된다. 조선 최고의 야구단으로 자리매김한 그들은 점차 승승장구하게 된다.

당시 역사 상황에서 일본은 을사조약을 맺기 위해 강압적이고 굴욕적인 거사를 단행하고, YMCA 야구단은 일본군 야구단과 대결하게 된다. 이 영화는 일본 야구단과의 대결, 그리고 패배와 재대결, 야구단 해체 등을 다루며 일제 강점기 시대의 우리 아픈 과거를 잘 녹여내고 있다.

이 영화에 등장한 미국인 선교사는 P.L.길레트(한국 이름 ; 吉禮泰), 그가 황성기독교청년회 회원들에게 야구를 지도한 것이 한국 야구의 시초이다.

우리나라 야구의 최초 경기는 1906년 황성기독교청년회와 독어학교(獨語學校)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1909년 도쿄(東京) 유학생 팀이 국내에서 선풍을 일으켰고, 1910년대에는 황성기독교청년회를 비롯하여 도쿄 유학생 팀, 휘문의숙, 한성외국어학교 등 여러 팀이 창설되었으며, 1920년에는 조선체육회가 창립되어 본격적인 활기를 띠었다. 1922년 12월 미국 프로야구팀을 국내에 초청하여 전조선군(全朝鮮軍)과 친선경기를 벌여 미국 프로팀에 21대 3으로 대패하였으나, 승부를 떠나서 본고장 야구의 뛰어난 기술을 접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다. 1923년 5월 23일 윤치영, 이원용, 허성, 이석찬, 유용탁 등에 의해 조선야구협회가 창설되었고, 1930년 9월에는 야구심판협회가 결성되어 야구계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이영민은 일본에 가서 크게 활약하기도 하였다. 국내 야구계는 일제의 탄압으로 활동이 일시 정지되기도 하였으나, 그 뒤 1945년 10월 조선야구협회가 재조직되었으며, 1946년 9월 휘문, 경신, 배재, 중앙 등의 4개 팀이 서울운동장에서 리그 부활전을 열었다. 한국은 1954년 11월 국제야구연맹에 정식 가입하였고, 대표팀의 최초 결성은 195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야구선수권대회에서였다. 그 뒤 한국 야구는 고교 야구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1982년 프로야구의 탄생을 계기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저변 확대에 힘입어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미국, 일본, 쿠바 등의 강팀을 물리치며 9전 전승으로 우승,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⁴⁾

이후 박찬호, 김병현, 추신수, 류현진 선수 등 많은 한국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고, 2020년 미국 최대 스포츠 전문 방송사인 ESPN에서는 KBO리그를 중계하는 등, 한국 야구는 점차 발전해가고 있다.

4) Daum 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62XX53500035>

| 연도 | 활동 내용 |
|-----------|---|
| 1906년 | 최초의 야구 경기(황성기독교청년회와 독어학교) |
| 1910년 | 여러 야구팀 창설(황성기독교청년회, 도쿄 유학생, 휘문의숙, 한성외국어학교 등) |
| 1920년 | 조선체육회 창립 |
| 1922년 12월 | 미국 프로야구팀 초청, 전조선군(全朝鮮軍)과 친선경기, 21대 3으로 대패 |
| 1923년 5월 | 조선야구협회 창설 |
| 1930년 9월 | 야구심판협회 결성 |
| 1945년 10월 | 조선야구협회 재조직 |
| 1946년 9월 | 휘문, 경신, 배재, 중앙 등의 4개 팀 서울운동장에서 리그 부활전 개최 |
| 1954년 11월 | 국제야구연맹에 정식 가입 |
| 1954년 | 대표팀 최초 결성, 필리핀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야구선수권대회 참가 |
| 1982년 | 프로야구의 탄생 |
| 1994년 | 박찬호 선수 시작으로 한국 선수들 메이저리그(MLB) 진출 (김병현 1999년, 추신수 2000년, 류현진 2012년 등) |
| 2006년 |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우승 |
| 2008년 | 베이징올림픽 야구 금메달 |
| 2019년 | 류현진 선수 MLB 사이영상 2위 |
| 2020년 | 류현진 선수 워런 스판 상, MLB 사이영상 3위, ESPN에서 KBO리그 중계 |

3) 미술 분야-유화

미술 분야에서 서세동점은 유화의 수용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90년에 헨리 세비지 랜더(Henry Savage Lander)라는 영국 화가가 서울에 와서 유화를 그리고, 민영환은 그의 그림을 고종 황제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1899년 미국 국적을 가진 네덜란드인 화가 휴버트보스(Hubert Vos)는 정동에서 광화문이 보이는 방향으로 유화 〈서울풍경〉을 그렸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서양화를 그린 사람들은 외국 화가였지만 이후 1910년 고희동이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면서부터 한국인에 의한 서양화가 그려지게 된다.

춘곡(春穀) 고희동은 한국 서양화 발전에 초석을 닦았던 인물로서, 구한말과 한국 근대 회화를 잇는 화가로 평가받는다. 고희동은 1909년 한국 최초의 미술 유학생으로 동경으로 건너가 1915년 동경미술학교에서 수학한 후 귀국하였다. 귀국 후 그는 신미술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심한다. 1918년 당시 서화계의 중진과 대가들을 종용하여 최초의 한국인 서화가들의 모임이자 근대적인 의미의 미술 단체인 서화협회를 결성하였다(초대회장 안중식, 총무 고희동). 서화협회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회원 작품전으로, 1921년 중앙고등보통학교 강당에서 제1회 서화협회전이 열렸다.

이것이 대중을 상대로 한 최초의 근대적인 전시회였다. 회원전과 더불어 계몽 사업으로 한국 최초의 미술지인 《서화협회보(書畫協會報)》를 창간하였다.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정원에서」라는 제목의 유화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3회전부터는 조선미술전람회를 거부, 그 뒤 줄곧 서화협회만을 이끌었다.⁵⁾



④ 〈청춘〉 표지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1886-1965)의 표지그림.

우리나라 최초의 유화 화가였던 고희동에 이어, 김관호(1911), 김찬영(1912) 등이 동경미술학교에 유학하면서 서양화를 도입하게 되고 그 이후 서양화는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양화 1세대가 형성되었다.

유홍준 교수는 〈[문화의 창] 문화재 쇠국이 국격을 떨어트리고 있다〉⁶⁾에서 우리 문화의 해외전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문화재는 그 나라 문화외교관 / 환수 노력만이 능사가 아니다
- 독일미술관 일본실의 10분의1 / 문화재 쇠국의 빗장을 풀어야

우리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보면 죄다 환수해야 한다는 ‘애국심’을 발동한다. 그러나 식민지시대 피해 의식으로 두른 보호벽이 인제 와서는 세계화를 막는 장벽으로 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문화재는 국내외에서 비참할 정도로 저평가되고 있다. 엇그제 열린 한 국내 옥션에선 1500년 된 가야토기가 30만 원에 낙찰될 정도인데 크리스티와 소더비 경매는 몇 해 전부터 한국 유물은 구하기 힘들어 폐쇄하고 일본미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4097>

6) 중앙일보, 〈[문화의 창] 문화재 쇠국이 국격을 떨어트리고 있다〉, 2020.12.24.

술 경매 때 ‘부록’처럼 시행하고 있다.

약탈문화재는 끝까지 찾아와야 하고 중요문화재는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인사동 고미술상 진열장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일반적인 유물은 해외로 나아가는 길을 과감히 열어주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정 문화재를 사랑하는 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값이 싸도 유물을 사지 못한다. 영국 사람이 가야토기를 사 가면 영국 토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사람도 가야토기를 사랑할 정도로 우리 문화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본래 한 나라의 문화재는 이역 땅에서 그 나라의 문화 외교사절 역할을 하는 법이다. 이제 우리는 문화재가 해외로 나아가 한류의 나라, 대한민국이 역사와 전통에서도 문화 강국임을堂堂히 증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야구, 피아노, 유화와 같은 서세(西勢)가 동점(東漸)한 것처럼 우리의 동세도 서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홍준 교수의 언급과 같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19세기 ‘서세동점’을 이끌었던 서양 사람들의 전략과 정책을 대략 살펴본 결과 오늘날 ‘동세서점’을 주도해야 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 외국 유학생 유치
- 현지 한국 교민 활용
- 외국 문화 사절단과 문화부 관계자 초청
- 외국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정기 간행물 발간
- 현지 학교 교육을 통한 한국문화 보급과 확산
- 외국 현지에서 개인 스타 연주자 양성-현지 교민 인력 활용
- 외국 현지에 한국문화 창작 도구 및 재료(문방사보) 판매망 구축
- 외국 현지에서 우리 문화재 유통망 조성

이러한 세 분야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국민이 얼마나 낯설어했는가?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이러한 분야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가. 이러한 문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문화의 역수출 가능성은 매우 강력해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우리 문화의 동세서점 현상은 이러한 사업에 주목하고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근대화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우리 문화의 동세서점 현상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2. 21세기 한국문화의 세계 진출 현황과 미래 지향적 가능성

21세기 들어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은 ‘한류’라는 이름 아래 세계가 놀랄 만큼 반향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다. 한류는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서예를 통한 새로운 한류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근대화 이후 현재까지 우리 문화가 이룬 동세서점 현상을 먼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리 문화가 이룬 동세서점 현상의 대표적인 예를 전통국악, 태권도, 대중음악, 영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악

근대를 전후로 전통음악의 공식적 해외 진출은 근대화 시기 서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의 국악 전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93년 미국 ‘시카고 세계 콜롬비안 박람회(World’s Columbian Exposition)’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박람회에는 ‘제조와 교양관(Manufacturers and Liberal Arts Building)’의 테마 전시관 안에 조선관이 설치되었고, 68종에 달하는 조선의 물품과 더불어 거문고, 양금, 해금, 당비파, 대금, 향피리, 세피리, 장고, 용고, 생황 등 10종의 한 국악기가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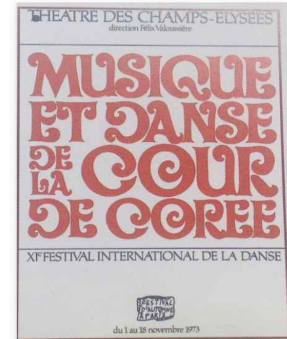
세계만국박람회 참가는 세계강국과 제국주의의 각축 속에 국력이 쇠퇴한 조선의 존재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자 했던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국악의 국제교류는 1960년대로부터 본격화되었다. 1960년 초반 민속악인 박귀희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회 국제민속예술제(세계민속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민간단체 〈한국가무예술단〉을 창단하고 박록주, 박초월, 안비취, 이소향, 김윤덕, 신쾌동, 장영찬, 한범수, 성금연, 지영희, 김소희, 한일섭, 김덕수, 지순자 등의 민속악인들로 단원을 구성하여 가무극 “춘향전”을 공연하였다. 프랑스 공연 이후 1960년대 〈한국가무예술단〉의 주요 해외공연 무대는 일본이었다. 1951년 국립국가단체로 개원한 〈국립국악원〉의 첫 해외공연도 1964년의 일본 순회공연이었다.



① 일본 요미우리신문
초청공연(1964)



① 대만 '국악학회 공작학회' 초청
순회공연(1967)



① 프랑스 동양예술위원회 초청
유럽 순회공연 팸플릿
(1973.09.06.~11.22.)

1968년 9월 30일에 국악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난다. 박동진(1916~2003) 명창이 국립국악원과 유엔군사령부방송 공동주최로 열린 제5회 방송의 날 기념 공개녹음방송에서 판소리 〈홍보가〉를 5시간에 걸쳐 완창한 것이다. 그는 우리 시대에 대중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불세출의 판소리 명창이다. 이 녹음방송은 이전까지 토막소리[판소리의 전 바탕이 아닌 일부분을 부르는 것]로 혹은 대목으로만 부르는 것으로 여겼던 판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완전히 뒤집은 획기적인 시도였다. 그는 이 무대에서 판소리 무대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으며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서울신문 1969년 5월 21일 자)이었다. 이로 인해 완창판소리 공연의 전통과 판소리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⁷⁾



① 박동진의 판소리(1984년) 국립국악원

박동진 명창은 판소리 다섯 바탕을 완창하여 고사 위기에 있던 정통 판소리를 되살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변강쇠타령〉과 〈배비장타령〉 등을 복원하고, 〈구주 성탄〉 등의 성서판소

7) 김경희, <공연으로 풀어보는 「국립국악원」의 역사적 순간>, 국립국악원.
<https://artsandculture.google.com/exhibit/0QLCd3phUQbsLw?hl=ko>

리와 〈춤무공 이순신〉(1973년) 등의 창작판소리를 발표하여 판소리의 세계를 넓혔다. 그는 판소리 완창시대를 열어 전통 판소리를 되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더불어 판소리 대중화에 앞장서, 판소리 홍보대사라고 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 모 제약회사 광고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멘트는 판소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가지고 왔다.

판소리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확인받으면서 2003년 11월 7일 유네스코 ‘인류구전무형유산결작(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우리의 국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악계 국제교류활동의 주요성과로는 1980년대 김덕수 패 사물놀이의 활동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1978년 김수근이 개관한 소극장 공간사랑에서 당시 극장장이던 강준혁의 기획 프로그램에 사물놀이라는 명칭으로 성공적 데뷔 공연을 가졌다. 1982년 미국에서 첫 국제 데뷔 무대를 가진 사물놀이는 그 이후로 국악 세계화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국내외로 사물놀이 열풍을 이끌었다. 사물놀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목표로 매니지먼트를 설립하고 전문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공연, 워크숍, 축제, 교육기관 설립, 국제대회 등을 지속해서 기획하였다. 그리고 해외 한인과 대학을 중심으로 사물놀이, 풍물단체가 설립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물놀이의 세계적 성공은 이후 해외로 진출하려는 단체들의 적절한 롤모델의 역할을 하였고 이는 현재 활발히 해외에서 활동 중인 〈들소리〉 〈노름마치〉 〈공명〉 〈소나기 프로젝트〉와 같은 단체가 사물놀이의 후예라는 점이나 〈난타〉와 같은 사물놀이의 변용물의 등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K-pop과 한류의 세계적 소비가 목격되면서 국악은 ‘국악의 세계화’ ‘국악한류’ ‘K-music’을 모토로 새로운 국가홍보의 첨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⁸⁾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홍보 동영상에 인터넷에서 화제다. 바로 이날치 밴드의 음악에

8) 국악에 관한 내용은 〈‘박람회’라는 전시공간: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와 조선관 전시〉(김영나,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2000), 〈국악의 세계화〉(김희선, 《공연문화연구》, 2013.), 〈박동진 명창의 삶과 현대 판소리에서의 위상〉(김석배, 《무형유산》, 2019.) 논문을 참고하였다.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안무가 결들여진 ‘Feel the Rhythm of Korea’(한국의 리듬을 느끼세요) 시리즈다. 해외 광고 영상 시리즈가 누적 조회 수 3억 1만 회를 돌파했다. 안무팀이 서울, 부산, 전주 등 한국 도시의 명승지를 찾아가 춤추는 영상이다. 이날치의 판소리 창법, 힙합한 비트의 ‘범 내려온다.’라는 곡과 기괴한 또는 B급 댄스가 어우러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자 국내에서도 신드롬이 터졌다.

이날치는 명창 이경숙을 일컫는 표현이다. 이경숙은 조선 후기 판소리 8대 명창 중의 한 명으로 몸이 날래서 ‘날치’라고 불렸다 한다. 이날치 밴드는 2019년 결성 당시 바로 그 이날치 명창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지었다. 기존 국악보다 날랜 소리, 즉 현대화된 퓨전 국악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범 내려온다.’는 ‘1일 1범’이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났을 정도로 높은 중독성을 자랑한다.⁹⁾ 원곡은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으로 별주부 자라가 토끼를 “토선생!”이라고 부르려다 힘이 빠져 “호선생”이라고 부르자, 호랑이가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해 산에서 내려온다는 내용이다. 웃음을 자아내는 대목인데 그것을 경쾌한 리듬으로 풀어내며 역시 우스꽝스러운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안무를 결합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B급 콘텐츠의 특징을 잘 살려 표현했다.

이러한 이날치 신드롬 핵심은 판소리다. 판소리는 애간장을 녹이는 소리부터 랩을 방불케 하는 흥겨운 소리까지 다양한 요소를 품고 있는 소리 예술의 보고임을 잘 보여준다. 그중의 일부를 재가공한 것만으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국악의 생명력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악은 현대적 변용을 통해 얼마든지 트렌드의 최전선에 설 수 있고, 서구인들 예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문화로 충격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¹⁰⁾

2) 태권도

우리 역사에서 태권도의 기원은 고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권도는 상고시대부터 자기방어 혹은 공격법인 ‘태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삼국시대 기록 및 유산에서도 태권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의 장수 왕, 소수림왕은 무술을 중시하여 관련 기관을 세우고 무술교육을 진흥했다고 한다. 백제의 경우 고구려와 신라보다 실증 자료는 부족하나, 삼국의 문화적 동질성과 승무를 근본이념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통해 태권도가 행해졌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신라에서는 화랑도를 선발하는데 태권도가 한 종목이었으며, 석

9) 미디어스, 〈SBS 스페셜- ‘1일 1범’은 기본, 이것이 조선의 힘! 이유 있는 이날치 신드롬〉, 2020.11.23.

10) 디지털타임스, 〈하재근의 족집게로 문화집기 ‘범 내려온다’ 이날치 신드롬〉, 2020.11.17.

굴암 금강 역사탑에 부조된 보살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태권도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려 시대의 태권도는 ‘수박희’라는 이름의 무예로 존재했다. 고려사에 따르면, ‘수박희’는 대중적으로 행해졌으며, 왕 앞에서 ‘수박희’를 경기하는 때도 있었다. 태권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잠시 힘을 잃었다가, 광복 이후 다시 되 살아나게 된다. 이승만 전 대통령 대에 대통령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임으로써 한국의 독자적 무예임을 증명해 보이고, 1954년에 비로소 ‘태권도’라는 명칭을 채택하게 되었다.

‘태권도’라는 말은 1955년에 최흥희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택견의 음을 취하고 여기에 도를 더하여 ‘태권도’라는 명칭을 명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태권도는 당수도 택견 공수도 권법 화수도 수박도와 마찬가지로 한 일파에 지나지 않았다. 최흥희는 1950년 후반 청도관과 오도관을 중심으로 태권도회를 조직하였고, 1959년에 태권도협회를 창립하였다.

이후에도 무도 단체들의 난립은 계획되었지만 1961년 문교부에서 유사단체 통합을 추진하여 1961년 9월 대한태수도협회를 창립했다.

이후 태권도는 1963년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1971년에는 국기(國技)로 지정되는 등 발전을 계속한다. 이후 1972년 국기원 개원,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태권도는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화의 길목으로 접어들게 된다.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이후, 태권도는 국내외 단체와 사범들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스포츠 종목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1975년 태권도는 미국체육회(A.A.U.)와 국제경기연맹연합회(GAISF)의 정식종목이 되었고, 1980년 IOC 총회에서 마침내 태권도를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채택할 것을 승인한다. 이후 태권도는 1988년 서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선보이고, 세계태권도연맹은 1995년 하계올림픽종목협의회(ASOIF)에 가입하게 된다.

태권도가 한국의 무도에서 세계적 무도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전환점이 있었다. 첫째는 심신을 수련하는 무도에서 무도 경기로 발전이다. 즉 스포츠를 대표하는 변화된 발전인 것이다. 둘째는 태권도 사범들의 해외 파견과 진출을 통해서 얻은 태권도 세계화이다. 태권도 사범의 해외 진출은 태권도 세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그중에서도 군 태권도 해외 파견과 민간의 해외 진출은 군사외교 강화와 양국 간의 친선 도모, 민간외교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범파견에 있어서 주요국가는 월남과 미국이었고, 그 외에도 대만, 이란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의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태권도 보급을 통한 국가 간에 친선 도모와 군사외교 강화를 위하여 군 우수 태권도 교관 파견 중 가장 대규모는 월남전이었다. 우리 정부는 1962년부터 1972년까지 10년간 547명의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여 모두 350,000명에 달하는 교육생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 정부 차원에서 세계 18개국을 순회하는 태권도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국무회의를 거쳐 13명의 태권도 사절단의 순회계획을 의결하고 1965년 3월 20일

부터 5월 20일까지 60일 동안 이태리,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세네갈, 다호메이, 아이보리코스트, 에디오피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레바논,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통일아랍공화국 등 18개국에 보내어 민간외교를 벌이기로 했다. 1973년 기준으로 해외 파견 태권도 사범의 수를 보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는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월남, 태국, 호수, 홍콩 등 11개국에 2백 명 진출했으며 북미주에서는 미국, 캐나다 등 2개국에 3백32명이, 유럽에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중동지역에는 이란 터키에 10명이 파견되었었다. 태권도 사범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 정부 주도로 월남파견을 시작으로 월남에 많은 태권도인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미국진출은 민간 태권도 사범들이 직접 미국에 가서 우리 태권도를 미국인에 알리고, 대중화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태권도는 확고한 올림픽 스포츠로 자리를 잡는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기점으로 태권도는 공식종목으로 인정받게 된다. 2005년 IOC 총회에서는 태권도를 2012년 런던 올림픽에도 정식종목 유지를 결정하였고, 2009년 총회에서는 2016년 리우 올림픽의 26개 핵심종목 안에 들게 된다. 또한, 2015년에는 ‘2020 도쿄 패럴림픽’에도 태권도가 포함되게 되었다.

정부 역시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90년 외교통상부는 국제협력단을 통해 태권도 봉사단원들을 세계 각지에 파견하고, 1991년 정부에서는 사범파견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6년에는 태권도원 조성 계획을 시작하여, 2005년 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 태권도진흥재단(2012년 ‘태권도원’으로 개명)을 창립하고, 태권도진흥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후 2014년 태권도원이 개원되었으며, 정부는 태권도를 한글, 아리랑과 함께 3대 문화브랜드로 선정하여, 태권도를 세계화의 중심에 두고 있다.¹¹⁾

3) 대중음악

1990년대 말부터 중국과 동남아의 화교권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유행문화’의 열기를 일컫는 ‘한류’란 단어는 중국에서 ‘한국 유행문화’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써 ‘다른 문화가 매섭게 파고든다.’라는 뜻의 한류와 동음이의어로 통용되며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중국에서 시작된 한류는 홍콩,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전역과 더불어 일본까지 확산하였다. 2000년 이후 대중문화의 장르별 또는 지역적 확산에 머무르지 않고, 김치, 라면, 고추장, 김, 자동차 등 한국 관련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했다.

11) 태권도에 관한 내용은 <태권도 세계화 방안에 대한 제언-세종학당의 사례를 중심으로>(김중섭, 《국제태권도컨퍼런스》, 2017.), <광복 이후 요람기부터 성장기까지(1945~1979) 태권도변천사>(양현석, 《체육사학회지》, 2004.) 논문을 참고하였다.

한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하나의 문화 흐름이 되어 문화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한류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주요 한류 수용국가로 ‘겨울연가’, ‘대장금’ 등 드라마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K-POP 열풍으로 이어졌다.

2012년 K-POP 열풍의 중심이었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은 글로벌화에 성공하였다. 미국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랐던 〈강남스타일〉, 주목할 것은 재미있고 신나는 춤사위, ‘말춤’이 인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동서양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가 말춤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팬들은 그 동작을 따라 하거나 변화된 스타일을 만들어내며 즐거워했다. 내부의 시각으로는 한류 팬들이 K-POP을 선호하는 이유가 ‘잘생긴 외모, 멋진 춤동작, 기억하기 쉬운 가사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기존의 K-POP 스타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급속히 한류를 확산시켰다. B급 문화를 지향하는 싸이가 악동 이미지로 세계인의 인기를 얻었다.



❶ MBC 시사매거진, 〈음원 시장에서의 강남 스타일의 수익률〉, 2012.10.04

한 언론의 분석을 따르면, 〈강남스타일〉은 음악 자체가 최신 팝트렌드(일렉트로니카)를 담고 있으며,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콘텐츠의 힘’이라고 해석했다. 물론 일차적 재료인 음악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의 의미를 모르는 외국 팬들조차 음악과 함께 ‘말춤’에 열광했다.

많은 언론은 〈강남스타일〉을 1996년 〈마카레나(macarena)〉 열풍에 비유하고 있다. 라틴 댄스 뮤직인 마카레나는 비영어권 노래로 박자와 리듬이 〈강남스타일〉과 유사하다. 〈마카레나〉는 노래와 어우러진 그 절묘한 리듬감 때문에 저절로 몸을 들썩이며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는데, 그 중독성이 〈강남스타일〉을 능가한다. 〈강남스타일〉은 2류가 잘난 사회에 던지는 은근하고 유쾌한 메시지로, 또는 모두가 따라 할 수 있는 단순한 안무가 있는 신나는 음악으로 대중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분석된다.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부족함(B급)이 독특함(당당함)을 창출해낸 결과로, 대중들이 공감하며 즐기는 메시지가 있는 음악을 만든 싸이의 세련된 음악성과 유투

브(Youtube)가 만난 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음악의 트렌드는 항상 변한다. 세상은 새로운 음악을 원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세계적 보편성은 개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그리고 <강남스타일>처럼 춤으로 차별화한 독특한 뉘앙스가 있는 음악이어야 한다. <강남스타일>의 ‘말춤’은 군무에 적당할 뿐만 아니라, 음악도 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교창 패턴을 이용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가수와 관중이 하나 될 수 있고, 가수가 관중을 음악에 몰입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특정 곡을 중심으로 한 일회성 인기였다면 BTS는 곡을 넘어 그룹 자체에 인기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할 만하다. 소녀시대나 원더걸스 같은 걸그룹의 미국진출도 과거 관심을 끌긴 했지만, 오늘날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얻고 있는 인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K-POP 보이그룹 중 하나였던 방탄소년단은 다른 팀들과 차별된 콘셉트와 매력을 어필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그들은 한동안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글로벌 한류 열풍을 되살린 주역이 되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에 방탄소년단이 보여주는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 아티스트 재능 그리고 팬들과 소통하는 방법 등 그들의 모든 행보는 그들이 속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서서 기업 경영과 마케팅 전략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대중문화의 중심지 미국에서 새길을 개척하고 있다. 비 영어로 녹음된 앨범이 한 해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두 번이나 오르기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 방탄소년단(BTS) '다이너마이트', MV 8억뷰 돌파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련된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상품으로 만들어져 대중적 인기를 얻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며 한국의 드라마를 시작으로 영화, 음악, 패션, 음악 등 한국의 대중문화 스타를 동경하고 배우려는 현

상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가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의 대중음악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음반 ‘한류(韓流)-Song from Korea’를 제작-배포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처음 ‘한류’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한류는 특정 시기에 발생하여, 정해진 국가나 장소에서, 일정 기간 규격화된 형식과 내용으로 유통된 과거 완료형 문화콘텐츠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발전하는 현재진행형 문화 현상이다.

방탄소년단의 영향력 덕분에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팬들은 한국어로 방탄소년단 노래를 열창하며 K-POP, K-Movie, K-Drama 등으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의 긍정 노랫말이 방황하는 지구촌 청춘에게 위로와 힘을 주며 선한 영향력도 확산시키고 있다.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은 2012년 9월 ‘빌보드 차트 핫 100’ 2위에 올라 한국 가수 최고의 빌보드 순위로 기록됐다. 당시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에 말춤 신드롬을 일으키며 약 1조 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방탄소년단은 음반에 수록된 한 곡의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차트 핫 100’이 아닌, 여러 곡이 수록된 음반의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200’에 자신들의 음반 LOVE YOURSELF 轉 Tear 전체를 1위에 올렸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의 경제 가치는 싸이를 훨씬 뛰어넘는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¹²⁾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은 2018년 10월 22일에 발간한 최신희 커버에 방탄소년단 사진을 실었다. 타임은 방탄소년단에 대해 ‘비틀스, 윈디렉션과 같은 심쿵(heartthrob)한 외모, 귓가에 맴도는 노래로 뉴키즈온더블록, 엔싱크와 같은 춤으로 BTS는 마니아들을 끌어모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밴드가 됐다.’라고 했다.¹³⁾

12) 대중음악에 관한 내용은 〈한류예술산업의 세계화 동향과 전망 : K-POP, 국내 배우의 할리우드 진출을 중심으로〉(이호규, 《콘텐츠 문화》, 2013.), 〈K-Pop의 춤에 관한 소고: 〈강남스타일〉을 생각하며〉(이봉재, 《대중음악》, 2012.),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팬덤과 성공 요인 분석〉(윤여광,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19.) 논문을 참고하였다.

13) 조선일보, 〈‘차세대 리더 BTS’ 타임誌 표지까지 진출〉, 2018.10.12.

U 〈한류의 시기별 확산 현황〉¹⁴⁾

지난 20년간 발자취에 따라 한류는 1.0~4.0으로 나뉜다. 다만 정확한 정의가 없어 연구자마다 규정하는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굵직한 변곡점이 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한류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시기 | 주요국가 | 대표 콘텐츠 |
|--------|------------|--------------------------------|--|
| 한류 1.0 | 1997~2000년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ra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이 뭐길래’ 1997년 중국 CCTV 방영 : 시청자 수 최고 3,900만 명 : 역대 수입 외화 시청률 2위(4.3%) • K-P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T 음반 중국 정식 발매 *1999년 11월 북경청년보서 ‘한류’라는 용어 처음 사용 |
| 한류 2.0 | 2001~2009년 | 중국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ra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NHK ‘겨울연가’ 방영 → 온사마 열풍 - ‘대장금’ 중국 시청률 14% - 중국 내 시청률 높은 해외 드라마 10편 중 6편이 한국 드라마 • K-P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수 보아 일본 ‘오리콘 차트’ 앨범 부문 1위 - 동방신기 한국 그룹 최초로 도쿄돔 단독 공연 *‘신한류’ ‘반한류’ ‘혐한류’ ‘항한류’ 용어 등장 |
| 한류 3.0 | 2011~2016년 | 중국 일본 프랑스 동남 아시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ra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에서 온 그대’ 중국 열풍 - 중국 ‘태양의 후예’ 신드롬 → 중국 내 26억 뷰(view) • K-P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타운’ 파리 콘서트 - 싸이 강남스타일 ‘빌보드 핫 100’ 차트 7주 동안 2위 *중국 ‘사드 문제’로 한한령 → 한류 상품 사실상 수출 금지 |
| 한류 4.0 | 2017~ | 전 세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탄소년단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초청 - 방탄소년단 ‘빌보드 200’ 두 차례 1위 |

4) 영화

한국영화는 100년 남짓의 역사가 있다. 한국영화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아시아를 넘어 영화의 본고장 미국 할리우드까지 진출해 ‘케이(K)무비의 세계화’를 꿈꾸고 있다.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에는 한국영화를 세계에 알린 거장들이 있었다. 특히 2020년 2월 10일, 봉준호 감독의 우리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오르며 한국영화 사상 기염을 토하는 결과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수상은 한국영화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92

14) 경향신문, 〈창간기획-한류 20년의 발자취 편견과 혐한 뚫은 창·열정...대중문화 전 방위로 영역 확대〉, 2018.10.04.

년 아카데미 역사까지 바꾸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화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최초의 한국영화는 1919년 10월 27일 상영한 단성사의 〈의리적 구토〉이다. 극단대표였던 김도산이 연출하고 박승필 제작한 작품으로 한국의 자본과 한국인이 주축이 되어 제작한 영화이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27일을 영화의 날로 제정하였다.

세계 영화인에게 한국영화의 우수성을 가장 먼저 알린 감독은 바로 임권택 감독이다. 2000년 〈춘향전〉으로 한국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 2년 후엔 신작 〈취화선〉으로 칸 감독상을 수상, 처음으로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성과를 냈다. 당시 심사위원장인 데이비드 린치 감독은 〈취화선〉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술혼을 추구한 화가의 삶을 뛰어난 영상미에 담아낸 수작”이라고 극찬했다. 베니스영화제에서도 임권택 감독의 〈씨받이〉는 1987년 처음으로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었고, 2004년에는 〈하류인생〉으로 다시 베니스영화제를 찾았으며, 〈길소뜸〉(1986), 〈태백산맥〉(1995)은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았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4)는 그해 칸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올드보이〉는 두 남자의 대결,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대립 등 여러 요소를 충돌시켜 현지의 평론가들로부터 그리스 신화와 현대적인 요소들이 잘 섞여 있다고 호평받았다. 이후 박 감독은 〈박쥐〉(2009), 〈아가씨〉(2016) 두 작품을 칸 경쟁 부문에 진출시켰으며, 이중 〈박쥐〉로 한국영화 최초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그는 또 2001년 〈공동경비구역 JSA〉와 2007년 〈싸이보그지만 괜찮아〉로는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 2005년 〈친절한 금자씨〉로는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기도 했다.¹⁵⁾



이처럼 한국영화의 거장들은 끊임없이 해외 영화제의 문을 두드리며 한국영화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다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영화 최초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국제장편)영화상까지 4

15) 뉴스핌, 〈지금의 봉준호가 있기까지...한국영화 세계에 알린 거장들〉, 2020.02.15.

관왕을 수상하며 한국영화를 세계적 수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또한 <기생충>은 그동안 아카데미가 보여준 보수적이고 백인 중심의 영화제라는 오명과 편견을 깨고 세계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은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K팝을 넘어 K무비라는 한류 문화 수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¹⁶⁾

<기생충>의 북미 배급사 네온의 톰 쿤 대표는 “지난해 11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반드시 배급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선부르게 단정할 순 없지만, 아카데미 주요 부문 수상을 기대하고 있다. 만일 수상한다면 아카데미의 최근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또 칸에 이어 아카데미까지 인정한 한국영화의 위상이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라질 것”이라고 했



다. 한·미 합작영화 <기생충>의 성공과 함께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한국 영화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수년째 누적 관객 2억 명 수준에서 정체된 국내 영화 시장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중국과 더불어 세계 빅2 마켓으로 꼽히는 미국은 글로벌 박스오피스 매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글로벌 영화 산업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집약된 시장이기에 미국에서의 성공은 곧 전 세계에서 성공을 의미한다.¹⁷⁾

최근 미국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은 2020년 가장 많이 검색된 정보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발표했다. 뉴스 면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1위, 코로나19가 2위를 차지했다. 인물 면에서는 조 바이든, 김정은이 각각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망한 인물 면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 나야 리베라, 채드윅 보스만이 순서대로 1~3위에 올랐다. 영화 면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1위였다.¹⁸⁾ 미국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랜트’도 <기생충>을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영화로 소개하며 아카데미 수상 명세를 설명했다. 또한, 봉준호 감독의 과거 작품인 <플란다스의 개>, <옥자>, <설국열차> 등을 소개하면서도 “올해 센세이션을 일으킨 <기생충>은 블랙 코미디, 서스펜스, 사회 비판 등을 능숙하게 버무리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경력에서 당분간 정점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¹⁹⁾ 한국영화의 세계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16) 세계일보, <[오늘의 시선] ‘기생충’ 이후, 한국영화의 과제>, 2020.02.13.

17) 한겨레, <판타스틱 한국영화, 할리우드가 찍었다>, 2019.10.28.

18) 스타뉴스, <봉준호 ‘기생충’, 올해 구글 최다 검색 영화 1위>, 2020.12.15.

19) 오마이뉴스, <주요 외신, 올 한해 대중문화 결산하며 ‘기생충’ 다시 주목>, 2020.12.11.

이제 막 비상하기 시작한 K무비에 관심과 흥행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포스트 봉준호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예술적 상상력을 막는 각종 규제와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은 한국영화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당국과 영화계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중요한 시기다.²⁰⁾

이상,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 현상을 살펴본 결과, 19세기 우리가 겪었던 서세동점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된 경우도 있었고, 19세기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용했던 방법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한 예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여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외국 유학생 유치
- 현지 한국 교민 활용
- 외국 문화 사절단과 문화부 관계자 초청
- 외국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정기 간행물 발간
- 현지 학교 교육을 통한 한국문화 보급과 확산
- 외국 현지에서 개인 스타 연주자 양성-현지 교민 인력 활용
- 외국 현지에 한국문화 창작 도구 및 재료(문방사보) 판매망 구축
- 외국 현지에서 우리 문화재 유통망 조성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서예의 세계 진출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20) 세계일보, <[오늘의 시선] ‘기생충’ 이후, 한국영화의 과제>, 2020.02.13.

3. 서예의 세계문화시장 진출 가능성과 진출 시도의 필요성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동서서점의 문화 현상을 살펴본 결과, 우리는 서예도 세계로 나가 세계문화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서예 활동을 하는 서예가의 활동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소현 정도준 선생이나 전북대 김병기 교수가 독일 이탈리아와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한 서예전시와 특강 등은 그 예라 할 수 있다.

■ <보도자료>

<서예가 정도준 독일 에트링겐 박물관 초대전> 연합뉴스, 2004.5.16.

서예가 소현(紹軒) 정도준(鄭道準)씨의 개인전이 16일부터 7월4일까지 독일 에트링겐(Ettlingen) 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1999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미술대학 초대전 이후 7번째 유럽초대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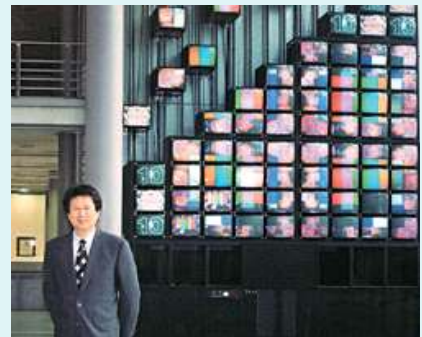
정씨는 2001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미로갤러리 초대전」, 지난해 이탈리아 피렌체 체탈도시립미술관 초대전, 올해 들어 독일 린덴 박물관 초대전 등을 가졌다. 그는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을 사사하고 1982년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

이 대한민국미술대전으로 바뀌던 첫해 전서 작품 "조춘(早春)"을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1999년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미술대학 명예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정됐으며 17일에는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슈투트가르트 미술대학 명예 자문위원 8명 중 한 명으로 위촉받을 예정이다.

그는 전통서예에 조형적인 측면을 도입하여 전체의 글자가 조화를 이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켰다. 붓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선의 변화를 극대화하여 생명력을 보여준다. 작품 재료로 화선지에 문양을 넣거나 색을 입히기도 하고 베나 비단 등의 직물을 사용하기도 하며 조각보, 죽편이나 목편을 쓰기도 하는 등 작품 재료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전각을 단순히 낙관의 일부로 그치게 하지 않고 전각 그 자체를 독립시켜 하나의 작품이 되게 한다.

정씨는 오는 9월에는 프랑스 쇼몽(Chaumont)시립미술관, 내년 가을에는 미국 오리건 대학 동양사박물관, 2006년 봄에는 독일 라이프치히 시립박물관 초대전을 가질 계획이다.



〈전북대 김병기 교수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초청 한글서예전 성황〉 전북일보, 2018.10.15.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63)가 지난 9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한국문화원 주최로 문화원 현지에서 서예전을 열었다.

개막식에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쿠라니나 러시아 국립글자박물관 관장대행 등 러시아 문화예술·언론·학계 관계자, 동포 사회 인사 및 한국과 한글에 관심이 많은 러시아 젊은이 등 200여 명이 모여 큰 성황을 이뤘다.



11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글을 기념하는 전시인 만큼 모두 한글 작품만 출품해 이목을 끌었다.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등 용비어천가를 쓴 작품과 김일로 시인의 시 ‘꽃씨 하나 얻으려고 1년, 그 꽃 보려고 다시 1년’을 쓴 작품 등 한글 작품 30여 점이 러시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날 김병기 교수는 최근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맞아 가로 1m 세로 9m의 대형 한지에 ‘평화와 번영,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글귀를 적는 즉석 서예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김 교수는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원을 통해 한국서예를 세계에 알리는 전시와 특강을 진행하면서 루마니아, 헝가리, 스페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등 각국의 학자와 예술가들을 많이 알게 됐다.”라며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를 통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의 서예가들은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에서 서예 전시회를 열고 서예 시연을 선보이면서 서예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우리의 문자 한글로 서예 시연을 하면 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소리글자인 한글과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뜻글자인 한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대단한 문화국가임을 드러내 보였다.

그 외에도 미국,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등 각국의 학자와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한국서예의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한국의 많은 서예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우리 서예를 세계로 진출시킬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4. 21세기 세계 문화시장의 플랫폼 사업 추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문화는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 있고, 21세기 한류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그런데 이처럼 한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류 자체의 콘텐츠가 우수한 점도 있었지만, 이들 한류 뮤지션들이 맘껏 기량을 펼칠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공간은 바로 온라인상의 플랫폼이다. 플랫폼이 없었다면 아무리 훌륭한 한류 콘텐츠라고 해도 국제적인 인기몰이를 할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에서 뛰어놀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가 필요하고 뮤지션을 비롯한 많은 문화예술인은 뛰어놀 공간으로서 플랫폼이 필요하다. 우리의 한류는 바로 이 점에서 세계적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콘텐츠 면에서 서로 필요로 하는 면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앞으로 모든 문화예술은 바로 이런 상호 필요의 궁합이 맞아야만 국제적인 무대와 세계적인 문화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서예의 세계화 즉 세계무대 진출은 서예를 어떻게 플랫폼 사업과 연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서예의 세계 진출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플랫폼 사업의 동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세계 10대 기업의 동향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있는 지금, 세계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내용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시가 총액) 세계 10대 기업²¹⁾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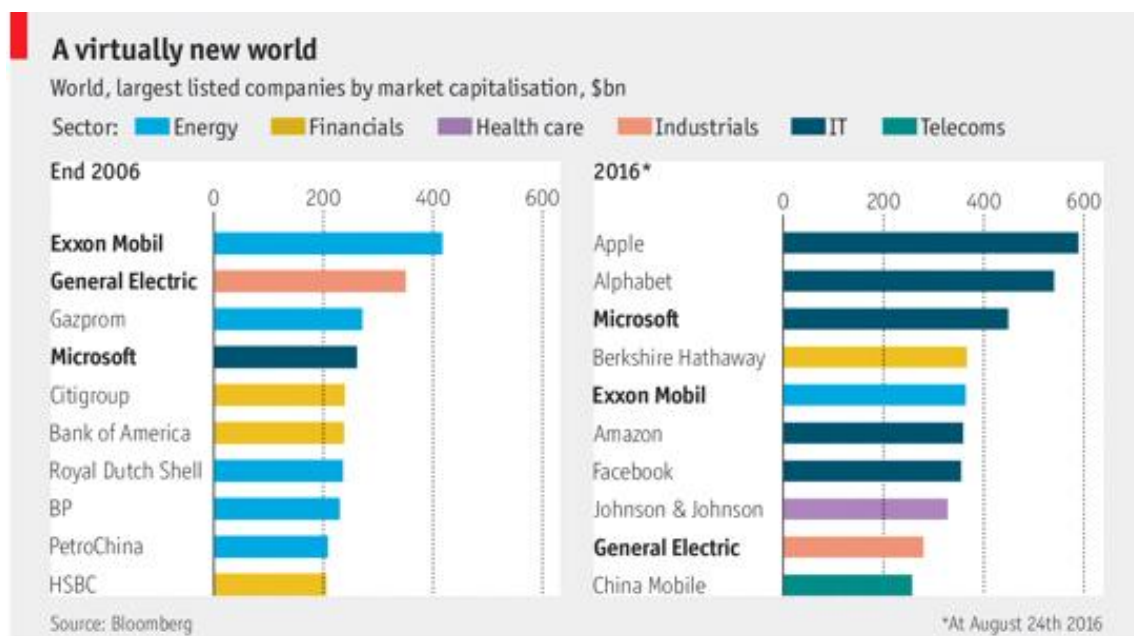
| 로고 | 기업 | 국가 | 시가총액 USD | 시가총액 KRW |
|---|--|---|-----------|----------|
|  | 애플  |  | 20784 억달러 | 2252 조원 |
|  | 사우디 아람코  |  | 19086 억달러 | 2086 조원 |
|  | 마이크로소프트  |  | 16206 억달러 | 1756 조원 |
|  | 아마존  |  | 15868 억달러 | 1719 조원 |
|  | 구글  |  | 12352 억달러 | 1338 조원 |
|  | 페이스북  |  | 7966 억달러 | 863 조원 |
|  | 텐센트  |  | 7279 억달러 | 789 조원 |
|  | 알리바바  |  | 7230 억달러 | 783 조원 |
|  | 테슬라  |  | 5678 억달러 | 615 조원 |
|  | 버크셔 해서웨이  |  | 5422 억달러 | 587 조원 |

세계 10대 기업 순위

21) 세계 10대 기업은 시가 기준, 자산 기준, 매출 기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위 자료는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http://www.mrktcap.com/index.html>

세계 10대 기업의 대부분이 I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 사업을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임을 알 수 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업도 10위 안에 들어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장차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주도의 플랫폼 사업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세계 기업 지형도의 이러한 변화는 10여 년 전의 세계 10대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아래 자료는 2017년 열린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된 자료이다.



④ 2006년 세계 10대 기업과 2016년 세계 10대 기업(World Economic Forum)

이 자료를 보면 2006년 세계 10대 기업에 속했던 기업 중 IT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2016년에는 2006년만 해도 10대 기업에 속하지도 않았던 애플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애플은 플랫폼 사업의 대표 주자이다. 그리고 뒤이어 알파벳(구글)이 2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 5개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

다시 위에서 제시한 2020년 12월 현재 세계 10대 기업을 살펴보자. 이 자료를 보면 7개 기업이 플랫폼 사업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비즈니스 플랫폼이 과거보다 현시대에 얼마나 거대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기업은 9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이다. 테슬라는 현재 전기자동차 매출액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그야말로 눈부시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주식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했다.



① 최근 10년간 테슬라 주가 동향

테슬라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 회사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그 개발이 완성되면 우리 삶은 혁명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해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삼성과 같은 반도체 기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단순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를 스마트기기와 융합시키고자 하고 있다. 자율주행프로그램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구독경제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른바 커넥티비티 서비스, 즉 IT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로 볼 때, 결국 세계 경제는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크게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예술 시장도 플랫폼 사업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COVID-19가 창궐하기 직전인 2019년에만 해도 한국의 문화적 역량이 국제적으로 발휘되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를 석권하기도 했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은 미국의 대표 음원차트인 빌보드 1위를 달성했다. 속칭 ‘한류(韓流)’로 통칭하는 문화 현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의 한류 열풍은 서구권을 비롯해 전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 중 하나로 확대되었다.

최근의 한류 현상은 먼저 제작자를 비롯해 이를 소비하는 국내 대중의 문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독특한 특색을 갖게 된 것이 성공의 가장 큰 이유겠지만, 동시에 앞서 언급한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의 네트워크 인프라와의 제휴 역시 한류 콘텐츠의 성공 요인 중 하나다. 2012년

유튜브(Youtube)에 올라온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의 시선을 끌기 시작하면서 2020년 현재 38억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K-POP 아티스트의 영상들은 영상 업로드 24시간 안에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하는 등 조회 수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홍보 효과도 이루어냈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제한 없는 접근성이 만들어낸 성공사례다.

‘플랫폼(Platform)’이란 원래 승강장을 뜻하는 말이다. 타고 내리는 정거장을 뜻하는 이 표현이 IT용어로는 이런저런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정거장이 있다면 그곳에서 그 규격에 맞는 여러 형태의 교통수단들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대부분 이러한 승강장에는 크고 작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는 광고도 즐비하다.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플랫폼 비즈니스(Platform Business)는 바로 이러한 ‘플랫폼’의 의미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주로 사업자(공급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형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플랫폼 비즈니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중간 유통과정에서 상호 접근성을 보다 신속하고 제약 없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업을 총칭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의는 그 개별 모델들이 대단히 광범위하여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다. 최근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기 제조업체가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로 손꼽힌다. 이들은 모두 각종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제작자, 공급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場)을 제공한다.²²⁾

전통적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시장, 종합쇼핑몰 역시 하나의 플랫폼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²³⁾, 최근에 언급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대부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예로, 구글과 애플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Google 사의 ‘안드로이드(Android)’와 Apple 사의 ‘IOS’는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는 대표적인 모바일 운영체제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운용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Google Play Store’, ‘App Store’ 서비스를 통해 음악, 영상, 책, 응용 프로그램, 게임 등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한다. 운영체제 안에서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중간 루트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광고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22)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네이버 지식백과, 2020.12.4. 검색; 마셜 벤 엘스타인 외, 이현경 역, 《플랫폼 레볼루션》(부키, 2017).

23) 플랫폼의 전통적인 구조로는 시장을,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통적 모델은 아울렛과 같은 종합쇼핑몰을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다. 사업자가 한정된 공간 속에 다양한 상점들을 입점시켜 소비자들이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PC, 모바일, TV 등도 거시적으로 플랫폼에 해당한다.

구글은 원래 검색업체였지만 이처럼 구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휴대폰 제조 회사와 연합하였고 여러 웹들을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휴대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음에도 아직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아직 플랫폼을 형성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플랫폼 사업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는 넷플릭스의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Netflix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오버 더 탑(Over the Top, 이하 OTT)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²⁴⁾ 월 구독료를 지불하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무제한으로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감상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사에게 영상 콘텐츠의 배급 판권(Licence)을 획득하거나, 자체적으로 제작자에게 제작비를 지원해 독점 콘텐츠를 제작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시간, 공간, 하드웨어 플랫폼(재생기기)의 제약 없이 가입만 하면 누구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모델들은 대부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와 이커머스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볼 때, 결국 세계 경제는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크게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술 시장도 플랫폼 사업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도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플랫폼 사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없이는 세계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낄 만한 콘텐츠를 창출해 낼 수 없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세계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작품을 수장하고, 전통서예를 응용하여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엔날레관의 건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서예라는 분야 자체의 신비성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이미 19세기에 서세(西勢)가 동점(東漸)해 오던 시대의 서양문화 못지않게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서예를 또 하나의 한류로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과의 연계가 절실하고 그러한 연계와 진출을 위해서는 비엔날레관 건립이라는 기초적인 투자가 절실한 것이다.

24) OTT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Over the Top에서 Top은 '셋톱박스'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미디어는 CD, DVD, 혹은 IPTV와 같은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비해야만 사용 가능했던 것에 반해, OTT 서비스는 범용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미디어의 새로운 방향, OTT 서비스 알아보기>,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2016.5.4. 참조

2) 디지털 플랫폼과 한류 콘텐츠

현재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은 넷플릭스, 애플 TV, 구글사의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등 미국 굴지의 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주목해야 할 블루오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변화했다. 플랫폼 구축에 열을 올리던 각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시 콘텐츠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²⁵⁾

이러한 거대 플랫폼들의 경쟁 구도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국내의 콘텐츠 사업들이다.

현재 한류는 세계적 플랫폼을 통해 지역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 실시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2.3조 달러(약 2500조)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2.6%로 세계 7위이다. 2022년까지 연평균 4.4로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²⁶⁾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 125.5조 원(2018년 119조 원 대비 5.4% 증가), 수출 103억 달러(2018년 95.5억 달러 대비 8.2% 증가)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고, 2019년 기준 고용인원은 66만 명에 달한다.²⁷⁾

글로벌 아이돌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IT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

방 의장이 지난 10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성장 방향을 ‘플랫폼’으로 공언할 때만 해도 막연했던 빅히트의 ‘플랫폼’으로서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주도권을 둘러싼 정보기술(IT) 업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내세운 팬 플랫폼인 ‘위버스’가 기존 강자인 네이버 ‘브이라이브’(VLIVE)를 추격하자 네이버도 콘텐츠 강화에 더욱 집중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게임산업의 강자인 엔씨소프트도 내년 글로벌 대상 커뮤니티앱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자만 100만 명을 확보하는 등 엔터 플랫폼 경쟁은 ‘N파전’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25) 최민하, <산업분석-미디어·광고 분야 보고서>, 한국투자증권, 2018.12.4., p.2-3 참고.

26) 국가별 콘텐츠 시장 점유율은 2018년 기준 미국 36.8%, 중국 11.7%, 일본 8.0%, 독일 4.6%, 영국 4.4%, 프랑스 3.2%이다. 위의 보고서 참조.

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 2020.3.17.

모바일인텍스가 국내 안드로이드·IOS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빅히트의 엔터 플랫폼 ‘위버스’는 기존 강자인 브이라이브를 이용자 체류 시간, 이탈률 등 충성도 지표에서 앞서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인다.²⁸⁾

코로나19로 인하여 WHO가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후로, 비대면 콘텐츠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공연의 특성상 오프라인 공연이 환영을 받지만, 현재 그러한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공연이 가능한 엔터 플랫폼 사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이처럼 성장하는 플랫폼 사업의 성장 추세와 보조를 맞춰야 함은 당연하다.

28) 서울경제, 〈BTS 팬 플랫폼 ‘위버스’ 원조 네이버 넘본다. 엔터플랫폼 무한경쟁시대〉 2020.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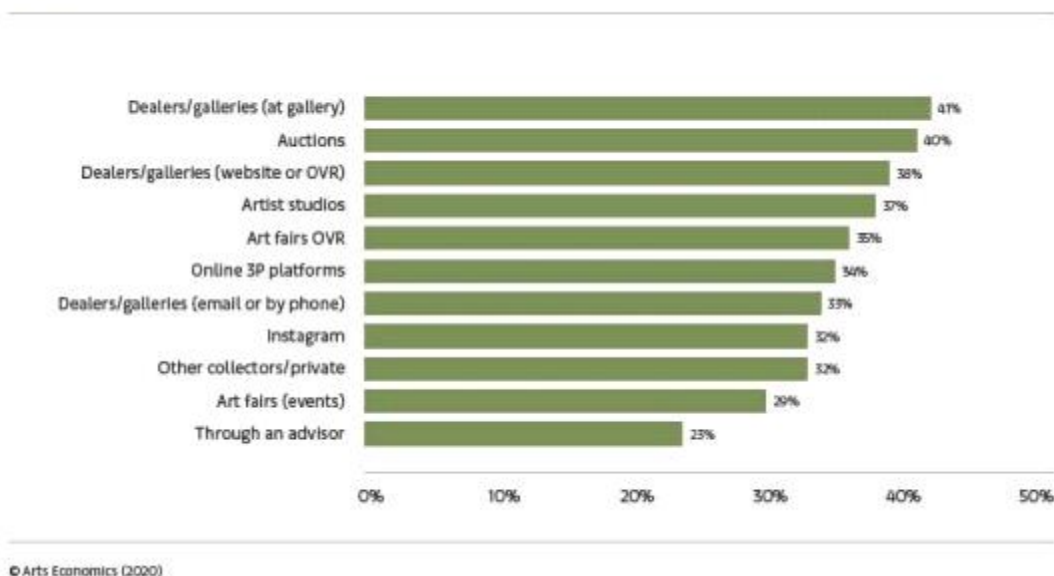
5. 미술시장의 플랫폼화 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경제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는 상황에서, 문화 역시 플랫폼 사업과 연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술시장은 어떠한가? 미술시장의 플랫폼화는 가능할까?

1) 미술시장의 플랫폼화 현황

아트 바젤과 UBS의 세계 미술시장 거래 보고서인 <아트 마켓>을 집필해온 아트 이코노믹스 대표 클레어 맥앤드류(Clare McAndrew)는 2020년 9월 <코로나19가 갤러리 영역에 미친 영향-2020 중반 조사>를 발간했다. 2020년 상반기에 나타났던 코로나19의 영향을 조사한 최신 보고서다. 지난 7월 진행된 조사는 근현대미술을 다루는 갤러리 795곳의 데이터와 미술시장을 주도하는 세 국가인 미국, 영국, 홍콩의 고액순자산(HNW)을 보유한 컬렉터 360명의 답을 분석했다.²⁹⁾

Figure 31 | Sales Channels used for Purchasing in H1 2020



📍 2020년 상반기 고액순자산을 보유한 컬렉터들이 작품을 구매한 경로

29) Clare McAndrew,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Gallery Sector - A 2020 mid-year survey, An Art Basel & UBS Report", Art Basel & UBS (September 2020), 17, https://d2u3kfwd92fzu7.cloudfront.net/The_Art_Market_Mid_Year_Survey_2020-1.pdf.

이 컬렉터 중 92%가 2020년 상반기에 미술품을 구매했으며, 이들이 구매한 채널은 다양했다. 중복된 채널 중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여전히 갤러리와 딜러의 공간(41%)이었고, 경매(40%), 갤러리의 웹사이트나 온라인 뷰잉룸(38%)을 통한 구매가 뒤를 이었다. 이후 아트페어 온라인 뷰잉룸, 외부 온라인 플랫폼(34%), 이메일이나 전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한 구매 역시 각각 30% 이상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³⁰⁾

이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는 미술시장에서도 점차 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아트시와 아트넷, 이젤과 오쿨라, 사치아트 등은 온라인 상에서 작품 가격을 공개하는데, 이는 온라인 아트마켓 플랫폼의 큰 성과라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미술시장 역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기존 플랫폼인 화랑, 경매, 아트페어, 공공기관의 성장세가 둔화하거나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술품 유통의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술 발전과 맞물려 기술환경에 익숙한 (Tech-savvy) 신형 컬렉터 층이 대거 유입되고, 2020년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글로벌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의 도래는 미술품 유통의 패러다임 변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³¹⁾

각종 미술 기관들이 휴관하게 되고 각종 미술 행사들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미술 작품은 관객을 대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8월 19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제3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코로나19 이후, 공연·미술시장의 변화와 과제〉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³²⁾

미술시장에 관한 첫째 주제였던 ‘코로나19가 미술시장에 미친 변화’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한 후 중국의 모든 갤러리가 휴관했던 상황을 시작으로, 많은 대형 갤러리들이 휴관하게 되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온라인 뷰잉룸(Online Viewing Room)’

30) 이경민(K-ARTMARKET),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이동한 미술시장〉,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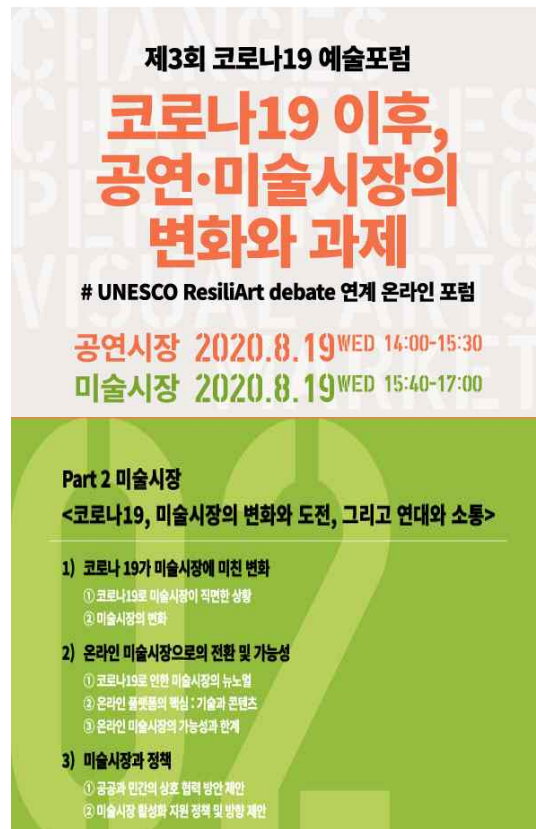
31) 미술시장 수요자의 세대교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온라인 경매에서 미술품 거래의 53%는 신규 구매자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이며, 특히 온라인 미술시장에서 구매하는 미술품의 가격 평균이 가장 높은 세대는 1968년을 전후로 태어난 이른바 ‘X 세대’로 분류된다. X세대는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 197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세대를 주로 일컫는다. 성장기 급속도의 경제 발전과 풍요를 누린 첫 번째 세대이자, 동시에 구직활동이 왕성할 20대에 IMF 외환 위기를 겪은 피해 세대이기도 하다. 이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의 고통이 시작되었으며 해외 진출이 활발한 세대이기도 하다. 자기표현, 취미활동, 자기계발에 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세대로 간주하며 정치적으로는 대학 운동권 세력이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김아미(K-ARTMARKET), 〈미술시장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통 패러다임 변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32) 이 포럼에 관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QgMAFXDq3w>

을 개설한 사실이 언급되었다. 또한, 젊은 구매층을 미술시장에 유입시키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특화된 기술,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견해도 나왔다.

또한, 이경민 디렉터는 다양한 리서치 기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미술시장 전체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거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고,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아트페어에서 해외 매출을 대부분 의지했던 국내 갤러리들은 온라인 뷰잉룸 개설 외에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였다며, 국내 갤러리 또한 한국 작가를 프로모션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포럼에서는, 데이빗즈위너갤러리가 자체 온라인 뷰잉룸을 갤러리들과 공유하는 ‘플랫폼 뉴욕(Platform: New York)’으로 지역 미술시장에서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음이 언급되었고,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국내의 신생 기획 단체 ‘오시선(Osisun)’, ‘카바라이프(Cava Life)’ 등이 온라인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오프라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예도 언급되었다.



2) 미술시장의 플랫폼화 전망

제3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코로나19 이후, 공연·미술시장의 변화와 과제>에서는, 한국의 미술 시장은 온라인 플랫폼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콘텐츠 자체의 질이 좋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의 위험성도 지적되었다. 경험이 부족한 구매층이 갤러리의 이름값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동현 팀장은 아트페어의 온라인 뷰잉룸이 가진 양극화 위험성을 경고했다.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갤러리는 저마다 특화된 감식안과 전략으로 꾸민 부스 디스플레이로 승부를 거는 반면 온라인 뷰잉룸의 균일한 레이아웃 속에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와 가치는 평준화된다. 이 평준화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구매층이 갤러리의 이름값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특히 새로 유입된 구매층일수록 부족한 경험 탓에 것처럼 기존 갤러리의 이름값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경민 디렉터 역시 “온라인은 결코 평등한 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자본과 여력이 없는 중소형 갤러리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더욱 많이 활용할 것이고, 결국 온라인 미술시장은 ‘온라인 플랫폼, 대형 갤러리, 경매회사의 3강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콘텐츠 자체의 질을 강조하면서 그 핵심 요소로 ‘아카이브’를 꼽았다. “전시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효과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던 아카이브 자료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욱 유용한 정보와 가치로 작동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의 작품 가격의 공개가 실제 구매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재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긍정적인 관점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조짐이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시중의 현금 유동성이 강화되었고, 그리하여 투자 목적의 새로운 구매층이 미술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 20~30대의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어낸다면, 향후 오프라인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이들을 컬렉터로 변모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첨단 IT 기술을 도입하여 지구 반대편에서 상호 연결된 경매사와 고객 시간차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음도 밝혔다.

6. 서예 시장의 플랫폼화 진단

2019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미술시장 실태조사>³³⁾에 따르면, 2018년 온라인 미술시장 규모는 60억 달러(약 6조 2000억 원)이며, 이는 세계 미술시장 미술품 거래 총액의 9%에 달한다.

이중 국내 시장에서 서예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낮다.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의 거래 추이 어디에서도 서예라는 장르는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공공기관인 미술은행 거래현황에서 서예가 2018 미술은행 총 거래금액 19억 5천만 원 중 600만 원으로 0.3%의 점유율을, 총 거래 작품 수 344점 중 1점으로 작품 수 대비 0.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정부미술은행의 작품구입현황도 이와 다를 바 없는데, 정부미술은행은 13억에 153점의 작품을 구매하였고, 그중 서예작품은 1점 구입대금은 400만 원이다.

1 미술은행 작품구입 현황

2018년 미술은행은 19억 5천만 원에 총 191점의 작품을 구입하였으며, 서양화가 12억 2천만 원에 총 114점이 구입되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2-1 미술은행 장르별 작품구입 현황
- 작품 구입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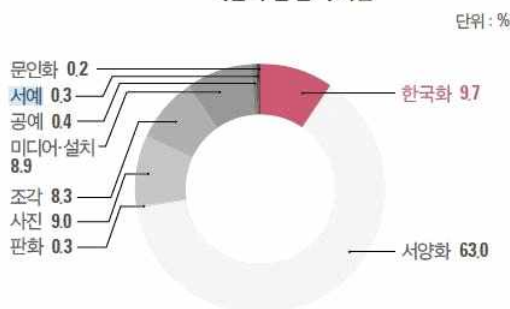


그림 4-2-2 미술은행 장르별 작품구입 현황
- 작품 구입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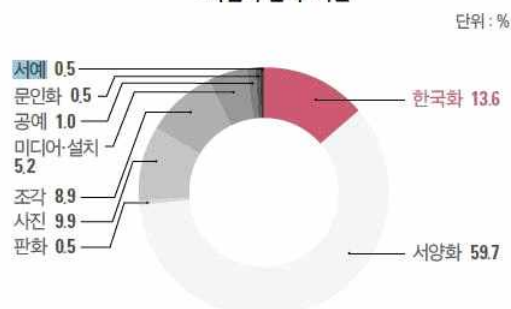


표 4-2-1 미술은행 장르별 작품구입 세부 현황

| 구분 | 전체 | 한국화 | 서양화 | 판화 | 사진 | 조각 | 미디어 | 공예 | 서예 | 문인화 |
|-------------|-----------|---------|-----------|-------|---------|---------|---------|-------|-------|-------|
| 작품구입금액(천 원) | 1,950,000 | 188,600 | 1,228,400 | 6,000 | 176,200 | 161,800 | 173,000 | 7,000 | 6,000 | 3,000 |
| 구입 작품수(점) | 191 | 26 | 114 | 1 | 19 | 17 | 10 | 2 | 1 | 1 |

33) 문화체육관광부,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3 정부미술은행 현황

1) 정부미술은행 작품구입 현황

2018년 정부미술은행은 13억 원에 153점의 작품을 구입하였으며, 3점을 관리 전환함.

표 4-2-5 정부미술은행 작품구입 현황

| 구분 | | 전체 | 한국화 | 서양화 | 판화 | 사진 | 조각 | 미디어 | 공예 | 서예 | 문인화 |
|----------|-------------------|-----------|---------|---------|-------|--------|---------|--------|--------|-------|-------|
| 작품 구입 | 작품구입금액 (천 원) | 1,299,990 | 158,790 | 789,100 | 3,700 | 80,500 | 159,200 | 90,400 | 11,300 | 4,000 | 3,000 |
| | 구입 작품수(A) (점) | 153 | 26 | 78 | 3 | 13 | 16 | 11 | 4 | 1 | 1 |
| 관리 전환 | 작품 수(B) (점) | 3 | 1 | 2 | - | - | - | - | - | - | - |
| 계 | 보유작품수(A+B) (점) | 156 | 27 | 80 | 3 | 13 | 16 | 11 | 4 | 1 | 1 |

표 4-2-4 미술은행 장르별 작품대여 현황

| 구분 | 전체 | 한국화 | 서양화 | 판화 | 사진 | 조각 | 미디어 | 공예 | 서예 | 기타 |
|-----------|-------|-----|-------|-----|-----|-----|-----|----|----|----|
| 대여 작품수(점) | 2,889 | 700 | 1,368 | 152 | 188 | 249 | 69 | 86 | 32 | 45 |

2) 정부미술은행 작품대여 현황

정부미술은행 작품은 부처 및 공공기관 209에 무료로 대여되었으며, 조각 작품을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대여 활용도가 모두 100.0% 이상을 기록하며 높게 나타남.

표 4-2-6 정부미술은행 작품 장르별 대여활용도 현황

| 구분 | 전체 | 한국화 | 서양화 | 판화 | 사진 | 조각 | 미디어 | 공예 | 서예 | 문인화 |
|---------------|--------|--------|--------|--------|--------|-------|--------|--------|--------|--------|
| 대여 작품 수(A)(점) | 2,184 | 564 | 1,094 | 92 | 121 | 47 | 82 | 40 | 62 | 82 |
| 보유 작품 수(B)(점) | 1,803 | 491 | 913 | 74 | 93 | 63 | 17 | 28 | 49 | 75 |
| 대여 활용도(C)(점) | 121.1% | 114.9% | 119.8% | 124.3% | 130.1% | 74.6% | 482.4% | 142.9% | 126.5% | 109.3% |

* 대여 활용도(C) = 대여 작품 수(A) ÷ 보유 작품 수(B) × 100

* 정부미술은행 대부기관수는 209개소이며, 정부미술은행 소장품은 무료로 대부하고 있어 대부수입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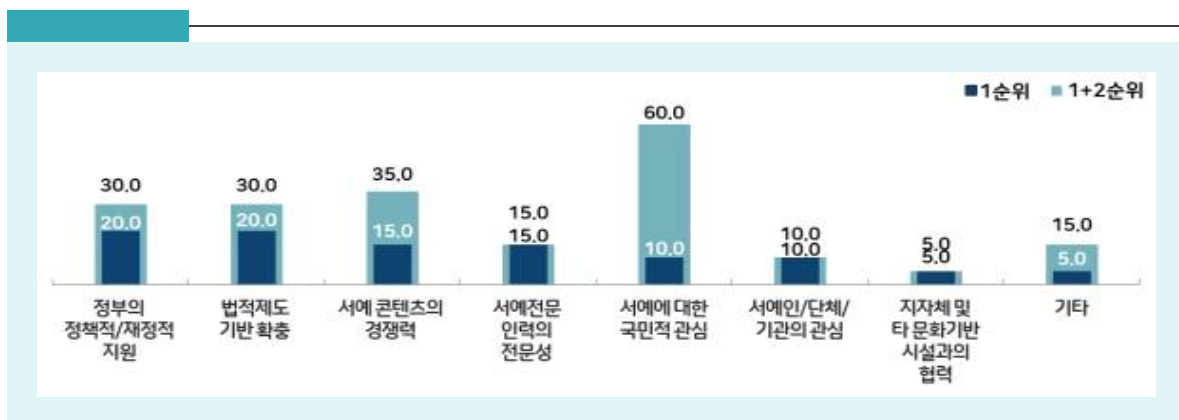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서예의 활성화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미술시장에서 거래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 서예는 ‘사(死)문화’, ‘사(死)예술’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누구도

서예를 사문화 혹은 사예술로 간주하지 않는다. 서예는 엄연히 살아있고 세계의 문화예술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중국에서는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서예작품이 미술시장에서 활발하게 그리고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서예작품이 미술시장에서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아이러니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서예계의 노력 부족으로 서예가 잠자고 있을 뿐 서예 자체의 예술적 가치나 서예작품의 상품적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어떤 예술 분야보다도 잠재 가치가 많은 분야이다.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서예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예진흥법을 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비엔날레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예실태조사 연구〉 보고서³⁴⁾에 따르면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서예 경력을 보면 서예 분야 입문 이후 평균 24.8년의 세월이 지났으며, ‘30년~40년 미만’이 27.1%로 가장 높다. 서예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서예인은 70.5%이고, 전업 서예인 활동 기간은 평균 15.2년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향후 3년 내 서예 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그다지 크게 보고 있지 않은데, ‘낮다’(낮다+매우 낮다)고 답한 경우가 23.3%, ‘높다’(높다+매우 높다)고 답한 16.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은 60.5%를 보였다. 이처럼 활성화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 이유로, ‘서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저하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예 콘텐츠의 경쟁력’ 미약이 35.0%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법적제도 기반확충’ 부족이 각각 3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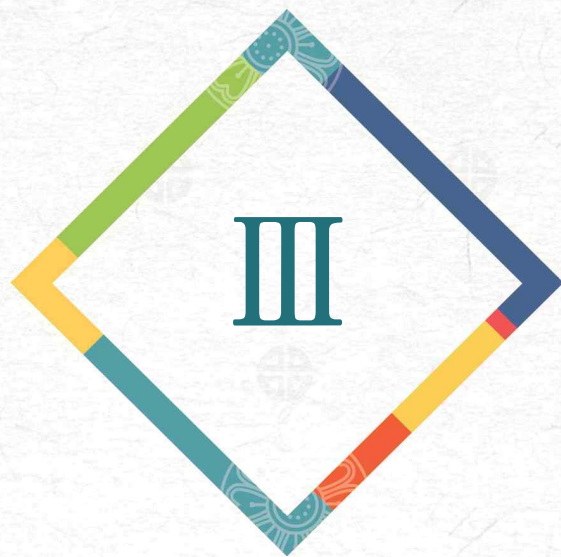
서예의 활성화 가능성을 크게 본 16.3%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그 이유를 ‘서예인/단체/기관’의 관심과 ‘서예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각종 언론의 도움과 서예인들의 노력으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 수만 있다면 서예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서예 산업 활성화는 가능하리라 본다.



34) 문화체육관광부, 〈2020 서예실태조사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서예가 가진 많은 잠재력을 바탕으로 서예가 세계의 문화예술 시장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원시안(遠視眼)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서예 시장의 플랫폼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플랫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 작품 거래에서 서예가 활발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 서예 시장의 플랫폼화를 추진해야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서예계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구(機構)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적극적인 활동 여부에 한국서예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대내적으로 한국 서예가들의 희망이자 마지막 보루로 자리하고 있으며, 대외적(국제적)으로는 한국서예의 자존심을 대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한국서예의 진흥과 한국서예 세계화의 사명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전라북도와 중앙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결단과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서예를 바라보는 세계문화예술시장의 동향과 서예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으로 보나, 세계문화예술시장의 플랫폼화 추세로 보나,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서예에 대해 전라북도와 중앙정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선택과 집중의 결단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한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바로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의 건립인 것이다.



서예의 ‘동세서점(東勢西漸)’ 경향과
지속적 확산 가능성



Ⅲ. 서예의 ‘동세서점(東勢西漸)’ 경향과 지속적 확산 가능성

19세기에 경험했던 문화의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상황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동세서점(東勢西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예도 문화 동세서점의 대표적인 한 예이다. 현재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지에는 이미 서예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서예 바람의 실체는 무엇이고 확산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1. 이탈리아 서예 단체 FEIMO

FEIMO는 이탈리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서예 단체로서 창립자는 파올라 빌리(Paola Billi)이다.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서예 학술 활동을 하고 전시에 참여하면서 서예의 본질을 연구하고 있는 단체이다.

인류학적 연구와 유럽 밖의 예술 분야, 특히 동양문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한자서예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활동 상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서예 관련 서적을 제작하여 한자서예에 대한 기초교육에 활용
- 2000년 〈斐墨(FEIMO當代書法學會)〉 창립
- 특히 한국, 중국, 일본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이탈리아 서예의 외연 확장
- 일본과의 교류

- 일본서예가 노리오 나가야마를 첫 번째 서예 선생님이로 초빙
- 초창기에는 일본 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본서예의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했었고, 2019년에도 일본 현대 서예가 바이키유 아히라 초청 워크숍 실시

- 중국과의 교류

- 피렌체 대학의 공자아카데미와 공동 워크숍 개최(2020년 2월, 2019년 2월)
- 2019년 10월 피렌체 공자연구소 5주년 기념 워크숍 개최



- 2019년 11월 중국문화 토론과 서예 시연 개최
- 2018년 10월 청도국제서예비엔날레(강유위서예국제심포지엄) 참가
- 2017년 7월 중국의 서법보(書法報)와 공동주최 중국-이탈리아 서예 교류 포럼 및 서예 워크숍 개최
(장소 : 이탈리아 피렌체 가비네토 비우세스 파빌리온)

• 한국과의 교류

- 김선옥(1929-2012)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한국서예와의 교류 확장
- 한글서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
-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적극 참여

• 한국·중국·일본 작가들을 협회의 국제 회원으로 등록

• 페이모 서예학교(www.feimo.org) 운영 : 3개의 분원과 주니어스쿨 운영

■ 페이모 서예학교(www.feimo.org)

• 창립자 : 파올라 빌리와 니콜라 피치올리

• 서예과정 수업 현황

- ① 피렌체 페이모 서예과정
- ② 밀라노 PIME 재단에 소속된 페이모학교 서예과정
- ③ 볼로냐 극동예술연구센터CSAEO에 소속된 페이모 서예과정

•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매월 8개의 연례 수업 예정

• 파올라 빌리(Paola Billi) 주최 주니어 서예 워크숍 개최: 7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이 대상

• 교사와 학생들은 중국, 일본, 한국 등 국제대회 수상



① 일본서예가 초청 워크숍



② 중국 공자아카데미와 공동 워크숍



③ 한국서예가 초청 워크숍



④ 2014년 비엔날레 한자 국제 현대 서예전



⑤ 2016년 중국서예 전시



① 페이모 주니어 서예 워크숍



② 페이모 서예과정



2. 러시아 세계서예박물관(世界書法博物館)

세계서예박물관(世界書法博物館-호피명 現代書法博物館)³⁵⁾은 러시아의 최초이자 유일한 서예 미술관이다. 2008년 8월 14일에 러시아 모스크바 소콜니키 공원에 공식적으로 개관하였다. 설립자 겸 큐레이터는 알렉세이 사브로브 소콜니키(Alexei Shabrov, Sokolniki)이다. 이곳에는 70개국 서예 명가의 작품이 5,000여 점 전시되어 있고, 《러시아연방헌법》의 사본도 보관되어 있다. 국제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서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활동

- 박물관 개최 전시회-러시아 문화부의 지원
- 유네스코 러시아 연방위원회에서 2009년 모스크바에서 국제서예 전시회 개최
- 국제전시 산업 협회(UFI)의 인증
- 국제 서예전시회 개최 :

| 개최년도 | 회차 | 참여국 | 작가 수 | 장소 |
|-------|-----|---------|-----------------|--|
| 2008년 | 제1회 | 26개국 | 68명 | 상트 페테르부르크 |
| 2009년 | 제2회 | 34개국 | 100명 | 모스크바의 Sokolniki 전시 및 컨벤션 센터의 박물관 교육 단지 |
| 2010년 | 제3회 | 43개 | 135명 | 벨리 키 노브 고로드의 야로슬라프 궁전 |
| 2012년 | 제4회 | 44개국 | 143명 | 모스크바 현대 서예박물관 |
| 2017년 | 제5회 | 52개국 | 90명(작품 201점) | 모스크바 현대 서예박물관 |
| 2018년 | 제6회 | 60개국 이상 | 150명(작품 350여 점) | 소콜니키 공원에서 이 전시를 위해 독립관을 세움 |



① 국제서예전시 개막식의 모습

35) www.calligraphy-museum.com

- 국제문화교육센터 운영

- 마스터 클래스 : 국내외 유명 예술가들이 가르치는 마스터 클래스 정기 개최. 서예 예술과 다른 예술 유형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화가, 디자이너, 음악가 및 다른 분야의 대표자들과 함께 활동 조직
- 국립 아름다운 글쓰기 학교 : 2010년 11월 개교. 다양한 글쓰기 도구와 글쓰기 능력을 습득하고 선의 아름다움을 익히고 글자의 구조를 이해하며 서예 예술을 홍보



① 서예학교 교실



② 어린이 마스터클래스



③ 일본서예가 사시다 다케보 초청 회화

또한, 러시아에는 서예가 단체 카르텔이 형성되어 서로 권익 보호와 자신들의 예술가적 위상 확립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전국서예연맹(全國書法聯盟)³⁶⁾을 조직하여 서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08년 5월에 설립된 이 연맹은 세계 각지의 거장들을 규합하고 러시아 서예 운동을 되살리기 위해 러시아의 중부연방구의 러시아안방사법부에 등록을 하고 국제서예전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전국서예연맹의 국제서예전시회 활동 모습

- 60개국 이상 150명의 서예 작가들의 350여 점의 걸작들 전시
- 전통서예와 현대 서예를 모두 전시
- 유럽, 슬라비아, 아랍, 이스라엘,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몽골 서예 전시
- 종이 외에 캔버스, 가죽, 자작나무 껍질 등 다양한 재료 소개



① 한국 김종칠(Kim Jong Chil) 서예가의 퍼포먼스



① 일본 작가의 서예 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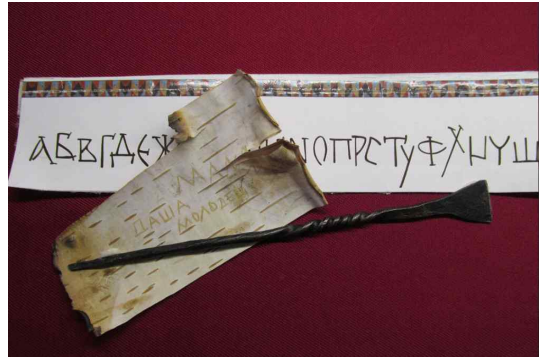
① 중국서예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설명



① 어린이들의 서예 체험



러시아에서는 이런 활동에 이어 2020년에는 러시아민족서예박물관(俄羅斯民族書法博物館)을 건립하여 저명한 서예가들의 작품은 전시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연체자(連體字), 독특한 서명 디자인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서예도서관을 만들어 각종 서예 예술의 교습법과 역사 등에 관한 서적을 전시하고 있다.



📍 러시아민족서예박물관 전시

3. 프랑스 이응노 파리동양미술학교

프랑스 세르누쉬 파리시립동양미술관(Musée Cernuschi) 안의 파리동양미술학교(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는 프랑스 내 두 번째로 큰 아시아 예술품 박물관이자 유럽 내 다섯 번째로 큰 아시아 예술품 박물관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고암(顧菴) 이응노(1904~1989) 화백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어려서부터 화가의 꿈을 키웠던 이응노 화백은 19세 때 서화계의 거장인 해강 김규진 선생의 문하에서 문인화와 서예를 배웠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한 후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1958년 프랑스로 건너가 1964년 세르누쉬 미술관 안에 동양미술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이 '파리동양미술학교'에서 프랑스인들에게 서예와 동양화를 가르치며 동양미술의 아름다움을 유럽에 전파하였다. 이응노 화백은 온갖 미술 유파가 만나는 교차로인 파리에서 동양미술과 서양미술을 융합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의 예술은 '서예적 추상'이라는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러한 만큼 그의 예술은 서예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린 <고암 이응노> (2018.3.1.~3.27) 전시회에 소개된 다음 작품에는 “서예에는 조형의 기본이 있어요. 선의 움직임과 공간의 설정, 새하얀 평면에 쓴 먹의 형태와 여백과의 관계. 그것은 현대회화가 추구하고 있는 조형의 기본적인 것이지요.”라 표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응노 화백은 파리에 정착한 후에도, 먹과 붓과 한지를 중시하여 서예를 근간으로 한 동양 예술교육에 힘썼다. 직접 <서도(書道)의 기초>라는 서예 교본을 만들어, 파리동양미술학교의 첫 번째 수업을 이 교본을 보며 서예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예를 익히는 과정에서 동양미술의 ‘여백의 미’와 ‘공간구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자를 알지 못하는 유럽인들에게도 <서도의 기초>는 동양미술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업이었다. 또한, 수업 계획을 묻는 질문에 “붓 쥐는 법부터 가르치려고 합니다.

서양에서 붓은 팔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붓이 팔과 수직을 이룹니다. 붓 쥐는 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주에 한 과씩 진행하면 석 달은 족히 걸릴 겁니다. 이어서 붓 속에 있는 먹빛과 종이에 붓을 찍는 속도에 따라 선을 긋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³⁷⁾라고 하였다.



❶ 고암 이응노가 직접 만든 교본 〈서도의 기초〉

이처럼 서도를 근간으로 했던 이응노 화백은 1960년대에 추상화 속에서 발견되는 자연 속의 인간, 1970년대에는 인간의 형태를 문자처럼 변형한 문자추상 시리즈를 발표하였다. 프랑스는 물론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에서 크고 작은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문자추상 작업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1978년에는 동양화 교습서 「수묵담채화법: Ungno Lee, L'art de Peindre à l'encre de Chine」을 발간하였다.

이응노 화백은 ‘파리동양미술학교’를 통해 한국작가로서 유일하게 동양예술을 서구에 보급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던 당시 유럽인들에게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예술’을 통해 보여주었다.

1970년대 문자추상은 서체의 부드러운 흐름에서 벗어나 건축적으로 단단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문자추상 양식을 심화시켰다. 1980년을 기점으로 1989년 작고하기까지 제작된 ‘군상’ 연작은 작가의 인생관과 예술관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이응노 예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에 세르누쉬 미술관에서 열린 〈이응노, 군상(群像)의 남자〉전에 문자추상 관련 작품이 다수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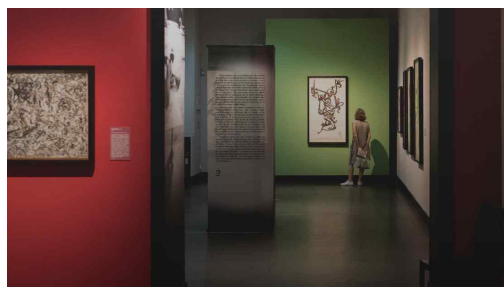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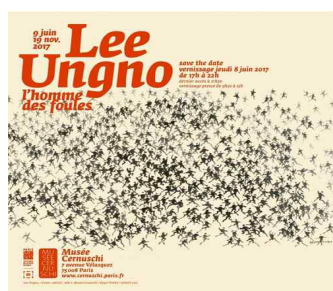
37) 이응노 화백의 예술세계에 관한 내용은 〈에꼴드 이응노-파리동양미술학교〉(이응노미술관, 2015.) 자료를 참고하였다.



📍 파리 세르누쉬 미술관



📍 70년대 파리동양미술학교의 모습



📍 2017년 세르누쉬 미술관에서 열린 <이응노, 군상 (群像)의 남자>전

현재 파리동양미술학교는 약 50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거쳐 간 학생들은 무려 3,000여 명이 넘는다.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정식 교육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유럽인들에게 동양화를 가르치는 교육 활동뿐 아니라 동양화의 기초가 되는 서예교육과 보급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국내 작가들의 해외 진출에도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 파리 이응노레지던스

4.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참여 서양 작가

서양에서의 서예 활동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예 단체나 서예박물관 미술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애호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서양 작가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1회 행사부터 2019년 12회까지, 20여 년을 거쳐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외국 서예가들이 이 축제에 초청되었다.

④ <국내외 참여작가 현황>

| 회수(연도) | 참여작가 수 | 한국작가 수 | 외국작가 수 | 외국작가 비율 |
|-----------|--------|--------|--------|---------|
| 1회(1997) | 119 | 91 | 28 | 24% |
| 2회(1999) | 441 | 400 | 41 | 9% |
| 3회(2001) | 1,673 | 1,633 | 40 | 2% |
| 4회(2003) | 800 | 736 | 64 | 8% |
| 5회(2005) | 980 | 906 | 74 | 8% |
| 6회(2007) | 1,866 | 1,794 | 72 | 4% |
| 7회(2009) | 636 | 534 | 102 | 16% |
| 8회(2011) | 1,849 | 1,685 | 164 | 9% |
| 9회(2013) | 923 | 857 | 66 | 7% |
| 10회(2015) | 846 | 797 | 49 | 6% |
| 11회(2017) | 988 | 916 | 72 | 7% |
| 12회(2019) | 1,349 | 1,220 | 129 | 9% |

그중 최근에 이루어진 2017년 제11회와 2019년 제12회에 참가한 서양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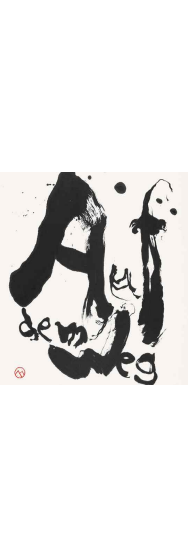

■ 2017년 제11회

| 국적 | 프랑스 | | | 이탈리아 | | |
|-------|---|---|---|---|--|---|
| 이름 | 디바디 파브리겡트 크리스틴느(壽天) Dabadie-Fabreguettes Christine | 니콜라 피치올리 Nicola Piccioli | 다니엘라 디 페르나 Daniela Di Perna | 알도 보르고 Aldo Borgo | 안토넬라 알리아나 Antonella Aliana | 실비오 페르지나 Silvio Ferragina |
| 작품 |  |  |  |  |  |  |
| 작품 제목 | 용이 날고 있다 Flying Dragons | 白玉蟾句 한구절 A Verse of Bai Yuchan | 大道無門 A High street has no main gate | 老子句 An excerpt from Lao Zi | 강변을 가로지르는 CROSSINO THE HAN RIVER | 宇宙 UNIVERSE |

| 국적 | 스위스 | 미국 | 러시아 | 멕시코 | 독일 |
|-------|---|---|---|---|---|
| 이름 | 브루노 리바 Bruno Riva | 존 왕 John Shun-Chieh Wang | 알렉산더 벨리야프 Alexander Belyaev | 베키커틴 Becky Guttin | 프랭크 마틴 Frank Merten |
| 작품 |  |  |  |  |  |
| 작품 제목 | 書法藝道 Poem of Ren Xianqing | 鄭板橋의 집으로 보내는 편지 A letter to home by Zheng Banqiao | 書法散論 This is a quotation from Calligraphy theory by Fushan | 순수해지기.. Growing Pure | 익숙하지 않은... Fremder, otranger, foreign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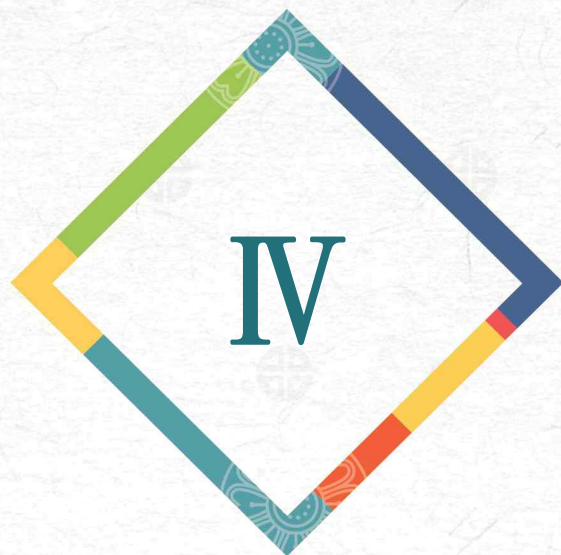
■ 2019년 제12회

| 국적 | 프랑스 | | 캐나다 | 이탈리아 | |
|----------|---|---|---|--|---|
| 이름 | 이네스 이벨닉크 Ines Igelnick | 다비디 파브리겏뜨 크리스틴느 Dabadie Febreguettes Christine | 젠즈 시푸 Jenz Shifu | 안젤라 데그니노 Angela Dagnino | 다니엘라 디 페르나 Daniela Di Perna |
| 작품 |  |  |  |  |  |
| 작품 제목 | 道元句 Dogen's phrase | Mountains and Clouds 산과 구름들 | 自作 詩 One's own poem | 機 Chance, Occasion, Opportunity | 相由心生 The appearance stems from the mind |

| 국적 | 스위스 | | 미국 | 독일 | 멕시코 |
|----------|---|---|---|--|---|
| 이름 | 카티아 바놀리 리바 Katia Bagnoli Riva | 브루노 리바 Bruno Riva | 하리스 신스투 Harrison Xinshi Tu | 프랭크 마틴 Frank Merten | 베키커틴 Becky Guttin |
| 작품 |  |  |  |  |  |
| 작품 제목 | 唐辛夷塢 王維 詩 Magnolia Wall, Wang Wei's poem | 唐辛夷塢 王維 詩 Magnolia Wall, Wang Wei's poem | 士擔當 | Auf dem Weg (On the Way) 가는 도중에 | NEVER AGAIN 다시 절대하지마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11회와 2019년 12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는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독일, 멕시코, 러시아 등 서양의 많은 작가가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서양 작가들이 서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적극적으로 서예 국제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서양인에게 서예는 이미 주목받는 예술로 자리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서예는 문화의 동서서점을 선도하는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예술로서의 서예의 매력



IV. 현대 예술로서의 서예의 매력

그렇다면 이들은 왜 동양예술인 서예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서예에는 사람의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그 매력을 더욱 강조하고 홍보하여 이미 마려된 화목(火木)에 불을 지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서예는 동방 한자문화권에서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활활 타오를 수 있을 것이다.

1. 21세기에 서예가 세계적 예술이 될 수 있는 이유

21세기를 규정하는 말은 다양하다. 무한경쟁 시대, 첨단과학의 시대, 생명공학의 시대, 글로벌 시대, 지식산업의 시대, 문화예술의 시대, 문화산업의 시대, 인문학의 시대, 이렇게 많은 말 가운데 거의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말이 문화, 예술, 인문학 등이다. 왜 그럴까? 지난 20세기에 대한 반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 벽두부터 전 세계에 휘몰아친 금융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금융위기이기 이전에 문화의 위기였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의 잘못된 문화 의식이 자초한 위기였다. 그리고 그때의 그 위기는 미봉 되었을 뿐 지금도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이 지구촌에 사는 우리들의 문화의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시장자본주의(Market Capitalism)와 산업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를 거쳐 한때 ‘자본주의의 꽃’으로 피어나 많은 사람이 탐닉했던 ‘금융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는 사실 이미 자본주의의 본래 이념을 벗어나 “돈 놓고서 돈을 따먹는” 일종의 도박과 투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거품의 자본주의였다. 실체가 없이 돈이 돈을 모으고, 돈 위에 돈이 쌓이다가 필경에는 돈이라는 것마저 꼬리를 감추고 오직 숫자만이 난무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숫자의 거품에 매몰되어 숫자를 믿고서 질편하게 낭비를 해오다가 결국은 금융위기라는 이름의 경제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경제가 금융자본주의의 ‘거품’ 위에서 춤을 추는 동안 사람들은 식량이 생산되지 않아도 돈으로 밥을 해 먹을 수 있을 것처럼 농업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실체’의 산업을 홀시하였고 ‘패션(Fashion)’이라는 이름 아래 멀쩡한 ‘실물’을 다 버려가면서 유행이라는 거품을 쫓아다녔으며,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한번 형성된 거품을 유지하며 거품

위에서 안주하기 위해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을 부끄럼 없이 해왔다. 어떻게 소비가 미덕일 수가 있겠는가?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도 금세 알 수 있는 일을 애써 모르는 채 고개를 가우뚱거리가며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해 온 것이다.

이렇게 거품 위에서 사는 동안 인류는 예술도 거품 예술을 해왔다. 안으로 다져진 실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인간의 내면 정신을 정화하고 승화하려고 노력하는 예술보다는 일시적인 주목 끌기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모인 만큼 돈을 모아서 인기도 누리고 부도 누리면서 예술은 곧 부를 창출하는 것이고 또 부를 창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심지어는 ‘사기’여도 좋으니 대중의 관심만 끌면 된다는 생각에 “예술은 사기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었다.

어떻게 예술이 사기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지고한 자리에 있어야 할 예술이 거품 속으로 몰락한 현실을 자인하는 슬픈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금융자본주의가 몰고 온 거품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각 방면에 만연하자 성실성에 바탕을 두고서 정화와 심화, 성실성과 청정성과 해탈성을 추구하는 동양의 예술정신은 고개를 들기가 쉽지 않았다. 아니, 고개를 들기는커녕 만연한 거품 예술의 혼돈 속에 매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매몰의 한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서예가 자리하였다. 그리하여 청정하여야 할 예술이 상업이 되기도 하고 사기가 되기도 하면서 어지러운 춤을 추었고 이러한 예술 조류가 거의 전 세계에 퍼졌다.

이러한 조류 아닌 조류의 새로운 바람을 타고 서예마저도 사기와 거품의 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문화의 총체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예술 조류(사실은 조류도 아니다. 거품일 뿐이다)의 영향 아래 한자문화권 고유의 문화와 예술도 그러한 조류를 타는 것이 바로 선진 예술로 나아가는 길인 것처럼 선동하는 일부 사이버 예술가들에 의해서 적지 않게 사기성을 띤 불성실한 작품들이 사회의 인정을 받기도 하고 대중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심지어 한자문화권 예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서예마저도 한자문화권의 고유한 문화의식에 바탕을 두지 않고 서구식 특히 미국식 거품 예술에 의탁하여 기괴망측한 묵희(墨戲)들이 ‘현대적인 작품’이라는 탈을 쓰고서 세간에 횡행하고, 오히려 그러한 사이버 예술이 진짜 서예인 양 포장되어 서구 사회에 잘못 알려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거품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거품경제를 일으킨 경제정책이나 ‘돈 놓고 돈 먹기’에 투자한 일부 경제인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가슴 마디에도 어느 정도 거품은 다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자문화권 문화를 연구하고 한자문화권 예술의 정수를 계승하겠다고 나섰던 일부 연구자들마저도 결코 그런 거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거품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이 처절하게 거품이 빠지고 나면 인류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

다. 거품에 취해 있다가 어느 날 거품으로부터 실제로 눈을 옮기고 보니 당장 먹고 살 식량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인류는 치열한 식량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외치며 흥청대는 사이에 환경은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자원도 거의 고갈되었으니 앞으로 오염되고 파손된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큰 대가를 받아야 할지 모른다. 지금 인류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대가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더 큰 대가를 받기 전에 빨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인류가 본래 미덕으로 삼았던 성실과 절약과 절제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의식을 바꾸는 세계적인 문화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그러한 문화운동의 이념으로서 새로운 문예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문예조류 형성의 길을 동아시아문화 예술, 특히 동아시아한자문화권 문화예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서예’에서 찾을 수도 있다. 여기에 21세기 서예진흥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서예진흥은 단순히 ‘붓글씨 쓰기’를 부활하자는 구호가 아니다. 우리나라 문화융성의 방향이 바로 서예의 진흥에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문화융성, 한때 국정 4대 지표 중의 하나였던 문화융성은 이제 속도나 양의 문제로 파악할 게 아니라, 방향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예의 진흥에서 우리나라 문화융성의 방향을 봐야 한다. 서예의 진흥은 단순히 서예의 진흥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융성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국민 정서와 문화의식 재정립의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세계문화 신조류 형성의 문제로 직결된다. 이러한 점들이 다 서예가 세계의 예술로 부상할 수 있는 이유이다.

2. 한자문화권의 예술정신 및 서예의 예술적 성격과 가치

1) 한자문화권의 전통 예술정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문화와 예술을 지탱해 온 양대 사상은 역시 유가사상과 도가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자문화권 문화예술은 이 유가와 도가 양대 사상을 주된 배경으로 변화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예술정신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가와 도가 양가의 사상 안에 내재하여 있는 예술정신을 찾아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儒), 도(道) 양가 사상에 내재하여 있는 예술정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 도 양가사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미(美)의 성격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들 양가사상에서 제시한 예술창조와 예술의 효과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유가를 대표하는 인물은 역시 공자와 맹자이고 도가를 대표하는 인물은 노자와 장자이다. 그런데 서복관(徐復觀)은 노자와 장자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만약 우리가 《노자》《장자》 두 책에 서술된 인생 태도를 대비시켜 본다면, 노자의 인생 태도는 사실상 화와 복을 따지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득실에 대한 계산적 심리가 너무 많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후에 폐단으로 흘러 노자사상은 유순하나 한편으로는 음험한 권모술수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장자는 바로 이러한 화복을 따져 비교하고 계산하는 마음을 초월하기 위하여 《유(遊)》하는 예술 성격의 생활에 귀착한다.(我們若將老子與莊子兩書中所敘述的人生態度，作一對比，即不難發現，老子的人生態度，實在由其禍福計較而來的計議之心太多，故爾後的流弊，演變成爲陰柔權變之術。而莊子則正是要超越這種計議打算之心，以歸於《遊》的藝術性的生活。) 徐復觀, 《中國藝術精神》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하여 우리는 중국 예술정신에 관한 한, 노자보다는 장자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공자가 여러 곳에서 음악과 시를 통해서 예술정신을 피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공자, 맹자 두 사람 중 중국 예술정신에 관한 한 역시 공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우선 공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유도 양가의 사상에 나타난 미(美)에 대한 인식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 자연미 : 천지유대미이불언(天地有大美而不言)-도가의 미

장자에 앞서 우선 노자의 말을 한 대목 보기로 하자.

- 오색(五色)의 빛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며, 오음(五音)의 음악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오미(五味)는 사람의 미각을 상하게 한다. 말을 달려 사냥을 하는 놀이는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얻기 어려운 귀중한 재물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馳騁畋獵, 令人心發狂, 難得之貨, 令人心放.) 老子, 《道德經》

여기에 나타난 노자의 뜻인 즉, 눈은 본래 보기 위해서 자연히 생긴 것이고 귀는 듣기 위해서 입은 맛을 보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아름다운 빛과 지나치게 아름다운 잡다한 음악과 지나치게 맛있는 맛을 탐하다가 결국 눈이 멀고 귀가 상하고 입맛을 잃게 되며, 또 몸이란 그저 살기 위해서 자연히 생긴 것인데 몸의 즐거움을 위해 지나치게 놀이를 탐닉하다가 결국은 몸을 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시된 오색, 오음, 오미 등은 세속적 의미로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색과 음과 맛을 뜻한다. 노자는 아름다움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감각과 관능의 쾌감을 자극하는 아름다움, 즉 세속적인 아름다움(美)을 부정한 것이다. 노자는 다음과 말하기도 하였다.

-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은 항상 아름다움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상 그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악한 것이다.(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老子, 《道德經》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으로 여기고 있는 아름다움은 바로 세속미(世俗美)이다. 그리고 이 세속미는 앞서 예시한 오색, 오음, 오미의 미이다. 노자는 바로 이 세속미를 미가 아니라, 추악한 것으로 여기고, 진정한 아름다움(眞美)은 따로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노자의 이러한 관념은 장자에게로 계승되었는데 장자는 이런 세속미를 초월하여 「대미(大美)」를 구하고자 하였고, 오만한 소교(小巧)로부터 벗어나 「대교(大巧)」를 구하고자 하였으며, 감각적이며 관능적인 쾌감을 초월하여 「대락(大樂)」을 얻고자 하였다. 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천지는 만물을 키워주는 큰 아름다움(큰 功)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여 자랑하려 들지 않고, 사시는 분명한 법에 따라 움직이지만, 의논하지 않으며 만물은 각기 생명의 이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성인만이 이 천지의 미(功)에 근원하여 만물의 도리에 통달하고 있다.(天地有大美而不言, 四時有明法而不議, 萬物有成理而不說, 聖人者原天地之美, 而達萬物之理.) 莊周, 《莊子》〈知北海〉

여기에 나타난 「대미」, 즉 「천지미」가 곧 장자가 추구한 미이다. 이 미는 있는 그대로의 미이며, 말하지 않는 미이다. 바로 자연미인 것이다. 장자가 추구한 이 자연미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장자의 말을 한 구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나의 스승, 나의 스승은 만물을 이루어 놓고서도 그것을 의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은택이 만세에 미치게 하고서도 그것을 어질다고 생각지 않으시며, 아득한 옛날 상고시대보다도 더 오래 사셨으면서도 늙었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하늘로서 덮고 땅으로서 실으며 그 안에 갖가지 만물의 형을 조각해 내고서도 교묘한 재주라고 여기지 않으셨다.(吾師乎, 吾師乎. 整萬物而不爲義, 澤及萬歲而不爲仁, 長於上古而不爲老, 覆載天地刻彫衆形而不爲巧.) 莊周, 《莊子》〈大宗〉

여기서 말한 나의 스승은 바로 「도」 자체이다. 그리고 갖가지 조각은 바로 예술적인 창조이다. 도에 의해 주재된 자연이라는 예술적 창조는 바로 천지의 「대미」인데, 그 대미는 결코 교묘한 재주라고 여기지 않는 「불위교(不爲巧)」, 즉 「대교(大巧)」의 미(美)인 것이다. 이것은 노자가 도덕경 45장에서 말한 「대교약줄(大巧若拙)」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서 장자는 천지의 「대미」를 본원적인 미요, 진정한 미로 보면서 그 미로 창조하는 예술적 창조를 「불위의 교(巧)」, 즉 「대교(大巧)」로 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장자는 대미로서 미의 본원을, 「불위의 교」로서 미의 예술적 창조를 설명한 후 「지락(至樂)」, 「대락(大樂)」이라는 말로서 「대미」의 예술적 효과를 설명하였다. 장자는 본원의 미인 천지의 대미를 깨닫고 대미의 예술적인 창조인 대교의 경지를 얻은 후 누릴 수 있는 예술적 효과로서의 「대락」을 설명한 말들이다. 이 대락은 바로 세속의 감각과 관능 위주의 즐거움을 초월한 본원적인 큰 즐거움인 것이다.

■ 인격미(人格美) : 발호정지호예의(發乎情止乎禮義:정에서 발생하여 예의에서 멈추다)

- 유가의 미

공자가 시(詩)를 중시하고 음악을 중시하여 시교(詩敎)와 악교(樂敎)로서 세상을 교화하고자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자면 예술이라고 칭할 수 있는 시와 음악을 중시한 공자는 예술의 필연적인 계기인 「미」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공자 사상을 이은 유가들이 「미」를 보는 관점은 어떠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가는 철저하게 인격미를 중시하고 그것을 최고의 미로 보았다. 인격미는 곧 수양을 통하여 승화된 최고의 인품에서 우리나라오는 미이다. 따라서 그것은 다른 말로 승화미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시》300편의 성격을 한마디로 개괄해서 말한다면 ‘나타난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詩三百, 一言而蔽之, 曰 ‘思無邪’.) 《論語》〈爲政〉

여기서 말하는 ‘《시》300편’은 《시경》시를 말한다. 공자는 평소에 《시》의 가치와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였는데 그가 그렇게 강조한 《시경》시에 대해서 그는 「나타난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은 역으로 해석하면, 공자가 《시경》시를 것처럼 중시한 까닭은 《시경》시에 나타난 생각에 사특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바로 「생각에 사특함」이 없는 인격미를 최고의 미로 본 것이다.

- 공자께서는 순임금의 음악인 소(韶)에 대해서는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美) 지극히 좋다(善)”고 하시고, 무왕의 음악인 무(武)에 대해서는 “지극히 아름다우나 지극히 좋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셨다.

여기서 공자는 지극히 아름다운 점에서는 순임금의 음악인 소나 무왕의 음악인 무가 다를 바가 없지만, 지극히 좋은(착한) 점에서는 다른 면이 있다고 하였다. 소는 진선 하기도 하지만 무는 진선 하지는 못하다고 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하안(何晏)은 《논어집해(論語集解)》에서 공안국(孔安國)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순임금은 자신이 갖춘 성덕으로서 요임금으로부터 선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음악은 진선하기까지 하지만 무왕은 주왕을 정벌함으로써 천하를 얻었기 때문에 진선하지는 못하다.(孔曰 ; 韶, 舜樂名, 謂以聖德受禪, 故眞善. 武, 武王樂也, 以征伐取天下, 故未眞善也.) 何晏, 《論語集解》〈八佾〉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공자의 미관을 짐작할 수 있는데 공자는 완전한 미란 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미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서, 선(善)과 통일을 이루고 조화를 이룬 미를 완전한 미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선이란 바로 수양에 근거한 양심과 도덕을 갖추고 정리(正理)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인격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공자가 선과의 통일을 이룬 미, 즉 「진미 하면서도 진선한 미」를 완전한 미로 보았다는 것은 바로 완전한 인격미를 최고의 미로 보았음을 의미한다. 공자의 이러한 미관은 후대의 유가들에게 계승되어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유가의 이러한 인격미, 승화미, 다시 말해서 선(善)과의 통일을 이루는 미를 강조한 미관은 한대의 유가인 위굉(衛宏)이 쓴 《모시(毛詩)》 서(序)에서 정리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 시(詩)라는 것은 뜻(志:heart)이 가는 곳이다. 마음속에 있으면 뜻(志)이고, 그것이 말로 발산되어 나오면 시이다. 가슴속에서 정이 움직여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인데, 만약 말로써 표현이 제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탄식하는 감탄사를 쓰게 되고, 감탄사로도 부족하면 노래를 부르게 되고, 노래로도 부족하면, 그때에는 손으로 어떻게 춤춰야 할지 발을 어떻게 굴러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而形於言, 言之不足, 故嗟嘆之, 嗟嘆之不足, 故詠歌之, 詠歌之不足, 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也.) 《詩經》

《모시(毛詩)》 서(序)는 이처럼 시의 발생원인, 시의 성격 등에 대해서 밝힌 다음 「왕도(王道)」가 쇠하고 예의가 퇴폐해져서, 정치와 교육이 제자리를 잃게 되면 일관성 있는 정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후국들마다 다른 정치를 행하고, 또 집집마다 생활풍속마저 달라지는데,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는 시나 노래도 정상의 시나 노래가 나오지 않고 변괴스런 변풍(變風)이나 변아(變雅)가 나오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한 다음 《모시(毛詩)》 서(序)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변괴스런 변풍(變風)은 사람들의 감정에서 나오지만, 그것은 예(禮)에서 멈추게 된다. 감정으로부터 그러한 시가가 나오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당연한 본성(本性)이다. 그러나, 그것이 예에서(예로써) 멈추게 되니(절제되니) 그처럼 예에서 멈추게 되는 것은 선대의 성인들이 남겨 놓은 교육과 문화의 은택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유가들은 중국예술에서 추구하는 본원적인 미를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예로서 절제되는」 즉 「발호정(發乎情), 지호예의(止乎禮義)」의 인격미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호정, 지호예의」적인 인격미는 후대 유가적 예술관의 핵심정신으로 작용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계승되면서 도가의 자연미와 더불어 중국 예술정신을 형성하는 양대 미로 자리 잡고 있다.

도가의 자연미는 세속미를 초월하여 찾고자 한 자연 그대로의 미이다. 그러나 이 미는 찾고자 해서 찾아지는 미가 아니라 허정한 마음을 가진 지인(至人)이나 성인(聖人)의 마음 거울에 드러나는 미이다. 따라서, 이 자연미 또한 넓은 의미에서 인격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인격이 수양을 통해 형성된 인격이 아니라, 초월을 통해서 형성된 인격이라는 점이 유가의 인격과 다를 뿐이다. 유가의 인격미는 인간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수양을 통해 예로서 절제하고 승화시킨 미이다. 그런데 이 예에 대해서 말하자면 도가들은 일체의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 등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부정하고 무위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천지의 대미(大美)와 더불어 살면서 대락(大樂)을 향유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은 모든 제도와 규범의 모태인 예(禮)마저도 부정하였다. 그들은 예를 초월하여 무위의 자연으로 돌아가 「천인합일」의 경지를 추구한다.

그런데 유가는 이러한 도가들과는 정반대로 예를 가장 중시하여 예의 정신을 확연히 터득한 사

람을 성인으로 보고 배움의 끝을 예에 두었다. 그렇다면 유가의 예란 무엇인가? 유가의 예 또한 도가의 자연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역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천인합일」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란 자연의 질서와 타당성을 배워서 인간도 자연처럼 질서 있고 타당성 있게 살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인 동시에 인간과 자연 사이의 약속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기》의 〈악기〉에서는 「예란 천지의 질서이다.」(禮者, 天地之序也) 혹은 「예는 바꿀 수 없는 천지간의 진리이다.」(禮也者, 理之不可易者也.)고 하였다. 이러한 예의 의미에 비추어 본다면, 유가가 것처럼 예를 중시한 목적도 역시 자연을 배워서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가의 대미(大美), 즉 자연미가 현시한 경계나 유가의 「발호정, 지호예의」, 즉 인격미가 추구한 경계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천인합일」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도유 양가는 이 경지에 이르는 방법만을 달리하고 있으니, 도가는 예를 비롯한 모든 인위적인 제도, 규범, 심지어는 인간의 감각, 지각작용까지를 초월하여 무위의 자연을 실천함으로써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고, 유가는 철저히 자연질서와 타당성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다. 따라서, 유도 양가의 사상에 내재한 중국 예술정신의 이상향은 한마디로 「천인합일」의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서예의 ‘순수’ 예술적 성격과 가치

앞서 중국예술이 추구해온 미는 자연미이자 인격미이며, 도가의 자연미나 유가의 인격미가 공히 「천인합일」의 이상 경계를 지향하고 있음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 예술정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예는 과연 어떠한 성격의 예술이며, 중국 예술정신과 어떻게 부합하는 예술인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진연우(陳延祐)는 〈서법예술본체론(書法藝術本體論)〉이라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중국예술의 미는 세 방면에서 나왔다. 첫째 서예는 자연에서 시작되었는 것이고, 둘째 서예는 힘(力)을 나타내고, 정신을 모으는(神凝) 예술이라는 점이며, 셋째 서예는 사람의 감정을 펼치고 마음을 그려내는 예술이라는 점이다. 첫째로 말한 서예가 자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서예미의 기초에 대해서 말한 것이니, 이것은 「진(眞)」이요 「리(理)」의 문제이며, 둘째로 말한 힘을 내보이고 정신을 응축시키는 예술이란 것은 서예의 형태에 관한 말로서 이는 「미(美)」와 「형(形)」의 문제이다. 그리고, 셋째로 말한 서예가 사람의 감정을 펼치고 마음을 그리는 예술이라고 한 것은 미의 공용성에 대한 언급으로서, 이는 「선(善)」과 「정

(情)」의 문제이다. (書法藝術出於三個方面，一是書肇自然，二是力顯神凝，三是抒情畫心。第一個方面講的是美的基礎，是真，是理的問題，第二個方面講的是美的形態，是美是形的問題，第三個方面講的是美的功用，是善，是情的問題。) 金開誠，王嶽川 主編，《中國書法文化大觀》

진연우는 여기서 서예의 본체, 즉 서예의 본원적, 본질적 예술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니, 그 첫째는 서예의 기초에 대한 설명으로서 서예가 자연에서 시작되었다는 「서조자연(書肇自然)」이고, 그 둘째는 서예의 표현방법과 형식에 대한 언급으로서 서예는 힘과 정신을 나타내고 응축시켜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역현신응(力顯神凝)」을 제시하였으며, 셋째로는 서예의 예술적 효용으로서, 서예는 인간의 감정을 서발(抒發)하고 심성을 드러내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서정화심(抒情畫心)」을 제시하였다. 서예의 예술적 특징을 잘 정리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첫째 「서조자연」은 당연히 본체론에 속하는 내용이지만, 둘째 서예의 표현방법과 형식에 관한 언급인 「역현신응」은 서예의 본체론에 포함할 내용이라기보다는 표현론에 포함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진연우 자신도 말했듯이 「본체론이란 하나의 철학용어로서 한 세계(한 장르, 문 문화)의 본원, 혹은 본성 문제에 대한 연구(“本體論” 原爲哲學名詞，指對世界的本源或本性問題的研究.)」이므로 「역현신응」적인 표현방법과 형식문제인 「필력」, 「형세」, 「서(書)와 화(畫)의 관계」, 「서예와 문자와의 관계」 등의 내용은 표현론에 포함해야지 본체론에 포함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소위 본체란 「형상적 사물의 근저에 있는 초감성적 실재」이기 때문에 현상으로 나타난 표현상의 문제는 본체론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서예의 본질에 관한 연구는 서예가 발생할 때 무엇에 본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 그 예술적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감성적 지각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찾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진연우가 제시한 세 번째 항목인 「서정화심」도 서예의 기능이요, 효용에 관한 문제이지 서예의 본원적인 지향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본원적인 지향점이란 서예가 가진 「서정화심」의 기능과 효용이 궁극적으로 어느 경지를 지향하느냐는 문제이다. 그것을 밝힌 것이 본체론적 연구요, 본질론적인 연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고전 서예 미학을 총결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유희재(劉熙載)의 저서인 《예개(藝概)》의 〈서개(書概)〉에 나오는 말을 한 구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서(書)는 응당 자연을 창조해야 한다. 한말(漢末)의 채옹(蔡邕)은 단지 서예가 자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자연(天)을 근본으로 하여 사람이 그것을 본받았다고만 한 것일 뿐, 아직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시 자연을 회복해야 한다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말이다.(書當造乎自然，蔡仲郎但謂 書肇乎自然，此立天定人，尚未及乎由人復天也。) 劉熙載，《藝概》〈書概〉

위의 문장에 나오는 채옹의 「서조자연(書肇自然)」은 서예미의 기초로서 두말할 나위 없이 본체

론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유인복천(由人復天)」은 「인(人)」의 「서정화심(抒情盡心)」활동의 지향점이 바로 「복천(復天)」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복천」은 바로 자연으로의 회복(回歸)이며 「조자연(造自然)」인 바, 여기에서 자연은 「인(人)」의 「서정화심」의 주관적 단계를 넘어 창조된 제2의 자연이다. 그러므로, 유희재의 이 말은 서예술의 시작은 「서조자연(書肇自然)」에 있고, 서예술의 끝은 「서조자연(書造自然)」에 있다는 뜻이다. 처음과 끝을 일관하는 본바탕, 이것이 바로 본질이다. 그러므로 서예의 본체론적, 본질적 특성은 바로 「서조자연(書肇自然)」과 「서조자연(書造自然)」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역현응신(力顯凝神)」과 「서정화심(抒情盡心)」은 「서조자연(書肇自然)」과 「서조자연(書造自然)」이라는 시(始)·종(終)에 끼인 일종의 표현론이요, 효용론일 뿐인 것이다. 이제 「서조자연(書肇自然)」과 「서조자연(書造自然)」을 통하여 서예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 고구해 보도록 하겠다.

■ 서조자연(書肇自然)

① 「천지지대미(天地之大美)」(자연미)의 형상화

「서조자연(書肇自然)」이라는 말은 채옹(蔡邕)의 서론인 〈구세(九勢)〉에 처음 보인다.³⁸⁾

- 무릇 서(書)는 자연에서 시작되었으니, 이미 자연이 정립되고 나면, 거기에서 음양이 생기게 되고, 음양이 생기면 거기에서 형세가 나타나게 된다.(夫書肇於自然, 自然既立, 陰陽生焉, 陰陽既生, 形勢生矣.) 蔡邕, 〈九勢〉

이 말에 대해 부연설명하자면, 서는 자연의 미를 형상화해서 생겨난 것이니, 자연이 정립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음양의 모순 대립과 합일 등의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운동은 다시 형세를 생기게 하는 바, 서예는 바로 이러한 자연 속의 형세를 본받아서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채옹이 서는 자연의 미를 형상화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 것은 단순히 최초에 출현한 형상자가 자연의 외양을 본떠서 된 글자라는 점에만 근거하여 한 말은 아니다. 그것은 자체, 혹은 서체가 발생·창제될 때 자연사물에 내재 되어있는 객관적 운동규율을 본받고 그 객관적 규율 속에 함축된 균형·참치(參差)·변화·통일 등의 미감 심지어는 우주의 정미하고 심오한 이치가 지를 본받아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심윤묵(沈尹默)은 「서조자연(書肇自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38) 蔡邕의 저술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筆論〉, 〈九勢〉, 〈篆勢〉 등 세 편이다. 이중 〈필론〉과 〈구세〉는 宋人 朱長文이 편집한 《墨池篇》과 陳思가 편집한 《書苑菁華》에 실려 전해오고 있고, 〈전세〉는 衛恒의 《四體書勢》에 引錄되어 전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저술 중 〈전세〉는 거의 의심 없이 채옹의 저술로 인정되고 있지만 〈필론〉과 〈구세〉는 많은 사람이 위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위작이라는 확증이 없을 뿐 아니라, 실령 위작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대단히 가치 있는 서론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전래의 설을 따라 채옹의 저술로 보고 인용하였다.

- 대자연에는 복잡한 현상들로 가득 차 있으니, 이러한 복잡한 현상에 대해 채옹은 〈구세〉에서 음양의 대립과 교호작용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음양은 마땅히 대립적인 모순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서는 자연에서 법(法)을 취한 것이니(자연의 리를 본받은 것이니) 서의 형세 중에는 필연적으로 동정(動靜)·강유(剛柔)·서렴(舒斂)·허실(虛實) 등 자연의 규율과 형세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서예가는 단순히 자연의 형질만을 모사(模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와 운동까지를 法 받아야 하는 것이다.(大自然充滿著複雜的現象, 《九勢》認為是由於對立的陰陽交互作用而形成. 這裏所說的陰陽, 可當作對立著的矛盾未理解. ……書是取法於自然的, 它的形勢中, 也就必然包含著動靜剛柔舒斂虛實等等. 就是說, 書家不但是模寫自然的形質, 而且要能成其變化.) 沈尹默, 〈歷代名家學書經驗談輯要釋義〉, 《現代書法論文選》

이 같은 설명을 통해서 볼 때, 「서조자연(書肇自然)」은 다름이 아니라 서예가 「천지의 대미(大美)」, 즉 자연미를 본받아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서예미의 본질에 대한 정의이며 서예의 예술적 성격을 규정하는 원론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도가의 대미(大美)를 통해서 파악한 중국예술정신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서예의 이러한 본질적 예술특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② 구상성(具象性)과 추상성(抽象性)의 구비

천지의 대미를 본받아 형성된 서예, 「조어자연(肇於自然)」의 서예는 과연 구상예술인가 추상예술인가? 사실 구상도 추상도 다 자연이다. 왜냐하면, 추상은 구체에 상대되는 말이지만, 추상 또한 구체 사물 중에서 뽑아낸 독립적인 각각의 어느 일면, 속성, 관계 등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선 서예의 구상성과 추상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한자가 아직 원시 상형문자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글자 자체가 자연물을 그린 것이었으므로 한자 자체가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에 한자가 연변발전되어 상형 성분이 대부분 소실되고 하나의 부호로 정착되면서부터 한자 자체의 구상성은 격감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서에서 예서로 변화된 후로는 한자에서 구체적 물상을 찾아내기 힘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예술 사상 예서의 출현은 중국의 서예를 구상예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전화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예서 이후의 서예를 놓고 보았을 때 서예는 자연계의 구체물상을 모사하는 회화와 조각과는 다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서예가 회화나 조각 등과 달리 자연계의 구체형상을 재현하는 예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서예를 완전히 비구상예술 혹은 추상예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예는 여전히 인공으로 제작된 또 하나의 물상인 문자라는 물상을 모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자는 전언기사(傳言記事)라는 공능(功能)으로 본다면 음성언어를 기록하는 부호이지만, 글자마다 식별이 가능한 하나의 형체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공으로 제작된 하나의 구체물상이며, 문자를 이런 의미의 구체물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인공으로 제작된 다른 구체물상인 꽃병이나 주전자, 전화, 재떨이 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라는 인공물상을 쓰는 서예는 아직도 구상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화가들이 동일한 구체물상을 그린다 해도 「같은면서도 서로 다른」 묘미가 있듯이 표준문자로서의 물상을 쓰는 서예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면서도 같지 않은 묘미가 있으니 이 점 또한 서예가 구상회화와 같은 점이다. 따라서 서예는 구상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예가 회화와 다른 점은 서예는 인공의 특수 물상인 문자만을 묘사의 대상으로 삼고 회화는 온 세계의 삼라만상을 묘화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서예는 분명히 구상예술이지만 서예가 획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서예는 추상예술이다. 서예는 획을 이용하여 의식적으로 정제(整齊)·참치(參差)·평형(平衡)·대칭(對稱)·허실(虛實)·소밀(疏密)·동정(動靜)·조화(調和) 등 여러 측면의 미와 그러한 미와 미 사이의 관계 등을 추구하고 표현한다. 이러한 경우 인공의 구체물상인 문자는 작가가 내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추상미의 매개체로서 일종의 「허울」이요, 「간판」일 뿐, 작가가 획(劃)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천자백태(千姿百態)의 추상미는 따로 있으며 작가는 그 추상미를 통해서 자신의 예술적·심미적 영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 즉 획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예는 분명히 추상예술이다. 따라서, 서예는 구상성과 추상성, 구상미와 추상미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폈듯이 구상도 추상도 사실은 모두 다 자연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서조자연(書肇自然)」이라는 서예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서예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서조자연(書肇自然)」의 자연은 바로 장자가 이야기한 「천지유대미이불언(天地有大美而不言)」의 대미(大美)이므로 장자(莊子)에 나타난 중국 예술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서예의 예술적 특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 서조자연(書造自然)

「서조자연(書造自然)」이란 서예는 자연을 창조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조자연(書肇自然)」이 제1의 자연, 즉 자연계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라면,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서조자연(書造自然)」의 자연은 인위의 극을 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유인복천(由人復天)」의 자연, 즉 제2의 자연을 말한다. 서예가 비록 자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자연을 본받아 형식화시킨 것은 역시 인간이다. 따라서 서예가 하나의 예술로서 정형화된 다음에는 모든 예술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듯이 사람들은 서예를 통하여 자연이 아닌 인간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서예를 통하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을 그려내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진연우도 「서예의 미는 세 방면에서 나왔다」

고 하면서 세 방면 중 세 번째로 「서정화심(抒情畵心)」을 든 것이다. 소위 예술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활동을 빗갈·모양소리 등에 의해서 창조·표현하는 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정화심」이야말로 서예를 하나의 예술이게 하는 중요한 명제이자 서예미 형성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정화심」의 궁극은 「조자연(造自然)」에 있다. 이런 까닭에 서예의 본질적 특성의 두 번째로 「서조자연(書造自然)」을 든 것이다. 이제 「서정화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서예의 본질적 특성인 「서조자연(書造自然)」의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① 서정화심(抒情畵心)

먼저, 서예의 서정화심적 성격을 천명한 고인들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자.

- 필적(筆跡, 붓이 만들어 내는 形象 자체)은 종이라는 평면을 여러 공간으로 분할하는 계한선에 불과한 것이고, 정작 그 필적에 생명을 불어넣어 아름다움이 유동하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작가)이다.(筆跡者, 界也. 流美者, 人也.)- 鍾繇, 《필법》
- 서예는, 능히 그 사람의 성정(性情)을 표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슬픔과 즐거움을 형용할 수 있다.(書法, 可達其情性, 形其哀樂.)- 孫過庭, 《書譜》
- 서예는 때로는 종횡으로 내달리는 뜻(志)을 기탁할 수 있고, 때로는 가슴에 맺힌 회포를 풀어 낼 수 있다.(或寄以聘縱橫之志, 或托以散鬱結之懷)- 張懷瓘, 《書議》
- 예전에 장욱(張旭)은 초서를 잘 썼는데, 특별히 다른 기술을 기른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성냄, 궁색함과 근심, 즐거움, 원한, 사모하는 마음, 취기(醉氣), 무료함, 불평불만 등이 마음에서 움직이면 반드시 그것을 초서로 써냈을 뿐이다.(往時張旭善草書, 不治他技. 喜怒窘窮, 憂悲, 愉佚, 怨恨, 思慕, 酣醉, 不平, 有動於心, 必於草書焉發之)- 韓愈, 《送高閑上人序》
- 사람의 모습에는 아름답고 추함이 있으니 거기에 나타난 군자와 소인의 자태의 차이는 억지로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고, 사람의 말에는 달변과 눌언이 있으니 거기에 나타난 군자와 소인의 기 차이를 속일 수가 없으며, 사람의 글씨에는 공拙(工拙)의 차이가 있으니 글씨에 나타난 군자와 소인의 마음은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섞일 수 없다.(人貌有好醜, 而君子小人之態, 不可掩也. 言有辯訥, 而有君子小人之氣, 不可欺也. 書有工拙, 而有君子小人之心, 不可亂也.)- 蘇軾, 《論書》
- 글씨를 쓴다는 것은 곧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필성(筆性)과 묵성(墨情)(筆墨을 통해 표현된 제2의性情)은 모두 쓴 사람의 성정(제1성정)을 바탕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정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글씨를 쓰는 사람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이다.(寫字者, 寫志也. ……筆性墨情, 皆以人之性情爲本, 是則理性情者, 書之首務也.) - 劉熙載《藝概》(書概)
- 각종 미술이 모두 다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회화조각건축 등 어느 것도 그 안에 개성이 표현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그 개성표현을 가장 절실하고 가장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서예만 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개성표현을 가장 절실하고 가장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서예만 한 것이 없다.(個性而表現, 各種美術都可以, 卽如圖畫彫刻建築, 無不有個性存乎其中. 但是表現出最親切, 最眞實, 莫如寫字.)- 梁啓超, 《書法指導》

이상과 같은 예시들을 통하여 우리는 자고이래로 사람들이 서예를 그 사람의 성품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양계초(梁啓超)의 말을 통해서 서예가 어떤 예술보다도 개성표현이 강한 예술임을 알 수 있었는데, 서예는 작품 제작 당시의 그 먹, 그 붓, 그 종이, 그 감정과 타고난 재주, 닦은 소양, 개인적 의지와 그 당시의 인간적 성숙도 등이 한 순간의 붓놀림을 통해 그대로 반영되어 나오는 예술인 것이다.

② 서여기인(書如其人)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예는 「그 사람의 감정을 펼치고, 마음을 그려내는」 서정화심의 예술이기 때문에 서예는 바로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희재는 서예의 이러한 「서정화심」적 특징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서는 같은 것이다.(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배운 바를 그대로 반영하고,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을 그대로 반영하며, 그 사람의 성정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다. 결론지어 말한다면, 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일 따름이다.(書, 如也. 如其學, 如其才, 如其志, 總之日如其人而已.) 劉熙載, 《藝概》(書概)

이상과 같은 「서여기인」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서예는 결코 일시적인 기발한 생각이나, 흥미 위주의 아이디어, 혹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에 근거한 실험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평소의 함양과 연마, 인품과 인생관 등이 무르익듯이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수양적 성격이 짙은 예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대의 서예가들은 서예를 단순한 기교의 연마로 보지 않고, 탈속의 인품에서 나오는 예술로 보고서 훌륭한 서예를 하기 위해서는 속기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속(去俗)을 강조하였고, 가장 효과적인 거속의 방법으로 다독서(多讀書)를 제시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훌륭한 인품과 다독서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창작된 최고 수준의 서예작품에 대해 우리는 ‘서권기(書卷氣)’와 ‘문자향(文字香)’이 있다고 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서예를 본다면, 서예를 인품수양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가능한 일이며 소위 「논서급인(論書及人)」의 서예비평론이 송대(宋代) 이후로 보편화하여 오늘날까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인정할 만한 일이다. 다만 서예의 예술적 가치를 홀시하고 서예를 수양의 수단으로만 삼는다면, 오로지 서예작품을 작가의 사람됨에만 근거하여 평가함으로써 작가가 한 작품에 사용한 각종 예술적 기교와 독특한 표현방법 등을 무시한 채 작품평가가 아닌 인물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예의 예술적 지위확보를 위해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서예의 본래적 예술특징의 하나인 「서여기인」설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품의 훌륭함만으로 서예작품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훌륭한 인품과 깊은 학식을 쌓지 않고서는 결코 훌륭한 작품을 써낼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앞서 보았듯이 유희재도 「성정을 다스리는 일」을 글씨 쓰는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라고 한 것이다.

혹자는 서예의 「서여기인」적 특성을 애써 부정하려 한다. 「서여기인」에 의해 「기인(其人)」의 서예 풍격, 즉 “개인풍격”이 한 번 형성되고 나면 그 개인풍격을 바탕으로 변화가 없는 천편일률적인 작품을 쓰게 된다고 여겨 변화가 없는 그런 작품은 복제품이나 마찬가지로 예술이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서여기인」을 부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변화」가 서예의 최고 가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서예는 근본적으로 「변화」와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예술이 아니다. 서예는 쓰는 행위를 통해 더욱 훌륭하고 더욱 차원 높은 인격과 심미관을 표현하려 하는 정화성(淨化性)·승화성(昇化性)·해탈성(解脫性)이 짙은 예술이다.

비유하자면, 세계에는 뉴욕 필하모니, 런던 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니, 한국의 K.B.S 교향악단 등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있다.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는 1년에도 수십 차례씩 같은 곡을 연주하고 또 같은 곡을 이 오케스트라도 연주하고 저 오케스트라도 연주한다. 이처럼 같은 곡을 연주함에도 사람들은 오케스트라마다 지닌 특색을 아끼고 사랑하기에 거듭 감상을 하며 박수를 보낸다. 그렇다면, 오케스트라마다 가진 특색은 어디에 근거하여 나타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지휘자의 악곡에 대한 해석력, 즉 지휘자 개인의 “개인풍격”에 근거하여 나타난다.

지휘자의 “개인풍격”에 의해 해석된 곡이 1년에도 수십 차례씩, 같은 곡을 여러 오케스트라가 반복·중복으로 연주하는데, 그렇다면 이들 연주는 모두 예술이 아닌 복제품들인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오케스트라가 추구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곡을 연주한다거나, 기존의 악보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연주하는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악보를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하여 더욱 깨끗하고 더욱 차원 높게 표현하려는 정화와 탈속의 경지인 것이다. 서예도 바로 이들 음악과 마찬가지로 정화성과 승화성과 탈속성이 강한 예술이다.

서예를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형성한 서예만의 고유 특성을 인정하려는 시각으로 보지 않고, 단지 서양에서 들어온 최근세의 미술 이론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서예의 ‘변화 없음’을 탓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예는 서양 미술창작이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고유의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특징 중의 대표적인 것이 「서여기인」이다. 따라서 서예의 「서여기인」적 고유 성격을 부정한 채 서예를 「개인풍격」에 의한 천편일률적인 복제품이라고 매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서예를 정화성·탈속성이 강한 예술이라고 하였는데 서예의 이러한 예술적 특징은 유가사상에서 최고의 미로 제시한 인격미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탈속성의 대미를 최고의 미로 본 도가의 미관에도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예의 「서여기인」적 예술특징은 도·유 양가 사상에 내재한 탈속성의 대미와 예(禮)로 절제된 승화된 인격미를 최고의 미로 보는 중국 예술정신에 바탕을 두고서 형성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까닭에 서예야말로 중국 예술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대표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가에서 추구한 대미도 유가에서 추구한 예의 정신에 입각한 인격미도 궁극적으로는 「천인합일」의

「자연」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예술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서예도 궁극적으로 제2의 자연 창조, 즉 「유인복천(由人復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③ 유인복천(由人復天)

유인복천은 인공 혹은 인위의 극을 넘어 자연(天)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예는 근본적으로 자연에서 시작되었지만(肇自然), 그것은 다시 인간의 일이 되어 서정화심, 서여기인이라는 인간중심의 예술특성을 내보였고, 거기서 다시 나아가 「기인(其人)」의 인품을 승화시키고 정화, 탈속시킬 것을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탈된 제2의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지향하는 예술인 것이다. 서예의 「유인복천」적 예술특징에 대해 유희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서예는 응당히 자연에서 창조되어야 한다. 채중량(蔡邕)은 단지 서예가 자연에서 시작되었다고만 하였으니 이것은 자연(天)에 근거하여 인간의 서예가 탄생되었다고 한 것일 뿐, 아직 인공의 극을 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말이다.(書當造乎自然, 蔡仲郎但謂 書肇乎自然, 此入天定人, 尚未及由人復天也.) 劉熙載, 《藝概》〈書概〉

여기에서 유희재는 서예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경지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는 원칙적으로 채옹의 「서는 자연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채옹의 이 말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점만을 강조한 것일 뿐, 최소한 인간이 자연의 경지에 서서 인공의 극을 뛰어넘는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자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자연스러운 제2의 자연을 창조할 수 있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유희재는 채옹의 말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인복천의 세계를 제시한 것이다. 이로써 유희재는 서예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무한히 확장시켰고 아울러 서예가 도달해야 할 이상을 매우 높이 설정하였다.

「유인복천」이란 말은 유희재가 하였지만, 「유인복천」의 예술작품이나 「유인복천」을 실천한 예술가들은 유희재 이전에도 많이 나왔다. 중국 예술사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예술가들은 사실상 모두 「유인복천」을 실천한 사람들이다. 도연명, 이백, 두보의 시가 그렇고, 황정견, 소동파의 글씨가 그렇다. 그러므로 황정견은 도연명과 두보의 시에 대하여 “번거롭게 먹줄치고 깎아 다듬지 않아도 저절로 부합한다.(不煩繩削而自合)”(黃庭堅, 〈題意可詩後〉)이라고 평가하여 그들의 시가 인공의 극이라는 벽을 넘어 자연에 이르렀음을 설파하였고, 이백은 본인이 이미 “잘 지으려고 쪼고 다듬은 것은 천진을 손상시킬 뿐이다.(雕蟲喪天真)”(李伯, 〈古風59首〉)이라 호언하였으며 동파 또한 “나의 글씨는 본시 인공의 공교를 떠나 이미 무법을 지향한다.(我書意造本無法)”(蘇軾, 〈評草書〉)고 호언 함으로써 「유인복천」의 서예를 추구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처럼 서예의 진정한 성취는

「유인복천」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완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유희재는 서예의 본원적이고 궁극적인 예술적 특징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 경지를 「유인복천」이란 말로 종합한 것이다.

이 「유인복천」은 공자가 말한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와도 같은 경지의 자연스러움이며 장자가 말한 「소요유」의 「유(遊)」와 비견할만한 자유해방의 경지이다. 그런데, 「종심소욕불유구」는 공자가 제시한 인격미의 최고 수준을 표현한 말이며, 「소요유」는 장자가 제시한 탈속의 대미 속에서 노니는 경지이다. 따라서 서예의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예술특징인 「유인복천」은 유도 양가의 인격미와 대미에 바탕을 둔 중국예술 정신을 철저히 반영한 결과로 형성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인복천」에 이어 유희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 글씨 공부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보아야 하나니, 그 하나는 자연사물을 보는 것이요(觀物), 다른 하나는 나를 보는 것이다.(觀我) 자연사물을 살펴봄으로써 자연사물에 내재한 미를 분별하여 체득하고, 나를 살펴봄으로써 나의 인품을 수양하여 덕성(德性)이 통달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學書者有二觀, 曰: 《觀物》, 曰: 《觀我》 觀物以類情, 觀我以通德.) 劉熙載, 《藝概》〈書概〉

여기에서 말한 「관물(觀物)」은 바로 장자가 말한 천지의 「대미(大美)」를 보라는 뜻이고, 「관아(觀我)」는 바로 공자가 강조한 바와 같이 수양을 통하여 자연과 합일할 수 있는 인격미를 갖추라는 뜻이다. 천지의 대미를 볼 수 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격미를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서예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예술특징인 「유인복천」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서예의 예술적 성격(특징)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 ① 서예는 시작부터 세속미가 아닌 탈속적인 천지의 대미(自然美)를 본받아 탄생되었다.
- ② 서예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서정화심(抒情畵心: 감정을 펴고 마음을 그림)」의 예술이다.
- ③ 서예는 작가의 배움, 재능, 의지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른바 「여기인(如其人: 그 사람을 그대로 드러냄)」적인 예술이다. 따라서 학식을 넓히고 인품을 수양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서예작품을 창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깊은 학식과 높은 인품에 바탕을 둔 최고 수준의 서예작품을 서권기(書卷氣) 문자향(文字香)이 있다고 한다.
- ④ 「서여기인(書如其人: 글씨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서예는 “개인풍격”을 위주로 하는 예술이며, “개인풍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승화성, 해탈성이 짙은 예술이다.
- ⑤ 정확성, 승화성, 해탈성이 짙은 예술이기 때문에 천지의 대미(大美)라는 자연미를 추구함과 동시에, 예(禮)에 바탕을 둔 인격미를 추구하는 예술이다.
- ⑥ 자연미와 인격미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유인복천(由人復天: 인공으로부터 천연을 회복함)」

을 지향하는 예술이며, 「유인복천」은 바로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음)」의 경지이자 「소요유(逍遙遊)」의 경지이며, 더 나아가서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와 상통하는 경지이므로, 서예는 중국예술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⑦ 이상과 같은 예술특징으로 볼 때 서예는 근본적으로 「아예술(雅藝術)」이지 「속예술(俗藝術)」이 아니다.

3) 서예 ‘디자인’의 부가가치

현대사회에서 시각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 디자인 산업이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디자인 산업을 우리는 거의 다 외국에 빼앗기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로고나 캐릭터 등을 외국의 디자인업체로부터 수십, 수백억의 돈을 주고서 사와야 하는 실정이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디자인 선진국들이 이미 웬만한 디자인 상품을 다 개발해 놓고서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할 경우 표절 시비를 걸어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외국의 디자인업체에 디자인을 의뢰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세계 디자인계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을 이용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서예에 있다. 서예가 가지고 있는 운묵(暈墨: 번짐)의 효과나 한지와 먹물이 만나서 형성하는 독특한 비백(飛白: 먹이 다 묻지 않는 현상) 등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누구도 개발하지 않은 독특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서구의 디자인 선진국들은 그들의 디자인 산업에 아직 서예를 구체적으로 응용한 예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서예를 현대의 시각디자인에 응용하여 새로운 디자인 산업 강국으로 부상해야 할 때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서예는 매우 중요한 시각 디자인의 매체였다. 잘 쓴 글씨는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고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훌륭한 집을 지으면 으레 유명한 서예가들을 찾아가 재호(齋號: 집 이름)를 받아 오기도 하고 주련(柱聯)을 받아 오기도 하였는데 재호나 주련은 오늘날로 치자면 회사의 로고나 상호와 같은 것이었다. 전통사회에서 서예는 최고의 시각 디자인 역할을 하였고 서예가들은 오늘날로 치자면 산업디자이너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이다. 서예의 이러한 공능이 우리 사회에 최근까지 남아있는 증거로는 항일시대 성당(惺堂) 김돈희(金敦熙)가 써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동아일보(東亞日報)’ 제호와 경암 김상필이 쓴 현대그룹의 ‘현대(現代)’라는 글씨와 소전 손재형이 쓴 종근당 제약의 ‘종근당’이라는 글씨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열광적으로 입었던 붉은 티셔츠의 가슴 부위에 썼던 “Be the Reds”라는 글

자들을 기억한다. 비록 정통 서예는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서예를 이용한 디자인이었다. 이 시대의 서예는 디자인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과거 어떤 때보다도 높다. 서예의 ‘디자인’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각종 옥외 광고, 영화 포스터, 음반이나 책의 표지, 영화와 드라마 제목, 기업 홍보물 등 문자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려는 매체에서 ‘디자인’을 의식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매체에 쓰인 글씨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각 상품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새로운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글씨에서는 이전의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느낌과는 달리 생생히 살아있는 손맛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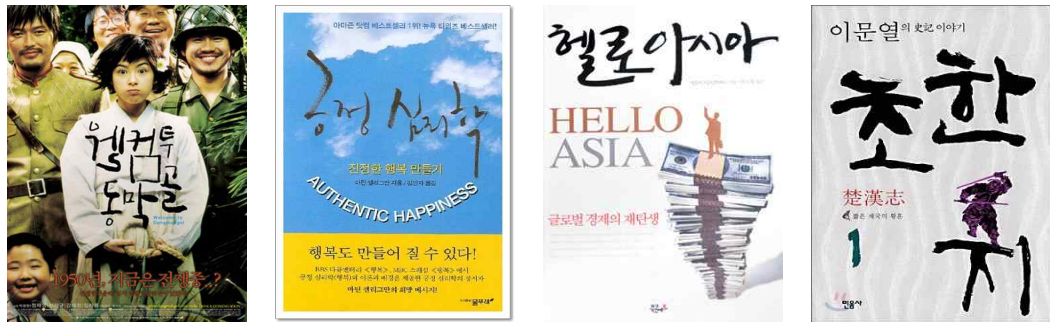
예를 들어 재판되는 서적의 경우 겉표지의 디자인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책 제목이 이전의 고딕체나 명조체에서 손글씨로 재디자인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변화는 그 책의 느낌을 한결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연출해 낸다. 또한, 재판하면서 붓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한 글씨를 표지로 내걸고 그 제자(題字)한 사람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아래 제시하는 서적 《바람과 구름과 비》의 재판본에서는 ‘제자 필묵 이상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서예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글씨를 멀리하고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쓴 글씨를 선호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손글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 때문일 것이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손글씨에서 우리는 컴퓨터 자판을 통해서는 느낄 수 없는 ‘인간미’, ‘편안함’, ‘사람 냄새’, ‘자유분방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메마르고 정형화된 디지털 글씨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다. 이러한 매력이 상업적인 측면에서 더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서예’를 흔히 ‘캘리그래피(Calligraphy)’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원래 ‘캘리그래피(Calligraphy)’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Kalligraphia’에서 유래된 것으로, 동양의 ‘서예’의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다음 영화 포스터나 책 광고 등의 자료들은 캘리그래피를 이용한 디자인들이다. 그런데 서예는 가장 발달된 캘리그래피이다. 이처럼 서예로 써서 디자인한 글씨의 느낌은 컴퓨터로 쓴 획일적인 글씨에서 느껴지는 느낌과는 확연히 다르다.





붓이 종이 위를 스치면서 이루어지는 비백(飛白) 효과라든지 먹물이 종이 위에서 부드럽게 펼쳐지면서 이루어내는 자연스러움은 이 문자 디자인만이 지니는 개성이다.

이러한 손글씨가 서예에 능통한 사람에 의해서 쓰인 것이라면 그 느낌은 더욱 강렬할 것이다. 잘 알려진 서예가 강암 송성용 선생의 작품인 덕진공원의 「연지문(蓮池門)」, 「호남제일문(湖南第一門)」, 원광대 여태명 교수의 「축제」라는 영화 포스터 제목, 「전주」 톨게이트 글씨, 하석 박원규의 「취화선(醉畵仙)」, 「천년학(千年鶴)」 등의 영화 포스터 제목, 김병기 교수의 「화려수(華麗秀)」 상품명, 신영복 교수의 「처음처럼」 로고, 그 외 「백세주」, 「산사춘」 등은 모두 서예에 능통한 사람들의 글씨들이다.



또한, 각종 옥의 간판들에서도 쉽게 손글씨를 찾아볼 수 있다.³⁹⁾



4) 서예의 심신 수양과 심리치료 효과

21세기는 디지털 문화의 발달로 인간과 인간의 만남보다는 인간과 기계와의 만남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나마 이루어지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도 기계의 중계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면서 인간 소외 현상이 배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인간의 심리 불안 현상이 늘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심리치료’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심리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면서 요즈음 음악치료, 미술치료, 향기치료 등 다양한 치료방법이 대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치료방법 중에서 어떤 치료보다도 치료 효과가 높은 것이 서예치료라고 할 수 있다.

문명 발생의 초기부터 자아와 비자아 사이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 본 서양 사람들의 종교관 역시 대립적인 관점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서양의 기독교는 현세와 내세를 분명히 나누어서 보고 있다. 현세를 하느님의 뜻대로 잘 살면 내세에는 하느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관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차안(此岸)의 현세와 피안(彼岸)의 내세를 분명하게 나누어 양립적인 것으로 보고 죽음을 차안의 세계에서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점에 있어서는 불교도 마찬가지이다. 죽음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금생에서 내생의 지옥이나 극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내세관이 분명한 기독교에서는 종교의 힘으로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키려고 하였다. 부연하자면, 종교의 힘으로 사람들을 규

39) 문혜정, <디지털 시대 손글씨 쓰기가 갖는 의미와 쓰기 교육 강화 필요성>, 《서예학연구》, 2009. 참고

제하고 절제하여 만약 우리가 현세를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면 죽은 후 반드시 심판을 받아 하느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유가사상에는 내세라는 개념이 없다. 다만 현세가 있을 뿐이다. 내세에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유가에서는 내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현세를 가장 아름답게 열심히 살다 가면 그렇게 산 우리들에 대한 평가는 후세의 역사가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쳤다. 이처럼 동양에서는 현세의 삶을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예술화이며 그 예술화의 경지가 바로 공자가 말한 ‘유어예(遊於藝: 예술화된 인생 최고의 경지에서 절대 자유를 누리며 노닌다.)’의 경지이며 장자가 말한 ‘소요유(逍遙遊: 무구속의 절대 자유)’의 경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화된 인생의 경지에 이르는 기본 행보가 바로 “위기지학(爲己之學: 자기 자신을 닦는 학문)”의 ‘수신(修身)’이다.

피안의 세계에 있는 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내세에 그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써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삼은 서양에서 그 신의 존재는 절대적인 것이며 유일한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신은 죽었다’는 말도 나왔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유전자 조작과 생명에 대한 복제가 구체화하면서 전지전능하신 신의 존재, 생명의 창조주로서의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더욱 심화하였다. 완전한 신의 영역으로 인정하여 것처럼 경외했던 생명의 비밀마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깊숙이 들여다 보아버린 인간은 과학 외에 더이상 믿어야 할 게 없게 되었다. 이제 과학으로 인해 신이 죽어버린 서양에서 종교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위(自慰)’와 ‘자위(自衛)’의 도구로 변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세와 창조주에 대한 믿음으로 종교를 찾는다고보다는 현세에서 느끼는 불안을 줄이고자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그것은 바로 동양 사회에서 과거 수천 년 동안 삶의 맨 아래층에 깔아야 할 덕목으로 일관되게 강조해온 ‘수신(修身)’이다. 지금 서양은 동양의 ‘수신’을 바탕으로 하는 삶을 배움으로써 과학으로 신을 죽인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그들이 동양의 정신문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아와 비자아 사이의 관계를 항상 대립 관계로 보는 서양 사람들은 인간의 몸도 자아와 비자아의 대립 관계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자아의 몸을 튼튼하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비자아로부터 얼마만큼의 영양(에너지)을 빼앗아 와야 하는지를 연구한 것이 서양의 의학이고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공격해 오는 비자아의 적을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지를 연구한 것이 서양의 의학이다. 이러한 서양의 의학은 기계론적인 의학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의사는 고장 난 ‘인간’이라는 기계를 수리하는 수리 전문가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외부에서 침투해 오는 세균을 맞아 싸우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항생제라는 군대를 편성하여 몸 안에 증원군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

양의학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양의학은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미시세계의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발명한 현미경은 인간의 몸을 노리는 각종 세균의 정체를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질병퇴치에 참으로 큰 공헌을 하였다.

20세기에 서양의 문화가 동양의 문화를 압도하는 가운데 동양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서양의 문화에 굴복하게 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야가 바로 의학이었다. 아직 동양은 천연두,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 전염병을 天刑으로 여겨 속수무책으로 하늘을 향해 빌고만 있을 때 서양 사람들은 백신과 주사기를 가지고 와서 그 천형을 퇴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천형을 퇴치하는 그 신기(神技) 앞에 어찌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21세기는 다르다.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등장한 새로운 각종 질병 앞에서 자연에 대한 정복자적인 힘을 과시하던 서양의학이 별로 신통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암, 고혈압, 당뇨 등 이른바 현대병 앞에서 기계론적인 서양의학은 획기적인 치료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암, 고혈압, 당뇨 등의 근본 원인은 정신, 심리적인 데에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병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무절제한 생활로부터 자신을 잘 못 다스리는 사람이 훨씬 잘 걸린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이런 병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 다스림’ 즉 ‘수신(修身)’의 부족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병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도 ‘수신’이고, 최고의 치료법도 ‘수신’이라는 생각들이 늘어나면서 기계론적이었던 서양의학도 ‘수신’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동양적 사고로 그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바로 ‘자가 치료법’이다. 병은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수신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요가치료, 명상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이 바로 수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가 치료법의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의 예술 중에서 서예만큼 수신성(修身性)이 강한 예술은 아마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의 어느 예술보다도 수신성이 강한 예술인 서예를 그 본연의 특징에 맞추어 수신성을 적극 살리고 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수신성을 살려 서예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향과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서예를 이용한 심신의 치료이다. 서예 치료 방면에 많은 연구 결과를 낸 대만의 고상인(高尚仁) 교수는 1980년대 초부터 서예와 심리학을 연결해 「서예심리학」이라는 학문분야를 개척하였고 이후로도 홍콩과 중국의 학자들과 공동으로 많은 실험을 통해 서예의 치료효과를 연구하여 과학적인 증거를 갖춘 논문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서예의 연마는 정서불안, 과잉행동장애, 대인기피증, 자폐증 등 많은 정신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 육체적인 질환과 알코올이나 마약에 의한 중독증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가 경험한 치료 사례는 그의 저서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003년 9월에 전주에서 열린 제4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서예와 심리학과 치료의 개념을 융합하는 학술대회를 한국 최초로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를 위하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는 김계성 선생님의 도움으로 초등학교에 실험학교를 운영하였고 또 19년 동안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서예를 이용하여 심리 교정을 시도해온 자원봉사자 서예가 조영랑 여사의 실험 결과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에 도움을 얻어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학술대회를 통하여 학계에 보고하였다. 이 학술대회 보고를 통하여 학계는 서예가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행동 수정에 엄청난 치료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또 재소자들의 정서 변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획기적인 효과가 학계에 보고되면서 국내에서도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서예치료를 여러 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장차 서예를 이용한 심리치료를 활성화하면 서예는 인류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예는 21세기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최첨단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서예를 진흥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웰빙은 ‘수신(修身)’이다. 자기 닦음이요, 자기 다스림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신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술이 바로 서예이다. 많은 사람에게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서예만큼 자기 닦음에 도움이 되는 예술은 없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서예를 하면 단전호흡이 저절로 된다. 붓을 들고 허리를 꼳꼳하게 세우고 앉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이 아래로 내려가 자연스러운 단전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예는 건강이다. 그리고 서예처럼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게 하는 것도 없다. 붓끝에 정신을 모으고 나면 붓을 놓을 때까지 거의 한순간도 정신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서예는 산만한 정신과 불안한 심리를 치료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서예는 치료이다. 붓으로 써놓은 글씨를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면이 있다. 똑같은 체본을 보고 썼음에도 다른 모습을 보일 정도이니 각자 자기 글씨를 썼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더욱 다른 모양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서예는 곧 그 사람이다. 서예의 소재는 글이다. 좋은 글귀를 붓으로 써가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명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서예는 명상이다. 결론지어 말하자면 서예는 ‘수신’의 모든 방편이 다 녹아들어 있는 종합적인 수신예술(修身藝術)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종합적인 수신예술을 인성교육에 이용한다면 그 효과가 탁월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좋은 인성교육의 대안을 두고서 왜 우리는 ‘인성교육’ 문제를 고민만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고민만 하는 사이에 학생들의 인성은 날로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예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서여기인(書如其人)! 서예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에 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인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람의 예술’인 서예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다. 인성교육에 있어서 보석과 같은 존재인 서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보석을 사장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의 속성 즉 인성을 잘 지켜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웰빙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이 없는 웰빙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인성교육은 바로 수신의 교육이며 진정한 웰빙은 바로 수신이다. 따라서 다른 게 웰빙이 아니라 서예가 바로 웰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서예가 ‘웰빙’인 이유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서예는 건강이다.

중국의 명·청 시대를 장식한 유명 서예가의 향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심주(沈周:1427~1059): 82세 | • 유용(劉壘:1720~1804): 84세 |
| • 문징명(文徵明:1470~1559): 89세 | • 양동서(梁同書:1723~1815): 92세 |
| • 동기창(董其昌:1555~1636): 81세 | • 옹방강(翁方綱:1733~1818): 85세 |
| • 부산(傅山:1607~1684): 77세 | • 완원(阮元:1764~1849): 85세 |
| • 팔대산인(八大山人:1626~1705): 89세 | • 포세신(包世臣:1775~1855): 80세 |
| • 금농(金農:1687~1763): 76세 | • 하소기(何紹基:1799~1873): 74세 |
| • 정섭(鄭燮:1693~1765): 72세 | • 양수경(楊守敬:1839~1915): 76세 |

이외에도 청나라 말기로부터 개화기에 걸쳐 중국 서화계의 쌍벽을 이루었던 오창석(吳昌碩: 1844~1927)과 제백석(齊白石: 1863~1957)이 바로 장수를 증명하는 인물이다. 오창석은 83세까지 살았고 제백석은 무려 95세를 살았다.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로 추앙받고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도 71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7년 동안의 제주도 귀양에서 돌아왔으나 다시 함경도 북청으로 귀양을 가야했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의 업으로 삼은 서예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추사보다 약간 선행인 자하 신위(1768~1845)는 77세까지 살았으며, 동시대에 전주에서 활동한 명필인 창암 이삼만(1770~1845)은 75세까지 살았다. 당시로서는 다 대단한 장수라고 할 만한 경우들이다. 그리고 최근에 작고한 서예가 강암 송성용은 유년 시절부터 매우 몸이 약하여 주변으로부터 40세까지만 살아도 다행이라는 말을 적지 않게 들었는데 평생을 다른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이 서예만 하고 산 탓인지 40세의 두 배가 넘는 86세까지 살았다. 그것도 말년까지 매우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작고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는 85세 때의 작품이 적잖이 남아있다. 근세 대만의 유명 서예가들의 향년을 보면 서예가 건강과 장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더욱 실감할 수 있다. 다음은 1949년 이후 대만에서 활동한 최고 권위 서예가들의 향년이다.

- 진정산(陳定山) 93세, 왕장위(王壯爲) 92세, 조용(曹容) 100세, 진운정(陳雲程) 104세, 왕개화(王愷和) 93세, 주구형(朱玖瑩) 103세, 부견부(傅狷夫) 98세, 송미령(宋美齡) 106세, 진립부(陳立夫) 102세, 유태희(劉太希) 91세, 낭정산(郎靜山) 103세, 장릉연(張隆延) 95세, 유연도(劉延濤) 90세, 사종안(謝宗安) 93세, 대정농(臺靜農) 94세

특히 사종안(謝宗安)은 평생 동안 끄떡없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담배를 하루에 두 갑 이상 피우고서도 93세까지 살았으며, 대만대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학문과 함께 서예가로 활동한 한 대정농(臺靜農)도 94세까지 살았으며, 중국의 서예가 계공(啓功)도 9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이처럼 서예가들은 대부분 장수하였으며 그런 근거들과 실증인물들이 매우 많다. 그렇다면 서예는 건강 증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일까?

■ 단전호흡의 효과

추사 선생의 서론에 의하면 서예를 하는 바른 자세는 온몸의 무게 중심을 발바닥에 뚫으로써 하체를 실하게 한 다음, 허리를 곧게 하고 앉아 상체를 허하게 한 연후에 다시 것처럼 허하게 된 상체 내에서도 왼쪽 몸통을 실하게 함으로써 글씨를 써야 할 오른쪽 몸통은 더욱 허하게 하여 그 허함을 붓을 움직이는 운필을 통하여 실(實)로 환원시킴으로써 종이 위에 글씨는 실하게 즉 힘차게 쓰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발바닥에 무게 중심을 두는 자세 즉 ‘발가락과 뒤꿈치가 지면을 끌어당겨 마치 나막신 굽이 땅에 박히는 듯이 한다.’는 자세는 바로 단전호흡에 가장 유리한 자세이다. 위로 치밀어 올라오는 부박한 사기(邪氣)를 아래로 끌어내려 기가 허리 끝을 지나 발꿈치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때 사람의 정신과 심리와 호흡이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정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양질의 단전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를 아래로 내려 무게 중심을 발바닥에 두어 하체를 안정되게 하는 한편 상체는 더 없이 허하게 함으로써 그 허한 몸통을 이용하여 길고 고른 호흡을 하면 우주의 기를 더욱 많이 단전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단전호흡이다. 따라서 추사 선생이 제시한 서예 자세는 바로 단전호흡의 자세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예를 하면 저절로 단전호흡을 할 수 있다.

■ 몰입의 효과

서예와 건강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바로 몰입의 기능이다. 몰입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Now and Here)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바늘에 실을 꿰는 순간에 일어나는 정신집중 현상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늘에다 실을 꿰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잊고 오직 바늘구멍에만 정신을 집중하게 되는데 서예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신집중 즉 몰입의 효능은 이 바늘구멍 꿰기 이상의 것이다. 그만큼 서예는 강한 몰입의 효능이 있다. 서예는 왜 그런 강한 몰입이 가능한 것일까?

서예를 하는 데에 사용하는 붓 이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만년필이나 볼펜, 사인펜 등 모든 필기도구는 다 그 끝이 딱딱한 경필(硬筆)이다. 이런 경필은 눈을 감고서 아무렇게나 휘저어 힘을 강하게 주든 약하게 주든 별 차이 없이 거의 같은 굵기의 선을 긋는다. 따라서 이런 경필로 글씨를 쓸 때는 경필의 끝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가 거의 없다. 그러나 붓은 완전히 다르다. 매우 부드러운 털에 먹물을 묻혀 쓰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또는 먹물을 어느 정도 묻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굵기의 선과 획이 나타나고 또 붓을 어떤 각도로 세워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의 선과 획이 나타난다. 따라서 쓰는 사람의 의도에 맞는 획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먹물의 흐름과 붓끝에 주는 힘과 붓을 세우는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 그런데 이 조절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말한 바늘구멍에 실을 꿰 때 이상으로 정신을 집중해야만 이 조절이 가능하다. 조금만 방심하면 먹물이 의도한 것 이상으로 흘러나오거나 부드러운 붓털에 필요 이상의 힘이 가해져서 엉뚱한 획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늘구멍을 꿰는 일은 그 순간밖에 집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집중을 위해서 계속해서 바늘구멍만 꿰고 있을 수도 없다. 지루한 단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서예는 훨씬 강한 몰입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절대 지루하지 않다. 아름답고 의미 깊은 문장을 다양한 자형의 글씨로 노래하듯 춤추듯이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붓으로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집중을 지속할 수 있다. 붓글씨는 어떠한 일보다도 강하게 우리의 정신을 한 곳으로 몰입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명상의 효과

저절로 고도의 집중에 이르게 하는 서예는 그런 집중의 상태에서 글씨를 쓰면서 아무 글이나 쓰는 게 아니라 동서고금의 명언과 가구(佳句:아름다운 구절)를 쓰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그 명언과 가구가 주는 교훈을 새기며 명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명언과 가구가 주는 교훈을 새김과 동시에 글씨를 쓰는 동안 내내 바늘구멍을 꿰는 순간 이상의 집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여 집중을 꾀하는 것보다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예는 최고의 몰입 효과와 명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술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예는 수채화나 유화 등 어떠한 예술과도 달리 원천적으로 덧칠이 불가능한 예술이다. 즉 한번 그어서 끝을 내는 일회성 획을 통하여 순간적으로 작가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예술이기 때문에 음악을 공연하는 음악가나 무용을

하는 무용수가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그 순간의 집중과 동일한 수준의 순간적인 집중을 필요로 한다. 도구의 특성 면에서나 표현 방식상의 특성 면에서나 서예는 어떤 예술보다도 강도가 높은 몰입과 명상을 요구하는 예술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집중과 몰입과 명상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약이다. 정신뿐만 아니라 혈관과 신경계 등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는 최고의 명약이다. 인성교육의 최고 커리큘럼(curriculum)이 될 수 있음은 더더욱 당연하다.

5) 서예의 인성교육 효과

지난 2014년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었다. 그 여파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아직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도 어이없음에 대한 분노와 어찌할 수 없음으로 인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월호 사건은 오랜 적폐(積弊)로 인한 것이므로 적폐를 타파하여 국가를 개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적폐의 폐단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그때그때 해결되지 못하고 왜 쌓여서 심각한 적폐가 되었을까?

모든 폐단과 비리는 정의롭지 못한 사악한 마음과 남을 해쳐서라도 나만 잘살면 된다는 비열한 정신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정의롭지 못한 사악한 마음과 나만 챙기는 비열한 정신은 어째서 생긴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심신 수양 즉 수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수신을 하지 못했을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수신 교육을 중시하지 않기도 했고 못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을 없애고 유병언을 잡아서 처벌하고 그 외에 몇몇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결코 적폐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물론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민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늦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적폐 타파 방법이다. 시대조류를 따라가는 미봉의 소극적 교육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원대한 이상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수신’ 위주의 인성교육을 통해서만 적폐는 타파될 수 있다.

수신을 위한 인성교육 과목은 많이 있고 프로그램 또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누누이 말한 바와 같이 수신인 인성교육 과목으로 서예만 한 과목은 없다. 우리는 과거에 초등학교의 서예 교과서였던 《글씨본》에서도 “바른 마음, 곧은 글씨”라는 말을 익히 보아 왔으며 “마음이 발라야 글씨도 바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아이들의 글씨 쓰기를 지도하였었다. 것처럼 서예와 ‘바른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붓으로 써놓은 글씨를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면이 있다. 똑같은 체본을 보고 썼음에도 다른 모습을 보일 정도이니 각자 자기 글씨를 썼을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더욱 다른 모양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서예는 곧 그 사람이다.

서예는 바로 그 사람이므로 서예를 지도함으로써 사람을 지도할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이처럼 강한 ‘수신’의 속성을 가진 서예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인성을 지도함과 동시에, 서예를 통하여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고 예술적 창의성을 고취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서예를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적하여 교육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방법은 있다. 초, 중, 고 국어 교과목 안에서의 글씨쓰기(글쓰기 즉 글짓기가 아닌) 영역을 서예로 대체하면 위에서 언급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과정이 변경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국어교육은 대부분 크게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짓기, 쓰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다섯 분야 중 말하기, 듣기, 읽기, 짓기는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짐이 없이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쓰기 분야의 교육은 날로 소홀해져 지금은 ‘쓰기’라는 말 자체가 ‘글씨 쓰기’가 아닌 ‘글쓰기’ 즉 과거의 ‘글짓기’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연구자들은 아예 쓰기 교육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과제는 물론 일기 쓰기까지도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하여 인류는 매우 소중한 문화이자 기능의 하나인 ‘손으로 문자를 쓰는 일’을 망각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가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으로 문자를 쓰는 교육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가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 손글씨는 오히려 더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쓰기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Grapho-therapy’는 우리말로 ‘필적요법(筆跡療法)’, ‘필적진단’, 또는 ‘필적 심리학’이라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다. 이 ‘필적요법’은 손글씨를 연습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방법인데, 이에 대해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필적요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하다. 그것은 특별한 효과를 산출해 내도록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으며 당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하루에 념 장 정도를 정확하게 쓰는 것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한 달 안에 미묘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필적요법을 실행한 지 석 달이 되면 그 변화는 엄청나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변화를 인식하게 될 것이며 당신에 대해서 훨씬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당신은 삶의 기술을 개선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당신의 목표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놀랄만한 변화를 체험하여 당신 인생에 중요한 개선을 경험할 것임을 확신한다. 당신이 만약 체크북(수표장)에 글씨 쓰는 정도라면 글씨를 쓴다면 변화는 더 더디게 올 것이고 그 변화량도 극히 미미해서 거의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손글씨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면 결국은 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Graphotherapy is very concrete and predictable. It is designed to produce specific outcomes, so you will know what changes to expect

before they occur and will be able to recognize the subtle changes taking place in yourself even as they are occurring. You will see subtle results within a month if you focus on writing correctly four or more pages a day. Within three months of starting your program in graphotherapy, the transformations will be so dramatic that others will see a significant improvement and gain a more favorable opinion of you. You may expect to improve your life skills, y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to gain such confidence in yourself that you can set your goals higher. I guarantee that from this place of strength you will experience major improvements in your life. If you write only in your checkbook, changes will take much longer and be so subtle that they may pass unnoticed, but they will eventually occur if you make the changes in your handwriting.)⁴⁰⁾

이 글에서는 글씨를 바꿀 수 있다면 삶 자체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단순히 몇 글자 사인하는 정도로만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루에 몇 장씩 꾸준히 연습하여 글씨를 변화시킨다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글씨가 변하면 생활이 바뀌고 인간관계도 개선되며, 그럼으로써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이트에서는 'Grapho-therapy(필적요법)'의 부제로 'Success at Life Through Handwriting Analysis (손글씨 분석을 통한 삶의 성공)'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경필 글씨는 컴퓨터로 대체됨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별로 흥미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경필 글씨는 모필 글씨보다 인성순화의 기능이 약하다. 이제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국어학습의 '쓰기' 분야 교육은 모필 글씨 즉 서예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쓰기 교육이 서예로 대체되면 거의 매일 컴퓨터를 접함으로 인하여 인성이 갈수록 삭막해져 가는 어린이들의 인성을 순화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국어 시간의 쓰기 교육에 서예(서도)가 포함된 지 오래다. 21세기 컴퓨터의 순작용과 함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어교육 중의 쓰기 교육 부분을 서예로 대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을 순화하고 서예도 살리는 이중의 문화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서예는 쓰는 활동 말고도 걸어 두고 보기만 해도 인성교육에 큰 도움을 준다. 어떤 예술작품보다도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0) <http://www.graphotherapy.com/>

| 1 | 서예작품을 걸어 두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
|---|-----------------------------|------------------------------|---------------------------|---------------------|-------|---------|------|--------|
| | ① 벽면이 허전하여 인테리어 목적으로 | ② 쓴 글귀를 생각하며 생활의 교훈을 삼으려고 | ③ 서예의 추상미술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 ④ 지인이 써준 것이기 때문에 | | | | |
| | 14(명) | 11.0(%) | 93(명) | 73.2(%) | 13(명) | 10.2(%) | 7(명) | 5.5(%) |

* 총 응답자 대상자 187명 중 127명 응답

그런가 하면 “서예 작품의 글귀를 생각하며 생활한 결과 생활에 어느 정도 교훈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이 나왔다.

| 4 | 서예 작품의 글귀를 생각하며 생활한 결과 생활에 교훈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 | | | | | | | | |
|---|--|-----------------|------------------------------|-----------------|--------------------|-------|------|------|------|------|
| | ① 많은 도움이 되었다 | ② 더러 도움이 되었다 | ③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다 |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 | | |
| | 29(명) | 37(%) | 40(명) | 51(%) | 9(명) | 12(%) | 0(명) | 0(%) | 0(명) | 0(%) |

* 78명 중 78명 응답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8%이다. 이상과 같은 조사를 통해서 볼 때 서예를 감상하는 사람 즉 서예작품의 글 내용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서예작품으로 쓴 좋은 글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또 몇 종의 설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5 | 명필이 쓴 교훈적인 글을 집안에 걸어두고 보면 글에 담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①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 ②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다 | ③ 모르겠다 | ④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 ⑤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 | | | | |
| | 64(명) | 34.5(%) | 114(명) | 61.6(%) | 5(명) | 2.7(%) | 2(명) | 1.0(%) | 0(명) | 0(%) |

*총 응답자 187명 중 185명 응답

| 6 | 평소에 익히 알고 있는 교훈적인 말이라면 굳이 붓글씨 작품으로 써서 걸어두지 않더라도 그 말이 주는 교훈을 충분히 마음에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① 굳이 붓글씨 작품으로 써서 걸어두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에 새길 수 있다 | ② 그래도 붓글씨 작품으로 써서 걸어두고 보면 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③ 붓글씨 작품으로 써서 걸어 두는 게 훨씬 교훈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 | | |
| | 38(명) | 20.3(%) | 111(명) | 59.3(%) | 38(명) | 32.4(%) |

*총 응답자 187명 중 187명 응답

| 7 | 귀하는 학생 시절에 ‘공부를 잘 해보겠다’거나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등의 결심과 각오를 새롭게 했을 때, 그 내용을 붓이든 펜이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써서 책상머리에 붙여본 적이 있습니까? | | |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없다 | | | |
| | 141(명) | 75.4(%) | 35(명) | 18.7(%) | 11(명) | 5.8(%) |

*총 응답자 187명 중 187명 응답

| 8 | 위 7번 문항과 관련하여 ①번에 답을 하셨다면 그렇게 써 붙인 결과에 대한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 | | | | | | | | |
|---|---|---------|---------------------------|---------|--------|--------|---------------------------|--------|--------------|------|
| | ① 큰 효과가 있었다 | | ② 장기적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었다 | | ③ 모르겠다 | | ④ 써 붙일 당시 맘과 달리 별 효과가 없었다 | | ⑤ 전혀 효과가 없었다 | |
| | 29(명) | 15.5(%) | 105(명) | 73.9(%) | 6(명) | 4.2(%) | 2(명) | 1.4(%) | 0(명) | 0(%) |

*총 응답자 187명 중 142명 응답

| 9 | 귀하가 만약 가훈이나 조상의 비문 글씨를 유명한 서예가로부터 받아 오고자 한다면 귀하는 다음 중에서 어떤 서예가를 택하시겠습니까? | | | |
|---|--|---------|--|---------|
| | ① 그다지 본받을 만한 인품은 아니더라도 서예 기능이 뛰어난 서예가 | | ② 서예 기능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더라도 본받을 만한 인품을 가진 서예가 | |
| | 34(명) | 18.6(%) | 148(명) | 76.9(%) |

*총 응답자 187명 중 182명 응답

6) 서예의 ‘공연문화’ 속성과 그 가치

김병기는 일찍이 서예의 새로운 변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서예는 회화보다는 오히려 음악이나 무용과 더 관련이 많은 예술이다. 따라서 이런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무대 위에서 음악가는 음악을 연주하고 무용가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서예가는 음악의 선율과 무용의 동작에 어울리도록 무대의 한편에서 글씨를 쓰는데,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쓰고 있는 글씨와 쓰는 동작, 즉 붓놀림이 무대의 배경으로써 큰 화면에 비치게 하는 작업을 한다면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름하여 「음악, 무용, 서예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제법 근사하지 않을까? 41)

서예는 분명 미술보다는 오히려 음악과 무용과 더 흡사한 예술이다. 현대 중국의 미학 연구자인 종백화(宗白華)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41) 김병기, 〈중국예술정신과 서예 그 현대적 변용을 논함〉, 《청년작가 한중일 국제교류전 기념 학술발표 논문집》(발표자료집), 1997, 3. 예술의전당. pp. 112-113. 참조. 후에 이 논문은 일부분을 개고하여 〈서예의 현대적 변용-본질과 전통, 變質, 變用에 대한 辨釋〉이라는 제목으로 《중국학논총》(제12집, 2001.)에 게재하였다.

- 서예는 하나의 예술이다.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능히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해 낼 수 있고, 의경(意境)을 창출할 수 있다. 서예는 특히 음악과 근접해 있는 예술이며 무용과 인접해 있는 예술이고 건축성 구조미와 가까이 접근해 있는 예술이다. 오히려 회화와 조소의 구상미(構象美)와는 거리가 있는 예술이다.(中國書法是一種藝術, 能表現人格, 創造意境, 和其他藝術一樣, 尤接近音樂的, 舞蹈的, 建築的構象美) 宗白華, 〈書法在中國藝術史上的地位〉, 《藝境》

증백화의 이 말을 통해서도 서예가 음악이나 무용과 보다 더 근접해 있는 예술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서예와 음악이나 무용은 어떤 점에서 유사성이 있을까? 우선 무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무용은 인체의 운동에 의해 미적 형상을 창조하는 예술이다. 예술의 체계 속에서 무용은 시·공간적 예술로서 일종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는 한편 신체의 공간적, 가시적 형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조형예술 특히 조각과 비슷하지만, 다른 한편 그 형태가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운동한다는 점에서는 음악이나 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래서 예술의 발생론적 고찰에서는 예술의 원형이 무용에 있다고 보는 설이 있으며 또한 실제로 무용은 옛날부터 음악이나 노래와 결부되어 있었다.⁴²⁾
- 심미적으로 규범화된 짜임새가 있고 리듬감이 있는 신체의 동작을 통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무용의 기본 수단은 리듬과 표정과 구도와 조형이다. 표정과 리듬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드시 리듬의 강약과 속만(速慢), 대소, 경중 등의 대비 작용을 통해서만 연속적인 동작과 함께 감정의 표현을 할 수 있다. 리듬이 없이는 감동적인 무용이 있을 수 없다.⁴³⁾
-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전개되는 신체의 율동적 운동이나 동작. 시간예술임과 동시에 공간예술이다.⁴⁴⁾

무용은 시간예술임과 동시에 공간예술이라는 점에서 우선 서예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리듬을 가장 중시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도 무용과 서예는 맥을 같이 한다. 그 형태가 시간상으로 변화하고 운동을 한다는 점에서도 서예와 무용은 매우 근접해 있다. 특히, 리듬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무용과 음악과 시와 서예가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무대 공연에서 음악과 무용은 항상 함께한다. 물론 음악이 없는 무용도 간혹 공연되곤 하지만 대부분 무용은 음악과 짝을 이룬다. 그러므로 음악과 무용 사이에는 거의 등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예는 음악과도 통하고 무용과도 통한다. 음악과 무용과 서예 사이에는 「음악≒무용≒서예」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2) 다케우찌도시오(竹內敏雄) 편, 안영길 등 번역, 《미학 예술학 사전》, 미진사, 1989. p.568.

43) 王向峰 주편, 《文藝美學辭典》, 중국 遼寧대학출판사, 1987, p.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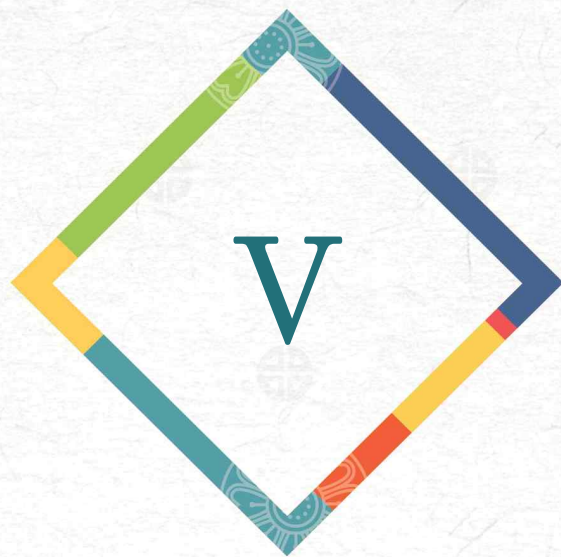
44) 신기철·신용철 편,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75, p.1225.

21세기의 서예는 옛 전통을 지키는 가운데 순수예술로 창작되고 순수학문으로 연구되기도 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미감에 맞도록 품위 있게 변용하여 얼마든지 무대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대에 올린 서예는 21세기에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새로운 공연예술로 부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부터 밀려들어오기 시작한 서구의 문화 앞에서 동양 한자문화권 국가, 특히 중국과 한국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경이로움과 신비함으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낯설고, 유화, 수채화, 파스텔화가 생소했으며,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레슬링 등 각종 스포츠가 우리의 몸짓과 잘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었으며, 발레, 왈츠, 미뉴엣 등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진문물로 여겨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집집마다 피아노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서양음악과 악기에 익숙해져 있으며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을 오히려 서양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즐긴다. 우리 전통의 수묵화보다는 서양의 수채화와 유화를 더 선호하고 우리의 춤보다는 서양의 댄스가 더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불과 100여 년 만에 서양의 문화가 동양을 사실상 거의 다 잠식하다시피 깊숙이 들어와 있다. 대신 우리의 문화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은 서양의 문화와 예술은 이미 세계 사람들이 다 향유해 본 바이며 익히 알고 있는 바다.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지 않다. 대신 서양 사람들이 동양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고 있다. 그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한 동양 한자문화권 문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예이다. 이미 서방에는 서예의 싹이 트고 있다. 중국은 그것을 노리고 한자의 세계문자화와 서예의 세계 예술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서예는 세계문화예술 조류의 변화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상태이다. 정체(停滯)가 바로 한국서예의 현주소인 것이다. 이제 한국의 서예가 깨어나야 한다. ‘떨치고 일어나(振) 크게 흥(興)하는 국면’ 즉 ‘진흥(振興)’의 시대를 맞아야 한다. 중국보다도 앞서서 우리의 서예를 세계화해야 한다. 서예는 결코 중국만의 문화가 아니라 당당한 우리 문화이기 때문이다. 서예는 ‘서예’일 뿐, ‘Calligraphy’가 아니므로 서양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Seoye’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필요 때문에 굳이 영어로 번역해야 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대 Chinese Calligraphy로 번역할 게 아니라 East Asian Calligraphy로 번역해야 한다. 서예는 결코 중국만의 예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9세기에 우리가 서양의 문화를 경이로 받아들였듯 이제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의 서예에 대해 경이와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오게 해야 한다. 서예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예술성을 알리고 또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서예를 세계화해야 한다. 서예를 새로운 한류로 떠오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예 자체의 순수한 예술성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먼저 서예의 순수한 예술적 가치를 알아야 한다.



왜 한국서예인가



V. 왜 한국서예인가

서예는 동양 예술로, 대표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세계로 나가는 서예가 한국서예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서양에서 행해지고 있는 서예 활동은 사실 우리나라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중국과 일본의 서예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과 일본의 서예가 이후에도 계속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단연 한국이 우위라고 생각한다.

본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서예의 현장과 중국서예의 해외 진출 노력과 허점, 그리고 한국서예의 장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왜 한국서예인가’를 진단해 보기로 한다.

1. 중국서예와 일본서예

1) 중국서예

중국의 청대(淸代)는 중국서예 사상 가장 다양한 면모로 가장 걸출한 작가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서예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예 황금기의 서예 창작열과 서예 연구열은 청나라가 망하고 민국(民國)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항일 전쟁의 와중에서도 식지 않고 지속하여 우임(於右任)(1879~1965)과 같은 대가가 나왔다. 그러나 중국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 서부터 상황은 급변하였다. “중화민국 건국 초기 각 방면에서 부흥의 손길을 기다릴 때 당시의 정치 분위기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있는 연구보다는 대중을 향한 대중문화와 예술의 보급 활동에 종사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당시 대서예가이자 학자였던 심윤묵(沈尹默)도 이러한 분위기를 면할 수는 없었다. 대학자였던 그도 심지어는 초등학생용 《학생자격(學生字格)》이라는 책을 써야 했을 정도이다.(建國之初, 百廢待興, 當時的政治氣候迫使許多人離開高深的研究, 轉向群眾性的普及工作, 沈尹默也既未能免. 他甚至寫過小學生入門所用的《學生字格》, 但他沒有象其他書家那樣完全放棄研究.)”⁴⁵⁾ 모택동의 공산당 정부는 서예를 전형적인 부르주아 예술로 보고 서예의 예술적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 최고의 권위와 종합성을 지닌 문화예술조직인 중국문학예술계

연합회에서도 서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서예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에 당의 구호를 쓰는 실용적 용도 외의 예술적 방면에서의 지원이나 장려, 보급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게다가 중국은 건국 초기부터 소련의 권고 아래 한때 한자를 버리고 중국어를 로마자 병음부호로만 기록할 생각을 하였다. 비록 이 계획은 오래지 않아 취소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서예의 존립 근거를 완전히 없애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서예계에 끼친 영향은 막대한 것이었다. 비록 한자의 폐지는 면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곧이어 문자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간화자를 제정, 보급하였다. 간화자는 명목상으로는 한자이지만 서예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서예의 존립 근거인 중국문자의 예술성을 철저히 파괴한 한자가 아닌 한자 즉, 새로운 부호문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정치, 문화 환경 아래서 서예는 결코 발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후, 중국은 바로 서예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다. 게다가 문화혁명이 발발한 후부터 서예는 명백 마저도 제대로 잊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문화혁명이 중국서예에 끼친 영향에 대해 구양중석(歐陽仲石)은 많은 의미가 함축된 답을 하였다.

- 저는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이 왕왕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곤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발전하지 말았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이 의외로 크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우리는 모두 서예를 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그 대신 대자보를 썼습시다. 여전히 붓을 가지고 대자보를 썼던 것입니다. 전시대에 쌓았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대자보를 쓰면서도 붓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누구도 글씨를 예술로 보고서 잘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시다. 그렇지만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 사람들은 다시금 글씨를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한 인식은 더 큰 분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문화혁명이 중국서예에 끼친 영향도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⁴⁵⁾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이처럼 철저히 망가진 중국의 서예가 다시 회생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 소위 ‘신시기(新時期)’로 불리는 시기에 덩소평(鄧小平)이 개방정책을 쓰면서부터이다. 1979년에는 중국 최초의 서예 전문 잡지인 《서법(書法)》이 창간되었고 1981년에는 북경에서 드디어 중국서법가협회(中國書法家協會)가 설립되었다. 1980년대는 중국에서 서예의 봄이 하늘을 찌를 듯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서예에 대한 열기가 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기는 하였지만, 그동안 중국 서예는 너무나 오랫동안 잠을 잔 탓에 열기와 비교하면 수준은 높지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여도 중국의 서예는 작가의 기량에 있어서나, 전시회의 기획과 운영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도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수천 년간 쌓아온 전통의 힘이 있고 무수히

45) 黃惇,〈當代中國書壇格局的形成與由來—二十世紀末的思考〉,《세계서예전북Biennale국제서예학술대회논문집》,제2집, 세계서예전북(世界書藝全北) Biennale조직위원회, 1999, p.183

46) 〈談韓中書藝 - 북경수도사범대학 어우양중스 교수와 공주대학 김병기 교수와의 대담〉,《월간서예》, 미술문화원, 1995년 9월호.

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자료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30여 년의 공백을 쉽게 매우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나갔다. 이러한 와중에서 일부에서는 일본의 서예를 수용하기도 하여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서예계에도 소위 ‘현대서예파(現代書藝派)’라는 유파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중국의 현대서예파에 대해서 북경대학의 교수인 섭랑(葉朗)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중국 현대서예의 내용은 매우 모호하다.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작법(作法)을 사용한다. ① 원시 문자의 상형성을 추구하며 서예를 회화와 결합시키려 한다. 예를 들어 ‘용(龍)’이나 ‘호(虎)’자를 쓰는데 용이나 호랑이의 형상처럼 쓰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는 이는 왕왕 전통서예에 대한 조예가 부족하고 또한 용필(用筆), 용묵(用墨), 장법(章法) 등의 방면에 있어서도 결함이 많다. ② 일본 소자서파(少字書派) 서예가의 영향을 받아, 자형을 과장해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부류의 작품은 한자의 조형을 유지하며 전통서예의 의미와도 비교적 가깝다. ③ 한자 고유의 조형을 무시하고 ‘순곡선미(純曲線美)’라는 예술효과의 추구를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곡선마저 내버리고 다만 둥그런 덩어리만을 취하는데 이는 이미 자형이 아니다.⁴⁷⁾

이렇게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의 현대서예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중국 서단에 나름대로 영향을 끼치면서 현대서예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그 세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서예계의 현대 서예에 대한 관점을 남경예술대학의 황돈(黃惇)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중국에서 현대서법이라고 칭해지는 유파들은 대부분 일본의 전위 묵상파의 자극을 받아서 출현한 파이다. 중국의 전위파는 그 구성원이 비교적 복잡하다. 초기에는 대부분이 화가 겸 서예가인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림이나 서예 두 방면에서 모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들 현대서법파들이 지향한 창작사상은 다름이 아니라, 서양 추상주의와 일본 전위파의 번역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서양으로부터 서예를 배우고자 하는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서양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중국서예의 겉모습만 촉각적으로 느끼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중국서예에 대해서 차분히 그 기본을 학습할 수 없었다. 따라서 대단히 광범위한 서예의 영역 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필묵유희(筆墨遊戲)”가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중국서예문화의 대표로 보여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왕왕 소자수파나 묵상파의 서예에 심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 현대서법파들의 서예작품 중 대부분은 실제로 서양의 현대추상주의와 중국전통서예의 충돌로 인한 찌꺼기에 불과하다. ⁴⁸⁾

47) 葉朗, 〈중국 최근 십년 서예예술의 표상(現狀)〉, 《월간서예》, 1995년 6월호

48) 黃惇, 〈當代中國書壇格局的形成與由來—二十世紀末的思考〉, 《세계서예전북Biennale국제서예예술대회논문집》, 제2집, 세계서예전북(世界書藝全北) Biennale조직위원회, 1999, p.183.

이어서 황돈은 현대서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평하였다.

- 중국의 서예는 마치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바둑과 흡사하다. 비록 흑 백 두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변화는 사실상 무궁무진한 것이다. 바둑의 놀이규칙은 가장 간단한 듯이 보이지만, 그 내면의 기교와 전술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오한 데가 있다. 가정해 보기로 하자. 만약 바둑판에 붉은색 돌 하나를 증가시키거나, 바둑판의 선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을 바둑이라고 부르는 데에 대해 어찌 사람들이 의심을 품지 않겠는가? 중국서예의 고묘(高妙)한 점도 바로 이 바둑과 같은 데에 있다. 만약에 붓의 성질을 바꾸어서 색채를 사용하고, 문자를 팽개쳐서 완전히 서사를 떠난 채로 창작을 진행한다면 이것을 두고서도 서예의 예술 표현력을 증가시킨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49)

황돈의 이러한 견해는 단순히 황돈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서예가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이다. 심지어는 현대서예를 옹호하는 입장에 섰던 평론가들도 현대 서예의 문제점을 지적 하면서 현대서예가 새로운 길을 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마소(馬嘯)는 1995년 북경에서 거행된 중국현대서법전에 대하여 ‘거짓 현대(僞現代)’라고 평하고 현대서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현대서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일본 현대서예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쓰다’는 서사성(書寫性)을 증가시켜서 의도적인 설계 같은 함정을 벗어남으로써 현대추상 회화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며, 셋째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규칙에 의해서 서예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효과적으로 넓혀주는 것이다.(從中國現代書法主義展看當代中國“現代書法”之困境和出路) 馬嘯, 《中國書法》

현재 중국의 서예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유산인 각종 자료의 힘에 의해 전통과 고유색을 회복하여 그 고유색을 세계화하려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서예

일본에 한자가 전해진 이후 일본의 문자 생활은 한자로부터 시작되었고 서예도 당연히 한자서예를 하였다. 그러나 히라가나와 가다가나라는 독자적인 문자를 고안한 이후에 일본의 서예는 일

49) 黃惇, 〈當代中國書壇格局的形成與由來—二十世紀末的思考〉,《세계서예전북Biennale국제서예학술대회는문집》, 제2집, 세계서예전북(世界書藝全北) Biennale조직위원회, 1999, p.168.

본양식인 가나계[和樣] 서예와 중국서예의 양식을 따르는 한자계[唐樣] 서예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일본 고대 서예 사상 최고의 명필로 추앙되는 작가를 소위 삼필(三筆) 삼적(三跡)⁵⁰⁾으로 나누어 부르는 것도 바로 일본의 서예가 일찍부터 화양(和樣)과 당양(唐樣)으로 나뉘어 발전해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양인 한자계 서예가 전통서예의 주류를 이루었다.

일본의 서예는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 시작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한다. 메이지유신의 신정부가 소위 ‘탈아시아’⁵¹⁾정책을 씌므로 인하여 회화, 음악, 무용 등 각 방면의 예술도 친서양적으로 발전하고 서예처럼 동양의 고유색이 짙은 예술은 차츰 고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쇼와 시대(昭和時代 1926~1988)에 이르러서는 각 방면에서 친유럽, 탈아시아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예도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된다. 한자서예는 한자서예대로 유럽의 예술 조류를 받아들여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한자서예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가나 서예가 소위 “고오베의 가나” 운동을 시발로 “가나또우따(かなとうた)”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한자서예에 비견할 만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⁵²⁾ 그러나 일본서예에 가장 큰 변화의 바람으로 등장한 것은 역시 전위 서예(前衛書藝)이다. 탈아시아를 표방하던 일본 사회에서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 일찍이 1920년대부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현대의 의식이 반영된 현대의 서예를 해야 한다.”⁵³⁾는 기치 아래 ‘현대서(現代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대서 운동은 후에 구미(歐美)의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이나 앙포르메르(Informel)운동과 상호 연계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본 서단에 드디어 ‘전위서예’ 혹은 ‘묵상(墨象)’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서예를 등장시켰다. 이러한 현대서 운동은 패전 후 일본 전역이 미국문화의 영향 아래 놓이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하였으나, 미군정이 주도한 일본의 교육 정책과 어문정책에서 한자 사용을 제한하고 아울러 학교교육에서 서도(書道) 과목을 제외시킴으로써⁵⁴⁾ 한자서예를 중심으로 한 전통서예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한자나 한문과 깊은 관련이 없이도 할 수 있고, 전통적 서예이론이나 기법을 연마하지 않고서도 할 수

50) 소위 삼필(三筆)은 당양(唐樣) 즉, 중국양식의 서예 대가인 쿠카이(空海)(774~835), 다치마나 이세이(橘 逸勢)(?~842) 사가 덴노(嵯峨天皇)(786~842) 등 세 사람을 칭하는 말이며, 삼적(三跡)은 화양(和樣) 즉, 가나계 서예의 대가인 고노도후(小野道風)(894~966) 후지하라 사리(藤原佐理)(944~998), 후지하라 요코나리(藤原行成)(972~1027) 등 세 사람을 말한다.

51) 일본의 탈아시아 정책은 19세기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계몽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脫亞論) 즉,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에 근거하여 메이지 정부가 채택한 정책이다.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이란 일본은 아시아를 벗어나 구미 열강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후에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일본은 서구 열강과 동등하기 때문에 식민지를 확장하고 있는 서구 열강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독립할 능력이 없는 조선이나 일본을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 발전한다. 정일성, 《후쿠자와 유키치-탈아론을 어떻게 펼쳤는가》, 지식산업사, 2001. 참조.

52) 관서(關西)지방의 고오베시(神戸市)에서 여학교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당시 여학교 수업의 중요 과목이었던 가나서예를 확대 보급시킨 운동을 “고오베의 가나”라고 하며, 이 고오베의 가나 운동은 운동의 주역들이 1929년(昭和 4년)에 《가나또우따》라는 기관지(機關誌)를 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53) 1919년 히다미 덴라이(比田井天來)를 중심으로 결성된 서도예술사(書道藝術社)의 기관지인 잡지 《서도예술(書道藝術)》의 창간호에 실린 가나오 오데이(金子鷗亭)의 글 참조.

54) 1948년(昭和 26년) 연합군 총지령부(總指令部)(G.H.Q)가 「국어(일본어)개혁」의 일환으로 한자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가다가나를 로마글자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로 인하여 일본의 한자 교육이 제한되었고 또, 서도(書道)는 검도, 유도 등과 함께 일본정신을 고양시킴으로써 전쟁에 기여한 문화라는 이유로 한때 학교 교육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하여 전통 서예의 발전에 큰 위기가 닥쳤다.

있는 서예를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다시 불붙게 된 것이 바로 전위서예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아래서 전통서예도 과거처럼 긴 한문 문장을 쓰는 서예에서 벗어나 문장과 분리된 미술로서의 서예를 표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류를 반영한 서예가 바로 미술적 도안 기법을 수용하여 한두 글자를 추상화 같은 느낌이 들도록 쓰는 소자수서(少字數書)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의 결과 일본 현대서예의 대표적인 작가인 데지마 유케이(手島右卿)은 1957년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붕괴(崩壞)」라는 작품을 출품하여 미국의 미술 평론가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이어 1958년의 부뤼셀 만국박람회의 ‘근대미술 50년전’에는 「포우(抱牛)」라는 작품을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 데지마 유케이의 영향으로 일본의 서예는 서구화 내지 전위화를 한층 더 가속화하여 전통으로부터의 일탈 현상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게 되었고 아울러 서구미술의 한 장르로 편입하려는 노력도 한층 더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데지마 유케이 이후, 현대서도라는 장르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일본의 작가는 더이상 나오지 않았다.

현재 일본의 서예계에는 전통서예를 하는 작가층이 매우 얇다. 현재의 일본서예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고유문화로서의 서예의 전통성이나 고유성을 거의 다 잃고 서구미술의 아류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⁵⁵⁾, 일본의 서단은 사승관계와 계보의 틀에 얽매어 서예의 본질적 예술성에 근거한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일탈된 서예를 전수하고 계승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55)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서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미술 전반에 만연된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미술의 이러한 병폐에 대해서 동경국립근대미술관의 연구원인 지바 시게오(Chiba Shigeo)는 다음과 같이 자탄하였다. “일본 미술은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무력감 속에 방치된 채 세기가 바뀌었다. 이런 무력감은 직접적으로는 구미(歐美)의 학습과 모방에 너무 익숙해져 오리지널리티 추구가 어떤 것인지를 그만 잊어버렸고 메이지(明治)시대 이전 자국(自國)의 전통을 완전히 잊어버렸으며, 근대 서구미술 종언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 <Art Odyssey 2001>, 《월간미술》, 2001년 1월호 p.46.

2. 중국서예의 해외 진출 노력과 허점

중국은 2009년 서예(Chinese calligraphy)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성공한 이후, 중국문화의 전파 수단으로 중국서예를 해외로 진출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2011년에는 중국서예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서예를 해외문화센터와 공자학원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육성하였다. 국가한판은 서예를 공자학원의 교과과정으로 삼아 서예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로부터 중국문화 세계화 전략 활동의 중심에 있는 공자학원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문화활동의 하나로 서예 실습을 지속해왔다.

1) 공자학원

중국은 지금까지 35개 해외중국문화원(海外中國文化中心)을 운영하며 국정 소개, 문화행사, 사상 교류, 교육과 인재양성 및 정보 서비스 등 일련의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그러한 중국문화원을 더욱 특성화한 것이 공자학원이다.

공자학원은 우리나라 서울에 2004년 처음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곳곳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운영비의 20~30%를 중국 정부가 지원할 정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활동이다. 공자학원은 교육부 직속 사업기구인 국가한판(國家漢辦)이 수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국가한판은 본격적으로 세계 각국의 공자학원 설립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7년 공자학원총부(孔子學院總部/國家漢辦)를 설립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공자학원을 관리하고 있다. 공자학원은 구체적으로 세계 공자학원의 건설 강화, 중국의 대외교육교류와 협력체제 구축 촉진, 중국 종합 문화교류의 교두보 역할 담당, 중국문화의 세계 전파 진작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⁵⁶⁾⁵⁷⁾

공자학원총부에 따르면, 이러한 공자학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세계 154개국(지역)에 548곳이 설립되었다. 아시아에는 35개국(지역) 125곳, 아프리카에는 44개국 59곳, 유럽에는 43개국 182곳, 아메리카에는 25개국 161곳, 오세아니아에는 7개국 21곳이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공자학원이 가장 주력하는 활동이 바로 중국어 교육이다. 공자학원은 매년 발전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8년 공자학원년도발전보고(孔子學院年度發展報告)를 살펴보면, 공자학원이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일은 국제 중국어 교사 파견, 중국어 교육의 커리큘럼 정비, 다양한 중국어 교재 개발 등 세계인들에게 중국어를 전파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⁵⁸⁾

56) <http://www.moe.edu.cn/>(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57) 공자학원의 조직체계나 주요정책, 예산 집행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진호의 <중국문화의 세계화 전략-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중심으로>(《중국지식네트워크》 Vol.7, 2016.)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자학원은 단순히 중국어의 확산만을 목표로 둔 것일까.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공자학원은 중국 공공외교가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한 것이 중국의 첫 번째 공공외교였다면 이제는 중국이 문화적 책임대국으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자학원을 대표적 브랜드로 키워냈다.”⁵⁹⁾고 말했다. 중국은 유가사상의 대표인 공자를 문화아이콘으로 내세워, 중국문화를 전 세계로 보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학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문화의 글로벌 확산이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언어를 전파하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중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에 주력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중의학이나 무술, 예술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서예를 전파하는 일이다. 서예는 중국 전통문화의 보고임과 동시에, 활용하기에 따라 미래 중국문화 발전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중국문화의 세계화전략을 확장시키는데 있어서 이러한 서예활동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서예는 이미 공자학원에서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하나의 문화과정이 되었다. 매년 수많은 외국 학생들이 공자학원의 서예 과정을 통하여 중국문화를 수용하고 있다.⁶⁰⁾ 많은 연구자들은 서예 수업이 외국 학생들에게 한자 학습과 기억 강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국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⁶¹⁾ 북경대학 왕악천 교수는 “중국 예술 중에서 서예가 경극을 넘어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예술이라는 조사가 나왔다.”⁶²⁾고 말하기도 하였다.⁶³⁾

2) 공자학원의 국제서예 활동

세계 각국에 설립된 수많은 공자학원에서는 문화 전파 전략의 하나로 서예 교육을 하고 서예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서예 교육과정 개설 및 서예 체험행사이고, 둘째는 서예대회 및 전시회 개최이다.

먼저 첫째 활동의 예를 들면, 파키스탄 카라치대학(University of Karachi) 공자학원에서는 약

58) <http://www.hanban.org/report/index.html>(孔子學院年度發展報告)

59) 서울경제, 〈美 심장서 阿 벽촌까지.. 중국몽 침범이 된 ‘공자학원’〉, 2018.08.19.

60) 尹冬民, 〈基於教育與傳播的視角：中國書法文化走出去的堅守與迎合〉, 《中國成人教育》24期, 2015, p.183.

61) 鄭博仁, 〈試論對外漢語書法課程教學與實踐〉, 《西南交通大學學報(社會科學版)》4期, 2012, p.91.

62) 王嶽川, 〈書法文化輸出與書法國際傳播〉, 《中國書法》3期, 2013, 148쪽.

63) 공자학원 관련 내용은 〈공자학원의 중국서예 세계화 전략에 관한 소고〉(문혜정, 《중국학논총》, 2020.) 논문을 참고하였다.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서예반을 개설하여 서예예술의 의미, 서체, 지필연묵, 명서예가의 작품 등을 소개하고, 실제 서예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⁶⁴⁾ 그리고 레바논 성요셉대학교 공자학원에서는 서예반을 정식으로 설강하여 레바논 학생들이 서예 입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⁶⁵⁾

또한, 저명 서예 인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세명대학교 공자학원이나 경희대학교 공자학원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서예가 섭흔 선생을 초빙하여 “서예감상법”에 관한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⁶⁶⁾ 카자흐스탄 유라시아대학교(L.N.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공자학원에서는 원생들을 위하여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참사관을 초빙하여⁶⁷⁾ 서예를 어떻게 연습하고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서예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서예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청년서예가 요흔연(姚欣然)을 초빙하여 ‘중국서예 입문’ 강좌를 열기도 하였다.⁶⁸⁾ 특히 요흔연(姚欣然)은 이 강좌에서 한자 초서 서예의 필법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다수의 공자학원에서 서예 강좌를 개설하거나 특강을 개최하여 서예에 관한 이론적 강의를 실시하였다. 그러한 많은 강좌는 이론적 강의에 그치지 않고 연사가 직접 시연을 하거나 참석한 청중들에게 직접 서예 체험을 해보도록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서예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들이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을 그어봄으로써 그들에게 획의 예술성을 직접 체험해 보게 유도하였다. 청년서예가 요흔연(姚欣然)은 실제 강연 중 현장에 있던 학생들에게 직접 초서 ‘추(秋)’자를 써보게 하였는데, 이러한 체험을 처음 해본 학생들이 붓의 놀림에 감동하자 이를 바라보던 다른 학생들도 앞다투어 시도해보려는 매우 고무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❶ 姚欣然 강좌의 서예 체험

이처럼 직접 체험은 그저 수동적으로 강연을 청취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따라서 많은 공자학원에서는 서예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Bishkek) 인문대학 공자학원에서는 서예 강좌 및 서예 체험

64) 파키스탄 카라치대학(University of Karachi) 공자학원, 〈卡拉奇大學孔子學院2018春季軟筆書法班結課〉, 2018.

65) 레바논 성요셉대학교 공자학원, 〈橫豎撇捺搭建交流之橋, 筆墨紙硯揮灑華夏風采〉, 2019.

66) 경희대학교 공자학원, 〈중국문화특강 개최-서예감상법〉, 2017.

67) 유라시아대학교(L.N.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공자학원, 〈駐哈薩克斯坦使館外交官爲歐亞大學孔子學院師生舉辦中國書法講座〉, 2016.

68) 유라시아대학교(L.N.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공자학원, 〈青年書法家姚欣然爲我校哈薩克斯坦歐亞大學孔子學院舉辦書法講座〉, 2013.

행사를 실시하였고⁶⁹⁾, 필리핀 브라카대학(Bulacan State University)의 공자학원에서는 세계 ‘공자학원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 서예 체험 및 전시행사를 진행하였다.⁷⁰⁾ 이 행사에서 서예 자원봉사자 교사들은 중국서예 체험 부스를 만들어 놓고 참여한 필리핀 학생들에게 필묵을 다루는 방법과 운필법 등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그들이 스스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게 유도하며 중국문화의 멋을 맛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체험행사는 서예의 매력을 더욱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중국문화와 서예에 더욱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중국에 유학하여 서예 공부를 지속하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둘째 활동의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대학 공자학원에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서예교류 초청전을 실시하였다.⁷¹⁾ 일본의 와세다대학 공자학원은 북경대학 국제협력부와 공동으로 서예전각전을 개최하였다. 와세다대학 공자학원 측은 이러한 전시가 중·일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 깊이 이해하는 창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⁷²⁾

이러한 전시회는 서예대회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르메니아 예레반(Yerevan) ‘부류소프’ 국립언어와사회과학대학 공자학원에서는 한자서예대전을 실시하였다. 이 대전에는 서예 강습을 수강한 50여 명의 학생이 그간에 익힌 서예 실력을 겨루었고, 나아가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였다.⁷³⁾ 또한, 태국 농업대학 공자학원 산하 방콕기독교학교(BangKok Christian College)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서예 대회를 개최하였다. ‘중국의 봄’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이 대회는 중국서예와 더불어 중국 시(詩)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⁷⁴⁾

한국의 중국문화원에서는 중국문화체험의 하나로 서예반(서예초급 평일반, 서예초급주말반, 서예중급주말반)을 설강하여 서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9)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Bishkek) 인문대학 공자학원, 〈比什凱克人文大學孔子學院下設劍橋國際學校教學點舉辦書法體驗活動〉, 2019.

70) 필리핀 브라카대학(Bulacan State University)의 공자학원, 〈菲律賓布拉卡國立大學孔院慶祝全球“孔子學院日”〉, 2017.

71) 말레이시아대학 공자학원, 〈馬來亞大學孔子學院主辦中國-馬來西亞美術書法交流邀請展與中國藝術系列講座〉, 2014.

72) 일본 와세다대학 공자학원, 〈北京大學校友書法篆刻展在日本早稻田大學舉行〉, 2018.

73) 아르메니아 예레반(Yerevan) ‘부류소프’ 국립언어와사회과학대학 공자학원, 〈亞美尼亞孔子學院舉辦第二屆漢字書法大賽頒獎典禮〉, 2019.

74) 태국 농업대학 공자학원, 〈農大孔院BCC課堂舉辦第五屆“中華之春”書法大賽〉, 2020.

3) 중국서예 해외 활동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자국의 서예문화를 해외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외 활동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서예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미미한 상황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 파견되는 서예 교사는 전문적인 서예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아니고, 교재도 현지 전용 서예 교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서예 교사의 문제를 살펴보자. ‘국가한판(國家漢辦: 중국정부의 한족 문화 해외 담당 부서)’은 현재 어느 정도 서예적 자질을 갖춘 중국어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을 전 세계 공자학원에 파견하여 서예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지의 언어를 익히지 못한 채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그저 서예를 가르칠 뿐 현지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다만 중국서예를 알리는 데에는 다소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안묵(顏默)은 서예교사 ‘준입제(准入制)’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공자학원 서예교사 ‘준입제(准入制)’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준입제’ 서예교사란 공자학원의 서예과정에 종사하는 교사로, 반드시 국가한판과 중국서예가협회가 함께 선발하고 훈련하고 심사한 전문 서예교사이다. 어느 정도의 외국어 구사 능력도 갖추어야 하고 서예 이론에 대한 기초나 실기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예교육과 훈련을 거친 전문서예가여야 한다. 국가한판 서예 교사 양성 교육원은 전국 각 대학의 서예 전공 졸업생과 각 서예 단체의 전문서예가들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하여 선발한 다음 그들을 대상 국가에 파견하여 서예 수업을 실시하게 해야 한다. 또한, 국가한판은 중국서예가협회와 합작으로 정기적으로 전문가단을 파견하여 수업의 질을 감독하고 서예 교사의 능력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예교사 ‘준입제’를 실시하면 중국서예를 글로벌화할 수 있고, 수준 높은 서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⁷⁵⁾

그러나 교사 양성의 문제로만 심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지에서의 심도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해외 각국에 맞는 교재 개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에는 서예 교재가 무수히 많지만, 이러한 교재들은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 있을 뿐, 이를 해외의 현지 상황에 맞게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5) 顏默, 《對孔子學院傳播中國書法的策略研究》, 《書法賞評》, 2014. pp.12-13.

중국서예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중국어와 영어 대조본으로 편집된 교재가 발간되어 실제 교육에 활용되기는 하였다. 예를 들면, 《학습중국서법(學習中國書法) : 영한대조(英漢對照)》(韓家藝(美)·童若春·謝國攬, 北京大學出版社, 2008.)와 《한자여서법(漢字與書法) : 영한대조(英漢對照)》(王曉鈞,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9.)이 대외 서예 교재로 주로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중국서법(中國書法) : 영한대조(英漢對照)》(蔣彝(美), 外語教研, 2018.)이 발간되면서 좀더 체계화되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실용적인 교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현지 상황과 현지 언어에 맞는 수준별 서예 교재는 절실한 상황이다.⁷⁶⁾

둘째, 중국의 해외 서예 교육은 예술로서의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국어 확산의 기초작업으로서의 교육에 머무를 뿐 전문적인 예술적 가치로서의 서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모택동 공산당 정부가 서예의 예술적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문화혁명이 발발하면서 서예는 예술로서 명맥을 제대로 잇지도 못했으니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 서예는 여전히 예술이 아니라 단순한 문자 교육 수단일 뿐인 것이다. 물론 이후 등 소평에 의해 개방정책이 실시되고 중국서법가협회가 설립되는 등 서예에 대한 열기가 높아졌지만, 중국의 세계서예 확산 상황을 보면 예술로서의 서예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인다.

셋째, 중국서예의 우월주의를 들 수 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국의 서예를 최고라 홍보하며, 한국과 일본의 서예를 무시한다. 중국서예를 익히면 한국서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중국은 우리의 고구려 역사까지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서예도 자신들의 아류로 여기려는 인식이 강하다. 중국의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중국서예의 허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2009년에 한자서예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중국의 서예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니 그들의 우월주의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타국은 타국대로의 독특한 장점이 있고, 특히 우리 한국의 한글서예는 중국의 한자서예로는 표현해낼 수 없는 한국서예만의 장점이 있다. 그리하여 박병천 교수는 우리 고전궁체의 세계기록유산과 한글서예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한글서예 세계기록 및 인류유산 등재 추진 운동 제안서〉를 내기도 하였다.

중국이 자국의 서예만을 최고로 여기고 타국의 예술을 무시하는 태도는 그들의 예술 발전에도 중국서예 발전과 중국예술 서예 전파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76) 중국서예 해외 활동 관련 내용은 〈공자학원의 중국서예 세계화 전략에 관한 소고〉(문혜정, 《중국학논총》, 2020.) 논문을 참고하였다.

3. 한국서예의 문제점과 장점

광복 이후 ‘한글전용’이라는 어문 정책의 선택, 필기구의 변화(부드러운 모필에서 딱딱한 연필이나 펜으로), 미국문화의 유입과 범람 등 우리의 서예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문화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처럼 열악한 문화 환경을 극복하고 서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이 열악한 만큼 서예계 내부에서 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우리 서예계는 사실상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그 결과 한국의 서예계는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다.

첫째 문제는 서예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광복 이후 우리는 서예를 학문적으로 연구해본 일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서예사나 서예 이론을 제대로 정리해 본 적도 없고 외국의 서예 이론을 번역하여 소개해 본 적도 거의 없다. 게다가 이웃 나라의 서예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본 일도 거의 없다. 80년대 이후에야 대만과의 교류를 통하여 겨우 이웃 나라의 서예를 보기 시작하였고 1991년 한중 수교 이후에야 중국서예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한국의 서예는 학문적 연구나 예술적 창작 양 방면의 활동 모두가 한국 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일부 대가(大家)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가들의 체본(體本)이 곧 법첩(法帖)의 역할을 하였고, 그 대가 선생님의 말씀이 곧 서예사 강의와 서예이론 연구와 서예평론의 역할까지 다 하였다. 축적된 연구 업적이 없으니 대가 선생님의 말씀이 곧 진리로 통하는 판세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예교육 또한 학교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예의 교수-학습 99% 이상이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사사하는 도제식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대가 선생님들의 권위는 가히 하늘을 찌를 정도에 이르렀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몇몇 대가 선생님들은 국전이나 서예대전에서 심사권을 장악함으로써 갈수록 더 두터운 아성을 쌓아 그 권위의 무게를 한층 더하였다. 따라서 해방 이후의 한국 서단은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 관점에서 파악된 서예사나 서론에 대한 교육이나 연구에 힘을 쏟아 본 일은 거의 없고 공모전 주도권에 대한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전혀 지나친 평이 아니다.

이처럼 서예에 대한 학문적 연구 기반이 열악한 점으로 볼 때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은 서예 발전의 기반을 쌓는 일에는 국가적으로도, 서예가 개인적으로도, 물질·정신적 투자를 거의 하지 않은 채, 조선 시대까지 조상들이 쌓아온 원금(元金)과 같은 기반을 소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현재의 한국 서단은 비록 해마다 각 서예 단체에서 화려하게 서예대전을 개최하고 수십 개의 서예 단체에서 수십 차례에 걸친 서예 공모전을 통해 연인원만 해도 천여 명에 이르는 입상 작가들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작품의 기본 바탕으로서의 서예학이라는 학문이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다양한 창작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대부분 상호모방, 상호답습의 결만 화려한 잔치를 반복하고 있다.

둘째 문제는 서예작품의 예술적 창작 면에서 찾아야 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나

라가 세계적인 작곡가와 연주를 많이 배출하는 까닭은 그들 나라에 특별히 음악 천재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작곡가와 연주를 것처럼 위대하게 키우는 모태로서 음악학이라는 학문이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이건 간에 그 바탕에 기초 학문이 깔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발전을 꾀할 수 없다. 기초 학문이 깔리지 않고서는 설령 발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발전에 불과한 발전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각 분야에 대한 기초 학문 연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예술 창작도 마찬가지이다. 예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없이는 진정으로 깊이 있고 생명력 있는 창작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서예계를 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예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문이 앞장서 예술로서의 서예 창작을 인도할 수도 없고 이미 창작된 작품에 대해서 학문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비평을 행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서예 창작 수준은 날로 저하되었고 결국은 이처럼 저하된 허약한 창작 기반을 대중들에게 드러내게 되었다. 서예계 내부의 허약한 실상이 드러나자 서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날로 더 시들해지게 되었다. 대중이 서예를 떠나게 된 것이다.

서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자, 서예가들은 불안해졌다. 그 결과 일부 서예가들은 서예가 이처럼 대중의 인기를 끌지 못하는 까닭을 흰 종이에 검은 먹으로 글씨를 쓰는 방식의 구태의연한 작품형식과 난해한 한문 문장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서예의 대중화를 위해 서양의 각종 미술 행위와 기법을 서예에 접목해 새로운 형식의 서예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서예계에서도 일부 작가들을 중심으로 현대 서예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의 현대 서예 운동은 일본의 그것이나 중국의 그것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현대 서예 운동이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이라는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일찍부터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중국의 현대 서예 운동이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새로운 서예 중흥기를 맞아 거세게 타오르는 서예의 불을 타고 일시적으로 일부 작가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시도되었다가 1998년 이후 소위 ‘문화열 대토론회’를 거치면서 이제는 그 열기가 약화된 과도기적 산물이라면 우리의 그것은 대중적 관심을 만회해 보려는 의도에서 서양의 미술 이론이나 기법, 심지어는 일본의 서예 조류 등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엽기적인 작품을 함으로써 대중적 관심 끌기에 주된 목적을 둔 변칙적 서예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서예는 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다. 그런데 한국의 서예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국이나 일본의 서예도 엄청난 타격과 손상을 입었다. 중국은 문화혁명을 겪었고 일본은 지나친 서구화를 겪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서예가 중국이나 일본의 서예에 비해 전통성과 정통성을 훨씬 더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복 후 1세대 서예가들로 꼽히는 소전 손재형(1903~1981), 강암 송성용(1913~1999), 소암

현중화(1907~1997), 석봉 고봉주(1906~1993), 원곡 김기승(1909~2000), 영운 김용진(1878~1968), 여초 김응현(1927~2007), 일중 김충현(1921~2006), 효람 박병규(1925~1994), 동정 박세림(1925~1975), 시암 배길기(1917~1999), 죽농 서동균(1902~1978), 석재 서병오(1862~1935), 평보 서희환(1934~1995), 검여 유희강(1911~1976), 철농 이기우(1920~1993), 갈물 이철경(1914~1989), 월정 정주상(1925~2012), 학남 정환섭(1925~2010), 동강 조수호(1924~2016), 남정 최정균(1924~2001), 어천 최중길(1914~1979), 석전 황욱(1898~1993) 등은 중국이나 일본의 서예가 수준을 능가하는 서예가들이다. 실지로 중국은 초서의 대가인 우우임(於右任), 세계적인 화가이자 서예가인 장대천(張大千)을 비롯하여 왕장위(王壯爲), 주구형(朱久瑩), 대정농(臺靜農), 사종안(謝宗安), 부견부(傅狷夫) 등 유명서예가들이 대만으로 내려온 후, 중국대륙에는 남아있는 유명서예가들이 없었다. 그리고 1949년 모택동에 의해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사실상 서예를 금지하다시피 함으로 인하여 서예는 급격히 피해를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전용, 미국문화의 범람, 필기구의 변화 등 여러 악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대가 서예가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창작하면서 문하에서는 실력 있는 제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서예가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는 예술로 부상하였다.

1980년대에는 어떤 예술보다도 서예가 국민적 관심을 많이 끄는 장르의 예술이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면서 1세대 서예가들이 차례로 작고하면서 한국서예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2세대 서예가들(현재 60대 후반~70대 후반)의 작가적 역량과 작품의 수준이 1세대 서예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적지 않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서예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차츰 시들해졌다. 그리고 2000년대를 넘기면서 컴퓨터의 대량보급, 한자 교육의 부재, 서예작품과 어울리지 않는 주거환경 등 사회 환경이 서예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서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시들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1세대 서예가들의 영향이 제자들에게 전해져서 아직은 중국의 서예나 일본의 서예에 비해 전통성과 정통성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국 서단의 60~70대 중진 혹은 원로 서예가들의 작품을 중국이나 일본의 60~70대 서예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서예가들의 작품 수준이 여전히 우위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초정 권창륜, 하석 박원규, 소현 정도준, 산민 이용, 심은 전정우, 토민 전진원, 효봉 여태명, 심석 김병기, 죽암 여성구 등이 바로 그런 서예가이다.

한국서단의 등용문이었던 「대한민국서예전람회」(약칭 國展)가 1981년 30회로 막을 내리고, 1982년 「대한민국미술대전」으로 변화하면서 한국서단은 일변하게 되었고, 다시 1989년 서단의 독자성을 내세우며 미술대전에서 분리하여 서예분과에서 독립적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한국서단의 자각적 인식이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참신한 서단의 확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989년 한국서예협회(韓國書藝協會)가 발족함에 따라 한국서단은 일신되기에 이르

렸고, 이후 미술협회와 서예협회로 이분화된 서단의 통합을 주창하며 다시 한국서예가협회가 발족함에 따라 마침내 한국의 서단은 삼분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전북서단도 한국서단의 절대적 영향을 받아 종전의 전북미술대전이 미술협회 주최로 개최되고, 서예협회 주최로 전북서예대전, 그리고 서예가협회 주최로 전북서예전람회가 개최되는 등 삼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90년대는 한국서단의 분파라는 부정적 견해도 불구하고 종래의 전통에 대항하는 혁신서예가 서단의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서예협회에 현대서예와 서각 분야가 새로이 개설됨에 따라 서예의 새로운 조형적 실험이 공식화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전에도 의식 있는 몇몇 작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시도되어 오다가 국제적 교류와 미술사적 조류에 발맞추어 전통서단의 텃밭에서 비로소 태동하게 되었다. 이후 1992년 가장 진보성을 가진 한국현대조형서예협회가 창립(초대이사장 황석봉)됨에 따라 서예술의 현대성을 지향하는 작가들의 새로운 창작무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다채로운 서예의 조형적 실험이 선을 보이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혁신적 기운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서 논의되었던 전통서예의 전수방식인 사전(師傅)이 자취를 감추고, 저마다 창의적인 발상에 힘을 기울이는 등 서사(書寫)보다는 소재 및 재료 등의 표현 방식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전통서예의 입장에서 보면 탈본질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달리 이른바 전통적으로 일컬어졌던 노서(奴書)의 굴레에서 탈피하여 표현과 형식에 대한 자성을 통해 서예의 정체성과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부정할 수만은 없다.

서예가 대학의 정규학과로 인정을 받은 것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이 먼저이다. 1989년에 원광대학교에 처음으로 서예과가 신설되었고, 그 뒤로 1992년에 계명대, 1995년에 대구예술대, 1998년에 대전대, 2000년에 호남대, 2003년에 경기대에 서예전공 학과가 설립되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의 서예야말로 고유색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정통의 서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가장 정맥을 잇고 있는 우리의 정통 서예를 중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세계의 문화예술 시장에 내놓고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⁷⁷⁾

과거처럼 모필(毛筆)이 유일한 필기도구일 때는 붓을 가지고 서예의 본원적인 매체인 한자를 일상으로 써온 중국이 서예의 종주국이 될 수 있었지만 모필 외에도 만년필, 연필, 볼펜 등 각종 필기도구에다 컴퓨터가 일반화된 지금 모필을 일상으로 쓰지 않기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서예는 일상 문자생활의 부대 예술로서의 서예가 아닌 독립된 장르의 예술로서의 서예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서예에서는 누가 더 철저히 서예의 예술성을 탐구하고 누가 더 서예의 예술적 특성을 살린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서예의 종주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77) 현재의 한국서예가 중국이나 일본서예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예의 현대적 변용-본질과 전통, 변질, 변용에 대한 辨釋〉(김병기, 《중국학 논총》, 2001.) 논문 pp.195-238을 참고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혁명의 상처를 치유하고 원상을 회복하기 전에, 그리고 일본이 지나친 서구화를 지향한 전위적인 묵상서예의 유행에서 벗어나 원래의 서예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의 전통적이고 정통한 서예를 순수서예는 순수서예대로 응용서예는 응용서예대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세계의 문화 시장에 내놓는다면 이후에는 한국이 새로운 서예의 종주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기회를 장악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은 서둘러 진행되어야 하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한국서예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실적 분석과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



VI.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실적 분석과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22년 동안 총 12회 진행된 명실공히 국제적인 서예 행사이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은 물론 아시아 전역과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알려진 그야말로 ‘세계적인 서예 전람회’로 발돋움하였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그 권위와 위상을 자랑하며, 서예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중국에서조차도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렇게 권위 있는 서예 국제행사를 한국에서 진행해 왔다는 것은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개선방안을 살펴본 후, 이를 통해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을 점검해 본다.

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1) 1997년 이후 12차 비엔날레의 성과

■ 1회~12회까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선정 주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그간 어떻게 개최됐는지 1회부터 선정되었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역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주제>

| 회 | 연도 | 주제 | 의미 |
|---|------|-----------------|-----------------------|
| 1 | 1997 | |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기념 문화행사 |
| 2 | 1999 | | 세계대회로 위상 확보 |
| 3 | 2001 | 선(線)을 넘어 합(合)으로 | 21세기 조형언어로 가능성 탐색 |
| 4 | 2003 | 생활 속으로 | 서예의 대중화와 세계화 탐색 |
| 5 | 2005 | 만남 | 서예의 경계 넘기 시도 |
| 6 | 2007 | 성찰 | 서예를 통한 건전한 미래를 위한 성찰 |
| 7 | 2009 | 소통 | 서양을 포함 다양한 지역과의 소통 모색 |
| 8 | 2011 | 역동 | 서예의 역동성을 통한 세계성 모색 |

| 회 | 연도 | 주제 | 의미 |
|----|------|-----------|---------------------|
| 9 | 2013 | 뿌리와 바람 | 서예의 뿌리 찾기와 서예 바람 탐색 |
| 10 | 2015 | 물질에서 정신으로 | 서예의 수인성과 인문정신 탐색 |
| 11 | 2017 | 순수와 응용 | 서예의 순수성과 실용성 모색 |
| 12 | 2019 | 자연정신과 서예 | 서예의 다양성과 본질 탐색 |

2001년 개최된 제3회 대회부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적합한 행사를 진행했다. 주제가 설정된 2001년 제3회부터 2019년 제12회에 이르기까지 열 번의 주제를 지닌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매 주제는 해당 연도의 행사 내용과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회 서예비엔날레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2001년 개최된 제3회의 주제는 ‘선(線)을 넘어 합(合)으로’이다. 서예라는 행위가 단순히 선을 긋는다는 개념을 넘어 다른 예술과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호남 서단을 대표하는 전주에서 한국의 서예비엔날레가 열려야 하는 당위성, 서예비엔날레의 필요성 등을 보여주는 전시였다.

2003년 개최된 제4회의 주제는 ‘생활 속으로’이다. 서예가 특정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대중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술이라는 것을 인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런 생활 속의 활기를 바탕으로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궁극적 목표로 지향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한국서예의 진정한 발전과 도약을 도모함으로써 장차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5년 개최된 제5회의 주제는 ‘만남’이다. 고식이라는 서예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를 해봄으로써 경계 넘기를 통한 대중화와 세계화를 꾀하려는 모색이었다. 이 주제 아래 서예의 전문화, 대중화, 실용화, 세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시대의 진정한 생존력을 갖춘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개최된 제6회의 주제는 ‘성찰’이다.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반추하여 자각과 성찰을 통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의 성찰을 시도하고자 했다. 첫째, 세계 속의 서예 되돌아보기, 둘째, 세계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 서예가 걸어가고 있는 길의 방향과 걷는 방법 되돌아보기, 셋째 서예라는 예술의 장르를 빌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이다.

2009년 개최된 제7회의 주제는 ‘소통’이다. 내적으로는 서예계 각 유파 간의 소통은 물론 외적으로는 서구의 예술인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내적으로는 서예 자체의 질적 향

상을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전북의 서예, 한국의 서예가 세계를 향해 진출하는 초석을 다지고자 했다. 또 서예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그 속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도출해 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으로 질적 성장을 위한 숨 고르기의 의미를 지닌다.

2011년 개최된 제8회의 주제는 ‘역동’이다. 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서예를 동적인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서예와 태권도, 그리고 공연문화와의 연계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역동적 이미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서예의 세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개최된 제9회의 주제는 ‘뿌리와 바람’이다. 한자문화권 고유 예술의 정수인 서예의 근원적인 예술성을 성찰함과 동시에 비록 아직은 작은 바람에 불과하지만, 세계에 싹트기 시작한 현재의 서예 바람을 점검하고, 나아가 미래의 서예에 큰바람을 일으킬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서예는 원래 지녔던 전통성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현대성으로 기존의 동력과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면 예술성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서예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서예가 진일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5년 개최된 제10회의 주제는 ‘물질에서 정신으로’이다. 서예에 내재한 수신성과 인문정신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물질적 성취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지향점을 찾아보고 문명의 정화 차원에서 서예의 본래 의미를 찾아보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서예의 수신성을 언급하는 말로 ‘서예는 곧 수신이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현대 물질 만능의 시대,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예 특유의 수신성을 바탕으로 하여 물질 만능의 그릇된 인식을 해소하고 인간성 회복에 기여하는 서예의 역할과 작용을 구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17년 개최된 제11회의 주제는 ‘순수와 응용’이다. 이 주제는 서예 본래의 예술성을 확인하면서 순수서예와 응용서예로 나누어 서예의 진로를 다시 고민하고 모색해보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행사의 기획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문화와 예술도 그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진로를 재탐색해야 한다. 이에 본 행사에서는 「순수와 응용-서(書), 기(氣), 법(法), 도(道), 예(藝)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한·중·일의 전통 서론 중에서 기, 법, 도, 예를 말한 명구를 골라 작품화함으로써 서예의 본질적 의미를 음미하는 가운데 순수 혹은 응용의 서예 바탕에 깔린 기(氣)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동아시아 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서예를 예로 인식할 것인지, 법으로 인식할 것인지, 도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이는 자리도 마련했다. 순수서예의 근본이 바로 서야 응용서예의 방법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기획을 하였다. -허진규, 「순수와 응용-근본이 서야 방법이 생긴다」, 도록에서 발췌

위의 기획 의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제11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20년을 다짐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서를 서예로 볼 것인가, 서법으로 볼 것인가, 서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짐으로써 순수서예의 근본에 대해 논하고 이후 응용서예의 진로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기획된 행사였다.

2019년 개최된 제12회의 주제는 ‘자연정신과 서예’이다. 이 주제는 서예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서예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조직위원회는 행사의 기획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지난 20여 년의 자취를 돌아본 결과, 대체로 ‘서예의 본체 및 본질 구현’, ‘대중과의 소통 진작’, ‘신진 서예가 발굴’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집약되었다. 그것은 ‘서예의 본체 및 본질 구현’이란 서예가의 책무 가운데 가장 긴요한 것으로 서예에 ‘도’를 체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론의 기초는 당연히 전통철학이며, 전통철학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명제는 천(天)·도(道)·역(易)·태극(太極)·리(理)·기(氣)·심(心)·성(性)···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도(道)’와 ‘기(氣)’는 전통문화를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명제로 철학과 예술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동방의 역대 사상가들은 대부분 ‘도’와 ‘기’를 논하였고, 예술가들 또한 ‘도’와 ‘기’를 예술의 중추로 삼았으며, 서예·문학·회화·무용·건축·조각 등은 물론 심지어 바둑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도’와 ‘기’를 강구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서예는 기타 예술 분야와도 상통하며 융화하는 동방의 핵심예술로, 서양예술학적 체계에서는 그 자리를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독특한 예술이다. 그러나 근 일백여 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믿고 지켜왔던 전통사상과 문화를 버리고 서양의 천문학적 우주관과 물리학적 세계관을 수용함에 따라 우주관을 이야기할 때 ‘도’와 ‘기’를 말하지 않았고, 자연에서 비롯되었다는 서예에 대해서도 동방의 심후한 우주관을 기초로 말하지 않았다.

서예는 하나의 기예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풍부한 예술경계, 인생경계, 도덕경계를 투사하여 생명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제12회 주제는 서예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서예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 참여작가 수 및 작품 추이 분석

① 총 12회 개최의 결과분석: 작가 12,501명 / 작품 13,821점 / 관람객 1,775천여 명

1997년 무주와 전주에서 열린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기념하는 문화행사로 시작되어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2001년 제3회부터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여주었고, 그런 가운데 22년간 발전을 거듭하여 명실공히 국제적인 문화행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실적〉

| 구분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
| 개최년도 | 1997년 | 1999년 | 2001년 | 2003년 |
| 기간 | 1.20~2.20 | 6.1~6.30 | 10.6~11.5 | 9.20~10.19 |
| 메인장소 | 전북예술회관 | 전북예술회관 | 소리문화전당 | 소리문화전당 |
| 행사 수 | 3개 | 15개 | 17개 | 20개 |
| 참여작가 | 119명 | 441명 | 1,701명 | 803명 |
| 참여국가 | 8개국 | 18개국 | 20개국 | 20개국 |
| 관람객 (추정) | 13,500명 (해외1,360) | 100,000명 (해외3,000) | 250,000명 (해외4,340) | 152,000명 (해외4,480) |

| 구분 | 제5회 | 제6회 | 제7회 | 제8회 |
|-------------|-----------------------|-----------------------|--------------------|-----------------------|
| 개최년도 | 2005년 | 2007년 | 2009년 | 2011년 |
| 기간 | 10.1~10.31 | 10.6~11.4 | 9.19~10.10 | 10.1~10.30 |
| 장소 | 소리문화전당 | 소리문화전당 | 소리문화전당 | 소리문화전당 |
| 행사 수 | 22개 | 26개 | 18개 | 28개 |
| 참여작가 | 980명 | 1,866명 | 636명 | 1,849명 |
| 참여국가 | 23개국 | 22개국 | 15개국 | 17개국 |
| 관람객 (추정) | 209,991명 (해외5,260) | 181,580명 (해외3,464) | 77,890명 (해외730) | 163,547명 (해외3,500) |

| 구분 | 제9회 | 제10회 | 제11회 | 제12회 |
|-------------|-----------------------|------------------|------------------|------------------|
| 개최년도 | 2013년 | 2015년 | 2017년 | 2019년 |
| 기간 | 10.5~11.3 | 10.17~11.15 | 10.21~11.19 | 10.6~11.4 |
| 메인장소 | 소리문화전당 | 소리문화전당 | 소리문화전당 | 소리문화전당 |
| 행사 수 | 34개 | 28개 | 25개 | 26개 |
| 참여작가 | 923명 | 846명 | 988명 | 1,349명 |
| 참여국가 | 16개국 | 18개국 | 21개국 | 22개국 |
| 관람객 (추정) | 170,090명 (해외3,051) | 144,500명 (해외) | 150,000명 (해외) | 160,000명 (해외) |

1997년 제1회 때는 110명이라는 소수로 시작했지만, 외국작가는 28명으로 24%를 차지하여 첫 행사라는 점과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행사 자체는 국제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2회에는 1회의 4배, 3회에는 2회의 4배로 증가하여 전체적인 몸집이 급격하게 불어났다. 4, 5회 때는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6회에는 다시 2배 증가하였으며, 7회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8회에는 다시 3배 증가하여 다시 6회 때의 수준을 회복했다. 9회에는 다시 절반으로 떨어졌고, 10회에는 9회에 미치지 못했다. 11회는 참여작가의 수는 약 150명 늘었고 12회 참여작가의 수는 1349명으로 약 360명 늘었다.

참여작가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11회와 12회의 국내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11회의「서론서예전」과 12회의「서예 도를 밝히다전(자연정신&서예)」그리고 청년작가를 중심으로 전시한「서예

비상전』의 경우를 보면 2015년 제10회의 참여작가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 10세 정도 낮아진 점을 볼 수 있으며 40대 작가의 참여도가 높아졌다.

U 〈국내외 참여작가 현황〉

| 회수(연도) | 참여작가 수 | 한국작가 수 | 외국작가 수 | 외국작가 비율 |
|-----------|--------|--------|--------|---------|
| 1회(1997) | 119 | 91 | 28 | 24% |
| 2회(1999) | 441 | 400 | 41 | 9% |
| 3회(2001) | 1,701 | 1,661 | 40 | 2% |
| 4회(2003) | 803 | 739 | 64 | 8% |
| 5회(2005) | 980 | 906 | 74 | 8% |
| 6회(2007) | 1,866 | 1,794 | 72 | 4% |
| 7회(2009) | 636 | 534 | 102 | 16% |
| 8회(2011) | 1,849 | 1,685 | 164 | 9% |
| 9회(2013) | 923 | 857 | 66 | 7% |
| 10회(2015) | 846 | 797 | 49 | 6% |
| 11회(2017) | 988 | 916 | 72 | 7% |
| 12회(2019) | 1,349 | 1,220 | 129 | 9% |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 프로그램

최근 개최된 10회, 11회, 12회 3개의 행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행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2015년 제10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5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주제는 '물질에서 정신으로'를 표방하였다. 서예를 통해 물질문명의 폐해를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인문(人文)'과 '정신(精神)'을 강조하는 행사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제10회는 20여 년 동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쌓아온 네트워크와 성과를 보여주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세계서예의 상생전'을 중심으로 한 전시와 학술행사,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체험행사 등 5개 부문에 28개 행사로 계획되어 전주시 일원에서 개막행사 2, 전시행사 11, 학술대회 1, 부대행사 10, 연계행사 4개 행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역대 최대인 세계 18개국의 846명의 작가가 1,151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5개 부문별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④ 〈2015 제10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프로그램 현황〉

| 구분 | 행사명 | 장소 |
|----------|-------------------|-----------|
| 개막행사(2) | 의식행사 | 국제회의장 |
| | 테입컷팅 및 필가 묵무 | 로비 및 전시장 |
| 전시행사(11) | 세계 서예의 상생전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혼이 있는 괴서전 | |
| | 한글서예유산임서전 | |
| | 명사서예전 | |
| | 세계문자서예전 | |
| | 도자각서전 | |
| | 철필의 노래전 | |
| | 생활서예전 | |
| | 전북서예의 얼전 | 전북예술회관 |
| | 시가 있는 등불서예전 | 한벽루 도로터널 |
| | 강변의 깃발 서예전 | 향교문화관 |
| 학술행사 | 국제서예학술대회 | 국제회의장 |
| 부대행사(10) | '13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 전북예술회관 |
| |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 |
| | '15기념공모전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전주한옥마을 현판.주련 사진전 | |
| | 작가와의 만남 | |
| | 서예는 행운을 싣고 | |
| | 탁본체험 | |
| | 나도 서예가 | |
| | 가훈. 좌우명씨주기 | |
| | 퍼즐.서예놀이공간 | |
| 연계행사(4) | 강암 송성용전 | 강암서예관 |
| | 석전 황욱전 | 국립전주박물관 |
| | 완주군 서예가 초대전 | 청운갤러리 |
| | 전북 초.중.고교장단 연수회 | 국제회의장 |

2015년에는 개막식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인사들이 발길이 이어졌고, 주한 대사와 외교단 등의 방문을 이끌어 주목을 받았다. 전시 관람을 위해 방한한 모로코의 장관은 비엔날레의 모로코 전시를 타진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중에서 ‘세계서예의 상생전’과 ‘혼이 있는 괴서전’ 그리고 ‘명사서예전’ 등 테마가 있는 기획전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② 2017년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년에 개최된 제11회는 3개의 개막행사, 10개의 전시행사, 8개의 부대행사, 3개의 연계행사, 1개의 학술행사로 총 5개 부문 25개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에 열린 제10회의 2개의 개막행사, 11개의 전시행사, 10개의 부대행사, 4개의 연계행사, 1개의 학술행사로 총 5개 부문 28개와 비교해 보면 4개가 줄어든 셈이다. 개막행사에서 1개가 늘고, 전시행사와 부대행사에서 2개, 연계행사 1개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행사의 수는 전회보다 줄어들었으나, 프로그램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내용과 주요 전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④ 〈2017년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프로그램 현황〉

| 구분 | 행사명 | 장소 |
|----------|--------------------------|---------------|
| 계 | 25개 | 7개 |
| 개막행사(3) | 개막공연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
| | 의식행사 | " |
| | 테입컷팅 | 로비 및 전시장 |
| 전시행사(10) | 서론서예전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명사서예전 | " |
| | 생활서예전 | " |
| | 등불서예전 | " |
| | 양생서예전 | " |
| | 전북우수작가서예전 | " |
| | 전·서각의 어울림전 | " |
| | 세계한국문화원수강생전 | " |
| | 태권도와 깃발전 | 무주태권도 공원 |
| | 서예, 책을만나다전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학술행사 | 국제서예학술대회(10.22) | JS호텔 국제회의장 |
| 부대행사(8) | 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 전북예술회관 |
| | 기념공모전 초대작가전 | " |
| | 기념공모전 | " |
| | 경필서예전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작가와와 만남10.28(토)/11.11(토) | " |
| | 서예는 행운을 싣고 | " |
| | 탁본체험 | " |
| | 나도 서예가 | " |
| 연계행사(3) | 강암 송성용전 | 강암서예관 |
| | 석전 황욱전 | 국립전주박물관 |
| |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글씨본 | 국립전주박물관 |

프로그램 내용과 주요 전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막행사부터 행사의 주제에 맞게 1부 ‘순

수', 2부 '응용'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의 1장 '서혼(書魂)', 2장 '한(恨)의 승화', '성스럽고 아름다운 궁체', 3장 '답설야중거(還雪野中去)'로, 2부의 1장은 '서예'와 '한복패션', 2장은 '서예로 부르는 아! 대한민국'으로 꾸며졌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주로 열린 전시행사는 9개의 전시로 나누어졌다. 전시장의 규모나 참여 작가 수, 작품 수로 보아 가장 주된 전시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17개국의 작가 183명이 참여한 「서론서예전」이다.

「명사서예전」은 전업 작가가 아닌 저명인사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다. 이 전시는 제9회, 제10회에 이어 세 번째 명사전이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의 글씨가 비록 서예가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위상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 일반인들이 서예를 즐기는 명사들의 작품을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고, 그것이 서예 인구의 저변 확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전시를 지속해서 기획되고 있다.

「전각과 서각의 어울림전」에는 23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각과 서각을 이 시대의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크기, 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는 다양한 전각과 서각작품을 선보이는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참신함에 디자인적 요소까지 곁들여 실용적 면모까지 갖춘 전시로 보인다. 이 전시는 서예 활동가 그룹에서는 선호도 2위에 올랐다.

2015년 전시에는 없었던 「양생서예전」에는 원로 서예가 32명이 참여했다. 서예라는 정신 수양을 통해 건강한 삶을 양생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전시다. 주로 70대 이상의 원로작가들이 건강에 관한 명언을 서제로 삼아 창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은 전북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 40명의 작품을 선보인 초대전이다.

「도시 건축과 함께 하는 등불서예전」에는 200여 명의 청년층 작가들이 참여한 전시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실용적 측면에서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전시이다. 한옥과 양옥, 그리고 서구식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등들을 선보인 등불서예전은 서예가 건축과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서예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얼마나 요긴하게 실용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전시라고 생각된다.

「등불서예전」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전시장 내에서 「등불서예전-서예, 불을 밝히다」전을, 2015년에는 한벽루 근처에 폐허로 남아있는 옛 철길의 터널을 이용하여 「시(詩)가 있는 등불서예전」을 개최한 바 있다. 2017년 등불서예전은 실내 인테리어의 개념과 접목해 또 다른 맛을 만들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등에 작가 개인의 창의적인 예술혼을 보탬으로써 서예가 추구하는 변화

미를 선보였다.

24명의 작가가 참여한 「서예, 책을 만나다」전은 단순한 손글씨가 아닌 순수 서예작품을 책의 표지에 디자인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책 표지의 디자인도 독자의 관심을 끄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전시는 책 표지 디자인에 서예가 잘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서예의 응용과 실용적 용도를 보여 준 전시다.

「경필서예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형 모자이크 걸개그림을 작성하고 모자이크에 필요한 종이를 가로 15cm, 세로 10cm 정도의 색지로 준비하여 전라북도 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사전에 경필로 쓴 희망 메시지를 받아 수집하여 시뮬레이션한 대형 모자이크 걸개그림을 완성하는 화합과 참여의 장이다. 걸개그림은 대궐을 연상시키는 동양 건축물이었고 전시장 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깔의 포스트잇을 준비하여 메시지를 즉석에서 써서 붙일 수 있게 했다. 총 2,000명이 참여한 초대형 합작품이다.

1997년 제1회 때부터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기치로 한국서예를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해 왔다. 그 연장 선상에서 2017년에는 해외 한국문화원에서 서예를 배우는 외국 수강생 가운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받아 「세계한국문화원서예수강생전」을 개최한 것이다. 이 전시에 8개국 21명의 외국인이 참여했다. 독일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와 터키가 각각 5명으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프랑스, 인도가 각각 1명씩이다. 한글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들의 글씨 수준이 비록 프로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이 초대전을 계기로 세계 각지의 한국문화원에서 서예를 배우는 수강생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통해서도 한국서예를 만방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서예’라는 대회 명칭에 비교적 잘 어울리는 전시였다.

③ 2019년 제12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9년에 개최된 제12회는 개막행사(3), 전시행사(11), 학술행사(2), 특별행사(2), 부대행사(8), 연계행사(5)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그 중 전시행사는 11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9개 전시는 본전시관에서, 2개 전시는 전북예술회관에서 나뉘어 진행되었다.

④ 〈2019년 제12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프로그램 현황〉

| 구분 | 행사명 | 장소 |
|----------|-------------------|-------------------|
| 계 | 31개 행사 | 7개소 |
| 개막행사(3) | 의식행사 | 한국소리문화의전당(국제회의장) |
| | 테이프컷팅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시장 로비) |
| | 개막퍼포먼스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시장내) |
| 전시행사(11) | ‘서예 도를 밝히다’전 | 〃 |
| | 명인전각전 | 〃 |
| | 서예비상전 | 〃 |
| | 서화융화전 | 〃 |
| | 서·화·각·도자전 | 〃 |
| | 서예, 견인전 | 〃 |
| | 전북예찬 시문서예전 | 〃 |
| | 명사서예전 | 〃 |
| | 대한민국 학생서예전 | 전북예술회관 |
| | 해외동포 교학상장전 | 〃 |
| | 시·서·화전 | 〃 |
| 학술대회(2) | 국제서예학술대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국제회의장) |
| | 국제학술공모전(논문수상자 발표) | 〃 |
| 특별전시(2) | 자연과 서예, 그리고 붓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시장내) |
| | 내고향 예찬전(14개 시·군) | 각시·군 주요도로변 |
| 부대행사(8) |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 전북예술회관 2층 |
| | 기념공모전 | 〃 |
| | 작가와와의 만남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시장 로비) |
| | 서예는 행운을 싣고 | 〃 |
| | 탁본체험 | 〃 |
| | 나도 서예가 | 〃 |
| | 서각체험실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시장 입구) |
| | 서예도서전 | 〃 |
| 연계행사(5) | 강암 송성용전 | 강암서예관 |
| | 석전 황욱전 | 국립전주박물관 |
| | 전북현대서각회 | 교동미술관 |
| | 한청서맥전 | 한국전통문화전당 |
| | 석정 이정직 특별전 | 국립전주박물관 |

「서예 도를 밝히다(자연정신&서예)전」은 서예의 근원을 재인식하고 서예의 근본정신을 실천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뚜렷한 전시였다. 서예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명제를 던지고, 이를 고민하여 작품하게 함으로써 129명이 참여작가들에게 서예의 근본정신에 대한 고민과 사유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

「명인전각전」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전각예술에 관한 관심과 활성화가 저조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획을 시도했다는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다. 동양 3국을 중심으로 전각에 조예가 깊은 명인들의 다양한 철필의 맛과 조형의 멋을 선보인 전시로, 실제 새겨진 인장과 대형으로 확대한 실사를 통해 전각예술의 조형적 묘미를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남다르다.

「서예비상전」과 「서화융화전」은 초대형의 작품과 초소형의 작품이 한 공간에 어우러지면서 관객들의 눈길을 잡아끄는 획기적인 전시공간 연출이었다. 특히 「서예비상전」은 청년서예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에게 기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했으며, 관객들로 하여금 서예의 웅장함과 기운생동을 체감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취지에 상당히 부합하는 전시였다. 「서화융화전」 또한 비록 소품이지만 작은 공간 내에서 서예나 문인화가 지닌 무한한 시각조형의 구성과 확장을 보여준 전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서예가 일상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품의 예술적 활용가치를 확인시켜 주었다. 한 공간에 펼쳐진 이 두 가지의 전시는 서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목을 잡아끄는 매력적인 기획이었다.

「서예, 견인전」은 근현대 한국의 전통서예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후학들을 양성해온 원로 서예가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자칫 가볍고 현란한 표현예술에만 치우칠 수 있는 현대서예에서 전통서예의 품격과 깊은 멋을 느끼도록 하여 전시 내용의 균형을 잡아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명사서예전」은 서예가가 아닌 이 시대 지도자들의 필묵을 한자리에 모음으로써 매체에서 보아 왔던 인물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글씨를 감상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서여기인(書如其人)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로 평가된다.

「서·화·각·도·자전」은 융합서예 전시 분야로, 서예가 규격화된 사각 액자의 틀에서 벗어나 입체화되는 등 서예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생활 속에 침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사·서·화전」은 글씨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시와 그림이 한데 어우러져 서예의 서정성을 느끼게 하며, 1~2층 통로에 전시되어 관객들이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 외에 「전북예찬 시문서예전」은 전북이 서예의 본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후속작가양성 차원과 애향의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기획이었다. 한편, 전북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학생서예전」, 「해외동포교학상장 서예전」은 우리나라 서예의 미래인재 육성과 한국서예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전시행사로, 향후 이러한 전시는 더욱 지원과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가 1997년에 세계 최초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한 것은 선구적 선택이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중국이 2009년에 서예를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여 중국서예를 세계로 알린 것보다 12년 빠른 세계 최초의 종합성 서예 예술 행사였다.

이러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많은 서예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매회 전시마다 국내외 문화예술계와 서예 관계자 등 저명인사가 대

거 서예비엔날레를 찾아와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고, 명실공히 세계적인 서예전람회이며 서예인들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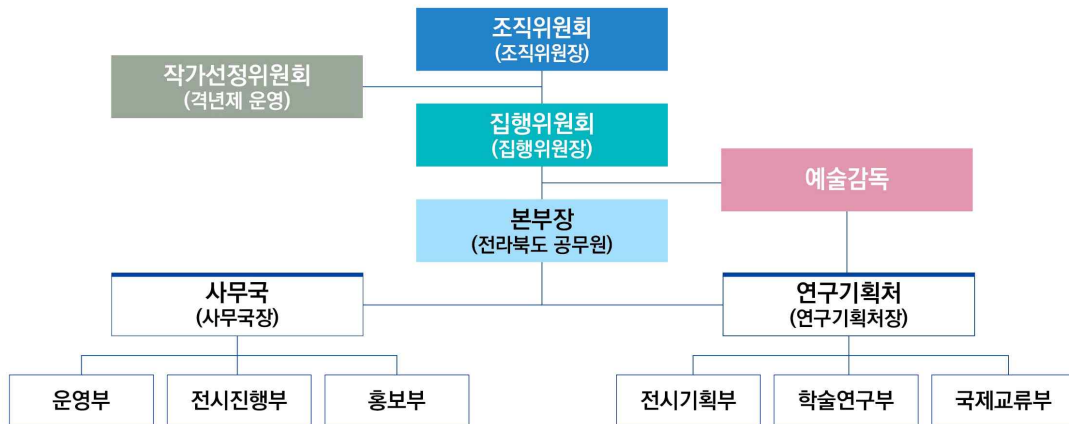
2)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확대방안

현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는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예술감독, 사무국 체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조직위원회에는 총회를 통해 선출된 조직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집행위원 7인 이내 감사를 두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일들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집행위원회는 조직위원회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비엔날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예술감독과 사무국을 두고 있다. 예술감독은 행사에 관한 직접적 업무를, 사무국장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서예진흥기구 체제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성찰을 통해 종합적이면서도 전문성을 확보될 수 있는 조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설립하고 ‘비엔날레관’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나열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체제와 본조직의 사업수행을 위한 명예위원장(전임 조직위원장), 고문, 자문위원회와 작가 선정위원회 구성은 그대로 유지한다.
- 집행위원장과 예술감독, 본부장 아래 사무국과 연구기획처로 나눈다. 사무국 아래에 운영부, 전시진행부, 홍보부를 두고, 연구기획처 아래 행사기획부, 학술연구부, 국제교류부를 둔다.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조직위원회 기구 구성(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기구표 (안)

위의 표에 따른 세부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집행위원장은 서예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집행, 사업운영계획, 예산·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예술감독은 서예비엔날레 전시 및 학술에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 및 심의한다.
- 전라북도 공무원 파견직 본부장을 둔다. 서예비엔날레는 매회 예산 및 행사 규모가 확장되어있다. 행정 운영의 전문성과 세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6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파견직을 집행위원장 아래의 본부장으로 두면서, 서예비엔날레 주최 측인 전라북도와의 원활한 소통, 의회 업무 및 행정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다.
- 사무국 - 각 부서의 요청을 수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집행하며 비엔날레 행정 및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은 세 개의 부로 나눈다.
 - ① 운영부는 경영 전반에 관한 예·결산 및 행정 집행 그리고 각종 회의의 소집과 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전시진행부는 작품의 수집과 정리 및 반송 작품의 수장관리 전시 디스플레이를 진행을 담당하면서 전시행사 진행에 관한 사무업무와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③ 홍보부는 서예비엔날레 행사의 홍보와 비엔날레 조직위 관련 홍보 등 사업 진행에 따른 모든 국내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미개최연도에도 언택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시킨다.
- 연구기획처 - 서예비엔날레 전시의 기획과 국내외 작가선정에 관한 작가 발굴 그리고 학술연구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연구 기획을 담당하여 국제행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

과 운영을 담당한다. 연구기획처는 세 개의 부로 구성된다.

- ① 전시기획부는 전시행사 및 교육에 대한 기획, 국내작가 및 신진작가 발굴을 통해 전시기획 관련 운영을 담당한다. 디지털 전시 및 서예 공연 등 새로운 장르를 기획하여 한국서예의 세계화 방안 업무도 담당한다.
- ② 학술연구부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비엔날레관 건립 추진 대한 정책연구를 담당한다. 국제학술대회 행사를 주관하고 논문 및 평론 공모 기획 등 학술대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지필묵연에 대한 품질 연구 및 복원 보존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학술연구부는 서예문화 및 학술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업무 및 연구를 지원한다
- ③ 국제교류부는 외국작가의 발굴, 섭외, 초청, 의전 관리에 관한 운영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해외 홍보와 국제전시를 기획한다. 국제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및 관련 분야 문서의 외역과 통역 업무를 운영하고 담당하게 한다.

2.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

1) 한국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세계 서예행사의 중심

한국은 지난 22여 년 동안 세계적 서예 행사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진행한 국가이다. 서예의 종주국이라는 중국에서도 이러한 행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의 이런 행사에 관해서 중국이나 일본 등 타국의 언론에서도 그 가치를 언급하곤 하였다.



① 일본 언론 보도 자료



The 11th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2017

21 OCT - 19 NOV, 2017 / EXHIBITION, COREA

Theme: Purity and Application
say Calligraphy 書, Energy (氣) · Law (法) · The way (道) · Skill (藝)
Participants: 183 artists from 17 countries
FeiMo Artists: Nicola Piccoli, Paola Billi, Aldo Borgo



The World Calligraphy Biennale Jeollabuk-do

OIT, 2013 / MOSTRA, COREA

FeiMoArtists:
Paola Billi Xizi, Nicola Piccoli Huoyun, Aldo Borgo, Danica Radeaglia, Marina Lovatti, Bruno Brugnoli

① 이탈리아 전문서예 사이트 페이모 뉴스



① 중국 언론 보도 자료

위의 각종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 일본뿐 아니라 이탈리아 등 서양에서도 한국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중국이 한국의 이러한 국제서예행사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벤치마킹하여 ‘제1회 청도국제서예비엔날레(강유위서예국제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 제1회 청도국제서예비엔날레(강유위서예국제심포지엄)

29.10.2018 - 14:00

[City of Qingdao](#)

International Symposium on Kang Youwei's Calligraphic Study was held in Qingdao, China



[Photo Info](#) [Download](#) [One additional media item](#)

[Qingdao, China](#) (ots)

International Symposium on Kang Youwei's Calligraphic Study & The First Qingdao International Calligraphy Biennale was held in Qingdao between Oct. 27 and 28, 2018. Approximately 200 experts, scholars and calligraphy artists from 16 countries and regions including China, Russia, USA, France, Italy and Japan participated in the event.

The symposium received more than 60 theses covering many aspects such as the domestic and foreign impact of Kang Youwei's calligraphy study thinking. Famous sinologists such as Pan Weijun, great granddaughter of Kang Youwei, Jean-Marie Simonet, honorary head of the Chinese section at Royal Museum of Fine Arts of Belgium, and André Kneib, professor at INALCO analyzed on Kang Youwei's calligraphy study achievements.

2018 Qingdao International Calligraphy Biennale

chinadaily.com.cn | Updated: September 27, 2019



The 2018 Qingdao International Calligraphy Biennale took place at Qingdao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on Oct 27 - 29, 2018.

More than 110 scholars and enthusiasts from 14 countries and regions, including Russi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ere invited to the event. About 10,000 locals and tourists came to enjoy more than 160 calligraphy works exhibited at the biennale.

During the event, thematic activities were held. The "artists face-to-face interaction" activity was arranged for calligraphers from home and abroad to visit schools and senior citizen activity centers to promote calligraphy arts. The calligraphy artists were also invited to visit natural and cultural landscapes and historic buildings in the city.



2018年康有为书学国际研讨会暨首届青岛国际书法双年展启幕

2018-10-28 18:03 半岛网·半岛+

阅读量 (124772) 0 白鹿新闻

文/半岛记者 黄倩妮 图/半岛记者 吕琪
10月27日上午,“2018年康有为书学国际研讨会暨首届青岛国际书法双年展”系列活动在青岛国际会议中心开幕。此次研讨会主题为:“山海情深 翰墨青岛”。来自国内书法界的专家和比利时、美国、法国、日本、韩国的著名汉学家及众多书法家参加了这次研讨会。另外,共有160件精品力作同时展出。



이 행사는 16개국에서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1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크게 세계 저명서예가들의 전시와 국제심포지엄으로 나누어져 진행된 이 행사는, 국제서예대회로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참여작가 수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면에서 아직 한국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참여작가만 해도 1회 119명에서 시작해서 12회에는 1,349명이 되었고, 행사 수에 있어서도 1회 3개로 시작했던 행사가 12회에는 26개가 이루어졌다.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실적〉

| 구분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
| 개최년도 | 1997년 | 1999년 | 2001년 | 2003년 |
| 기간 | 1.20~2.20 | 6.1~6.30 | 10.6~11.5 | 9.20~10.19 |
| 메인장소 | 전북예술회관 | 전북예술회관 | 소리문화전당 | 소리문화전당 |
| 행사 수 | 3개 | 15개 | 17개 | 20개 |
| 참여작가 | 119명 | 441명 | 1,701명 | 803명 |
| 참여국가 | 8개국 | 18개국 | 20개국 | 20개국 |
| 관람객 (추정) | 13,500명 (해외1,360) | 100,000명 (해외3,000) | 250,000명 (해외4,340) | 152,000명 (해외4,480) |

| 구분 | 제5회 | 제6회 | 제7회 | 제8회 |
|-------------|-----------------------|-----------------------|--------------------|-----------------------|
| 개최년도 | 2005년 | 2007년 | 2009년 | 2011년 |
| 기간 | 10.1~10.31 | 10.6~11.4 | 9.19~10.10 | 10.1~10.30 |
| 장소 | 소리문화전당 | 소리문화전당 | 소리문화전당 | 소리문화전당 |
| 행사 수 | 22개 | 26개 | 18개 | 28개 |
| 참여작가 | 980명 | 1,866명 | 636명 | 1,849명 |
| 참여국가 | 23개국 | 22개국 | 15개국 | 17개국 |
| 관람객 (추정) | 209,991명 (해외5,260) | 181,580명 (해외3,464) | 77,890명 (해외730) | 163,547명 (해외3,500) |

| 구분 | 제9회 | 제10회 | 제11회 | 제12회 |
|-------------|-----------------------|------------------|------------------|------------------|
| 개최년도 | 2013년 | 2015년 | 2017년 | 2019년 |
| 기간 | 10.5~11.3 | 10.17~11.15 | 10.21~11.19 | 10.6~11.4 |
| 메인장소 | 소리문화전당 | 소리문화전당 | 소리문화전당 | 소리문화전당 |
| 행사 수 | 34개 | 28개 | 25개 | 26개 |
| 참여작가 | 923명 | 846명 | 988명 | 1,349명 |
| 참여국가 | 16개국 | 18개국 | 21개국 | 22개국 |
| 관람객 (추정) | 170,090명 (해외3,051) | 144,500명 (해외) | 150,000명 (해외) | 160,000명 (해외) |

중국과 한국의 이러한 국제서예 행사의 현황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이미 세계서예의 중심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적극적인 해외 전시개최와 특강을 통한 세계화

최고 수준의 작가적 역량과 학문적 역량과 교육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서예교육과 해외 홍보 전시가 있을 때 한국서예의 세계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서예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순수서예, 전통서예에 대한 착실한 공부와 연구를 통하여 서예의 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우수한 지도자가 배출되어야 하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전시와 특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서예계에서는 전통서예에 대한 역량의 강화보다는 ‘새로운 변화’, ‘대중과 함께하는 현대적 서예’라는 이름 아래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는데 관심을 갖다 보니 원래의 정통 서예에 대한 연구와 연마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세계의 문화시장에서는 변화된 서예보다는 원래의 서예 즉 정통 서예이자 전통서예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만이 서예를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모하다.

지금까지 현대서예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어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한 실험작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실패한 것들이다. 격이 높지 못하고 대부분이 천박한 수준이어서 기존의 서예 질서나 형식체계를 부정할 만한 권위를 얻지 못했다. 권위는 격조 높은 공감으로부터 생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서단에서 시도된 현대서예라는 이름의 실험작들은 대부분이 변화를 위한 변화만 시도했을 뿐 결코 격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서예에 억지로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 지위에 편승하여 작가 또한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생존 전략을 전개함으로 한국의 서예계는 더욱 혼란스러운 중병을 앓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이미 한국화계(韓國畵界)에서 뼈아프게 겪은 바 있다. 서정결은 한국화의 침체와 위기에 대한 진단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서양화와 동양화의 개념과 예술적 태도는 근본적으로 대부분 정반대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서로 병치 용화할 수 없는 상반성에 직면하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된다. 최근 한편에선 장르 구분이 의미가 없으므로 대학에 동양화과와 서양화과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마저 제기되고 있다. 거기엔 별도의 한국화(동양화)가 따로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문제는 한국화 변화의 과정이 서양화 발전과정의 변화양상을 뒤쫓아왔다는 데 있다. 즉 서양화의 동향에 한국화가 스스로 종속되어 오지 않았나 냉철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다. 서양화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자기 수련과 연마에 의한 독자적 개혁을 선택하기보다는 서양화의 경향에 이끌려온 것이다. 한국화 위상의 추락은 결국 한국화가들이 자초한 결과다.……동양적 재료와 붓은 표현력과 고유성에 있어서 분명 매력적이다. 그러나 매력적인 만큼 엄청난 연마와 수련을 요구한다. 그러나 자기 수련과 연마보다는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와 시각적 효과에 관심을 쏟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젊음 세대로 올수록 그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⁷⁸⁾

한국화계의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한국 서예계는 한국화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답습하려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의 서예계는 변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변화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이지러져 버린 서예의 본래 면목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예가 품고 있는 미적 내함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서 서예가 모두가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20세기 말에 우리 사회에서는 브레이크 댄스로 상징되는 동적인 문화의 극을 보았고, 랩송으로 대표되는 발산적인 문화의 극을 보았으며, “바쁘다 바빠”라는 말로 요약되는 분주한 문화의 극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 문화예술이 엽기성을 추구하는 광대예술의 길을 갔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21세기의 문화는 동적인 문화에서 정적인 문화로, 발산의 문화에서 수렴의 문화로, 분주함의 문화에서 게으름의 문화로 이행해 갈 것이다.

이제, 엽기적인 광대예술의 혼돈 속에서 진정으로 청정한 문화인 서예를 건져내어 21세기에 펼쳐질 정적인 문화, 수렴의 문화, 게으름의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우수한 문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이미 정적인 문화, 수렴의 문화, 게으름의 문화를 문화산업 시대의 문화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방면 최상 수준의 문화 상품인 서예마저도 창신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서구의 미술 사조나 기법, 혹은 그 밖의 서예 외적인 것을 모방하여 서예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변화시켜 버리려 한다면 그것은 너무 우매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홍윤기는 외적인 것에 대한 ‘모방의 허무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나에게서 유래하지 않은 문화 (A)에 내(I)가 자발적으로 종속되어 들어가는 것, 흔히 모방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이 대단히 허망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 모방의 공허함 1: 과연 I가 전적으로 A와 같이 될 수 있을까?
- 모방의 공허함 2: I가 A와 같이 된들 A는 I를 A에 끼워 줄 것인가?
- 모방의 공허함 3: I는 A가 되려고 하다가 진정되어져야 할 I의 어떤 부분을 상실하지 않을까?
- 그런데 이 모방의 공허함이 극대화되는 경우는 따로 있다. 즉, 모방자가 기를 쓰고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상대처럼 되었는데, 또는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모방 상대자가 이미 다른 상태로 되어 있거나 가장 극단적인 경우 모방하려는 나처럼 되려고 도리어 나를 모방 상대로 택하는 경우이다.⁷⁹⁾

그런데 우리의 서예는 자칫 홍윤기가 제시한 모방의 허무함 중에서 최악의 경우인 “모방자가

78) 서정걸, 〈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월간미술》, 중앙일보사, 1997, 3. pp.49-50.

79) 홍윤기, 〈지구화 조건 안에서 본 문화 정체성과 주체성 -문화 혼합 시대의 공공주체적 자아의 구성〉,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이학사 간, 2001, p.70.

기를 쓰고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상대처럼 되었는데, 또는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모방 상대자가 이미 다른 상태로 되어있거나 가장 극단적인 경우 모방하려는 나처럼 되려고 도리어 나를 모방 상대로 택하는 경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서양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전통서예를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서양이 버리려고 하는 전위예술의 찌꺼기를 서예에 도입하려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각성하여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한 외국의 미술 전문가가 한국의 미술가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 내가 느끼기에 한국작가들은 호기심이 많은 데 비하여 자신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작가들은 서구로부터 무엇을 배우려고만 하고 서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제시하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국제무대로의 진출이란 남을 배우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고유성이 있어야 구현됩니다. 그래야 서구인이 말하는 멀티 컬처 속으로 당당히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⁸⁰⁾

지금 우리 서단에 필요한 것은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서예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고 서예가 모두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갖추는 일이다. 실력 있는 전문가가 많은 분야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서예계에 진정으로 실력 있는 전문가가 넘쳐나게 되면 서예는 발전하지 말라고 해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만약 최고 수준의 서예 전문가로서 국민적 신망과 존경과 인기까지 얻은 스타로서의 대가가 서예계에 출현한다면 서예는 국민에게서 최고로 주목을 받는 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력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국의 서예를 세계의 문화시장에 홍보하는 특강을 하고 전시를 한다면 한국서예는 어떤 분야보다도 세계의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3)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이미 시행한 서예전의 선례와 시행 가능한 서예전의 예

■ 재고의 여지가 있는 선례

① 「추사, 청조문인과의 대화」(秋史金正喜與清朝文人的對話)전(展)

- 전시시간 : 2019-06-18 11:00 ~ 2019-08-23
- 주관 : 중국미술관, 한국예술전당
- 장소 : 중국미술관 19—21호

80) 유홍준, 《정직한 관객》, 학고재, 1996, pp.53-54.

이 전시에 앞서 서울 예술의전당 서울 서예박물관에서는 중국국가미술관 소장품 위주로 꾸민 「치바이스(齊白石:제백석)와 대화」전이 열렸다. 「추사, 청조문인과의 대화」전은 중국에서 작품을 대여해 줌으로써 열린 「치바이스(齊白石)와 대화」전에 대한 답례로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꾸민 전시이다.

한국서예 최고의 명필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경지를 중국서예계에 제대로 알릴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게도 전시하기에 부적절한 작품이 상당수 끼어 있음으로써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추사 선생의 경지를 얕잡아 보게 하는 부작용도 야기하였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해설에 대한 중국어 번역도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전시의 효과를 제대로 거양하지 못했다. 절대적인 감동을 창출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상 ‘2% 부족’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더욱더 면밀한 전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서예를 외국에 소개할 좋은 기회를 놓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전시였다. 중국 전시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까닭에 국내로 돌아와서 가진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의 전시와 제주도 전시 등이 다 국민의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② 조선 유학자 유묵 특별전

‘2005년 서울서예비엔날레’의 한 섹션으로 열린 「조선 유학자 유묵 특별전」은 실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비록 해외에서 열린 전시는 아니었지만, 세계의 서예가들이 모이는 ‘2005년 서울서예비엔날레’의 한 프로그램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수치스러운 전시였다. 왜냐하면, 전시 작품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까닭에 서체나 작품의 형식뿐 아니라,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도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한 작품들이 다수 전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시는 서예사를 왜곡하고 미술시장을 교란하며 세계인들에게 한국서예에 대한 매우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부적절한 전시이다. 그런데 그런 부적절한 전시가 국제행사인 ‘2005년 서울서예비엔날레’의 한 섹션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 적극 지원해야 할 선례

① 정도준의 독일, 프랑스, 미국 서예전(展)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의 한 사람인 정도준은 한국의 서예를 서방 세계에 알리는 데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해외초대전과 해외에 수장되어 있는 그의 작품 목록을 통해 그가 해외에 한국의 서예를 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한

국서예는 이미 세계를 향해 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 초대전 17회

- *독일 국립 Stuttgart Kunst Academy 초대전 (Germany, Stuttgart, 1999)
- *독일 KIST EUROPE 초대전 (Germany, Saarbrücken, 2000)
- *프랑스 UNESCO Miro 갤러리 초대전 (France, Paris, 2001)
- *이태리 CERTALDO 시립미술관 초대전 (Italy, Florence, 2003)
- *벨기에 한국대사관 초대전 (Belgium, Bruxelles, 2003)
- *독일 국립 Linden Museum 초대전 (Germany, Stuttgart, 2004)
- *독일 Museum Ettlingen 초대전 (Germany, Ettlingen, 2004)
- *프랑스 Chapelle Des Jésuites Chaumont 시립 미술관 초대전 (France, Chaumont, 2004)
- *프랑스 Espace Art Et Liberté, La Coupole 초대전 (France, Charenton-le-pont, 2005)
- *독일 국립 Grassi Museum 초대전 (Germany, Leipzig, 2006-2007)
- *미국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초대전 (U.S.A., Oregon, 2006-2007)
- *미국 뉴욕 텐리 갤러리 New York Tenri gallery 초대전 (U.S.A., NewYork, 2008)
- *프랑스 d'Artévie (Espace d'Art Contemporain International) 초대전 (France, Lorrez-le-Bocage, 2012)
- *프랑스 Nogent시립미술관 초대전 (France, Nogent-sur Marne, 2012)
- *스위스 Galerie Plexus 초대전 (Swiss, Montreux, 2013)
- *이태리 The University Ca' Foscari of Venice 초대전 (Italy, Venice, 2015)
- *프랑스 Musee Utrillo-Valadon 초대전 (France, Sannois, 2016)

• 주요 해외 작품 소장

- *캐나다 오타와 한국문화원 (훈민정음 서문, 1997)
- *독일 바이마르 괴테박물관 (괴테의 자연과 예술, 1999)
-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원 (농가원령가, 1999)
- *덴마크 옌센 안데르센 기념관 ('안데르센의 미운 아기오리' 중에서, 2000)
- *멕시코시티 옥타비오 파스 기념관 (옥타비오 파스 어록, 2000)
- *영국 셰익스피어 기념관 (셰익스피어 '맥베스 5장 중에서', 2000)
- *오스트리아 빈 (프로이트 '꿈의 해석 중에서', 2000)
- *이태리 피렌체 보카치오 기념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2003)
- *독일 슈투트가르트 주 정부 (화목, 2004)
- *독일 린덴 박물관 (가얏고, 2004)

- *독일 에트링겐 박물관 (수창, 2004)
- *러시아 국립 동아시아 박물관 (손 끝에 스민 님의 향기, 2005)
- *독일 국립 그라시박물관 (어부락, 2006)
- *미국 시카고 주립대 스마트 미술관 (동해, 2007)
- *미국 조던 슈니처 미술관 (산수, 천지인, 호변, 노자51장, 천산의 밝은 달 등 5점, 2007)
- *프랑스 칼비 시립미술관 (천지인, 2010)
- *프랑스 노정 시립 미술관 (양일보, 2012)
- *미국 켄자스 스펜서 미술관 (허주, 산수, 2014, 천지인, 2019)
- *이태리 카포스카리 국립대학 (길, 2015)
- *미국 LACMA 뮤지엄 (선조 오연당시 임시, 2019, 심관정소, 2020)

이처럼 이미 활발한 해외 진출을 실천하고 있는 서예가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한국서예의 세계화는 더욱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정도준은 경복궁의 궁궐 현판을 썼고, 소실된 남대문을 중건할 때 상량문을 쓴 서예가로서 국내외의 지명도가 높다. 이러한 서예가의 선도적 역할이 지속한다면 한국서예가 세계의 문화예술 시장에 우뚝 설 날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① 정도준의 독일 전시(2006)



① 정도준의 미국 전시(2006)

② 전정우의 「천자문」전(展)

전정우는 1987년 3월과 9월에 각각 동아미술상과 제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서예부분대상을 수상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서예가이다. 그 후, 서예가로 활동하면서 천자문을 서체로 삼은 작품을 적잖이 발표하면서 「천자문」 서예가로 이름을 날렸다. 전정우는 천자문을 각종 자체(字體)로 700번 이상을 쓴 서예가이다. 700번을 쓴 이 작품들을 작가가 다 소장하고 있다. 천자문을 700번을 썼다는 것은 일단 글자 수로 70만 자를 썼다는 얘기이다. 그는 실지로 그 70만 자를 대

전, 소전 가릴 것 없이 각종 전서체로, 서한 예서, 동한 예서는 물론 죽간, 목간에 이르기까지 각종 예서체로 다 써봤고, 6조 해서는 물론, 당나라의 해서 명가가 썼던 서체로 다 써보았으며, 왕희지를 시작으로 당·송·원·명·청 여러 대가들의 행초서체로도 1,000자씩을 다 써봤다. 그가 각종 서체로 천자문을 쓴 것은 단순한 글씨 쓰기 연습이 아니라, 문자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천착이요, 1,000글자를 일기아성(一氣啊成)하게 쓰는 끈기의 수련이고, 문자에 대한 경배이며, 서예에 대한 경외의 표시이고,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연속된 승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그는 천자문의 저자 주흥사(周興嗣)의 고향인 중국의 하남성 심구(沈丘)에서 주흥사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천자문 국제서예전과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았다. 중국에서도 천자문을 각기 다른 서체로 700본 이상을 쓴 서예가는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초청한 것이다. 이때의 학술대회는 국제서예전을 겸했다. 당시 이 서예전과 학술대회에 초대받은 또 한사람의 연구자인 한국의 김병기 교수는 국제서예전 전시장을 함께 둘러본 중국서예가들을 향해 전정우의 서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전정우의 작품은 중국이나 일본의 정상급 작가들과 비교했을 때 최우위의 자리를 양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정우의 작품은 누구도 쉽게 따라 갈 수 없는 높은 경지의 작품입니다. 전정우는 120가지 자체(字體)와 서체(書體)로 천자문을 700번이나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모든 한자에 대한 자체를 다 익히고, 명가들의 서체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이미 한자의 자·서체에 관한 한, 달관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글자에 대한 자체의 구조를 완전히 머리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전정우는 유쾌하듯이 자유자재로 글씨를 씁니다. 두서너 가지 자체에 익숙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여타의 서예가들과 판이한 점입니다. 만약, 전정우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을 비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자문을 최소한 몇 십 체만이라도 써봐야만 비로소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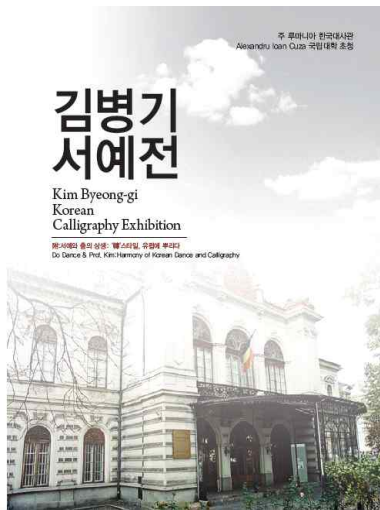


① 전정우 작품

이러한 설명에 걸맞게 전정우는 지금 매우 자유로운 창작을 하고 있다. 천자문을 각종 자체와 서체로 700번이나 쓴 공력을 바탕으로 매우 창의적인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일의 어느 작가보다도 연마에 내공을 들인 전정우의 「천자문」 서예는 이미 중국서예가를 놀라게 한 바가 있다. 이제 이러한 내공을 바탕으로 기발한 창작 작품을 구사하고 있는 전정우의 서예는 한국서예를 세계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전시의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③ 김병기의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러시아전(展)

김병기는 2008년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 Institution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Ring Auditorium, Washington D.C U.S.A)에서 가진 한국서예에 대한 특강과 서예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등을 순회하며 한국서예와 중국서예의 차이점에 대한 특강을 하고 또 한글서예 작품을 중심으로 서예전을 가졌다. 서예전 개막식에서는 현장에서 서예 퍼포먼스를 선보여 한국서예의 아름다움을 선양에 전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양 특히 유럽인들이 서예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호기심을 가지고 서예를 배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서예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전시와 특강 등을 시행한다면 중국이나 일본의 서예에 비해 훨씬 전통성과 정통성을 잘 갖추고 있는 한국의 서예는 세계의 문화예술 시장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전시이다. 이러한 전시와 특강과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예는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관이 설립되면 한국의 서예는 세계화의 물결을 더욱 더 활발하게 탈 수 있을 것이다.



① 루마니아 전시 및 특강



① 이탈리아 전시 및 특강



① 헝가리 전시 및 특강



① 러시아 전시 개막과 특강 앞서 가진 서예 퍼포먼스



① 북경대학 100주년 기념과 초대 서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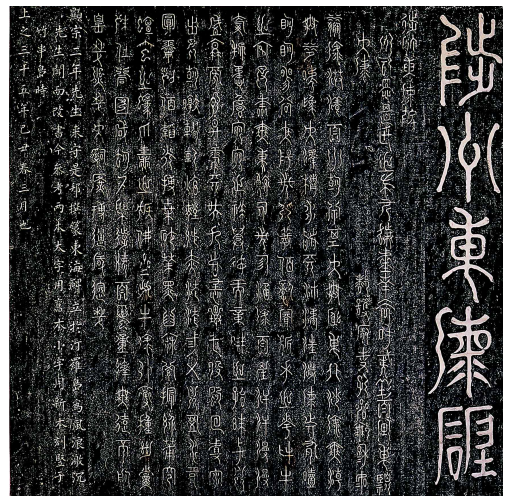
■ 차후, 우선 기획해야 할 예

① 미수(眉叟) 허목(許穆)전(展)

미수 허목 선생은 본관은 양천(陽川)이고 자는 문보(文甫)이다. 찬성(贊成) 벼슬을 지낸 허자(許磁)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별제 허강(許樞)이고, 아버지는 현감 허교(許喬)이며, 어머니는 정랑 임제(林悌)의 딸이다. 부인은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손녀이다.

그림·글씨·문장에 모두 능했으며, 글씨는 특히 전서에 뛰어나 동방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작품으로 삼척의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시흥의 영상이원익비(領相李元翼碑), 파주의 이성중표문(李誠中表文)이 있고, 그림으로 묵죽도(墨竹圖)가 전한다.

흔히 전서 대가로는 석고문(石鼓文) 하나로 중국 근대 서예계를 평정한 오창석을 꼽는다. 그러나 허목은 이보다 약 200년 앞서서 전서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인물이다. 허목의 전서, 즉 ‘미전(眉篆)’은 그가 생존했을 당시에도 판서 이정영이 나서서 숙종임금에게 금지를 상소할 정도로 이질적이고 난해하다. 미전은 중국의 어떤 서예가의 작품과도 다르다. 시, 서, 역, 춘추, 예, 악 등 육경학(六經學)으로 일관한 그의 학문과 마찬가지로 글씨 또한 그는 선진시대의 고문(古文), 즉 하·은·주 삼대의 옛 글씨를 연구하고 추구한 결과 것처럼 독특한 전서를 창작해 낸 것이다.



❶ 허목의 글씨

허목은 퇴계 이황과 한강 정구를 이어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을 있게 한 기호남인의 영수이다. 그는 임진·병자 양란의 겪으면서 관념에 치우친 주자학에 대한 반성을 생각하였다. 전환기 지식인으로서 허목은 자신의 학문을 고경(古經) 고례(古禮) 고문(古文) 고전(古篆)을 총괄하는 고학(古學)이라고 천명하면서 광자와 맹자 유학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처럼 학문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문자 또한 고대의 문자로 복귀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중국의 이상적 치세인 요순시대의 문자로 회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상고(尙古)’ 풍의 독특한 전서를 창안하게 된 것이다. 미수 글씨의 아름다움 또한 선진 고문에서 배태된 창고(蒼古)한 세계 그 자체인 것이다. 이른바, ‘미전’은 물론 미전의 필획으로 구사한 해서나 행초마저 기이하여 태고의 신비감을 자아낸다. 이러한 전서는 중국이나 일본 어디에도 없는 전서체이다. 그가 창안하여 구사한 고문자 전서는 서양의 문화 사조의 한 지류인 ‘원시주의(Primitivism)’와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중국에도 일본에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독특한 전서체의 가치를 이 시대에 재조명한다면 한국의 서예는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건이다.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미수 허목의 전서는

장차 세계를 향해 전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②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전(展)

한국의 서예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기는 삼국시대까지인데 이 시기의 우리 서예는 중국서예를 받아들였으며 중국의 서예미(書藝美)보다는 우리 민족의 고유미감이 그대로 반영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원형적 한민족 서예기(原型的 韓民族 書藝期)’라고 명명할 수 있다. 둘째 시기는 중국서예를 받아들인 후 중국인이 서예에 부여한 미감을 서예미의 표준으로 보고서 그것을 재현하고자 노력하는 시기이다. 통일신라시대로부터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까지를 이 시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예속적 「동국」서예 시기(隸屬的 「東國」書藝時期)’라고 명명할 수 있다. 셋째 시기는 조선 후기에 옥동 이서(玉洞 李滉)로부터 싹터서 원교 이광사(員嶠 李匡師)를 거쳐 창암 이삼만(蒼巖 李三晩)에 이르러 완성되는 조선 고유의 서예미 창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자각적 조선진체시기(自覺的 朝鮮眞體時期)’라고 명명할 수 있다. 둘째 시기 내에 들어 있는 한글의 창제와 한글서예는 예속적 서예라고 할 수 없으므로 2의 시기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논하고 제2시기에 속하는 서예가 중에서도 한민족 고유의 미감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서예가들은 예외로 분리하여 논한다면 제2시기를 ‘예속적 「동국」서예 시기’라고 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원형적 한민족 서예시기에는 중국서예와는 판이한 독창성이 분명히 존재하였는데 그 독창성은 바로 ‘무의도성’에 있다. 이 ‘무의도성’ 내에는 자유성, 자연성, 호방성, 질박성 등의 개념이 다 포함된다. 우리 민족이 ‘무의도성’의 서예를 하게 된 원인은 우리 민족이 가진 천부적인 창의성에 있을 것이다. 다른 민족들은 대개 외래문화를 수입할 때 우선 착실한 모방과 학습의 단계를 거친 연후에 창작의 단계로 옮겨가는데 우리 민족은 처음 배우는 학습과 모방의 단계에서부터 벌써 자신의 머리를 움직여 새로움을 창조할 생각을 한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성급하면서도 탁월한 창의성을 ‘즉창성(卽創性)’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창’은 배움과 동시에 창작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통일신라 이후, 중국에 대한 사대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즉창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예속적인 서예를 조선의 추사 김정희 시대까지 해오다가 조선 후기의 백하 윤순과 원교 이광사를 거치고 아암 혜장 스님의 교량적 역할에 이어 창암 이삼만에 이르러 조선 고유의 서예미를 구현한 ‘조선진체’서예가 완성된다. ‘조선진체’라는 말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동국진체’라는 말의 ‘동국’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중국에 대한 사대성을 폐기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용한 어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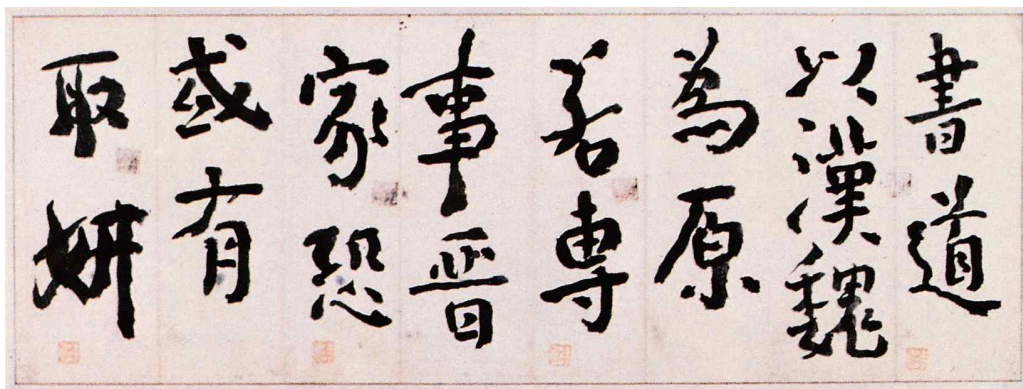
‘조선진체’의 완성자인 이삼만은 원형적 한민족 서예시기에 우리 서예가 가지고 있던 독창성을 발전적으로 재현하여 중국서예와는 다른 한국서예만의 ‘한국성’을 확립한 한 서예가이다. 그의 필

획에서는 광개토대왕비, 무령왕 지석, 냉수리비, 봉평비, 적성비의 필획에서 공통으로 느낄 수 있었던 삼기(澁氣)나 통풍성(通風性)을 느낄 수 있다. 필획의 부정형성도 뚜렷하다. 자체(字體) 역시 한 작품 안에서 여러 가지 체를 바꾸어 가며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부분이 조금치도 어색하지 않다. 장법도 대소와 강약과 농담은 물론 자체마저도 변갈아가며 사용하였는데 매우 자연스럽다.

정형화되고 곱게 다듬어진 중국의 글씨가 마치 중국의 비단을 닮았다면 의도성이 없이 일임자연(一任自然)하여 쓴 우리의 글씨는 뽀뽀하게 풀을 먹여 손질해 놓은 모시나 무명과 같은 분위기이다. 돌을 잘 다듬고 행간을 맞추어 새겨 놓거나 결이 좋은 미끄러운 종이에 농묵으로 쓴 중국의 글씨가 기름기가 풍부한 중국 음식과 같다면, 잘 다듬지 않은 돌에 줄도 맞추지 않고 새기거나 까칠한 조선 한지에 쓴 우리의 글씨는 새콤하게 익어서 청량하기까지 한 동치미나 김치와 같다. 중국의 글씨가 갖은 향료를 넣고 푹 찜을 하거나 지글지글 볶아놓는 고기 음식이라면 우리의 글씨는 고기를 넣더라도 맛내기로 몇 점 넣어 끓인 된장찌개와 같다. 중국의 글씨가 인위적 기교의 속달로 인하여 매끄럽게 다듬어진 자연성 즉 ‘숙(熟)’의 자연성을 지향한다면 우리의 글씨는 처음부터 무의도적인 ‘낯설음’의 까칠함을 추구거나 기교를 익히더라도 그 기교의 극을 넘어 다시 까칠한 생명으로 돌아오는 ‘생(生)’의 자연성을 지향한다. 중국의 글씨가 규구(規矩)를 정확하게 활용하여 잘 다듬고 쪼아서 지은 다음에 황금색 기와를 얹고 기둥에 붉은 칠을 한 중국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름진 화려함을 지향한다면 우리의 글씨는 다듬지 않은 통나무 기둥을 세워 짓고 그 기둥에 칠도 하지 않았음에도 천년 세월을 견뎌 나무의 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사찰이나 궁궐의 건축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런데 이삼만의 글씨에는 바로 그러한 동치미, 김치, 된장찌개와 같은 맛이 있고 우리의 묵은 건축물과 같은 맛이 있다. ‘숙’의 자연성이 아니라 ‘생’의 자연성이 있는 글씨인 것이다. 이러한 특색을 갖춘 독창적인 조선 서예를 수립한 이삼만은 지극히 조선적인 서론도 남겼다. 이삼만은 서예도 조선의 색이 짙은 독창적인 조선서예를 하였고 서론 또한 조선의 미와 조선의 환경을 반영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는 서론을 저술한 것이다. 이삼만이 이처럼 조선 고유색이 짙은 서예를 하고도 조선의 환경에 맞는 서론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이삼만을 조선진체의 완성자라고 평하면서 그의 서예에서 한국서예만이 갖는 독창성 즉 ‘한국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창암 이삼만의 서예에 한국성이 가장 농후하게 내재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창암의 서예에 내재된 한국성이 원형적 한민족 시기에 한국서예가 본래 가지고 있던 한국성의 전부는 아니다. 이삼만의 서예에 내재된 한국성은 엄밀히 말하자면 조선의 특색 즉 ‘조선성(朝鮮性)’이다. 따라서 창암의 서예에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에서 볼 수 있는 웅장함이나 호방함, 하늘을 향해 치솟는 듯 하는 기상은 찾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고구려에 비해 조선 시대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그만큼 섬약한 나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암 이삼만을 통해서 중국서예와 달리 한국의 서

예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한국성을 토대로 우리는 앞으로 고구려의 서예, 백제의 서예, 신라의 서예, 고려의 서예에 내재 되어있는 한국적 서예미를 보다 더 면밀하게 밝혀내어 한국서예의 정체성으로 정착시킴과 동시에 그것을 토대로 한국의 서예를 이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서 세계의 문화시장에 우뚝 서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창암 이삼만의 서예전을 잘 기획하여 서양에 소개한다면 어떤 장르의 예술보다도 우리 민족의 미감을 세계에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위하여 기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시가 바로 창암 이삼만 서예전인 것이다.



❶ 이삼만의 글씨

③ 강암(剛岩) 송성용(宋成鏞)전(展)

강암 송성용(剛岩 宋成鏞, 1913-1999)은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이다. 그는 일제 강점기와 광복 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전통에 바탕을 두면서도 새로운 창작의 꽃을 피운 서예가이다. 위대한 서예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소양을 누구보다도 풍부하게 함양하였고, “서예는 곧 그 사람이다.”는 말의 의미를 체득하여 최고의 인품을 갖추는 때 비로소 최고 수준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최고의 인격체인 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 서예가이다. 사람에 대해 겸손하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겸손하며 자연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분수를 지킴으로써 자연에 순응하고 근면하며 검소한 생활을 몸으로 실천한 서예가이다. 전(篆), 예(隸), 해(楷), 행(行), 초(草) 5체를 두루 잘 쓰고, 매(梅), 난(蘭), 국(菊), 죽(竹)은 물론 송(松), 연(蓮), 파초(芭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인화를 구사한 실력이 있는 서예가이다.

추사 이후, 우리나라 서단에서 강암 만큼 5체에 능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인화까지 것처럼 격이 높게 그려낸 작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뿐 만이 아니다. 오창석(吳昌碩)과 제백석(齊白石) 이후 중국 서단에서도 강암만큼 각 체의 글씨와 여러 소재의 문인화에 능하고 또 높은 격의 작품을 창작한 작가는 눈에 띄지 않는다. 흔히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활동한 서예가 중 가장 탁월

한 업적을 낸 인물로 대만의 우우임(於右任 1879-1964)을 든다. 우우임은 물론 위대한 서예가이다. 초서를 정리하고 그만의 독특한 초서를 창작했다는 점에서 '20세기의 초성(草聖)'이라고 해도 무방한 서예가이다. 그러나, 우우임도 강암만큼 다양한 작품을 하지는 못했다. 서예는 초서에 한 정되었고 문인화 작품은 한 점도 없다. 작품의 다양성 면에서 강암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한자문화권의 신비한 예술인 서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중국보다 앞서서 그리고 일본보다도 부지런히 우리의 서예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서예를 대표할 만한 큰 서예가가 필요하다. 21세기는 고호나 피카소 혹은 그 외의 서구권 예술가만 세계적인 예술가로 인정을 받는 시대가 아니다. 동양 특히 한자문화권 예술의 정수인 서예를 창작하는 서예가가 고호나 피카소 이상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어야 하고 또 되게 해야 한다. 강암은 고호나 피카소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강암을 한국의 강암으로만 남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강암과 강암의 서예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물질만능주의, 오감만족의 향수(享受)주의, 내적 수렴보다는 외적 발산을 부추기는 외향주의 시대의 세계가 야기하고 있는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물질보다는 정신을 중시하고 오감만족의 향수보다는 절제와 수분으로 일관했으며 피나 방법이 아닌 근본을 추구한 강암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세계가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공감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한국의 서예는 자연스럽게 세계의 문화시장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① 송성용의 글씨

4) 서예와 타 장르와의 연계를 통한 세계화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타 장르의 예술이나 산업과의 연계도 매우 필요하다. 서예와 음악이나 무용과의 연계, 서예와 한지산업과의 연계, 서예와 공연문화와의 연계 등이 필요한 것이다.

■ 서예와 무용과 영상의 콜라보레이션 - 붓의 노래 먹의 춤

서예는 미술보다는 오히려 음악과 무용과 더 흡사한 장르의 예술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서예는 옛 전통을 지키는 가운데 순수예술로 창작되고 순수학문으로 연구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미감에 맞도록 품위 있게 변용하여 얼마든지 무대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서예와 음악, 서예와 무용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서예와 음악은 1회성의 운필과 1회성의 연주로 이루어지는 순간예술이라는 점에서 같다. 서예는 유화나 수채화와 달리 덧칠이 불가능한 예술이다. 음악 역시 연주하다가 틀렸다고 해서 만회가 가능한 예술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음악과 서예는 매우 비슷하다.
2. 서예와 음악은 창작의 매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흡사하다. 서예는 문자라는 매체가 정해져 있고, 음악은 악보라는 매체가 정해져 있다. 서예는 그 정해진 매체인 문자를 쓰는 예술이고, 음악은 정해진 매체인 악보에 따라 연주하는 예술인 것이다.
3. 서예와 음악은 즉흥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음악에는 작곡과 동시에 연주되는 즉흥곡이 있고, 서예에는 즉석에서 쓰는 현장 휘호가 있다.
4. 음악과 서예는 1회성의 순간예술이기 때문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리 가슴 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음악과 서예는 반드시 사전 물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
5. 음악의 생명은 선율이다. 서예의 생명도 선율에 있다. 음악과 서예는 둘 다 선율로 이루어지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같다.
6. 음악과 서예는 연주와 서사에 있어서 고도의 기법연마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숙련된 연주기법이 없이는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없고, 숙련된 운필법이 없이는 훌륭한 서예작품을 할 수 없다.
7. 서예와 음악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지가 같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예술이다. 음악은 지악무성(至樂無聲: 지극한 경지에 이른 음악은 오히려 소리가 없다)의 자연의 경지를 추구하고, 서예 역시 무의어서이서(無意於書而書: 글씨에 뜻을 두지 않았는데 이미 글씨가 이루어짐)의 자연경지를 추구한다.
8. 음악과 무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음악과 서예가 매우 흡사한 예술이기 때문에 서예는 무용과도 매우 흡사할 수밖에 없다. 서예와 무용 사이에는 서예와 음악 사이에 존재하는 상동성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또 신체성과 의형성(擬形性)이라는 상동성을 갖고 있다.
9. 무용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 신체의 동작이 없이는 무용이 존재할 수 없다. 서예도 매 필획과 매 글자마다 근(筋)과 골(骨)과 혈(血)과 육(肉)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 무용과 서예는 둘 다 신체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예술이다.
10. 서예와 무용은 둘 다 자연사물의 모양과 동작을 추상화하여 형을 창조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 서예와 무용은 둘 다 의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예술인 것이다.⁸¹⁾

81) 서예와 무용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서예의 무대 공연 시안(試案) 연구 -무용과의 관련성에 근거하여〉(김병기,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2009)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서예와 음악의 상동성과 서예와 무용의 상동성을 통해서 볼 때 서예는 얼마든지 무대공연이 가능한 장르의 예술이다. 서예의 무대공연을 통하여 한국의 서예를 세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지산업(문방사우산업)과 연계를 통한 세계화 시도

광복 이후 서양 문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화선지(和宣紙)가 널리 보급되면서 한지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값싼 화선지(서화지)가 대량으로 수입되면서부터 한지산업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한지 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방 면에서 해 왔으나 아직도 한지 산업은 예전의 성황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한지산업은 무엇으로 그렇게 명성을 떨쳤을까? 종이의 본래 용도가 그렇듯이 한지의 최대 용도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쓰거나 그리는 용지로서의 한지를 홍보하기보다는 한지 공예, 한지 패션, 한지 벽지 등 한지를 응용한 생활용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한지의 대량 수요처인 서화용지, 고문서 보존용지 등의 분야에서는 해외 수출은 물론 국내에서의 수요도 창출하지 못하였다. 이제 한지 산업은 공예, 패션, 벽지 등 응용한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원점으로 돌아가 한지 본래의 용도인 서화용지와 보존용지로서의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간에 서화용지로서의 한지는 중국의 값싼 화선지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화용지로서 한지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지는 여전히 최고급 서화용지이고 진정으로 서예를 이해하는 작가라면 누구라도 선호하는 종이다. 그러나 수십 년을 줄곧 가격이 저렴한 화선지에 밀리다 보니 서화용지로서의 한지는 아예 생산이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서예도 한지가 아닌 화선지에 적응하는 서예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중국의 서예계 일각에서 화선지의 병폐가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화선지에 적응하여 쓰던 서예의 문제점도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화선지의 최대 문제점은 수명이 길지 못하여 심한 경우 불과 20~30년도 견디지 못하고 종이가 퇴색하고 부스러져 버린다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서화용지가 화선지 일색으로 바뀐 지 20~30년이 지난 지금 그간에 제작한 작품들이 자연 손상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국은 물론 중국의 서예계에 서도 수명이 긴 양질의 종이를 찾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예 Boom이 일어 서예작품 시장이 과거에 비해 훨씬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서예가들이 비싸도 좋으며 수명이 긴 종이를 찾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수명이 길기로 유명한 우리의 한지가 제 성가를 발휘할 때이다. 서화용지로서의 한지, 보존용지로서의 한지를 적극적으로 홍

보호하고 시장을 개척해야 할 때인 것이다.

한지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서예시장부터 공략할 필요가 있다. 비록 고가의 한지라고 하더라도 정말 서예작품을 한지에다 해야 할 절실한 필요를 느낀다면 작가들은 한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지의 내구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이미 화선지에 적응이 된 서예를 벗어나 서예의 조류를 한지에 적응하는 서예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과 중국의 서예 조류를 한지에 썼을 때 더욱 돋보이는 서예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지에 썼을 때 더욱 돋보이는 서예, 예술 표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예는 바로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전통서예, 정통서예이다. 서예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도 한지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도 지금은 전통서예, 정통서예를 적극 지향하는 방향으로 서예의 조류를 바꾸어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한지는 서예와 함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양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는 더욱 그렇다. 김치가 맛있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에게 김치만 먹게 해서는 김치의 참맛을 느끼게 하기가 쉽지 않다. 잘 지은 쌀밥에 김치를 얹어서 맛보게 해야 제대로 된 김치의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서화용지와 보존용지로서의 한지가 가진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지를 서예와 함께 홍보하는 길이 가장 유리하다. 아마 그간에 한지가 서화용지나 보존용지로서 널리 알려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지를 한지로만 홍보하였을 뿐 서예와의 관련성을 무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예에 대한 홍보와 설명이 배제된 채 한지를 홍보한다는 것은 모델에게 와이셔츠도 입히지 않고 구두도 신기지 않은 채 달랑 명품 양복만 입혀 명품 양복을 선전하는 꼴과 다를 바 없다.

2004년 5월, 중국 북경의 자금성 내에 있는 고궁박물관 문물보호과학기술부 조정루(曹靜樓) 주임은 당시 보수 공사 중에 있던 고궁의 ‘권근재(倦勤齋)’라는 건물 벽에 걸린 약 170㎡ 면적의 통경화(通景畵: 폭을 나누지 않고 계속 이어 그린 대형 그림)에 대한 보수를 두고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청나라가 무너진 후 고궁 안에 실지로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부터 권근재의 내부 환경은 열악해졌다. 누수가 되는 곳도 생기고 통풍도 사람이 거처할 때처럼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170㎡나 되는 거대한 그림이 그나마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림을 배접하는 데 사용한 종이가 바로 조선에서 건너간 고려지의 일종인 상백지(桑白紙)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이 그림을 보수하려고 보니 본래의 배접지로 사용한 상백지와 같은 양질의 종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정루 주임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민하던 조주임은 한국으로 와서 같은 품질의 상백지를 구하려고 했으나 구하지 못했다. 한국에서도 이미 맥이 끊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조주임은 중국 내에서 고려지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4년 9월, 안휘성(安徽省)에서 아직도 수공으로 상백지를 뜨고 있는 장인 왕백림(王伯林)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게 되었다. 조주임이 왕백림에게 250년 전에 중국 청나라로 건너갔던 조선의 고려지와 같은 품질의 종이를 제

작할 것을 부탁한 것은 물론이다. 이해 12월, 드디어 250년 전 조선의 상백지와 비슷한 종이가 제작되어 권근재의 통경화는 보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고려지 즉 한지는 과거의 청나라 황궁에서는 물론 현재의 중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의 한지에 대한 극찬과 선호는 근대 1900년대 중기까지도 여전하였다. 1961년에 중국서점이 출간한 《고서용지(古書用紙)》라는 책과 왕지유(王志維)가 지은 《중국서화용지천담(中國書畫用紙淺談)》 및 중국의 다양한 풍물에 대해 소개해 놓은 책인 《신주일문록(神州軼聞錄)》 등의 기록에 따르면 청(淸) 광서(光緒) 19년(서기 1893년)부터 하북(河北)성 천안(遷安)현에서는 집단으로 고려지를 생산했는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천안현지(遷安縣志)》에 의하면 고려지 공장을 경영하는 가호 수는 700여 가구였으며 종사자는 6000여 명, 매일 생산량은 약 16만 장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된 고려지는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도 수출이 되었는데 당시 중국의 유명 서화가들은 거의 다 이 고려지를 사용하여 작품을 하였다고 한다. 특히 북경미술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낸 서비홍(徐悲鴻)은 고려지를 애호하여 그의 대표작 이강춘허(瀟江春柳-봄 상수리나무, 1937), 부상당한 사자(負傷的獅子, 1938), 분마도(奔馬圖-내달리는 말, 1941) 등은 모두 고려지에 그린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지금 그들의 전통 종이인 선지(宣紙)를 생산하는 사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홍선지(紅星紙)’라는 이름 아래 선지를 표준화하고 홍성지의 생산을 국가 기밀 산업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다. 선지의 고향인 선성시(宣城市)에서는 매년 <문방사보의 고향, 선성방문의 해(文房四寶之鄉, 宣城旅遊之節)>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먹, 붓, 벼루와 함께 선지를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문방사보의 고향, 선성방문의 해> 행사를 위해 중앙 정부에서 600만 위엔을 지원하였다. 중국이 선지의 제조와 홍보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한지 산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내구성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종지로 꼽히는 한지를 서예의 연계를 통해 육성하고 또 세계를 향해 홍보해야 할 것이다.

■ 한복 패션쇼와의 연계를 통한 세계화 시도

2016년 여름 전북대학교의 김병기 교수는 루마니아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가졌다.

- 2016. 6. 23.(목) 이아쉬 - 한국문화 특별강연 및 서예공연 / Mihai Eminescu 대극장 / Alexandru Ioan Cuza 국립대학
- 2016. 6. 25.(토) 부카레스트 - 서예전 개막, 서예공연 / 부카레스트 시립 박물관 / Romano-American University, Aula Magna Miha 대극장
- 서예전 전시기간 2016. 6. 25~7. 17

이 행사를 치르면서 김병기 교수는 함께 간 DO댄스무용단과 함께 한복 패션쇼를 준비하였다.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지의 Alexandru Ioan Cuza 국립대학의 홈페이지에 우리의 서예 공연에 앞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 패션쇼를 하는데 모델은 바로 Alexandru Ioan Cuza 국립대학의 학생들이라면서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렸다. 그리고 우리는 모델은 전혀 데리고 가지 않고 한복디자이너 설미화 선생이 제작한 왕과 왕비의 옷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한복만 준비하여 현지에 갔다. 공연 당일, 서예공연이 시작되기 전 약 4시간 전에 모델을 자원한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일일이 옷을 입혀 주며 워킹 연습을 시켰다. 그리고 그날 밤 즉흥으로 준비한 한복 패션쇼를 무대에 올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모델로 선발된 학생들의 보호자와 친구들이 다 공연을 구경하러 오는 바람에 객석은 만석을 이루었다. 이처럼 서예공연과 한복 패션쇼를 연계하여 현지의 학생이나 주민들을 임시 모델로 선발하여 패션쇼를 진행한다면 서예와 한복 패션이 서로 상생효과를 내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서예를 세계화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루마니아 Alexandru Ioan Cuza 국립대학 학생들이 모델로 나선 한복 패션쇼

■ K-POP과의 연계를 통한 세계화 시도

루마니아에서 첫 공연을 마친 후, 한복 패션쇼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Alexandru Ioan Cuza 국립대학에 K-POP을 즐기는 동아리가 있는지를 물었다. 환호하며 동아리가 있다고 했다. 동아리의 팀장을 불러 내일 밤 공연에 10분의 시간을 할애해 줄 테니 Alexandru Ioan Cuza 국립대학에 K-POP 동아리가 무대에서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라고 했다.



① 루마니아 Alexandru Ioan Cuza 국립대학에 K-POP 동아리의 공연



② 한복 패션쇼와, K-POP이 어우러진 서예 공연을 관람하는 루마니아의 관객들

다음날 우리의 공연 무대는 K-POP의 열기로 가득 찼다. 동아리 학생들이 평소에 연습한 것을

하루 만에 다듬어 K-POP 공연을 했는데 객석은 만석을 이루었고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러한 K-POP 공연에 이어 무대에 올린 우리의 서예 공연이 성공적이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이왕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POP의 열기를 활용하여 현지의 학생 혹은 주민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서예 공연을 함께 진행한다면 서예공연을 통해서 한국서예를 세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에 서예에 관한 특강과 서예전을 넣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5) 한국서예 연구와 연구실적 외역을 통한 세계화

현재 한국의 서예 유산이나 당대 한국서예의 동향에 대해 외국어로 쓴 글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전시한 일부 도록에 영문 번역이 수록되어 있는 외에 유묵전이든 현재 활동하는 작가의 서예전이든 서예전에 대한 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세계로 내보낸 예는 절대 많지 않다. 일부 개인전 도록에 영문 번역을 수록한 경우도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서예의 예술적 특징이나 그 전시의 의미 등을 외국인에게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의 번역문이 대부분이다. 이런 번역으로는 한국의 서예를 세계에 알릴 수 없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물론, 근현대에 활동했거나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꼼꼼하게 번역하여 세계의 문화예술계에 내놓는다면 충분히 관객이나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을 텐데 아직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제대로 해본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다. 번역만 잘 이루어진다면 한국서예는 세계인을 설득할 수 있다. 한국의 서예 자산에 대한 외역을 통한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국가사업 진행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필요성

VII.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국가사업 진행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필요성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아시아의 문화로만 여겨왔던 서예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국제적인 서예문화 축제가 되었다. 이는 한국의 서예진흥뿐 아니라 한국서예를 세계화하는 데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이를 진행할 만한 서예비엔날레관을 건립해야 한다.

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국가사업 진행과 안정적인 국비확보 방안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 요청하기 위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타 비엔날레에 대한 국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예로서 서예교육과 진흥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과 노력의 실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광주비엔날레관 개관 당시 국비 지원 현황

광주비엔날레관은 1995년 9월 준공 당시 건립예산 84억 2천 2백만 원, 시설 규모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13,329.50㎡으로 개관하였다. 이 당시 국비는 40억을 지원받았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⁸²⁾

-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 당시 국비 지원 : 특별교부세 40억 원

- 내용: 1995년 1월 27일 김영삼 대통령의 광주 방문 시 국제적인 행사를 창설하여 소요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를 받고 특별교부세로 20억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그후 전시관 시설협찬사인 덕산그룹의 부도 사태로 지역 경제의 침체와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전시관 신축이 어렵게 된 점을 건의하여 전시관 건축비 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특별교부세 4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82) 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결과보고서》, 1996, p.69.

- 기타 지원: 정부지원협의회 운영지원, 중앙홍보협의회 운영지원, 편의제공 및 물자차량, 의료방역

■ 시설개요

• 기본개요

- 개관일 : 1995년 9월 준공 (광주비엔날레가 대동될 당시 건립)
- 2006. 04 : 비엔날레 전시관 외부벽체 개보수공사 (1,678백만 원)
- 2006. 05 : 내부 리모델링 공사 (5개 사무실 공간 및 5개 전시실 : 800백만 원)
- 운영 주체 : 광주시립미술관(공간 관리), 광주비엔날레조직위(행사 주관)
- 위치 : 광주시 북구 용봉동 중외공원 내
- 건립예산 : 8,422백만 원
- 시설규모 : 지상 3층, 건물연면적 13,329.50㎡
- 철골 복합소재 건축물로서, 중간 브릿지를 통해 2개 동을 연결, 이중구조 등 지원

2) 청주공예비엔날레 개최 초기 국비 지원 현황

청주공예비엔날레는 1999년 국비 31억을 지원받아 행사를 진행하였다. 1999년 제1회 청주비엔날레 당시 예산 57억 원 중 국비는 31억 원이었다. 이 행사는 청주 시내 옛 연초제조창과 청주 시 일대에서 행사가 이뤄지다가 현재는 이곳을 리모델링한 문화제조창 Cluster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행사 기간에만 전용으로 사용함)

- 참고자료 (국: 국비, 도: 도비, 시: 시비, 가: 자부담 등 기타)

| 구분 | 1999년 | | | | | 2001년 | | | | | 2003년 | | | | |
|-------------|--------------------------|----|---|---|----|--------------------------|----|-----|------|------|-------------------------|----|---|----|---|
| 기간 | 1999.09.30.~10.31.(32일간) | | | | | 2001.10.05.~10.21.(17일간) | | | | | 2003.10.02.~10.19(18일간) | | | | |
| 주제 | 조화의 손 | | | | | 자연의 숨결 | | | | | 쓰임 | | | | |
| 사업비 (억원) | 계 | 국 | 도 | 시 | 기 | 계 | 국 | 도 | 시 | 기 | 계 | 국 | 도 | 시 | 기 |
| | 57 | 31 | 3 | 3 | 20 | 35.46 | 12 | 1.5 | 14.5 | 7.46 | 38 | 13 | 2 | 20 | 3 |

| 구분 | 2005년 | | | | | 2007년 | | | | | 2009년 | | | | |
|-------------|--------------------------|----|---|------|---|--------------------------|-------|---|-------|----|-------------------------|----|---|----|----|
| 기간 | 2005.09.30.~10.23.(24일간) | | | | | 2007.10.02.~10.28.(27일간) | | | | | 2009.09.23.~10.19(18일간) | | | | |
| 주제 | 유혹 | | | | | 창조적 진화-깊고 느리게 | | | | | 만남을 찾아서 | | | | |
| 사업비 (억원) | 계 | 국 | 도 | 시 | 기 | 계 | 국 | 도 | 시 | 기 | 계 | 국 | 도 | 시 | 기 |
| | 53.3 | 13 | 2 | 33.3 | 5 | 60 | 21.21 | 3 | 25.79 | 10 | 70 | 22 | 3 | 33 | 12 |

| 구분 | 2011년 | | | | | 2013년 | | | | | 2015년 | | | | |
|-------------|--------------------------|----|---|----|----|--------------------------|------|---|------|----|-------------------------|----|---|------|------|
| 기간 | 2011.09.21.~10.30.(40일간) | | | | | 2013.09.11.~10.20.(40일간) | | | | | 2015.09.16.~10.25(40일간) | | | | |
| 주제 | 유용지물 | | | | | 익숙함 그리고 새로움 | | | | | Hands+ 확장과 공존 | | | | |
| 사업비 (억원) | 계 | 국 | 도 | 시 | 기 | 계 | 국 | 도 | 시 | 기 | 계 | 국 | 도 | 시 | 기 |
| | 70 | 25 | 3 | 32 | 10 | 70 | 15.4 | 5 | 34.6 | 15 | 70 | 15 | 5 | 36.5 | 13.5 |

| 구분 | 2017년 | | | | | 2019년 | | | | | 2021년(예정) | | | | |
|-------------|-------------------------|---|---|----|----|--------------------------|---|---|----|---|-------------------------|---|---|---|---|
| 기간 | 2017.09.13.~10.22(40일간) | | | | | 2019.10.08.~11.17.(41일간) | | | | | 2021.09.08.~10.17(40일간) | | | | |
| 주제 | Hands+ 품다 | | | | | 미래의 꿈의 공예-몽유도원이 펼쳐진다 | | | | | 공생의 도구 | | | | |
| 사업비 (억원) | 계 | 국 | 도 | 시 | 기 | 계 | 국 | 도 | 시 | 기 | 계 | 국 | 도 | 시 | 기 |
| | 57 | 9 | 5 | 33 | 10 | 57 | 9 | 5 | 36 | 7 | | | | | |

광주의 광주비엔날레와 청주의 공예비엔날레가 이상과 같은 국비 지원을 받은 데에 반해 전북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국비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이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개최 초기에 행사의 성격을 국가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 제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1997년 전라북도가 주최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따른 부대 문화행사로 출발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예산만으로 치른 소규모 행사로 시작된 이후, 실질적으로 행사는 국제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정부의 인식은 ‘지방문화 행사’로 고착되었다.

| 구분 | 제1회 |
|------|---|
| 개최년도 | 1997년 |
| 기간 | 1.20~2.20 |
| 장소 | 전북예술회관 |
| 행사수 | 3개 행사 |
| 사업비 | 144,000천 원 |
| | 도비 : 100,000천 원 / 자체 : 34,000천 원 / 기금 : 10,000천 원 |
| 참여작가 | 119명 |
| 참여국가 | 8개국 |

* 1997년 당시의 비엔날레 예산 상황 - ※ '97년도 예산은 전라북도와 조직위가 분할하여 집행하였기에 정확한 예산은 확인 불가함.

- 이후, ‘지방교부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전라북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문화와 예술 분야 국가예산을 ‘충액’으로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충액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배분할 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는 중앙정부의 국가예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전라북도 자체 예산으로 치르는 ‘지방행사’라는 인식이 전라북도와 중앙정부에 동시에 고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식의 고착이 차후 중앙정부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차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비엔날레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중

양정부의 국가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지방의 문화행사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자구(自救)노력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 처하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후원금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하였다.

① 마사회로부터 4천만 원 지원받았다.

- 2003년도, 4천만 원,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협의로 지원받았다.

② 삼성생명으로부터 1억 원 지원받았다.

- 2012년도 2013년도, 각 5천만 원씩, 삼성생명 측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김재명 전라북도 경제특보님과 당시 총감독님의 협력으로 '12년도는 조직위 운영자금으로 '13년도는 그랑프리 등 상금 명목으로 후원을 받았다.

■ 관련기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삼성생명과 호흡 맞춘다〉 한국타임즈, 2011.12.16

세계 최초 서예비엔날레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삼성생명상'을 제정한다. 삼성생명보험(주)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16일 전북도청 의전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생명상 제정 등을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라북도지사, 박근혜 삼성생명 대표이사, 김재명 경제특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김병기 총감독 및 삼성생명 주요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생명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협력 체계를 갖추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3년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대상 시상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서는 '삼성생명 상(賞)'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도에는 삼성생명상 시상금으로 그랑프리 3천만 원, 국내대상 및 해외대상 1천만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2011년에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발전기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받는 발전기금은 2012년도 국내외 순회전 및 진행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그간 시상금이 5~6백만 원 수준(미화 5천 달러)으로 대외 위상에 비해 시상금이 낮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이번 삼성생명 지원으로 인해 국제행사의 품격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완주 도지사는 "전라북도의 대표

적 문화행사에 관심을 보여준 삼성생명 측에 감사드린다"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한류 문화의 중심이 되고 전북 및 국가브랜드 상승에 일등공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이번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삼성 출신으로 전북도 정부부지사를 지낸 김재명 전북도 경제특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일진그룹으로부터 1억2천만 원 지원받았다.

- 2015년도, 1억2천만 원, 당시 총감독님의 협력으로 지원을 받았다.

■ 관련기사

〈허진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 "한자 한자 새겨보면 또 다른 감동"〉 전북일보, 2015.10.19

지난 2010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을 맡아 올해로 세번째 행사를 꾸려낸 허진규(75, 일진그룹 회장) 조직위원장. 지난 17일 세계적인 서예인들과 동호인, 시민 수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성대하게 치른 허 위원장은 "비엔날레가 해를 더할수록 짜임새가 좋아진다."며 뿌듯해했다. "서예비엔날레는 전북, 전주에서 반드시 열려야 하는 문화예술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서예는 수신(修身)과 정신(精神)을 강조하는 격조 높은 예술인데, 선현들의 정신 문화와 전통문화를 오롯이 계승하고 있는 전북에서 서예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부흥을 꾀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서예비엔날레는 전북 전주에서 꼭 열려야 하는 행사라고 말하는 허진규 조직위원장

허 위원장이 서예비엔날레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인들의 권유에 의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 아버지께 붓 잡는 법을 배웠지만 잠깐이었습시다. 이후로는 공학도의 삶을 살면서 문화예술 쪽과는 소원했지요. 비엔날레와 인연을 맺으면서 다시 서예도 하고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키우게 됐습니다."

허 위원장은 '성실(誠實)'을 삶의 좌표로 삼고 있다. "개인, 공동체, 나라 모두가 성실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예야말로 정성스럽고 참된 성실의 대표적인 예술입니다. 물질문명이 앞서는 현대사회, 현대인이야말로 성실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비엔날레 주제도 서예 특유의 수신성을 강조하며, 인간성 회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담은 '물질에서 정신으로', '인문(人文)'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서예는 조명받고 발전해야 할 우리의 생활문화이자 예술입니다. 그런데 서예 인구가 많이 줄었고, 진정한 가치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서예가 저변 확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엔날레가 그 역할을 하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겠죠."

올해 비엔날레에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쾌척한 허 위원장은 서예비엔날레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활성화

화를 위한 후원 활동을 확산시키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예를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 시장에 오셔서 그림처럼 둘러보지 말고 안내자의 설명을 한 자 한 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예가 새롭게 보이고, 감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4) 서예교육과 서예진흥에 진력하는 중국 정부의 경우

중국에서 교육부는 2011년에 《초중등학교 서예교육 전개에 관한 교육부 의견》 배포하여 서예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고, 2019년에는 북경시 중앙고사 《고시설명》 발표하여 수능 성적에 서예, 미술 등 예술 성취도를 측정하여 산입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이 정부에서 직접 서예 교육에 관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하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 교육부 《초중등학교 서예교육 전개에 관한 교육부 의견》 배포

- 초중등학교에서는 관련 수업 및 활동을 통해 서예교육 실시
- 의무교육 단계인 국어수업에서는 과목 기준에 따라 서예교육 실시
- 초등학교 3~6학년은 국어수업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서예교육 실시
- 의무교육 단계인 미술 예술 등의 과목에서는 학문적 특성을 결합해 다양한 서예교육 실시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등 해당 과목에 서예 관련 선택과목 개설
- 초중등학교는 또한 종합실천활동, 지방과정, 교본과정에서도 서예교육 가능

① 배경

- 교기2[2011]4호
- 각 성, 자치구, 직할시교육청(教委), 신강(新疆)생산건설병단교육청
-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계획》을 관철하기 위하여 강령(2010~2020년)은 전인적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계승, 고취시키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서예교육 전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중요 의의

- 서예는 중화민족의 문화적 보배이며 인류 문명의 소중한 자산으로, 기초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서예교육을 통하여 초중등학생의 필기기능을 배양하고 서예예술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전승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중요한 길이다. 또한, 서예교육은 학생의 한자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심미적 정취를 함양하며 심신을 도야하고 문화수양을 향상시켜 전반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도 발전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의사소통 방식과 학습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고, 중학생의 한자 쓰기 능력이 약해졌다. 이러한 시점에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서예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전반적 필요사항

- 서예교육

초중등학교의 서예교육은, 기초를 튼튼한 다음 점진적으로 나아가 서예 수양을 하고 문화적 자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쓰기 사항 - 서예교육은 반드시 정확한 쓰기 자세를 갖추고 좋은 필기 습관을 길러야 하는 데 있다. 1~3학년은 학생들에게 하드 펜 쓰기 능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하드 펜을 사용하여 정자체를 능숙하게 써서 규범적이고 단정하며 깔끔하게 해야 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바르고 정연하게 미관까지 생각하며 규범적이고 일반적인 해·행서를 습득하고, 그리하여 쓰기 속도를 높여야 한다. 3학년 때부터는 하드펜과 붓을 함께 익혀야 한다.

: 붓을 사용한 쓰기 사항 - 학생들은 붓으로 해서(정자)를 쓰고 명가들의 서예를 임모하여야 한다. 서예의 역사와 한자 자체의 원류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서예작품의 내용, 장법, 절구, 필법 등의 측면에서 역대 유명 서예가의 작품을 감상하여, 초보적인 서예 감상 능력을 키우고 심미적 정취를 높여야 한다.

- 조건 보장을 제공하다.

: 성급(省級) 교육 행정 부처는 본 지역구의 초중등학교 서예 교육의 실제 상황에 맞게, 서예교육의 커리큘럼 배치, 수업관리, 교사 재직조건 및 자원배치 등을 기획하고 서예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 각급 교육 행정 부처는 계획적이고 진취적으로 서예 교사를 양성하고 훈련시켜, 점차적으로 교사의 서예교육교학의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 각급 교육 연구 부처는 서예교육을 교학 연구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초중등학교 서예교육의 교수법과 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연구 인원을 배치하여 학교와 교사가 서예 교습 업무를 진행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 학교는 필요에 따라 현지의 청소년교외활동센터, 소년궁, 문화예술단체의 서예 전문인력을 초빙하여 초중등학교 서예교육 요구에 따라 학생들이 서예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서예 교육 활동을 위한 사회 각계 및 개인의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 학교의 모든 교사들은 자기의 쓰기 기능과 서예 감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서예 교육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지역과 조건부로 서예과목이 개설된 지역에서는 가을에 서예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서는 개강 계획과 구체적인 실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각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서예교육을 더욱 잘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감독 부처는 서예 과목

개설 상황을 교육 감독의 주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중국 교육부 2019년 북경시 중앙고사 《고시설명》 발표

- 서예, 미술 등 예술 성취도를 측정하여 수능성적에 산입
- 서예를 어문 과목 시험에 포함
- 2020년부터 전국 각 성시(省市)에서 실시
- 관련기사 : 〈교육부:서예, 미술 등 예술 성취도를 측정하여 수능성적에 산입한다. 2020년부터 전국 각 성시(省市)에서 실시〉

2019년 1월 17일, 2019년 북경시 중앙고사 《고시설명》을 발표하고 북경교육고시원으로부터 제출 받았다. 올해 북경시중앙고사 《고시설명》에 미세한 조정이 있었는데, 두드러진 점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법치에 대한 고찰 중 서예를 어문 과목 시험에 포함시켜, 전서 에서 초서 해서 행서 이렇게 다섯 자체를 인지하는지를 시험에 추가하였다.〈教育部：書法、美術等藝術素質測評計入中高考成績，2020年起全國各省市陸續實施！〉 2019年1月17日，2019年北京市中考《考試說明》發布，從北京教育考試院獲悉，今年北京市中考《考試說明》有局部的微調，突出對中華優秀傳統文化和法治的考查其中書法被納入到語文學科中考查，增考認識篆、隸、草、楷、行五種字體。)

课程表

成都市泡桐树小学 2017~2018学年度上期 一年级四班

| 课程 | 星期 | 星期一 | 星期二 | 星期三 | 星期四 | 星期五 |
|----|----|--------|----------------|--------|--------------|--------|
| 上午 | 1 | 升旗仪式 | 日积月累 | 日积月累 | 日积月累 | 日积月累 |
| | 2 | 阳光体育锻炼 | 数学 | 语文 | 语文 | 语文 |
| | 3 | 语文 | 语文 | 数学 | 数学 | 数学 |
| | 4 | 数学 | 阳光体育锻炼 | 阳光体育锻炼 | 阳光体育锻炼 | 阳光体育锻炼 |
| | 5 | 品生1 | 美术 | 体育 | 体育 | 语文 |
| | 6 | 信息 | 美术 | 口语 | 语文 | 口语 |
| 下午 | 7 | 静心阅读 | 安全健康 | 静心阅读 | 书法 | 静心阅读 |
| | 8 | 安全午会 | 写字午会 | 安全午会 | 写字午会 | 普法午会 |
| | 9 | 口语 | 体育 | 音乐 | 口语 | 品生2 |
| | 10 | 体育 | 文(阅读)(文(国学)(科学 | 音乐 | 班队会(单)与安全/心理 | |
| | 11 | 阳光体育锻炼 | 阳光体育锻炼 | 阳光体育锻炼 | 阳光体育锻炼 | 阳光体育锻炼 |

2017/8/25

北京教育考試院獲悉，今年北京市中考《考試說明》有局部的微調，突出對中華優秀傳統文化和法治的考查其中書法被納入到語文學科中考查，增考認識篆、隸、草、楷、行五種字體。)

- 중국 초등학교 서예 과목 예시

: 成都 泡桐樹小學: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중, 국어수업이 1주일에 7시간으로 가장 많고, 수학 말하기 체육이 4시간, 또한 특별히 읽기, 서예 수업도 배치

: 成都實驗小學青華分校-매주 화요일에 서예 수업.

课程表

| 时间 | 星期一 | 星期二 | 星期三 | 星期四 | 星期五 |
|----------------|----------|-----|------|------|------|
| 8: 30-8:35 | 课前准备 | | | | |
| 1 8: 35-9:15 | 语文 | 数学 | 语文 | 数学 | 语文 |
| 2 9:25-10:05 | 数学 | 语文 | 数学 | 语文 | 思维训练 |
| 10:05-10:40 | 阳光体育锻炼 | | | | |
| 3 10:40-11: 20 | 体育 | 科学 | 语文 | 语文 | 音乐 |
| 11:20-11:25 | 眼保健操(一) | | | | |
| 4 11:35-12:15 | 思想品德 | 书法 | 音乐 | 英语 | 美术 |
| 13:55-14:10 | 午会(综合素养) | | | | |
| 5 14:10-14:50 | 英语 | 体育 | 生命教育 | 体育锻炼 | 体育 |
| 14:50-14: 55 | 眼保健操(二) | | | | |
| 6 15:05-15:45 | | | | 美术 | 班会 |

: 淄川洪山鎮松齡小學-3학년, 4학년, 5학년 과정에 서예 수업 포함

2019-2020学年度第一学期课程表（三年级）

填表时间: 2019年9月16日

[illegible]

2019-2020学年度第一学期课程表（四年级）

填表时间: 2019年9月16日

[illegible]

2019-2020学年度第一学期课程表（五年级）

填表人：周雯雯

[illegible]

이처럼 광주비엔날레나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에 국비가 지원된 상황과 중국이 정부 지원 아래 서예 교육을 하고 있는 정황에 비교해 볼 때, 22년 동안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위상을 지켜온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반드시 국가행사로 진행되어야 하고 국비를 투자하여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건립해야 한다.

2.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의 필요성

그렇다면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정말 필요한가? 비엔날레관을 건립했을 경우, 활용도는 어느 정도나 되며 운영에 무리는 없는 것일까? 서예진흥법이 제정(18.12.)됨에 따라 서예교육, 인력양성 등 서예진흥과 서예유산의 보존 활용 및 해외 진출을 선도하기 위한 공간적 거점이 필요한데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어떠한 역할과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지난 22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아시아의 문화로만 여겨왔던 서예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국제적인 서예문화 축제가 되었다. 이는 한국의 서예진흥뿐 아니라 한국서예를 세계화하는 데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작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필요성을 서예진흥법 내에 포함시키는 계획도 설립되어야 한다.

2016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도내 대학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가졌을 때 당시 전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총감독을 맡고 있던 김병기 교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전라북도와 전북대학이 상호협력 하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하였다.

- 국제적인 서예 행사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수차례 개최함으로써 한국서예는 세계의 서예를 선도해왔다. 이러한 성과에 비해 서예비엔날레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용공간이 없어 행사를 치르는 데 어려움이 많다. 현재는 비엔날레 기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관을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중국·일본서예와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기반인데, 이를 개최할 공간조차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지속한다면 한국서예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 일본에서 서예진흥을 위한 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서예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한국서예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관과 공간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답은 바로 ‘선택과 집중’에 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 탄소산업 등을 비롯하여 전북이 잘 살기 위한 사업을 많이 진행해 왔고 성과도 많이 거양하였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만큼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이룬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전북이 자랑하는 전통문화 산업인 전통한지, 판소리, 완판본 인쇄, 선비문화 등 어느 것 하나도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며 세계의 문화시장으로 진출할 꿈을 키우지 못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나눠서 사용’했기 때

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전북이 가꿔온 어떤 분야의 문화예술보다도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이 강점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과감하게 육성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일종의 모험을 통하여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다음의 문화산업 콘텐츠도 과감하게 활성화하여 세계의 문화예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 지금은 전북이 가진 어떤 문화자산 문화산업콘텐츠보다도 많은 강점을 가진 서예를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건립함으로써 세계로 진출하게 해야 할 때인 것이다.

1)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시공간의 활용 면에서

서예비엔날레 전시는 매회 1개월 정도 진행된다. 전용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1회부터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예술회관' '전주박물관'에서 전시를 개최해 왔다. 사실 2년 동안 준비한 전시가 1개월 정도밖에 전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그러나 비엔날레와 같은 대형 규모의 전시가 몇 개월에 걸쳐 전시된다면, 규모가 크고 좋은 시설을 갖춘 국공립 전시장은 다른 장르나 다른 전시가 열릴 기회를 제한하고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적 공간이 있지도 않고 전라북도 내 민간 전시장 수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민간 공연·전시장은 수도권에 편중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서울·경기 790개(공연 295개, 전시 495개), 전북의 민간 공연·전시장은 42개(공연 19개, 전시 23개),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전북지역의 공연·전시 시설 역시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 시·군별 전시공간 현황을 보면, 전주시의 경우 공연장 10개, 전시장 12개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민간 공연 전시실이 있는 반면 △익산시 공연 2개, 전시 3개, △군산시 공연 1개, 전시 3개, △완주군 공연 2개, 전시 1개, △부안군 공연 1개, 전시 2개 등이었다. 이외에도 김제시와 남원시는 전시장만 각각 1개를 보유했으며, 무주군과 순창군의 경우는 전시장은 없고 공연장 2개와 1개 등 뿐이다. 특히, 정읍시와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등은 민간 공연·전시장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⁸³⁾

수도권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 2년마다 개최되는 서예비엔날레

83) 전북일보, <민간 공연장, 전시장도 '수도권쏠림', 전북은 찔끔>, 2020.10.26.

전시가 1개월 이상 진행하다 보니 전라북도 타 분야 및 타 전시를 수용할 수 있는 전시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인 것이다.

전시장 인프라 부족은 서예비엔날레 전시 활성화에 제약을 주는 부분이며 타 분야의 문화예술의 확장에도 제약이 된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예술 분야의 향유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서예비엔날레 전시가 열리는 두 곳의 전시장 현황을 살펴보겠다. 먼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경우이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은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대형전시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 전북지역 민간 공연·전시장 수 (단위: 개)

| 지역 | 공연 | 전시 | 합계 |
|----|----|----|----|
| 전주 | 10 | 12 | 22 |
| 익산 | 2 | 3 | 5 |
| 군산 | 1 | 3 | 4 |
| 완주 | 2 | 1 | 3 |
| 무주 | 2 | 없음 | 2 |
| 부안 | 1 | 2 | 3 |
| 순창 | 1 | 없음 | 1 |
| 김제 | 없음 | 1 | 1 |
| 남원 | 없음 | 1 | 1 |
| 정읍 | 없음 | 없음 | 0 |
| 진안 | 없음 | 없음 | 0 |
| 장수 | 없음 | 없음 | 0 |
| 임실 | 없음 | 없음 | 0 |
| 고창 | 없음 | 없음 | 0 |
| 합계 | 19 | 23 | 42 |

출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 형상을 보면 비엔날레가 열렸던 2017년과 2019년의 총 전시 건수가 2016년과 2018년도에 비해 23 → 22건, 24 → 20건으로 약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1건과 4건의 차이이다 보니 큰 차이가 아닌 듯 보인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9월에서 11월 사이의 전시 건수는 전체 전시 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시기를 전시 성수기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서예비엔날레가 개최되었던 해인 2017년과 2019년에는 9월 말부터 10월 혹은 11월 초까지 1개월 이상(작품 설치 및 철수 기간 포함)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고, 전관을 대관하여 서예비엔날레 전시를 진행하다 보니 서예비엔날레 기간에는 타 장르나 타 분야의 다른 전시들이 전시를 진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도 그 기간의 전시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이용 현황〉

| 년도 | 2016 | 2017 | 2018 | 2019 |
|--------------|-------|-------|-------|------|
| 총 전시 수 | 23 | 22 | 24 | 20 |
| 9월~11월 전시 수 | 10 | 9 | 13 | 6 |
| 9월~11월 전시 비중 | 43.5% | 40.9% | 54.1% | 30% |

전북예술회관의 경우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경우보다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전북예술회관은 전주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편리성과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예술인들이 선호하는 전시공간이다.

④ 〈전북예술회관 전시장 이용 현황〉

| 년도 | 2016 | 2017 | 2018 | 2019 |
|--------------|-------|-------|-------|-------|
| 총 전시 수 | 96 | 97 | 81 | 79 |
| 9월~11월 전시 수 | 42 | 27 | 48 | 17 |
| 9월~11월 전시 비중 | 43.8% | 27.8% | 59.3% | 21.5% |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시 수치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시관을 사용된 건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시 선호기간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비엔날레 개최연도와 미개최연도의 전시 대관 차이가 뚜렷이 구별된다. 개최연도에 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사용되는 전북예술회관 전시실은 전관이다. 예술회관의 모든 전시실을 대관하여 전시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관하는 기간은 전시기간 1개월에 전시준비와 철수기간을 포함하다 보니 1개월 이상 소요된다.

미개최년도에는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소규모의 그룹전과 개인전 및 기타 전시의 대부분은 1주일 정도의 기간만을 대관한다. 각 층의 여러 전시실에서 동시에 여러 단체나 개인이 전시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매회 가을 전시 성수기에 맞춰 진행되는 서예비엔날레 전시는 1개월 이상 전북예술회관 전 전시실을 점유하고 있어, 타 분야 작가들이나 단체에서는 전시실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라북도 타 지역보다 전시장이 많다는 전주지만, 전북예술회관처럼 좋은 여건을 갖춘 전시공간을 대체할 만한 곳이 현재까지는 없다. 그러다 보니 비엔날레 개최연도의 9월~11월 기간에는 특히 전시장 부족이라는 문제가 절실하게 다가오면서 타 전시에 막대한 영향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서예비엔날레관이 없다는 점이 이렇게 타 전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예술회관의 전시 대관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서예문화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서예비엔날레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④ 〈역대 광주비엔날레 주제 및 개최기간〉

| 회차 | 주제 | 개최기간 | 참여국가 및 작가인원 |
|-----|-----------------------------------|-----------------------|-------------|
| 1회 | 경계를 넘어 (Beyond the Borders) | 1995.09.20~1995.11.20 | 49개국 87작가 |
| 2회 | 지구의 여백 | 1997.09.01~1997.11.27 | 35개국 78작가 |
| 3회 | 人+間 (Man+Space) | 2000.03.29~2000.06.07 | 37개국 90작가 |
| 4회 | 멈춤, Pause, 止 | 2002.03.29~2002.06.29 | 29개국 93작가 |
| 5회 |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 | 2004.09.10~2004.11.13 | 39개국 84작가 |
| 6회 | 열풍변주곡 (Fever Variations) | 2006.09.08~2006.11.11 | 32개국 90작가 |
| 7회 | 연례보고: 일년동안의 전시 | 2008.09.05~2008.11.09 | 36개국 116작가 |
| 8회 | 만인보 (10000Lives) | 2010.09.03~2010.11.07 | 29개국 133작가 |
| 9회 | 라운드 테이블 (ROUNDTABLE) | 2012.09.07~2012.11.11 | 40개국 92작가 |
| 10회 | 터전을 불태우라 (Burning Down the House) | 2014.09.02~2014.11.06 | 36개국 105작가 |
| 11회 |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 2016.09.05~2016.11.09 | 50개국 101작가 |
| 12회 | 상상된 경계들 (Imagined Borders) | 2018.09.07~2018.11.11 | 43개국 165작가 |

위의 표의 내용은 서예비엔날레 보다 2년 앞선 1995년에 시작된 광주비엔날레의 매회의 주제와 기간을 정리한 자료이다.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관을 가지고 있고 그 비엔날레관을 활용해 전시 성수기인 9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마무리된다. 대략 2개월 정도에 걸쳐 전시를 진행하면서 40개국 이상의 현대미술의 작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전시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역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주제 및 전시기간>

| 구분 | 개최년도 | 주제 | 기간 | 행사수 | 참여작가 | 참여국가 |
|------|-------|-----------|-------------|-----|-------|------|
| 제12회 | 2019년 | 자연정신과 서예 | 10.12~11.10 | 26 | 1,349 | 22 |
| 제11회 | 2017년 | 순수와 응용 | 10.21~11.19 | 25 | 988 | 21 |
| 제10회 | 2015년 | 물질에서 정신으로 | 10.17~11.15 | 28 | 846 | 28 |
| 제9회 | 2013년 | 뿌리와 바람 | 10.05~11.03 | 34 | 923 | 16 |
| 제8회 | 2011년 | 역동 | 10.01~10.30 | 28 | 1,849 | 17 |
| 제7회 | 2009년 | 소통 | 09.19~10.10 | 18 | 636 | 15 |
| 제6회 | 2007년 | 성찰 | 10.06~11.04 | 26 | 1,866 | 22 |
| 제5회 | 2005년 | 만남 | 10.01~10.31 | 22 | 980 | 23 |
| 제4회 | 2003년 | 생활속으로 | 09.20~10.19 | 20 | 803 | 20 |
| 제3회 | 2001년 | 線을 넘어 합으로 | 10.06~11.05 | 17 | 1,701 | 20 |
| 제2회 | 1999년 | - | 06.01~06.30 | 15 | 441 | 18 |
| 제1회 | 1997년 | - | 01.20~02.20 | 3 | 119 | 8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역시 1997년을 시작으로 2019년에 12회차 전시행사를 진행했다. 세계최초 서예비엔날레라는 명성에 걸맞게 주 전시를 필두로 매회 30여 가지의 행사를 준비하였고, 주 전시 외에도 주제에 맞는 여러 테마 전시와 부대행사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들 역시 20여 개국이 넘으며, 투입된 예산도 7억(2019년 기준)이 넘는다.

2년마다 개최되는 서예비엔날레는 매회 전시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세계서예인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해 왔다. 타 전시에 대한 영향과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전시 기간을 축소해 운영한다면 오히려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비평을 받을 것이다.

국내 주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2~3개월에 걸쳐 전시를 진행하는 경우는 광주비엔날레 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 국내 유명 미술관에서는 의미 있는 기획전시의 경우 전시기간을 3개월 정도 잡아 전시를 진행한다. 최근 국내 유명 미술관에서 서예에 관한 의미 있는 전시가 있었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로 ‘세한도 기증 기념 특별전 <세한>’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전시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세한도 전체를 펼쳐 전시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은 전시이다. 다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미술관에 書: 한국 근현대 서예전’이라는 전시이다. 2020년 3월 12일부터 6월 7일까지 전시를 진행했고, 특히 온라인 전시를 함께 진행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근현대 서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를 만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는 ‘한국근대서예명가전’을 2020년 6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시했다. 근현대 서예명가 23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의미 있는 전시를 열었다. 올해 있었던 국내 유명 미술관 세 곳의 전시 모두 2~3개월 정도 전시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❶ 세한도 기증 기념 특별전<세한>
2020.11.24-2021.1.31



❷ 한국근대서예명가전
2020.6.20-2020.8.16



❸ 미술관에 書: 한국 근현대 서예전 2020.3.12.-2020.6.7

또 가까이 있는 전북도립미술관의 경우도 2~3개월 이상의 기간을 설정해 전시일정과 전시 내용을 기획하고 있음을 지난 전시의 자료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매 전시마다 전시기간을 일정하게 정해 놓지는 않지만 중요한 전시의 경우 전시기간을 길게 잡고 많은 도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북청년 2019 展: 2019-03-19~2019-06-02>, <북경發 전라특급: 2019-06-11~2019-09-22>, <수목정신 특별전: 2019-10-01~2019-12-01> 등 2~3개월 정도의 전시일정을 구성하여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청년 2019 展
본관전시 | 2019-03-19 ~ 2019-06-02



북경發 전라특급
본관전시 | 2019-06-11 ~ 2019-09-22



수목정신 특별전
본관전시 | 2019-10-01 ~ 2019-12-01

서예비엔날레 전시 역시 위에서 제시한 국내 유명 미술관의 의미 있는 전시들 못지않은 중요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매회 오랜 기간 기획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전시 준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비엔날레관이 없고 도내 전시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전시와의 형평성을 내세워 1개월 전시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2~3개월 정도 전시기간을 운영해야 전북도민뿐 아니라 국내외 서예인들이 세계서예 속의 한국서예의 위상과 진정한 서예의 의미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수장공간 확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1,619점의 작품들을 기증받았다. 그러나 이를 전시할 만한 공간이 없어 작품을 수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문화적인 손실로 볼 수 있으며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대중들이 서예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예문화 진흥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최근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수장고를 개방하여 수장유물·작품을 향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2년 동안 서예비엔날레를 통해 기증받은 1,619점의 작품을 보관하고 상시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 중의 하나지만, 전용 수장고가 없어 기증받은 작품의 일부는 전북도립미술관에, 일부는 조직위원회 사무실에 보관 중이라는 점도 서예비엔날레 수장작품 활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증 작품의 보관과 전시를 위한 전용공간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회 | 기증 작품수 | 보관장소 | 전시별 / 작품수 | | | | |
|--------------|-----------|-------------|-------------------|---------------|------|------------------|-----------|
| | | | 수장작품 수 | | | | |
| 제1회 (‘97) | 58 | 전북 도립미술관 | (전라북도 기증) 전시별 미분류 | | | | |
| 제2회 (‘99) | 120 | 전북 도립미술관 | (전라북도 기증) 전시별 미분류 | | | | |
| 제3회 (‘01) | 100 | 전북 도립미술관 | (전라북도 기증) 전시별 미분류 | | | | |
| 제4회 (‘03) | 114 | 전북 도립미술관 | (전라북도 기증) 전시별 미분류 | | | | |
| 제5회 (‘05) | 153 | 전북 도립미술관 | (전라북도 기증) 전시별 미분류 | | | | |
| 제6회 (‘07) | 182 | 전북 도립미술관 | (전라북도 기증) 전시별 미분류 | | | | |
| 제7회 (‘09) | 135 | 조직위 사무국 | 유파전 | 한국가곡& 한글서예 | 대학서예 | 병풍으로 보는 수묵사군자 | 기념 공모전 |
| | | | 72 | 31 | 24 | 4 | 4 |

| 회 | 기증 작품수 | 보관장소 | 전시별 / 작품수 | | | | | | |
|---------------|-----------|------------|-----------|--------|-------------|-------|------|--------|-------|
| | | | 수장작품 수 | | | | | | |
| 제8회 (‘11) | 198 | 조직위 사무국 | 역동성전 | | 한글 11,172자전 | | | 기념공모전 | |
| | | | 191 | | 3 | | | 4 | |
| 제9회 (‘13) | 109 | 조직위 사무국 | 서예의 철학 | 서방의 서예 | 건축,인테리 | 새날개전 | | 기념공모전 | |
| | | | 68 | 12 | 11 | 14 | | 4 | |
| 제10회 (‘15) | 239 | 조직위 사무국 | 상생전 | 괴서전 | 임서전 | 세계문자 | 도자각전 | 철필의 노래 | 기념공모전 |
| | | | 119 | 27 | 27 | 23 | 19 | 20 | 4 |
| 제11회 (‘17) | 85 | 조직위 사무국 | 서론서예전 | | | 양생서예전 | | | |
| | | | 73 | | | 12 | | | |
| 제12회 (‘19) | 126 | 조직위 사무국 | 서예 도 | 견인전 | 시서화전 | 서화각 | 전각 | 명사 | 공모전 |
| | | | 56 | 17 | 39 | 8 | 1 | 1 | 4 |

위의 표와 같이 현재 도립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서예비엔날레 작품은 제1회부터 제6회까지의 작품 727점이 수장되어 있다. 기증받은 서예비엔날레 작품들은 전라북도 재산이다 보니 도립미술관에 기탁형태로 수장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도립미술관에서 수장하고 있는 작품들의 형태는 매입하거나 기증받은 작품을 수장하게 되어있다. 그곳에 서예비엔날레 작품들이 기탁형태로 수장되어 있는 것이다. 기존의 미술관 수장작품에 서예비엔날레 작품이 수장되어 있다 보니 수장고는 항상 포화상태였다.

최근 도립미술관은 수장고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에 새로 증축했고, 이로 인해 지금은 수장 공간에 여유가 있다. 그러나 도립미술관은 서예 전문 미술관이 아니다 보니 서예비엔날레 작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작품에 대한 기록도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작품수장과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얼마 전 보도자료에서도 포화상태인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을 받기면서도, 정작 미흡한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다.⁸⁴⁾

기증 자료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서 시민들의 서예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더욱 친숙하고 흥미롭게 대중들이 서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서예비엔날레 작품을 활용한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가 필요한데 수장고가 없어 분산되어 기탁의 형태로 수장되어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인 것이다.

아카이브 구축은 사라져가는 서예 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작품을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현재 기증된 작품들을 활용하여 아카이브 구축을 해놓는다면 서예 문화의 본향으로서 전라북도의 위치를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서예비엔날레관에 아카이브가 구축된 서예 전문 수장고 확보는 중요한 부분이 되며, 이러한 수장고는 서예 흐름과 문화를 이해하는 복합적 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84) 전북도민일보, 〈전북도립미술관 수장고, 청사진이 없다〉, 2017.12.19.

3) 상설전시의 필요성 면에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12회를 개최해 오면서 국내외 12,501명의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해 세계서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세계서예인의 장을 만들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역대 비엔날레 작품들을 수장하고 있지만, 상설전시를 할 비엔날레관이 없다 보니, 이 작품들을 전북도립미술관과 비엔날레 사무국에 분산하여 수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1회부터 6회까지의 수장작품 727점은 전북도립미술관에 기탁한 형식으로 수장되어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북도립미술관이 현대미술 작품에 중심을 맞추고 있고 기존의 수장고가 작아 수장고를 증축했지만, 서예비엔날레 기증 작품들이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앞장에서 언급된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엔날레 조직위 사무국에 수장된 작품들은 전시 별로 그 작품 수가 분류되어 수장되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전북도립미술관에 수장된 작품은 전체 작품 수만을 알 수 있도록 분류해서 수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창기 비엔날레 기증 작품들이 전북도립미술관 수장고의 장소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서예비엔날레관이 있다면 기증받은 1,619점을 수장고 보관함에 넣어 두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순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설전시를 진행할 수 있다.

비엔날레 전시는 매회마다 대 주제를 정하고 장르, 서체, 소재, 재료,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테마를 분류해 참신한 전시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비엔날레관이 없다 보니 1개월 정도의 전시기간이 끝나면 설치되었던 작품들이 수장고에 들어갈 뿐 다시 전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전용공간이 마련된다면 기증받은 작품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상설전시를 기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수장작품 중에는 정식서예작품들이 많다. 그중 매회 메인 전시작품들을 활용해 상설전시를 진행한다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작품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지난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서예 바람에 대한 제안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장된 작품 중 여러 회 때의 메인 전시 중, 제9회 '서예의 철학전' 68점, 제11회 '서예서론전' 73점, 제12회 '서예 도' 56점을 가지고, 서예 이론과 철학이라는 테마로 큐레이팅하여 차별화된 전시를 할 수 있다. 이 한 가지 테마로 기증되어 작품을 모아보면 작품 수가 총 197점이 된다. 충분히 상설전시를 진행할 수 있는 양이다.

위에서 하나로 모아본 197점의 작품들은 대형 사이즈의 작품일 뿐 아니라 서예 이론에 관한 소재를 가지고 제작된 작품들이다. 이는 서예작품의 형태뿐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서예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품격을 갖춘 서예작품과 서예 이론, 그리고 철학적 내용이 공존하는 전시는 서예의 학술적 접근을 더욱 가깝게 유도하여 서예 이론의 연구 범주를 확대할 수 있다. 즉 학술과 예술의 융합을 전시를 통해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가 된다는

뜻이다. 이런 시도는 2020년 강암서예관에서 학문과 예술을 융합하여 선보였던 ‘학·예병진전’ 전시 때도 있었다. 서예비엔날레 수장품을 가지고 이러한 상설전시를 진행하면서 강암서예관 등과 같은 기관과 연계하여 전시를 진행된다면 서로 상생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작품 구성에 있어 소재가 되는 서예 이론과 철학적 내용을 단순히 작품 소재로 활용하고 보여주지만 할 것이 아니라 학술대회로 연계하여 학문적 깊이를 더해준다면 침체하여 있는 서예 학계의 새로운 이론 연구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장품들을 분야별로 100점씩만 전시한다 해도 수차례의 전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상설전시를 지속해서 기획하고 진행해야만 서예비엔날레 수장작품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4) 기획전시 면에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기전시와 미개최연도에 진행되는 기획전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는 상설전시와 기획 전시로 분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비엔날레관이 있다면 정기전시가 없는 기간에 상설전시를 통해 수장작품들을 분야별로 새롭게 전시해야 서예비엔날레 수장작품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상설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이외에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여 창작과 수장작품의 보존 및 서예 유산 연구가 공존하게 해야 한다.

창작과 보존 측면에서 본다면, 전라북도가 낳은 서예 인물들에 대한 연구와 많은 전북서예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해서 전북서예의 정체성 및 한국서예의 뿌리를 찾아가는 전시를 기획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작가들에게도 창작 공간 및 새로운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과거와 미래를 함께하는 기획전시를 진행해 나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신·구 서예문화를 함께 공존시키면서 나아가야만 전라북도 서예를 살릴 수 있다. 즉, 기획전시관은 창작공간으로 젊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서예유산 공간으로 대역할 수도 있다.

신진작가 발굴 프로젝트 측면에서 본다면, 공모전을 활용한 신진작가 발굴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서예비엔날레 공모전은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주제를 작가들이 선정하여 공모에 응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젊은 신진작가들의 응모가 많은 편이다. 지금까지는 대상 및 우수상, 특선, 입선 등의 방식으로 선발을 해왔다. 그러나 이후에는 전체 대상 1명과 분야별 각 서체 혹은 전통서예, 현대서예, 전각, 서각 등 분야별 우수 작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 할 수도 있다. 이후 선정된 우수 작가들이 서예비엔날레 미개최연도에 1개월씩 릴레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한 기획이 될 것이다.

공모전의 특성상 이런 시도가 어렵다면 공모전 형식이 아닌 작가 선발 방식을 활용해 신진 청년작가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지금의 서예 아젠다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창작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에서 서예과가 폐과되고, 젊은 서예인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다 보니 전반적인 서예계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일수록 젊은 서예작가들을 발굴 육성하여, 그들이 서예계에서 설 자리,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 주는 기획 전시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서예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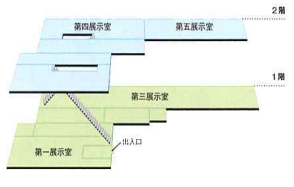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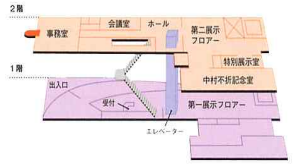


또한, 수장작품과 연계한 활용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먼저, 여러 테마로 제작된 전통과 현대의 미감이 공존하는 한글 작품들 중 제7회 ‘한글서예’ 테마에 전시된 작품과 제8회 ‘한글 11,172자전’, 그리고 제9회 장황을 중심으로 작품을 전시한 ‘새날개전’ 중 한글서예작품과 기타 수장된 한글작품을 활용해 한글서예 작품 전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글서예의 단아함과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글디자인이 선보이는 소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한쪽에 공유하면서 전통과 현대의 미감을 시각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공간에 피아노 선율과 아름다운 가곡이 흘러나오는 ‘가곡의 밤’ 공연을 함께 진행된다면 전시장이자 공연장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요즘은 트로트가 대유행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매체에서 트로트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다 보니 가곡은 거의 들을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편향된 분위기 속에서 전통과 현대미감이 담긴 한글서예와 가곡이 공존하는 융복합적 전시를 기획해 본다면, 통속적인 대중문화가 아닌 대중적이면서 고급화된 문화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전시는 한글서예와 가곡의 활성화 양쪽 모두를 상생하게 하는 선기능적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기획전시를 진행하면서 한글과 가곡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초·중·고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 제시는 물론이거니와 교육적 효과 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5) 기존 예술공간과의 차별성-학술·연구·교육 공간 확대

서예박물관으로 이름이 알려진 동경(東京)의 서도박물관과 서도미술관의 공간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명칭 | 개요 | 비고 |
|--------------------------------|---|--|
| 일본 다이도우구립 서도박물관 (台東區立書道博物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관일 : 1936년(2000년 재개관) 운영주체 : 동경도 다이도우구청 문화산업관광부 문화진흥과 관리운영 : 공익재단법인 타이도우구예술문화재단 위치 : 도쿄도 다이도우구(東京都台東區根岸2-10-4) 건립예산 : 개인 기부(나카무라후세츠) 시설규모 : 본관(2층) 245,93㎡, 나카무라후세츠 기념관(3층) 764.83㎡ 건축 1,032㎡ 소장 작품 수 : 총 16,000점(중요문화재 11건 12점, 중요 미술품 5건) 서예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유한 전문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전, 특별전(연 4회)-碑拓法帖, 經卷文書, 文人法書 등 주제 자체 수입: 연간 패스포트 발행, 박물관 기념품 판매 등 |     |
| 일본서도미술관 (日本書道美術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관일 : 1973년11월4일 운영주체 : 일본교육서도연맹 위치 : 도쿄도 이타바 시구 토키와 다이(東京都板橋區常盤台) 1-3-1 건립예산 : 회원기부 고필, 근대서예명가작품, 현대서예 대표작가 작품 등 5,000여 점 소장 전시내용: 테마에 따라 진행. 행해지고 있으며 고금의 名蹟 전시관 및 기타 예술(회화, 인형, 칠예, 도예 등)과의 조화 전시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서예미술관공모전 실시: 엄정하고 공평한 심사, 우수 작품 매입(작가 활동 지원) 특별전 : 신춘, 춘계, 하계 연 3회 테마 전시 |   |

두 곳은 모두 일본의 서도 예술품과 문화재를 보유한 서도전문박물관이자 미술관이다. 서도박물관의 경우는 서예연구에 필요한 전문 서예 관련 및 자료가 16,000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서예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비탁법첩(碑拓法帖), 경권문서(經卷文書), 문인서법(文人法書)’ 등의 주제로 상설전시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서도미술관의 경우도 고필, 근대서예명가작품, 현대서예 대표작가 작품 등 5,000여 점이 수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고,



또한 이곳에서는 서예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좌를 기획하고 도서출판 및 영상제작을 하여 서예교육 및 전문가양성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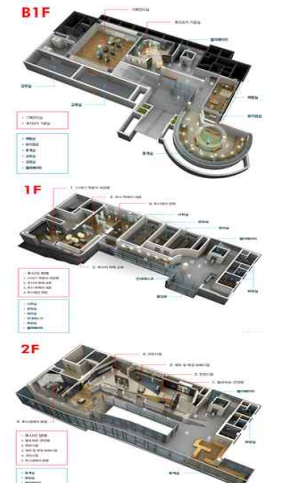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서예전문 박물관으로는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수원박물관 내 한국서예박물관’, ‘과천시 추사박물관’이 있다.

먼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의 경우 2층과 3층을 사용하고 있다. 전시공간은 상설전시실, 현대전시실, 실험전시실 이렇게 세 공간으로 나누고 있고, 수장고, 강의실, 사무실 공간은 2, 3층에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서울서예박물관은 전시실과 강의실을 이용해 특별 기획전시와 서예 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수장공간이나 기타 시설이 미술관이라기보다는 박물관의 기능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수원박물관 내 한국서예박물관’의 경우는 수원박물관 내에 있는 하나의 전시공간으로 한국서예박물관이 마련되어 있는 형태이다. 서예전문공간이기는 하지만 수원박물관의 여러 시설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추사박물관’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층 공간은 상설전시공간인 후지츠가기증실 및 기획전시실이 운영되고 있고, 1층에는 추사의 학예를 주제로 하는 상설전시실이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고 사무실과 관장실 회의실들이 함께 있다. 2층에는 추사의 생애를 주제로 하는 상설전시실이 5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추사박물관은 추사에 관한 전문박물관이다 보니 서예전문박물관 혹은 미술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명칭 | 개요 | 비고 |
|------------------|---|---|
|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일 : 1988년 02월 15일 • (2014~2015 리모델링, 2016년 3월 1일 재개관) • 운영주체 : 특별법인 예술의전당 • 위치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내 • 건립예산 : 120억 원 (리모델링 예산) • 시설규모 : 지상 4층, 부지 231,000㎡ (예술의전당) 건축 1,520㎡) •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실 : 실험전시실, 현대전시실(3), 상설전시실 - 체험실 : 강의실 1~6, 이론강의실 - 세미나실 : 챔프홀(4F) - 수장고, 미디어실 - 전시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 |   |

| 명칭 | 개요 | 비고 |
|--------------------|---|--|
| 수원박물관 내 한국서예박물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일 : 2008년 10월 01일 • 운영주체 : 수원시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 건립예산 : 243억원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 39.885㎡, 연건축면적 7,118㎡, (한국서예박물관 면적 624㎡) •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실 : 기획전시실1(1F), 상설전시실3(2F, 박물관별) - 체험실 : 문화교육관(3F) - 자료실 : 자료실(3F) - 시사편찬위원회, 다목적실, 뮤지엄샵, 준비실, - 어린이체험관, 북카페, 인터넷센터 |  |
| 과천시 추사박물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일 : 2013년 6월 3일 • 운영주체 : 과천시청 문화체육과 • 위치 : 경기도 과천시 추사로 78 • 건립예산 : 212억(건축비는 115억) • 시설규모 : 지하 2층, 지상 2층, 부지 4,261㎡ •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실 : 상설전시관 3, 기획전시실 1 - 체험실 : 체험실 1 - 세미나실 : 강좌실, 교육실 - 뮤지엄샵, 수장고(지하 2층), 과지초당 |  |

그리고 앞 III장에서는 러시아 서예박물관과 프랑스 이응노 파리동양미술학교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들 서예 관련 기구의 경우를 참고하여 장차 설립될 서예비엔날레관의 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서예비엔날레관의 공간은 크게 ①사무공간, ②전시공간, ③수장공간, ④연구공간, ⑤융복합서예공간, ⑥교육지원공간 등 6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활용되어야 한다.

먼저 사무공간에는 행정 및 경영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사무원들의 공간이 필요하다.

둘째, 전시공간에 있어서는 서예비엔날레의 역사와 수장된 작품을 활용한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를 진행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 신진청년작가를 위한 창작전시실과 역대 서예가들의 작품을 수집 및 발굴하여 전시할 수 있는 테마 전시실이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트샵을

운영하여 서예디자인을 활용한 아트상품 전시 판매와 전문 서예용품, 그리고 전시 관련 서적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서예 전문 전시실 공간 운영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 보통 서양화 전시하는 방식의 조명과 공간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예비엔날레관의 경우 전시 공간구성에 있어서 기존 전시실의 공간조명에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특히 서예작품의 장황에 맞는 조명의 밝기와 위치가 중요하다. 옛 선비들이 쓰던 사랑방처럼 구성을 해보거나 전통서예, 현대서예에 차별을 두어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조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수장공간이다. 현재 기증된 작품들을 수장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더 많은 작품수집과 발굴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한 작품들을 가지고 아카이브 구축을 하여 사라져가는 서예 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작품을 관리해야 한다. 아카이브 구축은 단순한 기록의 의미가 아닌 좋은 작품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카이브가 구축된 수장공간은 서예의 흐름과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수장고로도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이 될 것이다. 아카이브가 구축된 수장공간은 서예비엔날레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서예문화의 본향으로서 전라북도의 위치를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 및 국제대외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연구원들의 연구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에서 소개한 국내 서울서예박물관, 수원박물관, 추사박물관 등에서 사무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예학 연구와 국제협력을 위한 연구원의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서예비엔날레관을 운영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서예학 연구 및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서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서예연구의 허브를 지향하는 연구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융복합 서예공간이다.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250석 규모의 6개 국어 동시통역, 시스템이 갖추어진 대강당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대강당의 경우 서예퍼포먼스와 공연 그리고 영상과 서예를 융복합 전시 시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최근 서예와 공연, 디지털 기술과 서예를 융합한 레이저 서예작품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서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공연과의 결합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연장의 역할에 레이저 서예를 할 수 있는 외벽이 갖추어진 공간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강당을 학술대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공연장 및 멀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서예공간은 다른 나라 서예관에는 없는 공간이며 서예비엔날레가 다른 나라의 서예관과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학술공간은 대회의실 외에 학술세미나와 융복합 서예전시를 진행할 수 있는 멀티 공간을 100석 규모의 중강당과 소규모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소회의실 공간들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융복합 서예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을 확보하여 야외 공연과 설치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역동적인 서예전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학술회의와 공연장을 겸한 대강당, 중강당, 그리고 소회의실과 야외공연장을 구성하여 학술공간과 융복합 서예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공간이다. 서예비엔날레에서는 서예진흥법 시대에 걸맞는 서예 진흥과 서예 대중화를 위하여 서예전문 인력 양성 및 서예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실기와 이론 강좌를 구성할 수 있는 소회의실 규모의 강의실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신진작가 발굴 및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청년작가를 선발해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해야 한다. 미래의 서예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서예가 발굴 및 전시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지원공간에는 서예대중화를 할 수 있는 강의실과 전문서예가 육성을 할 수 있는 신진작가 창작공간을 함께 마련해 운영시켜야 한다.

이처럼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기존 예술공간이 갖추고 있는 ①사무공간, ②전시공간, ③수장공간을 더욱 발전시키고, 특히 ④연구공간, ⑤융복합서예공간, ⑥교육지원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좀더 차별화된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다.

3.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추진위 구성방안

1) 구성방향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대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전라북도 도청 산하에 별도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2021년 가을에 당장 제13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치러야 하므로 비엔날레관 건립에 인력과 시간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목전에 닥친 제13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를 치르는 것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부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비엔날레관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이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문성과 행정력과 여론 형성 능력을 갖춘 전북도 내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일부 도외의 인사와 서예가 중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을 적극 지지 하는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차적으로 검토대상으로 삼은 인사는 아래의 검토대상 1, 2와 같으며, 이런 인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추진위원(안)을 제시한다.

■ 검토대상 1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임원 명단 (50명)

| 연번 | 구분 | 성명 | 현직 | 비고 |
|----|--------------|-------|----------------------------|----|
| 1 | 고문단 (9명) | 송 하 진 | 전라북도지사 | |
| 2 | | 송 지 용 | 전라북도의회 의장 | |
| 3 | | 유 인 택 | 예술의전당 사장 | |
| 4 | | 김 종 범 | 원로서예가 | |
| 5 | | 이 어 령 | 전 문화관광부 장관 | |
| 6 | | 정 종 섭 | 전 국회의원 | |
| 7 | | 조 종 속 | 원로서예가 | |
| 8 | | 한 승 현 | 동학혁명기념사업회장, 전 감사원장 | |
| 9 | | 홍 석 현 | 중앙홀딩스 회장 | |
| 10 | 자문위원 (9명) | 박 영 진 | 경기대학교 이사장 | |
| 11 | | 박 원 규 | 국제서예가협회 부회장 | |
| 12 | | 이 돈 흥 | 국제서예가협회 회장 | |
| 13 | | 이 용 | 국제서예가협회 부회장 | |
| 14 | | 정 도 준 |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국제서예가협회 회장(내정) | |
| 15 | | 정 태 희 | 대전대학교 명예교수 | |
| 16 | | 조 수 현 |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 |
| 17 | | 최 명 근 | 월간서예 발행인 | |
| 18 | | 최 재 연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 |

| 연번 | 구 분 | 성 명 | 현 직 | 비 고 |
|----|---------------|-------|-------------------|-------|
| 19 | 조직위원 (32명) | 이 선 흥 |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 조직위원장 |
| 20 | | 윤 점 용 | 한국서예협회 이사장 | 집행위원장 |
| 21 | | 최 은 철 | 전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위원장 | 집행위원 |
| 22 | | 노 인 환 | 세무사 | 감사 |
| 23 | | 오 명 섭 | 국제서예가협회 한국본부 부회장 | 감사 |
| 24 | | 이 정 린 |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 집행위원 |
| 25 | | 윤 여 일 |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 |
| 26 | | 김 성 관 | 도 문화예술과장 | 집행위원 |
| 27 | | 강 대 희 | 대한민국서예가협회 이사장 | |
| 28 | | 권 인 호 | 대한민국미술협회 서예분과 위원장 | |
| 29 | | 김 기 동 | 한국서도협회 전북지회장 | |
| 30 | | 김 명 숙 | 대한민국서예협회 전북지회장 | |
| 31 | | 김 배 선 | 한국서가협회 전북지회장 | |
| 32 | | 김 병 기 | 전북대학교 중문과 교수 | 집행위원 |
| 33 | | 김 영 기 | 한국서도협회 이사장 | |
| 34 | | 박 정 규 |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 |
| 35 | | 박 정 숙 | 전 갈물한글학회 회장 | |
| 36 | | 박 태 평 | 전라북도미술협회 분과위원장 | |
| 37 | | 서 홍 식 | 서도협회 전북지회장 | 집행위원 |
| 38 | | 선 기 현 | 전북예총 회장 | |
| 39 | | 송 현 수 | 대한민국서예협회 부이사장 | |
| 40 | | 송 현 숙 | 국제서예가협회 이사 | |
| 41 | | 양 상 철 | 제주도미술진흥위원장 | |
| 42 | | 여 태 명 | 원광대 서예과 교수 | 집행위원 |
| 43 | | 이 병 남 | 경남서예가협회 회장 | |
| 44 | | 이 일 구 | KBS아트비전 상임이사 | |
| 45 | | 이 일 권 | 전 한국서예협회 부이사장 | |
| 46 | | 이 종 균 | 한국서예협회 이사 | |
| 47 | | 이 종 선 | 국제서예가협회 이사 | |
| 48 | | 최 민 렬 | 경기대, 대전대 강사 | |
| 49 | | 최 재 천 | 전 국회의원 | |
| 50 | | 취 환 | 사)한국문화우호협회 회장 | |

■ 검토대상 2 - 4대 서예협회 전북지회 임원 명단 (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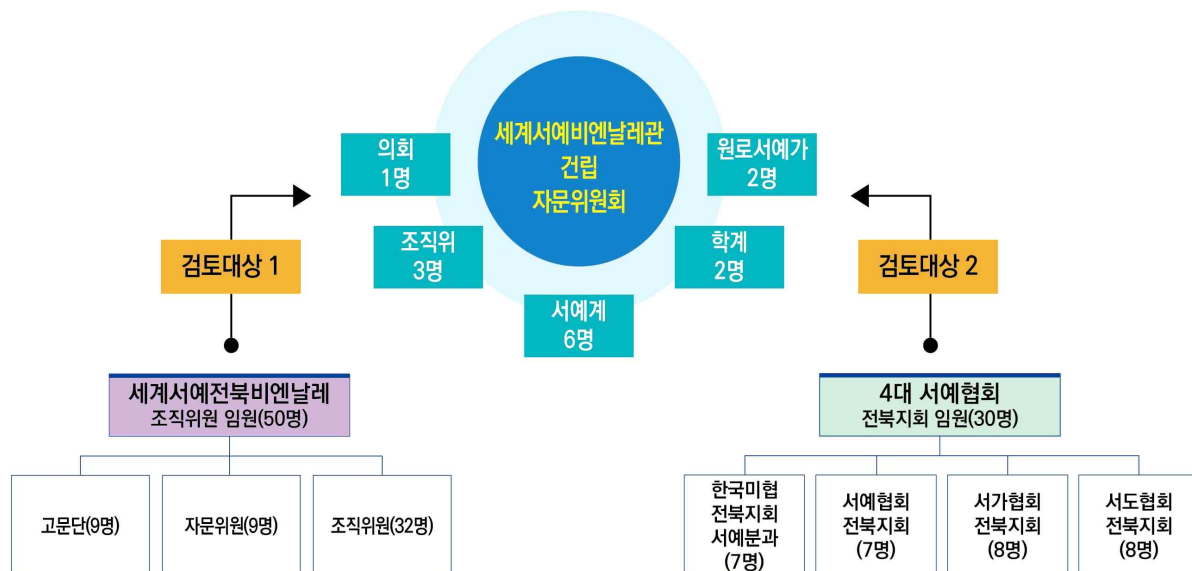
| 연번 | 구 분 | 성 명 | 현 직 | 비 고 |
|----|------------------------------|-----|--------------------------|-----|
| 1 | 한국미협 전북지회 서예분과 (7명) | 김진호 | 서예분과 위원장, 연화갤러리 대표 | |
| 2 | | 최혜순 | 서예분과 이사, 진묵회 회장 | |
| 3 | | 이현곤 | 서예분과 이사 | |
| 4 | | 이승연 | 서예분과 이사, 원광대 서예문화학과 초빙교수 | |

| 연번 | 구 분 | 성 명 | 현 직 | 비 고 |
|----|----------------------|-----|--------------------|-----|
| 5 | | 이병기 | 서예분과 이사, 이산서예원장 | |
| 6 | | 조동권 | 서예분과 이사, 창석서예학원장 | |
| 7 | | 박인숙 | 서예분과 이사 | |
| 8 | 서예협회 전북지회 (7명) | 이수정 | 전북지회장 | |
| 9 | | 조완님 | 전북부지회장 | |
| 10 | | 이수영 | 전북부지회장 | |
| 11 | | 진순화 | 군산지부장 | |
| 12 | | 소성길 | 익산지부장 | |
| 13 | | 이귀백 | 김제지부장 | |
| 14 | | 김용옥 | 남원지부장 | |
| 15 | 서가협회 전북지회 (8명) | 김배선 | 전북지회장 | |
| 16 | | 백난기 | 전북지회 수석부지회장 | |
| 17 | | 김경옥 | 전북부지회장 | |
| 18 | | 권정신 | 전북지회 이사 | |
| 19 | | 김광영 | 전북지회 고문 | |
| 20 | | 김계천 | 전북지회 고문 | |
| 21 | | 유지인 | 전북지회 고문 | |
| 22 | | 손현주 | 전북지회 자문위원 | |
| 23 | 서도협회 전북지회 (8명) | 서홍식 | 전북지회장 | |
| 24 | | 류경열 | 전북부지회장 | |
| 25 | | 김진돈 | 전북부지회장, 전주문화원 사무국장 | |
| 26 | | 박태평 | 전북부지회장 | |
| 27 | | 정의주 | 전북부지회장 | |
| 28 | | 염정숙 | 전북재무이사 | |
| 29 | | 임채순 | 전북서각이사 | |
| 30 | | 윤하용 | 전북사무국장 | |

■ 붙임 - 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자문위원회 명단(案)

| 연번 | 분 야 | 성 명 | 현 직 | 비 고 |
|----|-----|-----|----------------------------|---|
| 1 | 의 회 | 이정린 | 도 의회 문건위 위원장 조직위 집행위원 | 도의회 대표필요 |
| 2 | 조직위 | 김병기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과 교수 조직위 집행위원 | 서예진흥법 제정 활동 및 서예진흥 재단 이사 |
| 3 | | 윤점용 | 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집행위원장 |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서예총 연합회 이사, 전)서예협회 이사장 |
| 4 | | 여태명 | 원광대학교 서예과 교수 조직위 집행위원 | 조직위 집행위원이며 대중적 인지도 높음 |

| 연번 | 분 야 | 성 명 | 현 직 | 비 고 |
|----|-------|-----|-------------------------|---------------------------------------|
| 5 | 서예계 | 황보근 |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한국전각학회회장 | 서예4대협회 중 親전북인사 |
| 6 | | 박정숙 |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전)갈물회회장 | 서예4대협회 중 親전북인사 |
| 7 | | 김기동 | 한국서예협회 이사장 | 서예4대협회 중 親전북인사 |
| 8 | | 장지훈 | 한국서예협회 경기대학교 서예과 교수 | 서예4대협회 중 親전북인사 |
| 9 | | 한태상 | 한국서가협회 이사장 | 서예4대협회 중 親전북인사 |
| 10 | | 서흥식 | 한국서도협회 공동회장 | 서예4대협회 중 親전북인사 |
| 11 | 학계 | 조민환 | 성균관대학교 교수 | 전 한국서예학회회장, 전북출신, 親전북인사 |
| 12 | | 장세길 |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 서예진흥법 관련 기초조사 및 서예 진흥시책제안 학술적 지원가능 |
| 13 | 원로서예가 | 이 용 | 국제서예가협회 부회장 조직위 자문위원 | 전북 서예계 원로 |
| 14 | | 정도준 | 국제서예가협회 회장 조직위 자문위원 | 전국 서예계 원로, 親전북인사 |



① 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자문위원회(안)

2) 주요역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용과 건립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로 칭함)는 그 조직을 전라북도 도청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자문을 듣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때로는 자문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설득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자문위원회가 추진할 사업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서예계 동향파악

• 국내 서예계의 동향파악

: 국내 서예계는 서총 즉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에 소속된 4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4개 단체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국내 서예계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라북도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

예술의전당 서울 서예박물관도 그동안 한국의 서예계를 이끌어 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기구로서 서예진흥법 제정에도 포럼을 개최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예술의전당 서울 서예박물관은 전북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와 상호 협력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상호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국가사업으로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건립하는 데에 우호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경쟁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문위원회는 이 점을 잘 파악하여 전라북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문을 해야 할 것이다.

서예진흥법 제정 당시 서둘러 조직한 서예진흥위원회(서예진흥재단)는 장차 서예진흥법에 따라 국가 기구의 하나인 ‘서예진흥기구’로 조직이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 유의하여 자문위원회는 서예진흥재단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호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장차 전북이 한국 서예 진흥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해외 서예계 동향파악

: 서예의 세계 예술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서예계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전라북도에 자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예는 이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만의 문화예술이 아니므로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과 남미 여러 국가의 서예 동향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향파악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 비로소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건립할 수 있고 또 전북이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하는 데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한국의 서예계는 외적으로는 ‘서총’이라는 이름으로 1개 단체가 조직된 것으로 보이나 내적으로는 4개 단체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서예계의 호응과 동의를 어느 정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과 한국 서예의 진흥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에 용이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한국 서예계 전체의 동향을 파악함은 물론 전북이 추진하는 국비를 이용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과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하고자 하는 전북의 역할에 대해 한국의 전체 서예계가 동의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홍보하는 작업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

- 앞서 제시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필요성을 근거로 전라북도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에 자문위원회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세계서예비엔날레관 후보지 검토 및 공간 설명

2017년 전북연구원에서 발행된 〈서예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독립적 예술 장르로서 정부의 지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며 “서예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미래서예를 상징하는 공간이 필요”하므로, 서예문화공간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배경을 언급하면서, 전라북도가 이러한 검토 연구를 시행하게 된 데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제안된 내용이 전북 서예계의 오랜 과제이자, ‘한국 속의 한국 전라북도’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 자원의 발굴·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과제라는 것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언급한 전북대학교의 제안은 본 용역의 연구책임자인 전북대 김병기 교수의 제안을 말하는 것이다. 김병기 교수는 그 당시 심의위원과 자문위원을 맡아 연구원들과 소통하며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비엔날레관 후보지 검토 및 공간 설명에 관해서는 그 당시 김병기 교수의 의견이 반영된 〈서예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상의 내용⁸⁵⁾을 참고하기로 한다.

1) 비엔날레관 후보지 검토사항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의 후보지를 검토하는 데는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면적, 전시, 연구, 수장, 사무, 공연, 체험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였다.

| 구분 | 고려사항 |
|-----|--|
| 면적 |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연면적 10,000m ² 내외 기준 |
| 전시 |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기간 전시공간과 미개최연도의 기획전 전시 및 상설전시 |
| 연구 |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 기획과 서예 학술 발전을 위한 연구공간 |
| 수장 | • 12회 개최 기간 동안의 소장품 수장, 서예 기록 및 기타 유산에 대한 수장고 기능 |
| 사무 | • 행사 진행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사무공간 |
| 공연 | • 서예 공연 및 전통문화 공연 가능 공간 |
| 체험 | • 서예 체험 및 전통문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 |
| 접근성 |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객 접근성 고려 |

85) 전북연구원, 〈서예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2017. pp.101~150. 참고.


2) 비엔날레관 3개 후보지

위에서 언급한 전시관 기능, 수장고 기능,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전라북도의 의견을 참고하고 유휴부지 등을 검토하여 후보지 3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부지 내이고, 둘째, 전북도립미술관 부지 내, 셋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유희부지이다. 이 세 후보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번 후보지 |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부지 | |
|--------|---|--------------|--|
| 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88-4번지 외 1필지 | | |
| 부지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200m² | | |
| 위치도 | | | |
| 입지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는 덕진구 덕진동에 있으며 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북면 동쪽 끝 주차장 부근에 위치함 주변에 전주 실내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덕진체력공원, 전주동물원, 건지산, 전라북도어린이회관 등 문화시설과 관광시설이 분포되어 있음 | | |
| 용도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지의 용도지역 현황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 | |
| 자연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지 북동쪽으로 천마산, 남동쪽으로 건지산을 끼고 있어 고도가 높음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늑하고 정온한 지형임 | | |
| 토지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지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북면 동쪽 끝 주차장과 야외전시장 옆 언덕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임 북측 방향으로는 편백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음 | | |
| 기반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부지 내 공간 활용으로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 | |
| 접근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가 동쪽에서 지나고 동전주IC에서 약 4.8km 떨어져 있음 국도 17호선인 충항로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음 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같은 경로로 진입이 가능함 | | |

| 2번 후보지 | 전북도립미술관 부지 |
|--------|---|
| 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거리 1068-7 |
| 부지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000m² |
| 위치도 | |
| 입지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하며 후보지 기준 앞쪽으로 구이저수지와 경각산, 뒤쪽으로 모악산이 위치해 있음 전북도립미술관 이용객, 모악산 관광객의 자연스러운 유도가 가능함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길이 다소 좁고, 구불구불하여 접근성이 떨어짐 |
| 용도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지의 용도지역 현황은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임 |
| 자연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임 주변에 모악산, 경각산과 구이저수지 등 양호한 자연경관이 분포하고 있음 |
| 토지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 부지 내에는 전시실, 수장고, 강의실, 어린이 실습실, 강당, 아트샵, 카페테리아, 자료 열람실, 야외공연장이 갖추어져 있음 전북도립미술관과 연계하여 서예비엔날레 전시공간 확보 가능함 서예 전문공간으로서 정체성 확보 가능함 시설건립에 대한 부지확보 여부 미흡함 |
| 기반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운영 중인 시설로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
| 접근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에서의 접근은 호남고속도로에서 서전주 IC를 빠져나와 순창 남원방면으로 국도 1호선을 지나고 순창방면으로 국도 27번을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또 다른 경로로는 호남고속도로에서 전주IC를 빠져나와 호남제일문을 지난 뒤, 팔달로를 지나 백제로를 타고 국도 27번을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

| 3번 후보지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유휴부지 |
|--------|---|
| 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63-2, 63-30 |
| 부지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00m² |
| 위치도 |  |
| 입지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위치하며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음 북쪽으로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음 주변에 천마산과 오송지가 있어 자연경관이 풍부하며 전주동물원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근 접거리에 위치함 진입도로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폭원이 좁아 접근성이 떨어짐 |
| 용도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지의 용도지역 현황은 도시지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임 |
| 자연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지는 부지가 사용되지 않고 녹지로 되어있으며 평탄하지 않고 경사가 있음 주변에 천마산, 건지산 등 산지와 오송지 등 풍부한 자연경관이 분포하고 있음 건립 시 자연 친화적인 야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
| 토지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지는 현재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는 발이나 평탄한 지형인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대부분은 녹지지역으로 산으로 되어있으며 아파트 밀집 지역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좁아 인구 유동이 적은 편임 |
| 기반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기반시설이 없음 |
| 접근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에서 접근 시 순천-완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동전주IC를 빠져나와 국도 26호선을 타고 진입 가능함 순천-완주 고속도로에서 상관IC로 빠져나올 시 국도 17호선을 타고 가다 차량등록사업소 앞 교차로에서 동부대로 방면으로 국도 26호선을 경유하여 진입이 가능함 호남고속도로를 이용 시 전주IC를 빠져나와 국도 26호선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

3) 비엔날레관 가능 사업부지

위의 세 후보지 중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부지가 기존 전시관과 연계함으로써 전시공간이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부지 내 공간 활용으로 토입매입비를 줄일 수 있으며, 접근체계도 용이하다. 따라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부지가 다른 후보지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 대상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④ <후보지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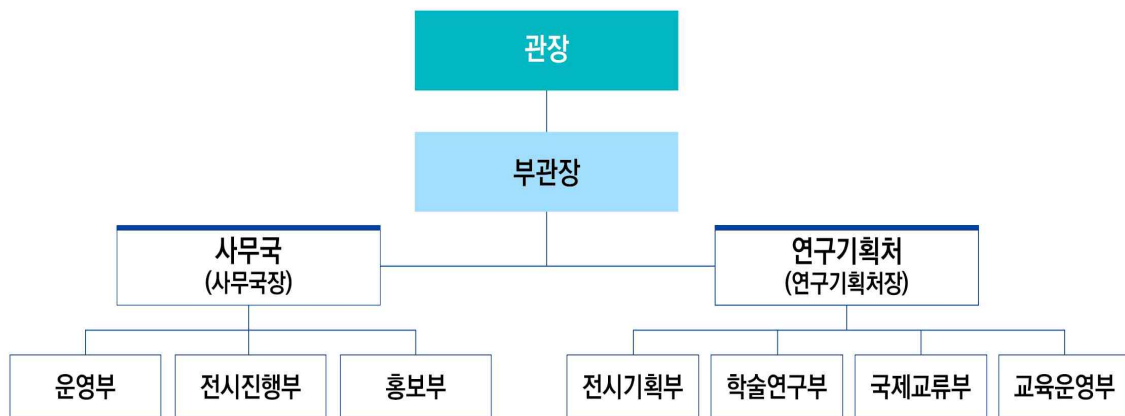
| 구분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부지 | 전북도립미술관 부지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유희부지 |
|-----------|---|---|--|
| 면적 | 110,291㎡ | 20,982.60㎡ | 6,437㎡ |
| 경사도 | 약 7° | 약 13° | 약 15° |
| 주변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연계하여 전시공간의 확보가 가능함 주변에 전주동물원, 덕진체련공원,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등 시설과 관광 및 이용연계 가능 자원이 풍부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도립미술관 주변에 모악산과 구이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악산, 구이저수지 이용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밀집 지역이 위치하여 건립 시 일상 관람객 확보 가능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 자연적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마산, 건지산, 오송지 등 양호한 자연경관이 분포함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야외 공연장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되어있어 시설 건립 시 연계하여 건립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쪽으로 구이저수지, 뒤쪽으로 구이저수지가 있어 녹지경관이 풍부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으로 오송지, 천마산, 건지산 등 주변 자연환경이 풍부함 주변 환경을 활용한 야외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 |
| 물리적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에 위치하여 도로망이 잘 갖춰짐 도보 이용 진입로, 산책로가 있어 관광객 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음 자가용을 타고 진입 시 시설 내 주차장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차장 사용이 가능함 부지 내 공간 활용으로 토지매입비가 절감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위요된 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음 전북도립미술관 부지에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추가적 기반시설 비용이 들지 않음 부지확보 미흡 대상지 선정 시 전북도립미술관 내 시설사용 가능함 부지 내 공간 활용으로 토지 매입비가 절감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도로가 좁고 접근체계가 용이하지 않음 대부분 녹지지역이므로 건립 시 많은 산을 깎아내야 함 연계 가능한 자원이 없고 부지 내 건립 시 상징성이 결여될 수 있음 |
| 장내 확장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립 가능한 부지면적이 정해져 있어 확장 가능한 부지 가능성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도립미술관과 연계, 비엔날레 전시공간 확보 가능함 확장가능한 부지가 미흡, 장내확장 가능성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마지구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장내 확장 가능성 미흡 |
| 소유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구분 : 시, 도유지 소유권변동일자 : 1997-08-27 소유권변동원인 : 소유권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구분 : 시, 도유지 소유권변동일자 : 2001-03-12 소유권변동원인 : 소유권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구분 : 시, 도유지 소유권변동일자 : 2009-12-03 소유권변동원인 : 소유권이전 |
| 결정 | ● (양호) | ○ (보통) | △ (부적합) |

5.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후 운영계획 및 자립방안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설립된다면, 초기의 건립과정도 중요하지만 건립된 후의 운영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되었다면 그 국가 지원에 걸맞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인력과 관리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것이고, 행사도 다채롭고 풍부하면서도 창의적이고 규모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비를 지원받는다고는 하나 비엔날레관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운영계획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후의 운영총괄, 행사총괄, 연구, 전시, 공연, 체험 계획은 아래와 같이 기구표에 따른 업무 분장을 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①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기구표(안)

서예비엔날레관은 크게 사무국과 연구기획처로 나누어 운영한다. 먼저 사무국은 운영부와 행사진행부, 홍보부로 부서를 나누어 사업을 수행한다.

- 운영부에서는 비엔날레관 운영을 총괄한다. 운영인력을 구성하여 인사를 담당한다. 예산과 결산의 편성 및 집행을 담당하고 운영에 필요한 회계 관리 분야 업무를 총괄한다.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비엔날레관의 재산 상황 감사 및 운영 전반의 운영 업무 감사 등의 위원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타 기관과의 업무 협약 체결 업무와 민간 전문가와의 소통을 진행한다. 서예비엔날레관 입장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 행사진행부에서는 행사총괄의 업무를 담당한다. 서예비엔날레 개최연도에는 행사 운영에 따른 행사 준비를 진행하며, 자원봉사 및 운영 요원 모집과 전시행사 보조 인력을 관리한다. 전시 작품 표구, 운송, 전시장 작품설치를 담당하여 전시행사 진행을 담당한다. 서예비엔날레 미개최연도에는 순회 전시 및 기획전시 작품설치 및 운송을 담당한다. 개막식 행사 및 전시작품 운송 설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홍보부에서는 비엔날레관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언택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로 활성화시키고 홍보한다. 디지털 서예 시대를 대비한 홍보영상 및 홍보 인쇄물 제작업무를 담당한다. 국내 및 외국 정부 기관에 홍보마케팅에 관한 기획을 수립하여 진행시킨다. 그리고 아트샵을 운영업무를 담당하여 서예디자인을 활용한 아트상품 전시 판매를 통한 홍보업무도 담당한다.

다음으로 연구기획처에 관한 내용이다. 연구기획처는 전시기획부, 학술연구부, 국제교류부, 교육운영부로 나누어 사업운영을 진행한다.

- 전시기획부에서는 서예비엔날레 개최연도와 미개최연도에 진행되는 전시기획 및 운영지원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서예비엔날레 종합계획 수립과 참여작가 및 작품 확보에 대한 전략구상과 진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상시 전시와 기획전시에 관련된 주제선정과 기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품수집과 참여작가 섭외도 진행하여 전시기획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게 된다. 한국서예 세계화를 위해 서예와 공연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참여작가 및 작품 풀을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공연과 서예의 접목은 새로운 서예 분야의 개척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작가 발굴 및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 학술연구부에서는 연구 분야를 담당한다. 연구인력풀을 구성하여 상시 연구진 선발 및 운영하여 수예학 관련 이론·실기·예술·미학·철학·교육 등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외 석학들을 초빙연구원으로 초청하여 한국서예학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논문공모와 국내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연구자료를 발간하고, 서예 관련 전문저서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전문서적 간행을 기획 진행한다.
- 국제교류부에서는 국제업무를 담당한다. 외국작가 섭외 및 작품수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행정업무 지원과, 국제행사를 위한 번역 및 통역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레지던시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기획 준비한다.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관리 및 해외매체 홍보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국제교류부에서는 국제행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세심하게 준비하여 서예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
- 교육운영부에서는 서예 대중화를 위한 교양강좌 운영과 상시 체험행사와 기획 체험행사를 기

확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의 기획과 강사 섭외 및 수강생 모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서예 대중화에 기여한다. 상시 서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운영 및 기획과 기획전시에 따른 체험행사를 기획하여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생활 서예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아래의 표는 각 부서의 세부업무를 정리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 부서 | | 내용 | 세부업무 |
|-------|-------|------|--|
| 사무국 | 운영부 | 운영총괄 | 1. 운영인력 구성 2. 예산·결산 편성 및 집행 3. 회계 관리 4.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5. 업무 협약 및 체결 · 민간 전문가와 소통 6. 입장권 정책 수립 |
| | 행사진행부 | 행사총괄 | 1. 행사 운영(비엔날레 개최년도) · 비엔날레관 전반적(1년) 행사 준비 · 자원봉사, 운영 요원 모집 · 전시작품 표구, 운송, 전시장 작품설치 2. 행사 운영(비엔날레 미개최년도) · 기획전시작품 표구, 운송, 전시장 작품설치 |
| | 홍보부 | 홍보 | 1. 홈페이지 관리 2. 비엔날레관 홍보 · 디지털 영상홍보물 개발 및 홍보 인쇄물 제작 · 국내 및 외국 정부,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3. 아트샵 운영 |
| 연구기획처 | 전시기획부 | 전시기획 | 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관련 종합계획 수립 2. 상시 전시 · 상시 전시 종합계획 수립 · 참여작가, 작품 풀 확보 · 전시작품 수집 및 표구, 운송 3. 기획전시 · 기획전시 종합계획 수립 · 참여작가, 작품 풀 확보 · 전시작품 수집 및 표구, 운송 4. 공연 기획 · 공연 종합계획 수립 · 참여작가, 작품 풀 확보 · 공연 준비 5. 공연 공모 · 공연 공모 계획 수립 |
| | 학술연구부 | 연구 | 1. 연구인력 풀 · 상시 연구진 구성 · 초청 연구진 구성 2. 연구자료 발간 · 연구자료 수집 · 연구자료(학술지) 발간 3. 서예 관련 전문서적 발간 |

| 부서 | | 내용 | 세부업무 |
|----|-------|---------|--|
| | 국제교류부 | 국제활동 | 1. 외국 작가 및 작품 섭외 2. 국제교류 전시기획 3. 국제행사 · 국제레지던시 · 국제학술대회 개최 |
| | 교육운영부 | 교육 및 체험 | 1. 교양강좌 운영 · 이론 및 실기 서예교양강좌 기획 · 서예실기 전문강사 풀 확보 · 수강생 모집 및 운영 2. 체험행사 · 상시 체험행사 기획 · 특별전 및 기획전시에 맞는 체험행사 준비 및 진행 |

2) 자립방안

비엔날레관 자체적인 자립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관광객 확보를 통한 수입 창출, 둘째 소장작품 판매를 통한 기금 마련, 셋째 유튜브 제작을 통한 수입 창출, 넷째 기타 자립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방문객들이 행사 관련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은, 조사에 의하면 2015년에는 응답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4,087원, 총 지출액은 4,696,950원이다. 총 35,339,950원을 소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관람객의 총 지출액을 근거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면, 부문별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파급 효과 약 107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약 209명, 부가가치파급 효과는 약 58억 원, 소득파급 효과는 약 25억 원, 수입파급 효과는 약 6억7천만 원, 조세파급 효과는 약 5억6천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11회차인 2017년에는 1인당 평균 지출액은 60,113원으로 이전 행사의 평균 지출액인 45,308원보다 14,805원 상승했다. 2017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관람객의 총 지출액을 근거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면, 부문별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파급 효과 약 163억 원, 고용 창출효과는 약 317명, 부가가치파급 효과는 약 88억 원, 소득파급 효과는 약 39억 원, 수입파급 효과는 약 10억 원, 조세파급 효과는 약 8억6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12회차인 2019년에는 1인당 평균 지출액은 50,717원으로 이전 행사의 평균 지출액인 60,113원보다 상승하지 못했다. 2019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관람객의 총 지출액을 근거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면, 부문별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파급 효과 약 125억 원, 고용 창출효과는 약

244명,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약 68억 원, 소득파급 효과는 약 30억 원, 수입파급 효과는 약 8억 원, 조세파급 효과는 약 6억 6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전시 관람객 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관람객 자료에 의하면 대략 2015년에는 14만 3천 명, 2017년에는 15만 명, 2019년에는 16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로 인한 서예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서예라는 콘텐츠가 강화된다면 전라북도 홍보 제고와 더욱 많은 다른 지역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바탕에 비엔날레관 내 서예공연(서예+판소리+힙합+비보이)의 상설화로 전주 한옥마을 등 방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관광객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둘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를 통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기증된 소장품은 1,619점이다. 이 작품 중 40점은 전북도립미술관으로 관리 전환되었고, 727점이 전북도립미술관 수장고에 임대 보관 중이다. 나머지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사무실에 임시보관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전라북도가 가지는 큰 자산임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인 손실이다.

이렇게 기증받은 중국, 일본, 서양권 작가들의 작품 가치를 분석하고 경매시장에서의 경매 경향 분석하여 작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이는 비엔날레관 운영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작품을 외부로 제시함으로써 관람의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된다.

다만, 소장작품 중에서 일부를 기증 작가의 동의를 얻어 경매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수익 창출과 홍보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작가의 동의와 작품 '보존'의 주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12회 행사를 지속해오는 동안 개막공연 동영상이나 전시작품 해설 동영상 등 서예 관련 영상을 제작해 왔다. 이러한 영상을 보다 전문적이고 대중적으로 각색하여 유튜브에 올린다면 많은 서예인의 애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추가로 세계 각국 서예가들의 서예 노하우와 서예 기법 등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면 자체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타 서예를 필수과목 지정한 중국 초, 중, 고등학교 서예 수행평가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다든지, 국내 초중고생이나 대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외적으로는 자매도시나 우호 교류 도시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내적으로는 다수의 여행사와 연계 및 미술관 박물관 등을 방문하거나 홍보자료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VIII.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5년 11월 16일 설립된 유엔전문기구로서, 설립 이래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규범의 제정자, 지식과 정보의 보급자, 국제협력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14일에 유네스코 가입하여 1963년 4월 27일에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등의 기구에 진출하였다.⁸⁶⁾

유네스코는 등재-보호하려는 세계적인 유산을 크게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 가지로 나눈다. 세계유산은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말하고, 세계기록유산은 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기록물 유산을 말하며, 인류무형문화유산은 가치 있고 독창적인 구전 및 무형유산을 말한다.

우리 한국의 서예를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한다면, 한글궁체는 세계기록유산으로, 한글서예는 인류무형문화유산 요건에 맞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서예가 과연 유네스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등재는 가능한가.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글서예의 세계적 확산을 위하여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1. 세계기록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 및 절차⁸⁷⁾

1)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 및 절차

세계기록유산은 인류의 기록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것이다.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이다. 단독 기록일 수 있으며 기록의 모임(Archival fonds)일 수도 있다. UNESCO는 1995년에 인류의

86) 외교부, 유네스코외교 http://www.mofa.go.kr/www/wpge/m_22760/contents.do

87) 유네스코와 유산(UNESCO&HERITAGES) <https://heritage.unesco.or.kr> 참고.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하였다.

| 구분 | 세계기록유산 | |
|-------|---|---|
| 등재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기록유산은 영향력, 시간, 장소, 인물, 주제, 형태, 사회적 가치, 보존 상태, 희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기록유산은 일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이바지한 경우 선정된다. 또는 전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 및 인물들의 삶과 업적에 관련된 기록유산도 있다. 형태에 있어서 향후 기록문화의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예를 들면 야자수 나뭇잎 원고와 금박으로 기록된 원고, 근대 미디어 등과 같은 매체로 된 기록유산도 있을 수 있다. | |
| 주요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유산의 본질 및 기원(유래)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일 것 독창적(Unique)이고 비(非) 대체적(Irreplaceable)인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경우. 해당 유산이 소멸되거나 유산의 품질이 하락한다면 인류 유산의 발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리라 판단되는 경우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즉, 한 지역이 아닌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그리고 아래의 5가지 요소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이상으로 그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Time) : 국제적인 일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경우 장소(Place) :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와 지역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사람(People) :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에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대상/주제(Subject/Theme) :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 뛰어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보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귀성(Rarity) :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원 상태로의 보존(Integrity) : 온전한 하나의 전체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 위협(Threat) : 해당 유산이 각종 위험 요소에서 안전한가 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 조치가 적절한지의 여부 관리 계획(Management Plan) : 해당 유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의 존재 여부 | |
| 등재절차 | 1. 신청서 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된 신청서는 사무국에서 접수 및 보관한다. 사무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서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서들을 함께 접수한다. 근거자료가 미비한 신청서의 경우, 사무국은 작성자에게 누락된 정보를 즉각 요청한다. 신청서 접수 기한이 지나도록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

| 구분 | 세계기록유산 |
|----------------|--|
| 2.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국이 신청서의 접수를 완료한 후 신청서는 등재 소위원회의 의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된다. 신청서를 전달받은 등재 소위원회 의장은 각각의 신청서를 더욱 세세히 검토할 전문가를 선정하고 전문가 목록을 사무국에 보고한다. 사무국은 선정된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관련된 기타 문서들을 전문가에게 전달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평가는 등재 소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맞추어 결정되며 위원들의 온라인 논의를 거칠 수도 있다. |
| 3.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가 평가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시 등재 후보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 또한, 기술적, 법적 또는 관리 차원에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이 또한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사무국은 제출된 모든 평가서를 회의 개최 한 달 전에 등재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람한다 |
| 4. 권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재 소위원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비정부기관들이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권고를 제출한다. 이렇게 작성된 권고안은 각각의 권고 제안자에게 전달되어 내용 보충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지역 소위원회 위원들이 권고안을 공람하고 회의를 통해 최종 권고를 작성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 |
| 5.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재 소위원회 의장과 서기는 회의 결과보고서와 최종 권고를 작성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대한 승인 및 거부 판정에 대한 근거가 포함된다. 이 문서는 격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한 달 전에 국제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되며, 위원들은 필요 시 등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어떤 신청서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 6. 등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자문위원회는 등재 소위원회가 작성한 최종 권고를 회의에서 검토한다. 각각의 권고 사항에 관해 토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한다. 사무국은 등재 여부를 각 신청서 작성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등재 목록을 발표한다. |
| 7. 목록에서의 삭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기록유산목록에 등재되었더라도 퇴화하거나 보존 상태가 위험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목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사무국에 문서로 보고되어야 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등재 소위원회에 요청한다. 만약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자 또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의견을 요청하고, 이 의견에 따라 삭제, 보류, 또는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자문위원회가 삭제를 결정한 경우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
| 등재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존관리에 대한 유네스코의 보조금 및 기술적 지원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세계기록유산 로고 사용 및 유네스코를 통한 지속적 홍보 가능 CD-ROM, 디지털 테이프와 오디오 CD 같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세계기록유산을 가능한 많은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음 |

2)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 및 절차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문화 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네스코(UNESCO,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지정하는 것이다. 1997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으로 선정하여 보호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01년 5월부터 등재 사업이 시작되었다. 선정 대상은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으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문화사회의 전통에 근거한 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언어·문학·음악·춤·놀이·신화·의식·습관·공예·건축 및 기타 예술 형태를 포함한다.

무형문화협약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특성은 아래와 같다.

| | |
|---------------------------|--|
|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2조 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집단과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 공간 |
|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협약 제2조 2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용 및 연극 등)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기술 |
|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협약 제2조 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와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공동체와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 |

2008년 6월에는 제2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종전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세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제도로 전환하였다. 이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긴급보호목록 | 대표목록 |
|-------|--|--|
| 등재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 2 관련 공동체나 집단, 개인 또는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준 3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없으면 곧 소멸될 정도로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 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치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기준 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

| 구분 | | 긴급보호목록 | | 대표목록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이 계속 실연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 5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 6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 | | 가 마련되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 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 | |
| 등재 절차 | 준비 및 제출 | 준비년도(신청 전년도) 3월31일까지 | 제출 준비를 위한 국제원조 신청 | 1차년도 3월 31일까지 | 신청서 사무국 제출 마감,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 해에 심사 |
| | | 1차년도 3월 31일까지 | 신청서 사무국 제출 마감,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해에 심사 | | |
| | | 1차년도 6월 30일까지 | 신청서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 공지 | 1차년도 6월 30일까지 | 신청서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 공지 |
| | | 1차년도 9월 30일까지 | 당사국의 신청서 보완 마감 | 1차년도 9월 30일까지 | 당사국의 신청서 보완 마감 |
| | 심사 | 1차년도 12월 ~ 2차년도 5월 |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대표목록 심사보조기구에서 심사 | 1차년도 12월 ~ 2차년도 5월 | 심사 |
| | | 2차년도 4월 ~ 6월 | 최종 심사 회의 | 2차년도 4월 ~ 6월 | 최종 심사 회의 |
| | | 매년 국가간위원회 몇주 전 |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온라인 게시 | 매년 국가간위원회 몇주 전 |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온라인 게시 |
| | 결정 | 2차년도 11월 |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심사 및 등재 여부 결정 | 2차년도 11월 |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심사 및 등재 여부 결정 |
| 등재 효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에 등재되면 무형유산협약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금 및 관련 전문 기구를 통해 유산 보호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지명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고용기회, 수입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에 등재되면 국제적으로 해당 유산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관련 공동체의 자긍심이 고취됨으로써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 | |

* 참고로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인 세계유산 14건, 세계기록유산 16건, 인류무형문화유산 21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네스코 유산 | 연번 | 종목 | 등재년도 |
|-------------------|----|--------------------------|------|
| 세계유산 (14건) | 1 | 해인사 장경판전 | 1995 |
| | 2 | 종묘 | 1995 |
| | 3 | 석굴암·불국사 | 1995 |
| | 4 | 창덕궁 | 1997 |
| | 5 | 수원화성 | 1997 |
| | 6 |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 2000 |
| | 7 | 경주역사유적지구 | 2000 |
| | 8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 2007 |
| | 9 | 조선왕릉 | 2009 |
| | 10 |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 2010 |
| | 11 | 남한산성 | 2014 |
| | 12 | 백제역사유적지구 | 2015 |
| | 13 | 산사(山寺), 한국의 산지승원 | 2018 |
| | 14 | 한국의 서원 | 2019 |
| 세계기록유산 (16건) | 1 | 훈민정음(해례본) | 1997 |
| | 2 | 조선왕조실록 | 1997 |
| | 3 | 직지심체요절 | 2001 |
| | 4 | 승정원 일기 | 2001 |
| | 5 |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 2007 |
| | 6 | 조선왕조 의궤 | 2007 |
| | 7 | 동의보감 | 2009 |
| | 8 | 일성록 | 2011 |
| | 9 |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 2011 |
| | 10 | 난중일기 | 2013 |
| | 11 | 새마을운동 기록물 | 2013 |
| | 12 | KBS특별생방송“이산가족을 찾습니다.”기록물 | 2015 |
| | 13 | 한국의 유교책판 | 2015 |
| | 14 |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 2017 |
| | 15 |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 2017 |
| | 16 | 조선통신사기록물 | 2017 |
| 인류무형문화유산 (21건) | 1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 2001 |
| | 2 | 판소리 | 2003 |
| | 3 | 강릉단오제 | 2005 |
| | 4 | 강강술래 | 2009 |
| | 5 | 남사당 놀이 | 2009 |
| | 6 | 영산재 | 2009 |
| | 7 |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 2009 |
| | 8 | 처용무 | 2009 |
| | 9 | 가곡 | 2010 |
| | 10 | 대목장 | 2010 |
| | 11 | 매사냥 | 2010 |
| | 12 | 줄타기 | 2011 |
| | 13 | 택견 | 2011 |
| | 14 | 한산 모시짜기 | 2011 |
| | 15 | 아리랑 | 2012 |
| | 16 | 김장문화 | 2013 |
| | 17 | 농악 | 2014 |
| | 18 | 줄다리기 | 2015 |
| | 19 | 제주 해녀문화 | 2016 |
| | 20 |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 | 2018 |
| | 21 | 연등회, 한국의 등불 축제 | 2020 |

2.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가능성과 추진방향

2016년, 경인교대 박병천 명예교수는 우리 고전궁체의 세계기록유산과 한글서예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한글서예 세계기록 및 인류유산 등재 추진운동 제안서>⁸⁸⁾를 내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한글궁체와 한글서예는 유네스코가 제정한 주요 등재 기준에 적합하기에, 등재 신청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서예계는 ‘한글궁체’와 ‘한국의 서예’를 세계기록-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기획하는 등 등재 추진 활동에 착수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기록유산 등재 분야: 조선시대 궁중에서 필사한 다량의 한글 궁체 고전기록물(소설본, 궁체류 필사본)을 조사·발굴하여 기록유산 등재에 필요한 자료로 확보한다. 한자와 일본 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중국과 일본 세계기록유산의 현황과 구비조건을 분석한다.
- 인류무형문화유산 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한글서예 창작 작품, 서예 교육, 실용서예 분야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객관성 있는 한글서예 조형미를 연구하여 정리한 자료를 확보한다. 한자와 몽골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중국과 몽골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현황과 구비조건을 분석한다.
- 추진 준비조직 구성: 한글서예의 기록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위하여 학계와 서예계의 관심과 능력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는 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이 제안서는 우리 한글의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주장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이 제안서에 제시된 가능성을 바탕으로 여러 관점에서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가능성과 추진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글궁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

박병천 교수의 위 제안서에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한글궁체는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필요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88) 박병천, <한글서예 세계기록 및 인류유산 등재 추진운동 제안서>, 월간서예, 2016년 1월호 pp.58~61, 2월호 pp.62~65.


|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주요기준 | 한글공체의 조건 |
|--|---|
| 1.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유산의 본질 및 기원(유래)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일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공체의 본질 및 기원(유래)을 증명할 수 있음 |
| 2. 독창적(Unique)이고 비(非) 대체적(Irreplaceable)인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경우. 해당 유산이 소멸되거나 유산의 품질이 하락한다면 인류 유산의 발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리라 판단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공체는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독창적이고 비 대체적 유산임 |
| 3.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즉, 한 지역이 아닌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그리고 아래의 5가지 요소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이상으로 그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Time) : 국제적인 일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경우 • 장소(Place) :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와 지역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 사람(People) :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에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 대상/주제(Subject/Theme) :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 뛰어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Time) : 한글공체는 조선시대 중기 17세기~19세기에 쓰여짐 • 장소(Place) : 궁중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쓰여짐 • 사람(People) : 궁중의 왕비나 서사상궁이 썼음 • 대상/주제(Subject/Theme) : 한글 정자체와 흘림체로 소설이나 편지글을 썼음 •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 소설 내용을 세로 방향으로 정연하게 썼음. |
| 4. 보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성(Rarity) :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 원 상태로의 보존(Integrity) : 온전한 하나의 전체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 • 위협(Threat) : 해당 유산이 각종 위험 요소에서 안전한가 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 조치가 적절한지의 여부 • 관리 계획(Management Plan) : 해당 유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의 존재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공체는 희귀본으로 지정되어 한국의 장서각, 규장각, 국립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음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글공체는 진정성과 독창성, 세계적 관점에서의 중요성과 보조 요건 등에서 그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글공체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있어 어떤 제약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한 경험이 있다. 1997년에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2001년에는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일기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였다. 이는 우리의 역사적 기록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쾌거였다.

특히 훈민정음은 한글이라는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를 인정받은 것이다.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자기 나라의 문자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한글처럼 일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이 독창적으로 새 문자를 만들고 그것을 한 국가의 공용문자로 사용하게 한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그 문자의 창제 원리를 해석하여 책으로 출판한 일은 유례가 없었던 역사적인 일이었다.

유네스코 홈페이지에는 우리 훈민정음(Hunminjeongum Manuscript)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

| Hunminjeongum Manuscript ⁸⁹⁾ 홈페이지 원문 | 훈민정음(해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Hunminjeongum Manuscript Documentary heritage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 and recommended for inclusion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1997.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unminjeongeum Haerye The manuscript published in the ninth lunar month of 1446, contains the promulgation by Sejong the Great, the fourth king of the Choson Dynasty (reigned 1418-1450), of the Korean alphabet of the same name, now called han-gul, the development of which he completed in 1443. It also contains the Haerye, or Commentaries, later explanations and examples by scholars of the Hall of Worthies, including Chong In-Ji's So, or Postface. This edition is therefore often referred to as the Haerye Edition of Hunminjeongum or Hunmin Chongun. It is kept by the Kansong Art Museum. Year of submission: 1997 Year of inscription: 1997 Country: Republic of Kore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민정음 원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기록유산이며 1997년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 대한민국 문화재청 훈민정음해례 1446년 음력 9월에 출판된 원고는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이 1443년에 완성한 한글이라는 동명의 한글을 공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예의(例義)〉 및 〈해례(解例)〉 그리고 정인지가 쓴 〈서(序)〉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판은 종종 훈민정음이나 훈민정음의 해례판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제출년수: 1997 비문의 해: 1997 나라: 대한민국 |
| | <p>유네스코 훈민정음 이미지</p>  |

89)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memory-of-the-world/register/full-list-of-registered-heritage/registered-heritage-page-8/the-hunmin-chongum-manuscript/>

훈민정음은 해례(解例)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세종이 창제한 글자인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운용법 등을 설명한 한문 해설서이다. 집필자들은 정인지·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최항(崔恒)·박팽년(樸彭年)·강희안(薑希顔)·이개(李塏)·이선로(李善老) 등 집현전의 8학자이다.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훈민정음은 큰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시카고 대학 언어학과 교수였던 제임스 맥콜리가 1966년 언어학회지 「랭귀지」에서 ‘한글은 혀·성대 등 목소리를 내는 데 관여하는 발음기관을 정밀 분석해 만들어진 알파벳이어서 소리의 음성적 특징을 시각화하는데 뛰어나다.’라고 밝히면서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 1985년 영국 리스 대학의 제프리 샘슨 교수는 「문자 체계(Writing Systems)」라는 책에서 한글을 ‘자질 체계(Feature System)’라는 세계 문자사에서 유례가 없는 독립된 문자로 구분하기에 이르렀다. 샘슨 교수는 “한글은 의문의 여지 없이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지적 산물 중의 하나임이 틀림없다.”라는 말로 극찬하기도 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수 베르너 사세는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라고 하였으며, 작가 펄버는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계인의 인정을 받은 훈민정음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다. 앞서 유네스코는 1989년 세종대왕(1397~1450) 탄신일인 5월 15일을 세계문맹퇴치일로 정하고, 문맹을 없애는 데 힘쓴 인물과 단체에 주는 상의 이름도 ‘세종대왕 문해(文解)상’이라고 붙이기도 하였다. 유네스코에서 세계 2,900여 종의 언어 중에 한글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과학성, 합리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세계의 문자들에 순위를 매겼을 때 한글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글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⁹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글궁체는 이미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글을 예술적으로 정신적으로 승화시킨 결정체이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주요기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이를 유네스코 등재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한글서예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한글서예는 한글로 쓰여진 서예 예술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한글궁체가 한글이라는 문자의 예술적 승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한글서예’는 이 문자로 쓰여진 ‘서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서예라는 예술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요건에 부합한다면 우리의 한글서예도 그 가능성

9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유네스코 최고의 평가를 받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훈민정음〉, 2016, 《地方行政》, 2016. p.69.

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서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2009년 중국은 ‘중국서예 (Chinese calligraphy)’를, 2013년 몽골은 ‘몽골서예(Mongolian calligraphy)’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이에 관하여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Chinese calligraphy ⁹¹⁾ 홈페이지 원문 | 중국서예(해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inese calligraphy China <p>Inscribed in 2009 (4.COM)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p> <p>Chinese calligraphy has always been more than simply a tool for communication, incorporating as it does the element of artistry for which the practice is still valued in an age of ballpoint pens and computers. Indeed, calligraphy is no longer the basic tool of intellectuals and officials but has become the preserve of professional artisans and amateur enthusiasts. Whether they are recording information or simply creating beautiful forms, calligraphers' brushes are used to ink five different styles of script, known as 'seal', 'official', 'cursive', 'running' and 'regular'. The art may appear on any writing surface – even the rocky walls of cliffs – but it is especially common on letters, scrolls, works of literature and fan coverings. Today, in addition to traditional master-apprentice instruction, calligraphy is also taught at school. Many ceremonies that mark national celebrations and religious rituals incorporate the practice and calligraphy has itself proved influential on modern art, architecture and design. In its distinctive Chinese form, calligraphy offers an important channel for the apprecia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r arts education. It is also a source of pride and pleasure for the Chinese people and embodies important aspects of the country's intellectual and artistic heritage.</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서예 중국 <p>2009년에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기록됨</p> <p>중국서예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 이상의 예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볼펜이나 컴퓨터 시대인 지금에도 여전히 예술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실 서예는 이제 더 이상 지식인들이나 관료들이 사용하는 기록 수단이 아니다. 그런데도 서예는 전문 문가들뿐 아니라 아마추어 애호가들에 의해서도 보전되고 있는 전통이다. 서예가의 붓은 정보를 기록 하든 단순히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내든 '전서', '예서', '행서', '초서', '해서'로 알려진 다섯 가지 다른 자체를 먹으로 쓴다. 이 예술은 편지, 두루마리, 문학작품, 부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절벽의 바위 절벽에도 쓰여져 있다. 특히 오늘날 서예는 도제식 교육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르친다. 서예는 국가적 경축 행사와 종교행사에 사용됐는데, 그 자체로 현대미술이나 건축, 디자인에도 영향을 끼쳤다. 서예는 중국식의 독특한 형태에서 전통문화를 감상하고 예술 교육을 위한 중요한 통로를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중국인들에게 자부심과 즐거움의 원천이며 중국의 지적, 예술적 유산의 중요한 측면을 상징한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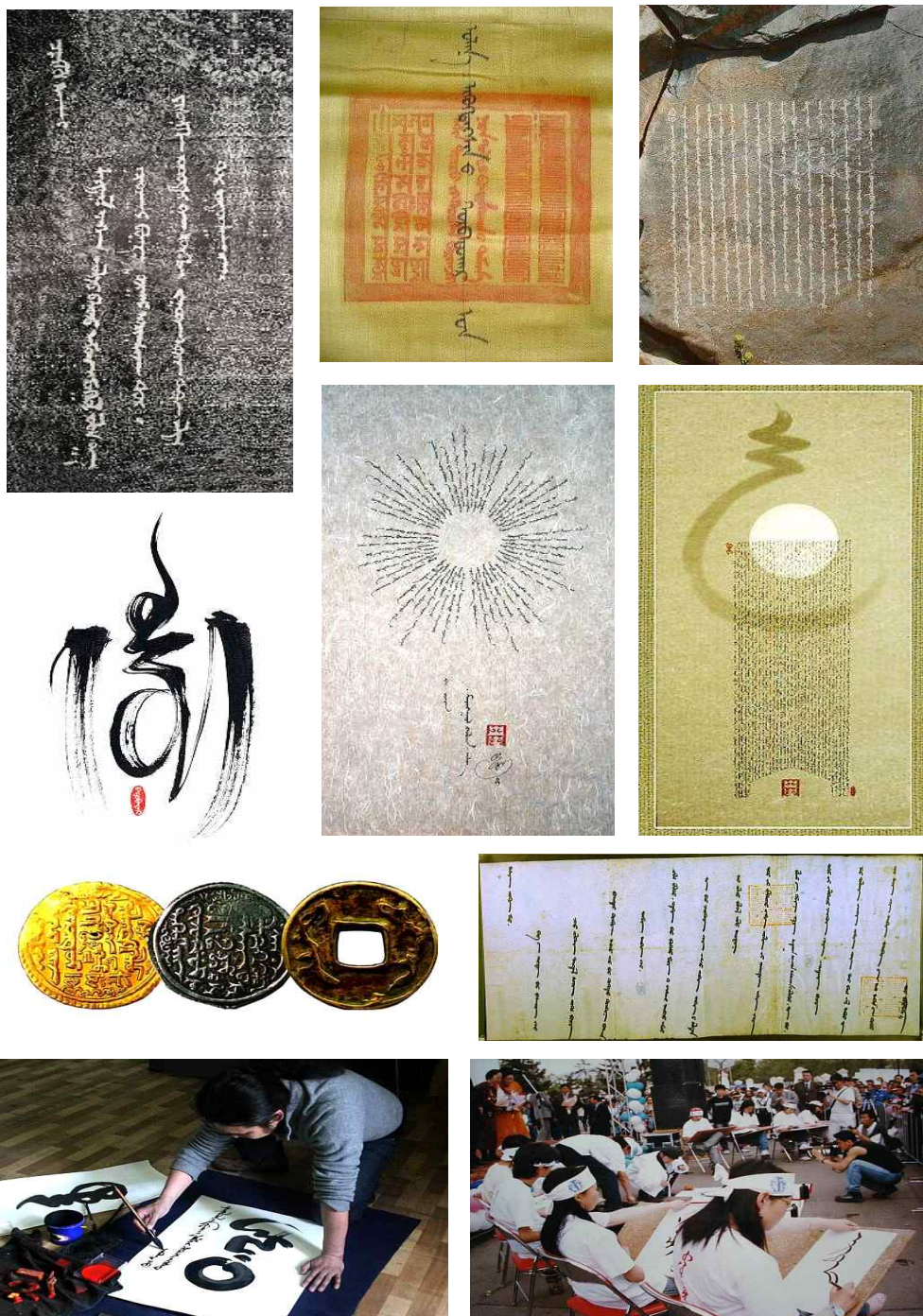
91) <https://ich.unesco.org/en/RL/chinese-calligraphy-00216>



유네스코 중국서예 이미지

| Mongolian calligraphy ⁹²⁾ 홈페이지 원문 | 몽골서예(해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ngolian calligraphy • Mongolia <p>Inscribed in 2013 (8.COM)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p> <p>Mongolian calligraphy is the technique of handwriting in the Classical Mongolian script, which comprises ninety letters connected vertically by continuous strokes to create words. The letters are formed from six main strokes, known as head, tooth, stem, stomach, bow and tail, respectively. This meticulous writing is used for official letters, invitations, diplomatic correspondence and love letters; for a form of shorthand known as synchronic writing; and for emblems, logos, coins and stamps in 'folded' forms. Traditionally, mentors select the best students and train them to be calligraphers over a period of five to eight years. Students and teachers bond for life and continue to stimulate each other's artistic endeavours. The rate of social transformation, urbanization and globalization have led to a significant drop in the number of young calligraphers. At present, only three middle-aged scholars voluntarily train the small community of just over twenty young calligraphers. Moreover, increases in the cost of living mean that mentors can no longer afford to teach the younger generation without remuneration. Special measures are therefore needed to attract young people to the traditional art of writing and to safeguard and revitalize the tradition of Mongolian script and calligraphy.</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의 서예 • 몽골 <p>2013년에 무형문화유산의 긴급보호목록에 기록됨</p> <p>몽골의 서예는 몽골의 고전 문자에 쓰인 글씨 기술로서, 90개의 글자를 세로로 연결하여 단어를 만들어낸다. 글자들은 각각 머리, 이빨, 줄기, 배, 활, 꼬리로 알려진 여섯 개의 주요 획으로 형성된다. 이 섬세한 글은 공식 편지, 초대장, 외교 서신, 연애편지, 동기식 글씨로 알려진 속기의 형태, 그리고 상징, 로고, 동전, 그리고 '접힌' 형태의 우표 등에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멘토들은 최고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5년에서 8년의 기간 동안 서예가가 되도록 훈련시킨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평생 유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로 자극하며 예술적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 변화, 도시화, 세계화의 비율은 젊은 서예가의 수를 크게 감소시켰다. 현재, 겨우 세 명의 중년 학자들만이 20명 남짓 젊은 서예가들로 구성된 작은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게다가, 생활비의 증가는 멘토들이 더 이상 보수 없이 젊은 세대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을 전통 문예에 끌어들이고 몽골의 문자와 서예의 전통을 지키고 되살리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p> |

92) <https://ich.unesco.org/en/USL/mongolian-calligraphy-00873>



📍 유네스코 몽골 서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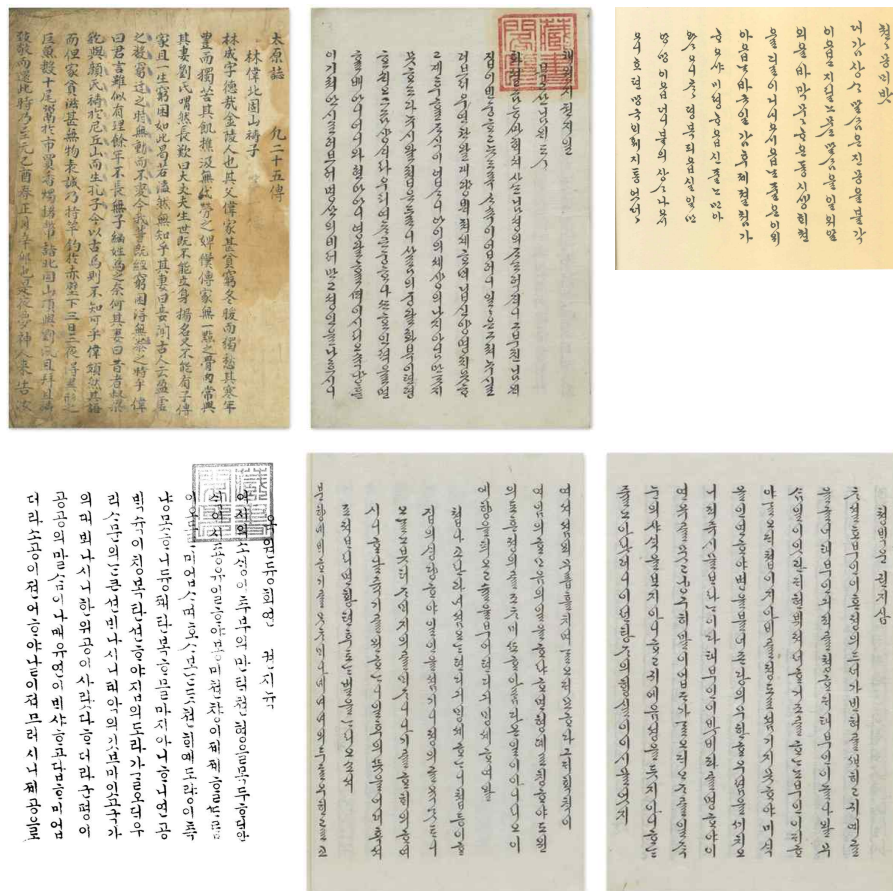
이는 ‘서예’ 예술이 이미 인류의 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글 서예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한국의 ‘한글서예’가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 한글로 쓰여진, ‘중국서예’나 ‘몽골서예’와는 다른 예술성을 갖춘 문화유산이라는 것만을 증명하면 된다.

3)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방향

중국서예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예술적 요소를 지닌 전통문화라는 점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기록되었고 몽골서예는 오랜 역사를 가진 표기체제로 몽골문자와 서예의 전통을 지키고 되살리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긴급하다는 관점에서 긴급보호목록에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한글서예는 한글만의 독창적인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⁹³⁾

한글서예의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한글서예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해야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에 있는 책이나 서간자료, 그리고 전각이나 비석과 같은 금석자료, 현판이나 주련과 같은 서각자료, 그 외 개인 창작 작품 등을 수집해야 한다.



▶ 한글궁체 자료

93) 앞에서 언급한 제안서에는 등재 추진방안에 관하여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및 분담, 등재 준비 일정 및 예산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제안서의 내용대로 진행하고, 본 연구는 한글서예의 예술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2015년 제10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서는 〈한글서예유산 임시전〉을 열며, 이 한글궁체의 변천과 의미, 그리고 아름다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2015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한글서예유산 임시전〉

-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 한글 즉 훈민정음의 글자꼴은 통나무처럼 실팍진 획에 모양도 거의 다 방향을 띠는 것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1,000여 년 전에 세워진 광개토대왕 묘비의 글씨체도 마치 쪽 뽀아 나간 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연결해 놓은 것처럼 실팍지고 소박하여 자연스러운 웅장함이 배어 나오는 글씨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꾸밈이 없는 단순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무한한 화려함을 간직하고 있는 글씨체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연구자들은 광개토대왕비를 쓴 고구려인의 미감 즉 우리 민족 고유의 민족미감이 유전자로 전해져서 1,000년 후에 창제된 훈민정음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평하곤 합니다.
- 그런데, 그렇게 창제된 훈민정음의 질박하고 천진하며 한편으로는 우직하다고 할 수 있는 글씨체를 한없이 부드럽고 고우면서도 엄숙한 질서와 성스러운 해맑음을 품은 글씨로 바꿔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여인들입니다. 조선의 여인 중에서도 특히 궁중에 갇혀 살며 단 한 번도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절제된 환경 아래서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희로애락의 감정까지도 비워버림으로써 물처럼 담담한 마음으로 산 조선의 궁녀들이 그런 글씨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궁녀들이 궁중에서 만들어냈다는 뜻에서 ‘궁체’라고 부르는 글씨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 조선의 여인은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남편과 자식에게 내주고 자신은 허공처럼 텅 비었지만 허전하지 않고 물처럼 담담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오욕칠정(五慾七情)을 다 털어낸 성스러운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궁녀는 어느 여인보다도 더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심성을 물처럼 담담한 평화로움으로 승화하여 무아의 초연한 경지에서 오로지 왕을 위해 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신분은 비록 미천했으나 마음은 이미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스러운 사람들이 쓴 글씨가 바로 궁체입니다.
- 이 땅에 서양의 문화가 들어온 이후, 이들 조선의 여인 특히 궁녀들이 남긴 ‘담담한 맹물과 같은 글씨’는 개성이 드러나지 않고 천편일률적이라는 이유로 심지어는 너무 또박또박 써서 인색한 것 같다는 이유로 예술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변화와 자극적인 개성의 표현을 중시하는 서양의 예술관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예술관으로 우리의 궁체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궁체가 내함하고 있는 성스러운 예술성을 서양을 향해 자랑해야 할 때입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서는 우리의 궁체를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고 전 세계를 향해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자는 뜻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운 궁체자료를 대여하고 그것을 이 시대에 재현할 수 있는 궁체서예의 대가들을 초빙하여 원작자의 성스러운 심성으로 돌아가 작품의 맛과 멋을 재현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얻게 된 전시가 바로 〈우리 한글서예 유산전〉입니다. 이 전시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한글의 문자적 장점뿐 아니라, 글씨체의 아름다움도 한껏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한글로 쓰여진 궁체 안에는 조선의 여인들, 특히 궁녀들의 인고의 세월이 녹아 있다. 예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장소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서양 사람의 시각에서 예술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이 사람이 한 것과 저 사람이 한 것이 똑같다면 모방이지 예술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변화와 차이만이 예술인가. 변화와 차이는 없어도 그 안에 숭고한 가치가 담겨져 있다면 그것을 예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천편일률적이어서 ‘담담한 맹물과 같아’ 보이는 궁체 안에는 궁녀들이 필사를 통해 심신을 수양했던 인고의 삶이 담겨 있고, 순진무구한 청정성과 성스러운 예술성이 내포되어 있다. 한글서예는 그러한 서양적 시각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미감이 내재하여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책임자인 김병기 교수는 2020년 12월 17일 <차이나는 클래스> 방송에서 이러한 궁체의 아름다움은 여인들의 삶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글궁체의 세로획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윗부분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있는 궁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아래 끝부분은 버선코의 살짝 치켜진 형태를 본뜬 것이다. 일평생 왕을 위해 살아가는 궁녀들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있다.

그런 형태의 궁체를 궁녀들은 왕비나 계비들의 입을거리를 위해 시나 소설을 베껴 썼던 것이다. 그 시절 궁녀들은 수십 년간을 궁체 연습에 매진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궁체는 몸과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대표적인 서체라 할 수 있다. 궁녀들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성인의 경지로 담담하게 써 내려갔기 때문인지 궁체의 선은 맑고 단정하다. 그렇게 궁체에는 한국적 고유미가 잘 간직되어 있다.

이러한 한글서예의 한국적 고유미는 한국 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 궁체에서 전통 무용의 미적 요소를 발견하기도 한다. <궁체에 나타난 전통 무용의 미적 요소> 논문에서는 궁체 정자는 춘앵무와 궁체 반홀림은 승무와 궁체 진홀림은 살풀이춤과 견주어 설명한다.⁹⁴⁾ 나아가 궁체

를 실제 공연으로 연결시키기도 한다.

궁체는 또한 조형적인 면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난 예술 작품이다. 박병천 교수는 《한글 궁체 연구》에서 “정자는 한자 서체의 해서와 같은 의미로 해정하게 쓴 글씨이다. 서선의 굵기, 서선의 방향 등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자모음을 결구시켜 쓴 정적인 간결한 글씨이며 조용함과 엄숙함과 안정감을 주는 글씨이다. 체의 기본 점획들은 부드럽고 소박하고 온화하고 경쾌하면서도 무게가 있게 표현되었다. 그리고 궁체의 정자는 바르고 안정된 글자들로 전체 구성에 있어서 글자의 자간, 행간, 크기 등에 있어서 균제미를 느끼게 한다.”⁹⁵⁾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궁체에는 무용과 같은 율동미, 간결하면서도 차별한 정제미, 바르고 안정된 균제미 등이 있는 예술이다. 이러한 한글 궁체 서예만의 독특한 예술성을 세계에 피력한다면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일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는 2019년 9월 10일 제네바에서 아랍 문자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열었다.⁹⁶⁾ “대화를 위한 서예”라는 제목이 붙은 이 전시회는 각기 다른 색깔과 스타일로 쓰여진 아라비아 알파벳으로 구성된 30개의 그림으로 평화 문화 진흥에 대한 독특한 예술적 해석을 가하였다.

압둘라지즈 알무자이니(Mr. Abdulaziz Almuzaini) 유네스코 제네바연락사무소장은 이 전시회가 유네스코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대화, 관용, 상호 이해를 통해 문화권이 증진되는 유엔 인권 기구의 틀에 잘 들어맞는다고, “UNESCO는 문화가 사람들이 전 세계 창의적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세계화되고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예술과 창의성이 직면한 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전시회는 조상들의 서예작품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라 하였다.

유네스코의 서예에 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문화를 간직한 서예예술로서,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자로서,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의 희망을 볼 수 있다.

94) 허성옥, 〈궁체에 나타난 전통 무용의 미적 요소〉, 수원대학교, 2010.

95) 박병천, 《한글 궁체 연구》, 일지사, 1994, p.120.

96) 유네스코 홈페이지 〈Calligraphy exhibition to promote the culture of peace〉

<https://en.unesco.org/news/calligraphy-exhibition-promote-culture-peace>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 필요성과
예상 기구의 운영계획



IX.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 필요성과 예상 기구의 운영계획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예는 문화의 동세서점(東勢西漸)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술이고, 특히 서예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갈 간직하고 있는 한국서예는 세계서예 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국제적인 서예 행사인 세계서예전북 비엔날레를 진행해온 전북은 한국서예의 중심에 있다.

2018년 ‘서예진흥법’이 제정되고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서예진흥법 시대를 맞아 서예의 학교 교육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정부 기구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여 추진할 정부 기구는 지금까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한국서예를 이끌어온 전북이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의 건립과 함께 다각도로 고려해야할 문제이다.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당시 준비 상황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서예진흥법’)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서예진흥법의 제안 당시, 진흥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와 진흥법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서예계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 제안 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과 같고 서예를 통하여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이므로, 우리의 좋은 문화인 서예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에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서예진흥법 주요내용

- 이 법은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서예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서예진흥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등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제안 당시의 쟁점 사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서예진흥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서예진흥법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 대한 윤곽을 잡고서 서예진흥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위원회에서는 몇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서예진흥위원회가 법률안 제정 주체가 되어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당시에 발족한 서예진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서예진흥위원회〉 ※()의 직책은 최초 위촉 당시 직책임

- 위 원 장: 홍석현(중앙일보 회장)
- 정책자문위원:

〈서예계〉

고강(국립현대미술관초대작가) 권창륜(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이사장) 김단희(국립현대미술관초대작가) 김동연(충북예총회장) 김병기(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총감독) 김보금(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이사장) 김상용(전 한국미술협회서예분과위원장) 김양동(전 계명대교수) 김정묵(전 한국미술협회부이사장) 김제운(한국서가협회자문위원) 김종범(국립현대미술관초대작가) 김창동(한국서가협회고문) 김태균(국립현대미술관초대작가) 김태정(전 한국서예협회이사장) 김훈곤(전 한국서예협회이사장) 노복환(전 한국서예협회이사장) 민이식(전 한국문인화협회회장) 박상찬(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고문) 박영옥(한국서도협상임부회장) 박용설(한국서협초대작가) 박원규(국제서예가협회부회장) 박종희(현 대문인화협회회장) 박진태(전 한국서가협회이사장) 박행보(문인화가) 변영문(전 한국서예협회이사장) 변요인(한국서가협회자문위원) 서근섭(전한국미술협회부이사장) 손경식(대한민국원로작가총연합회회장) 송하경(성균관대학교명예교수) 신두영(국립현대미술관초대작가) 심우식(전 한국서예협회이사장) 심재영(한국여류서예가협회회장) 양진니(국립현대미술관초대작가) 여원규(동방연서회회장) 이경희(한국서도협운영위원장) 이 곤(한국서학회명예회장) 이곤순(국립현대미술관초대작가) 이돈홍(국제서예가협회회장) 이동익(전 한국미술협회부이사장) 이수덕(대한민국예술원회원) 이용(전 전북세계비엔날레조직위원장) 이지연(국립현대미술관초대작가) 인영선(국립현대미술관초대작가) 임재우(한국미술협회 초대작가) 전도진(국립현대미술관초대작가) 전명옥(전 한국서예협회이사장) 전종주(전남예총회장) 정도준(국립현대미술관초대작가) 정연교(문인화가) 정제도(한국서가협회자문위원) 정하건(전 한국서가협회이사장) 조성자(국립현대미술관초대작가) 조수호(대한민국예술원회원) 조용민(서예가) 조용선(국립현대미술관초대작가) 조종숙(전 한국미술협회부이사장) 주계문(전 한국서가협회이사장) 홍석창(전 홍익대미대교수) 현민식(제주특별 자치도서예인연합회초대회장) 황성현(국립현대미술관초대작가)

〈사회각계인사〉

황우여(국회의원, 새누리당대표최고위원) 김한길(국회의원, 민주당대표) 전병헌(국회의원, 민주당원내대표) 이군현(국회의원, 국회예결위원장) 신학용(국회의원,국회교육문화체육위원장) 정세균(국회의원, 전 민주당대표) 한선교(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위원장) 김장실(국회의원) 김희정(국회의원) 윤관석(국회의원) 박성호(국회의원) 정진후(국회의원) 박혜자(국회의원) 염동열(국회의원) 유승희(국회의원) 박인숙(국회의원) 서남수(교육부 장관) 최문기(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영섭(전 문화재청장) 김관용(경상북도지사) 박준영(전라남도지사) 송영길(인천광역시) 홍석현(중앙일보회장) 길환영(KBS사장) 신용섭(EBS사장) 김언호(한길사대표, 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김동호(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고학찬(예술의전당 사장) 김종규(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정종섭(서울대법학대학원교수, 문화재위원) 해문스님(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진태하(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이사장) 남궁진(전 문화관광부장관) 허진규(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장) 류성우(남원옹기박물관장) 안백순(이헌서예관 회장) 이호재(가나아트 회장) 우찬규(학고재 대표) 박주환(동산방회장) 윤영달(크라운해태 회장) 이동국(태광그룹 선화문화재단 대표) 김성재(원곡문화재단 이사장) 김재년(일중문화재단 이사장) 신성수(고려산업개발 회장) 박시용(아정산업 대표) 정종섭(다림양행 대표) 김영호(전산업자원부 장관) 신현택(한국게임산업회 이사장)

- 집행위원장:

최은철(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위원장)

윤점용(한국서예협회 이사장)

박양재(한국서가협회 이사장)

김영기(한국서도협회 회장)

간사: 최재천(국회위원)

- 집행위원: 여성구 박정숙 박순자 김동애(미협) 김용관 최진빈 송동옥(서협) 박영진 한태상(서가협) 문관효 이영순 정영철(서도협)

- 추진위원: 서총 4단체 초대작가 2,721명

- 목적: 서예진흥정책포럼의 원만한 진행과 서총활동 지원

이상과 같이 구성된 서예진흥위원회는 그 조직의 목적을 “서예진흥정책포럼의 원만한 진행과 서총활동 지원”으로 명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서총’이란 ‘한국서예인 총연합회’의 약칭으로서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위원회(당시 위원장 최은철)’, ‘한국서예협회(당시 이사장 윤점용)’, ‘한국서가협회(당시 이사장 박양재)’, ‘한국서도협회(당시 회장 김영기) 등 네 단체의 연합회를 말한다. 서총의 대표는 당시 각 단체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들 각 단체의 대표는 서총의 공동대표이자 서예진흥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그런데 서예진흥 위원회의 조직 목적을 “서예진흥정책포럼의 원만한 진행과 서총 활동 지원”이라고 명기함으로써 서예진흥위원회는 서예진흥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 성격의 정책 포럼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서총은 서예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한 포럼을 통해 정리된 법률안을 가지고 실지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이후, 서예진흥 위원회는 홍석현 위원장의 찬조와 서총이 마련한 기금을 바탕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양대 조직인 서총과 (사)서예진흥위원회의 상호협력 아래 몇 차례 공청회가 진행되면서 서예진흥법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막바지에 이르러 최대의 쟁점이 된 문제는 ‘서예’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마지막 공청회에 올라온 법률(안)에는 서예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었다.

- ‘서예’란 도구 재료와 문자 측면에서 한자 한글은 물론 영어 아랍문자 등이나 사물을 소재로 하여 지필묵으로 제작된 서화 장르와 칼 키보드 아크릴과 브러쉬 등으로 만들어진 문자디자인 현대미술 영상미디어 등 모든 문자 영상 관련 예술과 실용을 총칭한다.

공청회 성격의 포럼에 이런 안이 나오자 방청석에는 찬반이 엇갈렸다. 이 공청회에서 전북대 김병기 교수는 서예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 안을 기초한 인물로 지목을 받은 예술의전당 서울 서예박물관의 이동국 큐레이터와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김병기 교수는 전주한지의 예를 들어 ‘전통한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전주시의 한지산업육성정책이 한지의 정의 안에 ‘실용한지’까지 포함시키다 보니 실지로 육성해야 할 전통한지 산업은 오히려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육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지사(韓紙絲:닥나무 섬유로 뽑은 실)’와 합성섬유를 혼합하여 생산한 천으로 만드는 태권도 도복이나 양말 등과 한지 벽지를 만드는 응용 한지산업이 한지산업 육성의 혜택을 거의 다 받게 되어 전통한지 산업은 오히려 전보다 더 쇠락하게 되었음을 설파함으로써 방청석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김병기 교수는 서충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서예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지 말고 가능한 한 순수전통 서예로 국한해야 하는 이유

1. ‘서예진흥법’ 제정의 목적이 우리 민족이 이룬 위대한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오늘날에도 매우 의미가 깊은 다양한 교육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한 필기 행위의 컴퓨터화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매우 부진하고 쇠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예’를 살리자는 데에 있으므로 서예진흥법에서 진흥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당연히 ‘붓에 먹물을 묻혀 문자를 쓰는 예술’로서의 ‘서예’이어야 한다. 즉 ‘전통적 방식으로 쓰는 서예’여야 한다.
2. 물론, 현대의 문명과 전통서예가 서로 소통하고 서예가 현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안’ 상의 “칼, 키보드, 아크릴과 브러쉬 등으로 만들어진 문자디자인 현대미술 영상미디어 등 모든 문자 영상 관련 예술과 실용”으로 서예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응용서예’는 전통서예와 순수서예를 진흥시키고 나면 서예가들에 의해서 각종 디지털 문명의 도움을 받아 저절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서예인들이 창작한 순수서예작품이 주가 된 후에 그것을 소재로 삼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칼이나 키보드, 아크릴과 브러쉬 등으로 제작하는 문자디자인도 할 수도 있고 영상미디어를 이용한 문자 관련 영상예술도 얼마든지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가치가 높은 문화임에도 시대적 요인으로 인하여 쇠락한 서예를 우선 진흥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응용 서예를 시도하는 것이 본말을 전도시키지 않는 처사이다. 본말의 전도는 또 다른 폐해와 위기와 쇠락을 자초한다. 예를 들어 지적하자면, 최근 우리 사회가 맞은 서예의 쇠락을 타개하겠다는 이유로 ‘서예과’가 ‘문자조형학과’를 표방하며 변신을 시도했으나 결국 ‘서예과’도 아니고 ‘문자조형학과’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빠짐으로써 서예계로부터도 환영을 못 받고 디자인계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폐과조치를 당하게 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칼, 키보드, 아크릴과 브러쉬 등으로 만들어진 문자디자인 현대미술 영상미디어 등은 이미 그들 장르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이미 자신들이 작업할 영역을 충분히 확보했다. 칼, 키보드, 아크릴, 브러쉬, 영상 등의 활성화, 특히 키보드문화와 영상문화의 지나친 활성화로 인하여 서예가 직격탄을 맞아 쇠락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그것을 오히려 서예진흥법에서 진흥해야 할 대상의 범위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키보드나 영상은 결코 서예처럼 진흥법을 제정해야 할 정도로 부진하거나 쇠락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예진흥법’에서 말하는 서예의 범위 안에 키보드나 영상 등을 포함시킨다면 서예진흥법으로 인해 오히려 서예가 더욱 쇠락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활성화되어 있는 키보드와 영상문화가 ‘서예’라는 범위 안에 포함됨으로써 서예진흥법이 추구하는 진흥의 혜택을 입으면서도 정작 그들이 제작하는 키보드와 영상예술 등에 순수서예, 전통서예를 반력으로 택하지 않고 캘리그래피 개념의 단순한 손글씨나 문자도안개념의 그린 글씨를 선택하게 되면 정작 진흥해야 할 순수서예는 진흥법으로 인해 오히려 치명타를 맞게 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국산 토종 한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한우진흥법을 제정하면서 한우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에 ‘미국, 호주 등 외국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한 소라면 국내에 들어온 후 3개월만 국내에서 사육하면 한우로 인정한다.’라는 구절이 있다면 도축된 후에는 어차피 한우인지 외국 소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터이므로 누구라도 값이 싼 미국산이나 호주산을 사들여 3개월 동안 사육한 후에 도축하여 고기를 시장에 내놓고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버젓이 한우로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 산업만 진흥이 될 뿐 정작 진흥되어야 할 토종한우 산업은 미국산 호주산의 등쌀에 밀려 망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한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한우진흥법이라면 한우를 순수한 토종한우로 규정해야 하듯이 서예를 진흥하기 위한 서예진흥법이라면 순수한 전통서예를 서예로 규정해야 한다.

4. 장차 서예를 이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술로 활성화하기 위해 키보드나 영상문화와의 소통과 교섭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소통과 교섭은 서예가 진흥된 후에 서예가들이 중심이 되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서예의 영역확장이지만 서예진흥법에 처음부터 서예의 범위를 그처럼 광범위하게 규정할 사항은 아니다. 서예가가 주도적으로 키보드와 영상문화를 수용해야지 서예를 키보드와 영상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 키보드와 영상문화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결코 서예가 진흥될 수 없다.

• 수정안

- 위에서 제시한 ‘서예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지 말고 가능한 한 순수전통 서예로 국한해야 하는 이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한다.
- ‘서예’란 종이와 붓과 먹을 이용하여 한자나 한글은 쓰는 예술을 말한다. 단, 국제교류와 창작 영역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영문자, 아랍문자 등 세계의 모든 문자를 쓰는 예술 행위를 서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수정안이 제시됨으로써 서총과 서예진흥위원회에서는 다시 논의가 이루어졌고 결국은 김병기 교수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논쟁 끝에 수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후, 통과함으로써 마침내 서예진흥법이 공포되었다. 서예진흥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서예진흥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61호, 2018. 12. 11.,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56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법령·제도의 개선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서예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⑤ 그밖에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5861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2019년 서예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8년 12월 11일에 서예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19년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서예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중 몇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률 | 시행령(안) | 시행규칙(안) |
|---|---|---|
|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⑤ 그 밖에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춘 전임교수 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비 및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을 보유할 것 4. 운영경비 조달능력이 있을 것 5. 서예교육 전문인력이 서예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을 제공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전임교수 요원 확보 현황 3.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 보유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교수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서예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

| 법률 | 시행령(안) | 시행규칙(안) |
|---|---|---|
| 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 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예교육 전 문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p> | <p>2. 서예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③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 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총 6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 시설을 말한다.</p> |
| <p>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 <p>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 하는 사업 | |
| <p>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4. 서예진흥법 제정 이후의 당면 과제

이상에서 제시한 서예진흥법과 동 시행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서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문체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법령·제도의 개선
-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 서예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실태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 서예 관련 종사자 현황
-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현황
- 서예 관련 교육 현황
- 전시시설 등 서예 관련 시설 운영 현황
-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 현황 등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서예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서예 교육과정 개설·운영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아래 요건을 갖춘 곳을 서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 신청 대상)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 (지정 요건)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기관

1.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전임교수 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1) 대학에서 서예 관련 분야 학위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 2) 서예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
3.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비 및 교육시설(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을 포함한 총 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보유할 것
4. 운영경비 조달능력이 있을 것
5. 서예교육 전문인력이 서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을 제공할 것

이 밖에 서예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해야할 일’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서예진흥법 이후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서예진흥법 제정 이후의 대책

1. 서예 교과서의 편찬
 - 편찬 주체의 난립 방지
: 서예교육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 그러므로 양질의 교과서 집필이 필요
2. 서예 교사(지도자)의 양성
 - 양질의 교사 양성 기구 발족 혹은 위탁
 - 교사 양성용 교재 개발
3. 서예 사회교육 기능의 강화
 - 현재의 서예 사회교육 시스템 및 기능의 정화 및 강화
4. 현 서예계의 정화
 - 공모전 난립 사태의 정화
 - 서단의 통합 추진과 초대작가 남발 자제
 - 연구하는 서단 조성
5. ‘서총’과 ‘서예진흥위원회(진흥재단)’의 역할 분리
 - 1) 서총

- 서예진흥위원회에서 수립·제시하는 각종 대책의 실행
- 서총 내의 '서예 4단체'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
- 공정하고 투명한 서단 운영
- 서예인구 저변 확산

2) 서예진흥위원회

- 서예진흥법이 제시하고 있는 각종 서예진흥 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
-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서예진흥을 위한 전문적인 홍보와 설득
- 서총 내의 '서예 4단체' 연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정부 예산 확보
- 한국서예의 진로 설정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

서예는 본래의 순수 예술성만으로도 이미 21세기 최고 가치의 예술로 부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서예가 본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예술적 특징인 수신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이 변화하고 있는 문화의 분위기에 부응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서예를 되살려 놓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면에서 서예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예와 건강증진, 서예와 심리치료 등 건강과 치료에 관한 응용 프로그램과 서예와 참선, 서예와 기도, 서예와 명상 등 종교 관련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서예와 학습효과, 서예와 예절, 서예와 지도력 향상, 서예와 사교 등 인성계발 응용 프로그램 등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디자인 산업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예는 21세기 첨단 문화산업 콘텐츠의 보고이다. 이처럼 소중한 문화유산을 내버려 뒀서는 안 된다. 서예는 21세기에 반드시 되살려야 할 학과목이다. 지금 타성에 젖어 서예를 케케묵은 전통으로 생각하거나 컴퓨터 문화를 핑계로 이제는 도태되어야 할 낡은 문화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예야말로 이 시대에 살려야 할 최고 가치의 문화이다.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산업과 직결되는 문화이다. 이러한 서예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낙후한 태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웰빙을 구현하는 나라, 첨단 문화산업을 이용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서예 교육을 활성화해야 하고 국민이 서예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두게 해야 한다.

5. 서예진흥법 시대, 서예의 학교 교육 확보방안 제안

서예진흥법이 공포된 후, 많은 서예인이 서예가 학교 교육에서 정식 독립 교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무리이다. 서예계에서 서예를 독립 교과로 채택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서는 현행 ‘미술’ 과목에 속한 기타 장르인 회화, 조각, 공예 등도 다 독립 교과로 분리하여 채택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한 장르 당 1시간씩만 배정한다고 해도 ‘미술’ 시간이 주당 최소한 4시간이 되어야 한다. 음악 분야에서도 국악과 서양음악을 독립 교과로 분리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고 체육 분야도 체육과 무용을 엄밀하게 분리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 교과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그러한 분리와 독립이 불필요한 점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서예는 ‘미술’ 과목 내에서 독립 교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방안은 바로 국어 교과 내에서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린 ‘글씨 쓰기’ 항목을 부활하고 그 ‘글씨 쓰기’ 항목을 서예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⁹⁷⁾

1) 한·중·일 「쓰기」 교육 현황

■ 한국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쓰기」 교육 현황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2000년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2007년, 2009년, 2011년, 2015년을 기점으로 4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7차 교육과정기에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로 분권 되어있던 교과서는 2015년 개정 때 《국어》와 《국어 활동》으로 재편되면서 눈에 띄게 변화해 왔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입문기 문자 지도를 강화하고 독서 단원과 연극 단원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5학년과 6학년에서는 《국어 활동》 교과서를 따로 두지 않았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개정이 여러 번 고시되면서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에 변화가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 초기에서는 ‘내용’(본질·원리·태도)이 중심축이었으나, 개정 후 교육과정에서는 ‘실제’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기능’범주에 ‘글씨쓰기’ 교육내용이 추가되어 재설정되었다.

디지털 기기나 키보드를 활용한 쓰기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필기도구를 이용한 글씨쓰기가

97) 쓰기 교육에 관한 내용은 〈서예를 활용한 국어교과 「쓰기」 교육, 왜 필요한가?〉(김선희, 《서예학연구》, 2013)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루어져야 할 시간이 축소됐다. 이 부분은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요한 부분이라는 하지만 실과 교과와 재량시간에 디지털 매체 학습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국어 쓰기 교과의 지도 내용에 중복 제시가 되는 부분이다. 그 때문에 국어 ‘쓰기’ 영역 가운데 필기도구를 이용한 글씨 쓰기의 내용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컴퓨터로 글쓰기 부분은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 | | | |
|------------------|---|---|--|
| 제7차 교육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기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성 방법 목적 상황 개념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기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씨쓰기 컴퓨터로 글쓰기 내용생성 표현 고쳐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기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기 습관 흥미 가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기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 정서 표현의 글쓰기 친교의 글쓰기 | | |
| 2011년 개정 교육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다양한 목적의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친교 및 정서표현의 글 쓰기와 매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기의 본질과 특성 글의 유형 쓰기와 맥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씨쓰기 쓰기의 계획 내용생성과 조직 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와 중요성 동기와 흥미 쓰기의 윤리 쓰기의 생활화 |

2000년 제7차, 2011년 개정 교육과정(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

7차 교육내용에 따른 《쓰기》 교과의 가운데 바른 글씨쓰기에 대한 교육시수를 살펴보면 1~3학년까지는 《쓰기》 교과서 단원 학습에 2시간, 4~6학년까지는 각 주별로 《말하기 듣기 쓰기》 교과서 단원 학습에 3시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3학년의 경우는 바른 글씨 쓰기 차시를 활용해 글씨 쓰는 자세 및 필기구 잡는 법 등 바른 글씨 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및 자세 등이 학습되고, 고학년이 될수록 바른 글씨 쓰기의 보다는 교육과정에 맞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글쓰기 활동에 바른 글씨쓰기가 통합되어 있다. 학습자가 실제로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제고에 맞춰 시간을 안배한 듯 보이지만⁹⁸⁾ 학년이 올라갈수록 바른 글씨 교육 차수는 적어진다.

98) 장미옥, 이은혁, 〈초등 국어 교과「쓰기」 교육을 서예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과 그 방안〉, 《서예학연구》, 2009, p.159.

| 시간/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
| 쓰기교과 총 이수시간 | 52시간 | 58시간 | 60시간 | 87시간 | 87시간 | 87시간 |
| 바른 글씨 쓰기 차시 | 14차시 | 11차시 | 11차시 | 14차시 | 5차시 | 6차시 |

즉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쓰기》 교육과정은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글로 표현하는 내용 구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바른 글씨 쓰기 지도는 《쓰기》 교과서의 체제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단위 구성체제의 시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도 교사의 재량에 따라 내용의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씨쓰기’ 기능적 학습과 다른 학습 내용이 병행되어 지도되기도 한다.

거기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쓰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바른 글씨를 쓰는 수업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중국과 일본의 자국어 「쓰기」 교육의 현황

디지털 시대, 쓰기를 통해 국어를 배우는 초·중 등 학교 교육현장의 실상은 교육 방식, 학습 방식,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의사소통 방식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쓰기 행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 중국과 일본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교육현장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중국에서는 ‘국어’를 ‘어문(語文)’이라고 한다. 1920년대 ‘국어’ 또는 ‘국문’이라고 하다가 1950년대 이후부터 입말과 글말을 가르치는 도구 과목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어문’으로 규정하였다.

중국의 어문 교육은 한자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한자는 표의 문자로서 새로운 글자를 일단 익혀야 본문의 해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글자 깨우치기는 중학교 읽기 교육까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며, 수시로 ‘표준말 사용 운동’을 벌여왔다.⁹⁹⁾

1986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이하 의무교육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초 교육은 의무교육 시기로 접어들었다. 「의무교육법」 제2조에 ‘국어에서 9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6·3학제를, 연해 경제 발달지역에서는 5·4학제를 많이 채택한

99) 교육현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나라말 교육의 차원에서 학교 교육, 특히 초 중등학교 교육은 반드시 표준말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왔고, 종전에는 교사가 표준말을 구사하지 못하면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규정까지 있었다. 안동준, 〈중국의 어문 교육과정에 대하여〉,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1》, 2004, p.84.

다.¹⁰⁰⁾ 중국의 9년 의무교육 전일제 어문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학어문교학의 요구를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 학생들이 한어병음(漢語拼音)을 습득하여 글자를 아는 데 도움을 받고 보통화(普通話)를 읽고 학습한다. 상용한자 2,500여 글자를 습득하여 상용단어를 이해하고 사전(字典)을 찾을 수 있으며 사전을 찾는 습관을 기른다. 연필글자와 펜 글자를 쓸 수 있고 붓글씨를 배워 쓰며, 좋은 글자 쓰기 습관을 기른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보통화를 말할 수 있고 의사를 분명하게 표달할 수 있으며, 적당한 정도의 출판물을 읽고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중심 사상을 파악하고 일정한 속도를 갖고 좋은 읽기 습관을 기른다. 중심과 조리가 있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어구가 매끄럽고 감정이 진실하고 사상이 건전한 간단한 기서문(記敘文)을 쓸 수 있다. 상용응용문을 쓸 수 있고, 깔끔하게 쓰고 틀리거나 다른 글자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용문장부호를 쓸 수 있게 한다.¹⁰¹⁾

위의 내용과 같이 중국은 한자 자체가 너무 많고 어려우므로 가장 먼저 제시한 내용이 언어문자 훈련방법으로써 표준어의 학습과 상용한자의 학습이다. 중국 교육과정의 체제 영역도 ① 글자를 익히고 쓰기, ② 독해, ③ 글짓기, ④ 의사소통, ⑤ 종합성 학습 순으로 정하고 있다. 제일 먼저 ‘글자를 익히고 쓰는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학교 6년¹⁰²⁾ 동안 습득해야 하는 상용한자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2,500자로 제시하고 있고, 글씨 쓰기와 글짓기를 구별하고 융합시켜 지도하는 방식이 아닌 쓰기 영역만을 강조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학년별 글씨쓰기에 대한 교육 학습 내용 제시를 보면 저학년의 경우 연필을 사용한 바른 글씨 쓰기를, 중학년의 경우 펜으로 글씨쓰기와 붓으로 글씨본을 이용하여 글자꼴을 습득하거나 서첩을 보고 쓰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학년의 경우 분당 20자 이상을 펜글씨로 바르게 쓰기와 붓으로 서첩을 보고 따라 쓸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¹⁰³⁾ 다시 말해 중국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먼저 펜으로 서사 훈련을 하고, 3학년 이상은 펜과 모필을 겸하도록 하되, 국어

100) ‘6·3학제’는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학제이고, ‘5·4학제’는 소학교 5년 중학교 4년의 학제이다. 2001년 기준 제 7차 교육과정기인 중국에서는 5·4학제 교과서와 6·3학제 교과서 2종이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도 지방에 따라 신·구 교과서가 병용되고 있고, 5·4학제 교과서는 제6차 교육과정의 수정판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1987년부터 9년 의무제 교과서 편찬과정에서 심사인정제를 도입하였고 ‘一綱多本(같은 교육과정 아래 여러 가지 교과서가 존재한다)’의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는 15종이라고 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교과서는 인민교육출판사 중학어문실이 편찬한 《語文》(3년제 중학교용)이다.(안동준, 〈중국의 어문 교육고정에 대하여〉,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1》, 2004, p.87참고.)

101) 權瑚, 〈韓·中 初等學校 國語教育의 樣相〉, 《語文研究》, 24호, 1996. p.163.

102) 1학년과 2학년을 저학년, 3학년과 4학년을 중학년, 5학년과 6학년을 고학년으로 했을 때 저학년은 1,200자 안팎의 한자를, 중학년은 2,000자, 고학년은 2,500자 안팎을 쓸 수 있게 학습해야 한다.

103) 우리말 교육연구소,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1》, 나라말, 2004, pp.97-99. 참조.

과목에 포함하여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을 교육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서예를 선택과목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중국의 경우 어문과 교육과정에서 붓글씨 쓰기 교육을 요구하고 있고, 서예가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가 교육부에서 “행정명령”의 방식으로 학교 서예 교육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서예를 통한 쓰기 교육의 강화는 여러 가지 여건상 중국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2007년 광둥 및 상해시 정부는 성내의 모든 초, 중학교에 서예를 필수과목으로 엄격히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산둥성에서는 “고고(高考-대학 입학을 위한 국가고시)”시험 “종합소질”이라는 과목 안에 서예가 들어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서예를 필수적으로 지도한다.¹⁰⁴⁾

중국의 전통문화 핵심인 서예를 보존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사회 각계의 호응과 시대에 맞춘 쓰기 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서예 문화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근대교육제도가 들어왔던 명치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서예 과목이 정식으로 들어가 있고, 초·중학교의 경우 서예 교육을 국어 교과목에 넣어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연필과 볼펜을 이용한 경필 쓰기 교육이, 3학년부터 모필을 이용한 쓰기 교육이 이루어진다. 3학년부터 시작된 모필 쓰기는 주 1회 실시되며, 초등학교 6년 동안 가나문자 쓰기와 한자 1,006자를 해서로 배운다. 중학교의 경우 1학년 때는 1시간씩 연간 35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1학기 전반기에는 서사교육, 후반기부터 행서를 배운다. 2·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연간 15~20시간 정도 국어 쓰기 시간을 통해 서사교육을 받는다.¹⁰⁵⁾ 고등학교는 예술과 과목으로 독립되어 서도(書道) I·II·III으로 나누어 전통 서도 기법을 배우게 된다. 자체는 해서, 행서를 비롯해 전서, 예서, 초서와 이론과 전각까지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도 서예 인구의 감소와 학교 교과과목에서 모필을 이용한 쓰기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서예 교육 방안이 모색되었는데 ‘서도교육특구(書道教育特區)’이다. ‘서도교육특구’는 2005년 10월에 시즈오카현(靜岡県) 이토시(伊東市)가 정부에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 22일에 인정을 받고 이토시가 최초로 운영되고 있다. ‘특구’ 정식명칭은 ‘구조개혁특별구역(構造改革特別區域)’이며 고이즈미(小泉) 내각의 의욕적인 정책이다. 지방공공단체나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아이디어로 그 지역의 특색에 의한 특례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전국 일률적이었던 국가의 제도를 지역의 특징에 맞게 그 지역 한정으로 개혁하고 개혁이 성공하면 그 사례를 전국적으로 넓혀 가려는 것이다.¹⁰⁶⁾

104) 송명신, 《목가》, 2012년 3월호. p.74-77. 참조.

105) 우리말 교육연구소,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1》, 나라말, 2004, pp.30-39. 참조.

이러한 ‘서도교육특구’ 운영으로 서예를 통한 인성 함양은 물론,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에 따로 편성된 서예 교육을 통한 일본의 전통문화·예술의 지식을 익힌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도 서예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국어 교과 「쓰기」 교육의 서예로 대체 그 문화적 의미

현대사회에서의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은 문화, 즉 삶의 방식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 문화로서의 배우는 언어,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특히 국어 교과에서 언어 능력과 언어기능 지도를 목표로 하지만, 언어기능은 단순한 외적 기능이 아니라, ‘의미구성’을 지향하는 내적인 사고 형성 과정임을 의미한다.

요즘 「쓰기」영역의 교육은 아날로그적 「쓰기」가 아닌 디지털 기기를 통한 쓰기 교육의 비중이 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사건을 보면 디지털화로 인한 교육의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쓰기’ 행위 자체의 문화적 의미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서예를 이용한 ‘쓰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디지털화되어가는 교육현장은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키보드를 권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2011년 미국 인디애나주(州) 교육부가 9월부터 초등학교의 ‘글씨 쓰기’ 교육을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¹⁰⁷⁾ 이에 학부모들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칼럼을 통해 “손글씨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디지털 종속을 가속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¹⁰⁸⁾ 비단 미국의 상황만은 아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손글씨를 쓰는 모습보다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이 익숙하다. 우리 아이들도 머지않아 손글씨를 너무나 낯선 환경으로 인식할지 모른다. 몇 년 후면 최신 전자기

106) 이두희, 〈일본의 서예교육에 관한 연구〉, 《서예학연구》, 2009. pp.94-117. 참조.

107) 일간 인디애나폴리스 스타에 따르면 미 46개 주 주지사들이 교육 표준화를 위해 2009년 발족시킨 ‘커먼코어’의 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커먼코어는 표준 교육안에 타이핑을 넣었지만 필기체는 제외했다. 신문에 따르면 표준 교육안을 채택한 41개 주에서 필기체와 타자를 비슷한 비중으로 가르치고 있다. 인디애나주는 한발 더 나아가 필기체 교육을 아예 폐지한 것이다. 조선일보, 〈손으로 쓸 필요 있나… 美 글씨쓰기 수업 폐지 논란〉, 2011.07.13.

108) 조선일보, 〈손으로 쓸 필요 있나… 美 글씨쓰기 수업 폐지 논란〉, 2011.07.13.

기를 활용한 스마트한 교육과 환경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우리를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서예는 아날로그적 손글씨의 대표적 ‘쓰기’ 행위이다. 서예는 동아시아 인문학¹⁰⁹⁾의 총화(總和)로 인간의 많은 감각을 작용시키면서 인간의 정신을 강화시켜 왔다.

정서적 안정보다는 디지털화된 시대의 편리성 추구하고 인터넷의 재미에 빠져 있는 좁은 안목과 빠름을 추구하는 요즘 사회적 풍조로 인해 인문학의 위기, 서예의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일같이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쓰기는 편리성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정신의 내부적 힘을 배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손으로 문자를 쓰는 기능’ 이것은 인류의 특권이자, 소중한 기능이다. ‘손으로 문자를 쓰는 기능’의 강화는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과도 연관이 크며, 특히 서예를 통한 쓰기의 효과는 어떤 필기도구를 이용한 손글씨보다도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쓰기’ 교육의 효용성을 고려해 본다면 디지털 시대로 갈수록 손으로 쓰는 교육, 서예를 활용한 ‘쓰기’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 서예의 수신성과 서여기인

현대인들은 과학이 주는 편리한 삶을 향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연이 주는 행복감을 찾으려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 주는 웰빙을 누리하고자 한다. 진정 행복한 삶의 추구, 웰빙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나라오는 것이다. ‘수신’ 즉, 자기 닦음이요, 자기 다스림이다. 그리고 그 수신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의 분야가 바로 서예이다.

서예를 통한 ‘쓰기’ 행위는 기능적 연마 이상의 정신적 가치가 결부되어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주체인 인간이 평정한 마음으로 품성을 함양하고 조화로운 삶을 지향해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는 서예를 쓰는 과정을 통해 겪게 되는 인내와 열정이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글씨를 쓰는 사람의 수신(修身), 글씨를 쓰는 사람이 먼저 성정을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서예를 쓰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사유이며, 유희재는 이런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여기인(書如其人)’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유희재는 글씨를 통해 그 사람의 배움,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뜻이 드러나며, 그 사람을 닮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씨를 통해 우리는 쓴 사람의 성품과 감정의 변화를 읽을 수 있고, 그대로 읽어진 성품과 감정의 변화 중

109) 인문학의 人文은 天文 地文 속에서 천도와 지리를 깨우치고 인간의 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神學의 상대개념으로 형성된 서양의 인문학과는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정종진, 〈인문학 위기와 인문주의자들의 자세〉, 《인문과학논집》, 2000. p.268 참조.

에 바람직하지 못한 성향과 감정의 굴곡이 있을 때 고쳐나간다면 그게 바로 수신이다.

서예는 단순한 미적 예술을 추구하는 기능적 차원의 ‘쓰기’ 행위가 아니고, 기질을 변화하고 자신의 성정을 함양하는 수양적 차원의 예술이자 학문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대표적 쓰기 ‘서예’는 인간존중과 인간의 행복을 생각하는 완벽한 웰빙 문화이다. 그렇기에 선조들은 서예의 정신문화를 예로부터 무척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다.

3) 국어 교과 「쓰기」 교육을 서예로 대체했을 때의 활용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글쓰기가 일상화되면서, 초등학생 아니 미취학 아동기에서부터 편리한 디지털 기기를 통한 인터넷 매체의 노출은 잘못된 언어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윤리의식이 없는 언어생활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을 바로 잡아 줄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응용

서예를 일상화하지 않은 현대인들도 서예가 인간의 심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여전히 긍정한다. 이것은 동아시아인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서사문화의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서예는 모필을 활용한 ‘쓰기’ 행위는 정신을 집중시키는 몰입의 기능이라든지, 서예의 집필법을 통한 단전호흡의 효과라든지, 서예의 제재로 쓰이는 명구가 주는 순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인간존중이나 윤리의식에 대한 인식이 간과되어 가는 스마트시대의 생활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쓰기’ 행위가 바로 서예이다.

손안의 PC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이 대중적 생활기기가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과, 사이버상에서 사공을 초월한 정보 접근, 그리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환경 등을 조성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을 ‘재미’라는 중독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글씨나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쓰기’ 행위는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더는 글씨가 자신의 품성을 대변할 수 없는 상황에게 온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게 한다.

필기도구를 이용해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단순한 쓰기의 차원을 넘어 인성과 학습, 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지적 활동이다.¹¹⁰⁾ 그중에서 여러 경필을 이용한 쓰기보다 모필을 이용한 서예는 자기 다스림과 심신함양에 효과가 뛰어나다.

서예를 활용한 ‘쓰기’가 바른 글씨 쓰기 단계에서 시도된다면 그 효과는 기능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바른 글씨를 쓰기 위해 몰입하는 것만으로도 고도의 집중력과 호흡을 조절하게 되고 긴장된 정신을 이완시켜 정신을 편안하게 한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대부분 취학 전에 이미 글씨를 배워 가지고 온다. 그러나 바른 글씨 쓰거나 글씨를 쓰는 과정에 대해 무관심하며 지도하려는 의지가 점점 감소되고 있다. 부모들부터 손글씨보다는 키보드를 이용해 글쓰기를 하고 있고, 그런 교육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생활이 디지털화되어 가면서 앞으로 손글씨 쓸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근시적 안목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리의 국어교육의 현장에서부터 올바른 ‘쓰기’ 교육 지도와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쓰기’ 영역 수업에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저학년 때는 경필을 이용한 바른 글씨 쓰기 활동을 지도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필을 이용한 ‘쓰기’ 교육을 병행한다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물론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디지털 문화의 역기능을 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중독 현상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용

인터넷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인터넷 중독 위험이 유·아동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즐기는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드는 ‘중독’ 문제는 다르다. 성장기 유·아동들에게 인터넷 중독은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주의력 감퇴 등의 인지기능 및 학습능력 저하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어린이용 게임에서 시작된 재미는 점점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게임중독에 쉽게 빠지게 된다.

최근 과학자들은 유아기부터 인터넷과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의 뇌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와 같고, 그로 인해 인지능력과 감정조절능력이 크게 떨어져 아이들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하고 심한 경우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¹¹¹⁾ 이는 유아기의 아이들이 장기간 게임에 빠지게 되면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의 화면의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110) 중앙일보, 2011.1.21. 읽기와 쓰기에는 인간의 많은 감각이 작용해 인식을 시켜주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면 뇌에서 반응이 달라 학습 메커니즘을 강화시키지 못한다는 노르웨이 스타방거 대학의 앤 마겐 교수와 마세일리 대학의 진-력 벨레이 신경생리학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111) 조선일보, 〈아이 뇌가 망가진다〉, 2012.01.31

거기에 스마트폰 보편화로 인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중독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스마트폰은 SNS를 통한 소통의 장으로, 편리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SNS 사용은 종종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고, 학교 안의 집단 따돌림 문제도 이 SNS를 통해 교묘히 확대되고 있다. 2011년 12월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부산 중학생 자살 사건 등은 단순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문제가 아닌 스마트폰의 중독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서예를 활용한 ‘쓰기’ 행위는 정신건강과 심신을 함양시키며, 모필을 활용한 ‘쓰기’는 단순한 쓰기의 차원을 넘어 인성과 학습, 뇌 건강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지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에 꼭 필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이러한 ‘쓰기’ 활동은 실제 의사소통을 하는 사회활동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사라져 버린 ‘글씨 쓰기’ 항목을 부활하고 그 ‘글씨 쓰기’ 항목을 서예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6.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기구 필요성과 가능성

그렇다면, 서예진흥법과 동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과 같은 사업은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건립하여, 세계서예비엔날레관으로 하여금 조직을 확대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서예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온 전북이 나서서 서예진흥법과 동 시행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필요성

■ 기 축적한 데이터의 활용 면에서

전북은 20년 이상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진행해오면서 한국의 어떤 서예 단체나 서예연구기관, 서예 홍보 기관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축적된 데이터 자료는 서예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놓고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 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표이다.

④ <제3회와 제4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작품 데이터>

| 구분 | 행 사 명 | 작품수 | 소장품수 | 디지털자료 | 비고 |
|--------------|--------------|--------|------|-------|-------|
| 제3회 (‘01) | 본전시 | 76점 | 미분류 | 76건 | 디지털사진 |
| | 세계문자서예전 | 26점 | 미분류 | 26건 | 디지털사진 |
| | 국제문자각전 | 31점 | 미분류 | 31건 | 디지털사진 |
| | 연하장서예전 | 76점 | 미분류 | 76건 | 디지털사진 |
| | 오늘의전북서예 | 75점 | 미분류 | 75건 | 디지털사진 |
| | 아름다운전북 | 32점 | 미분류 | 32건 | 디지털사진 |
| | 천인천자문전 | 1점 | 미분류 | 1건 | 디지털사진 |
| 계 | | 총 317점 | 100점 | 317건 | |
| 제4회 (‘03) | 본전시 | 119점 | 미분류 | 119건 | 디지털사진 |
| | 세계미술가서예전 | 30점 | 미분류 | 30건 | 디지털사진 |
| | 한글서예의 새지평전 | 48점 | 미분류 | 48건 | 디지털사진 |
| | 서예로떠나는 한국기행전 | 96점 | 미분류 | 96건 | 디지털사진 |
| | 일자서예전 | 30점 | 미분류 | 30건 | 디지털사진 |
| | 백남병전 | 128점 | 미분류 | 128건 | 디지털사진 |
| | 디자인서예전 | 22점 | 미분류 | 22건 | 디지털사진 |

| 구분 | 행 사 명 | 작품수 | 소장품수 | 디지털자료 | 비고 |
|----|-------|--------|------|-------|----|
| 계 | | 총 473점 | 114점 | 473건 | |

역대 서예비엔날레 작품 중 제1회에서 제6회까지는 전북도립미술관 수장고에 기탁되어 보관 중이다. 도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보니 자료 활용이 용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서예비엔날레 홈페이지에 ‘역대 비엔날레’ 디지털 사진 자료를 공개해 놓고 있어 작품사진 및 역대 비엔날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3회와 제4회의 경우 본 전시와 특별전에 출품되었던 모든 작품사진과 석문, 작품사진 옆에 작가의 간단한 약력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 마치 디지털 도록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 당시 보도되었던 신문자료들도 꼼꼼하게 탑재되어 있어 서예 문화 역사와 기록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1.10.8. 전북일보



2001.10.4. 중앙일보



2003.10.16. 전라일보



📍 2005.10.4. 전북도민일보

다음은 제7회에서 제12회까지의 홈페이지 데이터를 분류한 자료이다.

| 구 분 | 행 사 명 | 작품수 | 소장품수 | 디지털자료 | 비고 |
|--------------|--------------------|--------|------|-------|-----|
| 제7회 (‘09) | 동아시아 서예의 유파전 | 110점 | 72점 | - | 사무국 |
| | 한국가곡&한글서예전 | 32점 | 31점 | - | 사무국 |
| | 병풍으로 보는 수목4군자전 | 4벌 | 4점 | - | 사무국 |
| | 한국대학서예의 동향전 | 52점 | 24점 | - | 사무국 |
| | 기념공모전 | 124점 | 4점 | - | 사무국 |
| | 학술대회 | | | 2건 | 동영상 |
| | 개막식 서예퍼포먼스 필가무묵 | | | 2건 | 동영상 |
| 계 | 총 18개 행사 | 1,419점 | 135점 | 4건 | |
| 제8회 (‘11) | 세계서예의 역동성전 | 376점 | 191점 | - | 사무국 |
| | 한글 11,172字전 | 784점 | 3점 | - | 사무국 |
| | 기념공모전 | 125점 | 4점 | - | 사무국 |
| 계 | 총 28개 행사 | 1,821점 | 198점 | - | |
| 제9회 (‘13) | 서예 철학전 | 109점 | 68점 | - | 사무국 |
| | 서방의 서예바람전 | 36점 | 12점 | 36건 | 사무국 |
| | 서예와 건축 인테리어전 | 30벌 | 11점 | 30건 | 사무국 |
| | ‘서예작품, 새 날개를 달다’ 전 | 18점 | 14점 | 18건 | 사무국 |
| | 기념공모전 | 96점 | 4점 | - | 사무국 |
| | 부리 깊은 家風전 | 10점 | - | 10건 | |
| | 모빌 서예전 | 291점 | - | 291건 | |
| | 영혼의 부리, 삶의 신바람 | 32점 | - | 32건 | |
| | 전북서예의 새바람전 | 48점 | - | 48건 | |
| | 사경전 | 16점 | - | 16건 | |
| | 영상서예전 | 4점 | - | 4건 | |
| | 아름다운 한국전 | 30점 | - | 30건 | |
| 계 | 총 34개 행사 | 1,546점 | 109점 | 488건 | |

| 구 분 | 행 사 명 | 작품수 | 소장품수 | 디지털자료 | 비고 |
|---------------|---------------|--------|------|-------|-----|
| 제10회 (‘15) | 세계서예의 상생전 | 162점 | 119점 | - | 사무국 |
| | 혼이 있는 괴서전 | 39점 | 27점 | - | 사무국 |
| | 한글서예유산 임시전 | 28점 | 27점 | - | 사무국 |
| | 세계문자서예전 | 25점 | 23점 | - | 사무국 |
| | 도자각서전 | 19점 | 19점 | - | 사무국 |
| | 철필의 노래전 | 20점 | 20점 | - | 사무국 |
| | 기념공모전 | 117점 | 4점 | - | 사무국 |
| 계 | 총 28개 행사 | 1,151점 | 239점 | - | |
| 제11회 (‘17) | 서문서예전 | 183점 | 73점 | 183건 | 사무국 |
| | 명사서예전 | 22점 | 12점 | 22건 | 사무국 |
| | 생활서예전 | 150점 | - | 150건 | |
| | 등불서예전 | 200점 | - | 200건 | |
| | 양생서예전 | 32점 | - | 32건 | |
| |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 40점 | - | 40건 | |
| | 전·서각의 어울림전 | 117점 | - | 117건 | |
| | 세계한국문화원서예수강생전 | 21점 | - | 21건 | |
| | 서예, 책을만나다전 | 24점 | - | 24건 | |
| 계 | 총 25개 행사 | 3,331점 | 239점 | 789건 | |
| 제12회 (‘19) | ‘서예 도를 밝히다’ 전 | 129점 | 56점 | 129건 | 사무국 |
| | 명인전각전 | 36점 | - | 36건 | |
| | 서예비상전 | 24점 | - | 24건 | |
| | 서화융화전 | 256점 | 39점 | 256건 | 사무국 |
| | 서·화·각·도자전 | 29점 | 9점 | 29건 | 사무국 |
| | 서예, 견인전 | 33점 | 17점 | 33건 | 사무국 |
| | 전북예찬 시문서예전 | 50점 | - | 50건 | |
| | 명사서예전 | 26점 | 1점 | 26건 | 사무국 |
| | 대한민국 학생서예전 | 78점 | - | 78건 | |
| | 해외동포 교학상장전 | 44점 | - | 44건 | |
| | 내고향 예찬전 | 275점 | | 275건 | |
| | 기념공모전 | 99점 | 4점 | | 사무국 |
| 계 | 총 31개 행사 | 1,771점 | 135점 | 9804건 | |

서예비엔날레 홈페이지는 역대 비엔날레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지만 제1회와 제2회의 자료는 간략한 소개만을 하고 있고 제5회와 제6회 제7회의 홈페이지에는 사진자료와 영상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나,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22년간의 행사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역대 서예비엔날레 참가했던 세계 여러 나라의 작자들 국적과 명단과 각 전시의 작품 수를 확인할 수 있고, 위의 표에 제시된 회차에는 비엔날레 행사 내용 및 각 전시의 작품사진과 내용 작가에 대한 정보, 당시 행사장의 활동사진 내용과 언론 보도자료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1개월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비엔날레관과 수장고가 없는 서예비엔날레 측은 출품작품들을 개인 작가들에게 대부분 반출시킨다.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준비했던 전시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디지털 사진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역대 비엔날레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당시 세계서예인들의 기록을 볼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서예 자료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예비엔날레가 만든 중요한 영상자료인 ‘만법귀일’은 서예가 20인의 휘호영상을 기록하고 있다. 분야를 나누어 한국서단의 중견 서예가들을 찾아다니며 제작한 영상이다. 이 영상에 참여한 작가는 다음과 같다. 전서에는 진명근, 김기동, 예서에는 정도준, 박원규, 해서에는 여원구, 선주선, 양진니, 행서에 조수호, 양진니, 초서에는 정주상, 변요인, 한글서예는 김단희, 김진희, 최민렬, 현대서예는 김태정, 문인화에는 민이식, 박종희, 조문희, 정연교, 전각에는 조수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 20인 서예가들의 휘호 영상을 담아내었다. 15년 전의 기록이 되어 버린 이 영상은 이미 작고하신 분들의 휘호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는 연륜 속에서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새로이 축적할 수 없는 전복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다. 이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한국의 서예는 진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북이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모태로 삼아 장차 선점적으로 한국의 서예를 진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국·내외 지명도 면에서

전라북도가 1997년 세계최초로 서예비엔날레를 개최한 이후 세계서예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서예행사가 바로 2년마다 열리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이다. 그러다 보니 도내의 지방언론 및 중앙언론과 해외 언론들도 서예비엔날레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예비엔날레 홈페이지에는 역대 비엔날레의 기록들이 많이 담겨 있다. 특히 매회 언론보도 내용을 꼼꼼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아래의 사진은 2015년인 제10회 서예비엔날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도자료 목록들이다. 비엔날레 보도자료 창에 올라와 있는 제목과 날짜를 살펴보면, 개막 이전부터 전시 완료 이후까지 많은 언론이 이러한 세계서예인들의 전시에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북도민일보의 경우 2015년 10월 18일에 3건의 보도자료를 올릴 정도로 도내 언론사의 경우는 보도되는 횟수와 내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중앙언론사도 개막행사 뿐 아니라 서예비엔날레에 대한 소개 내용을 매일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TV방송사에서도 서예비엔날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메인 뉴스를 통해 비엔날레를 소개했다.

보도자료

전체 127

| 번호 | 제목 | 보도일자 | 링크 |
|----|--|------------|----|
| 67 | [전북도민일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막 | 2015-10-18 | 링크 |
| 66 | [전북일보] 2015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그랜드오픈을 아우다함이 '여섯번의 도전-서예가로서 꿈' - | 2015-10-18 | 링크 |
| 65 | [전북도민일보] [세계] 그림의 수성한 아우다함이 작가 | 2015-10-18 | 링크 |
| 64 | [국민일보] 제10회 세계서예비엔날레 17일 전주에서 개막 | 2015-10-18 | 링크 |
| 63 | [전라일보] '비엔날레' 세계 문화예술 '마지막' | 2015-10-18 | 링크 |
| 62 | [이투데이] '2015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오늘 개막 - '평화 서예전' 등 28개 행사 구성 | 2015-10-18 | 링크 |
| 61 | [전북도민일보] [서예] 해외교육 통해 세계화 나서야 | 2015-10-18 | 링크 |
| 60 | [보라일보] 2015 세계서예비엔날레 개막 | 2015-10-17 | 링크 |
| 59 | [뉴스원] 2015 세계서예비엔날레 개막 - 11월 15일까지 | 2015-10-17 | 링크 |
| 58 | [일요신문] '세계 서예인들의 대축제'...전주서 '2015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막 | 2015-10-17 | 링크 |
| 57 | [뉴스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첫눈 해외 서예 작가들 | 2015-10-17 | 링크 |
| 56 | [뉴스원] 전주서 열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 2015-10-17 | 링크 |
| 55 | [연합뉴스] 세계서예비엔날레 둘러보는 정충성 장관 | 2015-10-17 | 링크 |
| 54 | [뉴스원] 세계서예비엔날레 둘러보는 정충성 행정자치부장관 | 2015-10-17 | 링크 |
| 53 | [연합뉴스] 전서장 둘러보는 정충성 장관 | 2015-10-17 | 링크 |
| 52 | [뉴스원] 총문 작가 아우다함이, 2015세계서예비엔날레 대상 수상 | 2015-10-17 | 링크 |
| 51 | [JTBC뉴스] 공연과 만난 서예... '붓으로, 몸으로' 경계를 허물다 | 2015-10-17 | 링크 |
| 50 | [연합뉴스] 세계서예비엔날레 방문한 정충성 장관 | 2015-10-17 | 링크 |
| 49 | [뉴스원] 2015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17일 개막 | 2015-10-16 | 링크 |
| 48 | [아주경제] [인터뷰] '전북비엔날레'가 서예인을 체면 살린다 | 2015-10-15 | 링크 |

JTBC 뉴스

공연과 만난 서예... '붓으로, 몸으로' 경계를 허물다

2015.10.17 20:47

한때, JTBC 뉴스는 대형 문화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앵커]

흔히 서예라고 하면 조용히 앉아서 붓글씨 쓰는 걸 떠올리시죠, 그렇다면 공연과 만난 서예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현장에 주정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예가가 합창 붓글씨로 글씨를 새 내려가자, 의상을 곁게 차려 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춥니다.

팔가목두, '붓은 노래하고 먹은 춤춘다'는 공연인데, 전통 예술인 서예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표현합니다.

위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5년 10월17일 JTVC뉴스와 연합뉴스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 행사이자 국제행사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대해 보도했다. 그리고 국내 언론 가운데 서예인들이 보는 서예월간지에는 매회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9~10월 사이에 특별 보도의 형식으로 서예비엔날레 행사를 소개했다. 전국의 서예인들이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전시를 통해 서예의 비전과 발전을 보아 왔기 때문에 서예인들이 갖는 관심의 정도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국내 서예 전문 언론사에도 15~16페이지 분량으로 행사의 진행과 전시에 대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① 월간서예 2019년도 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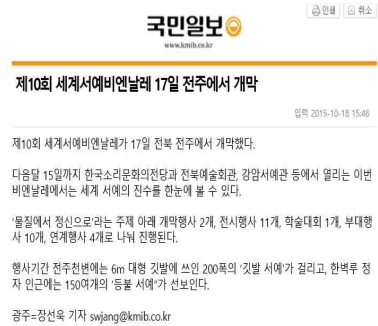
② 서예문화 2019년도 10월호



연합뉴스 2009.9.21



아주경제 2015.10.19



국민일보 2013. 10.18



The 11th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2017
 21 OCT - 19 NOV. 2017 / EXHIBITION, COREA
Theme: Purity and Application
 say Calligraphy 書, Energy (氣) · Law (法) · The way (道) · Skill (藝)
Participants: 183 artists from 17 countries
FeiMo Artists: Nicola Piccioli, Paola Billi, Aldo Borgo

이탈리아 전문서예 사이트 페이모 뉴스 2017.10



The World Calligraphy Biennale Jeollabuk-do
 OCT. 2013 / MOSTRA, COREA
FeiMo Artists:
 Paola Billi Xizi, Nicola Piccioli Huoyun, Aldo Borgo, Daniela Radeglia, Marina Lovatti, Bruno Brugnoli

이탈리아 전문서예 사이트 페이모 뉴스 2003.10



일본 서도미술 신문



이로 보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명실공히 한국의 서예를 대표하는 국제행사이고 서예진흥법 제정 이전부터 한국서예의 진흥과 세계 진출을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했던 기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지원하고 육성해온 지역이 바로 전라북도이다. 전라북도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모태로 삼아 장차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해 나가는 일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2) 가능성

서예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동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전라북도는 발 빠르게 전라북도 서예진흥조례를 제정하였다. 전국의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이 제366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서예문화 발전과 서예를 통한 도민의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한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법인·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전북은 강암서예관이 있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해마다 개최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서예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내 서예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들께서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인 서예를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¹¹²⁾

■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전라북도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1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57514?no=257514&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처럼 발 빠르게 대처한 조례안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전라북도는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역량을 다방면에서 갖추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도 한국의 서예를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것이다. 그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북 서예가 갖춘 근현대 서예사의 역사성 면에서

- 창암 이삼만에 의한 최초의 지방서단 형성:

매천(梅泉) 황현(黃玿) 선생은 다음과 같은 시로서 호남의 서단을 찬미하였다.

- 송재 송일중의 뒤를 이어 창암 이삼만이 나왔고, 그 뒤로 벽하 조주승이 나와 우리 서예사에서 이 세 인물이 정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서예를 논하는 마당에서 결코 호남이 조용할 수 없게 되었다. (宋松齋後李蒼巖, 鼎足參差碧下三. 論定千秋東筆苑, 未應寂寞我湖南)

황현 선생은 여기서 “호남”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이 시에 나오는 세 사람의 서예가인 송일중, 이삼만, 조주승은 모두 전북 사람이다. 이처럼 전북에서는 예로부터 서예가가 많이 배출되었다. 이러한 과거의 전북서단을 돌아볼 때 자랑스러운 유산을 발견하게 된다.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독자적으로 형성한 지방서단의 큰 유산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조선 최고의 서예가로서 추사 김정희 선생을 꼽는다. 그리고 추사 선생에 필적하거나 버금할 만한 대가로서 안평대군 이용, 석봉 한호, 원교 이광사, 자하 신위, 양사언 등을 든다. 그리고 더러는 창암 이삼만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들 조선 시대의 서예가 중 창암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소위 지방작가는 아니다. 세종의 3자인 안평대군이 지방작가일 리 만무하고, 명문 경주김씨이면서 영조대왕 화순옹주의 부마인 할아버지 김한신(金漢薰)의 후예로서 참판을 지낸 추사도 지방작가일 수 없다. 그리고 평생을 유배생활로 지방에서 보낸 이광사 역시 그가 지방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고 해서 지방작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는 비록 그의 백부 이진유가 소위 나주벽서사건으로 유배될 때 이에 연루되어 회령으로 유배되고, 그 후 전남 해남 앞바다 신지도로 유배되어 평생토록 중앙 관계에 진출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그의 선대 가계는 판서를 지낸 명문으로서 그는 원래 백하 윤순을 사사한 중앙서단의 인물이었다. 자하 신위 역시 참판을 역임한 관력과 함께 중앙서단의 거물로 활약한 서예가이고, 양사언은 주로 외직을 맡아 중앙관직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나 한 고을에 정착함이 없이 평창, 강릉, 회양의 군수와 함흥의 부사를 역임한 그를 지방작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외에 한호 역시 비록 지방관직도 맡은 적이 있지만 주로 사자관 신분으로서 중앙관계에 있으면서 중앙서단에서 활동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방작가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들 여러 서예가와 달리 창암 이삼만 선생만은 전북지방에서 출생하여 전북지방에서 평생 살면서 후학을 가르치며 서예 활동을 한 명실상부한 지방작가이고 향토작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북 서단은 다른 지방의 서단과는 달리 전형적인 지방작가로서 탁월한 서예적 성과를 올린 대선배인 창암 이삼만이라는 큰 서예가가 있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창암 이삼만 선생은 그가 이론 탁월한 서예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바로 지방작가였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평생을 포의로 보낸 서인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중앙서단의 사대부들로부터 농필객(弄筆客: 붓으로 장난질 치는 사람)이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였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도 이 지방 전북사람들 외에 타 지역 특히 서울에서 창암을 제대로 대접하려는 경향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지방작가라는 이유로 대우는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지만 창암 선생, 그의 글씨는 대단한 경지에 이른 글씨이며 한국서예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글씨이다. 그의 글씨를 평하여 대단한 경지에 이른 글씨라 하는 까닭은 전해행초서 모두 무구속의 자연스러운 경지,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그의 글씨를 한국서예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글씨라고 평한 까닭은 그의 글씨야말로 한국에서 자생한 가장 한국적인 글씨이기 때문이다.

이삼만의 글씨를 보면, 유수체(流水體)라고 불리우는 그의 행초서(行草書)에는 노래와 춤을 즐기는 우리 민족의 풍류가 있고, 그의 독특한 해서(楷書)에는 한국여인의 하얀 버선코 같은 단아함과 청결함, 그리고 감추어진 듯 스며나오는 우수가 깃들여 있다. 그리고 그의 전(篆)·예의(隸意)가 담긴 대해(大楷)에는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지게발목 두드리며 육자배기 한가락 흥얼대는 한국 남자의 우직한 듯 정겹고, 역센 듯 천진한 정서가 깃들여 있다. 이러한 창암의 글씨는 결코 원교에게 뒤지는 글씨라고 할 수 없으며, 추사의 글씨에 대해서도 필적할 만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다. 지방이 서울 혹은 중앙에 종속된 개념으로 이해되던 시대는 지났다. 각 지방의 특색을 최대한으로 살려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지방작가로서의 대 서예가인 창암 이삼만 선생을 선배로 둔 전북 서단은 어느 지방보다도 큰 서예 유산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갖는 전북서단의 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창암 선생의 서맥은 그의 뒤를 이은 특별한 제자가 없는 탓에 비록 지방 서예작가로서의 일맥을 형성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조선 고유색 짙은 서예미는 후대로 이어져 전북지방의 서예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구한말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기간에도 전북지방에서는 석정 이정직(1841~1910), 성산 이순재(1869~1943), 벽하 조주승(1854~), 유재 송기면(1882~1956), 효산 이광열(1885~1967), 설송 최규상(1891~1956), 유하 유영완(1892~) 등 서울의 서예가들 못지않은 명필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니, 이는 창암시대부터 일찌감치 독자적인 지방서단을 형성한 자존심과 자부심에 기인한 결과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전북의 서예가 가진 이러한 역사성으로 인하여 전북은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해나갈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 어느 지역보다 많은 전북 지역의 근·현대 서예가들

전북은 어느 지역보다도 근·현대의 서예가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다. 그리고 작가의 수준도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일제 강점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한 전북지역의 서예가들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④ <전북서단의 지역별 활동작가>

| 지 역 | 작 가 |
|--------|---|
| 전주(8) | 전우(田愚)·이순재(李舜載)·이광열(李光烈)·최승현(崔承鉉)·백흥기(白洪基)·조병희(趙炳喜)·허산옥(許山玉)·조병철(曹秉哲) |
| 익산(1) | 유재호(劉載鎬) |
| 김제(10) | 이정직(李定稷)·이기(李沂)·조주승(趙周昇)·박규환(樸奎煥)·조기석(趙沂錫)·송기면(宋基冕)·유영완(柳永完)·송수용(宋守鏞)·송성용(宋成鏞)·송하영(宋河英) |
| 정읍(1) | 김진민(金眞璫) |
| 고창(4) | 송태회(宋泰會)·배석린(裴錫麟)·황욱(黃旭)·김정회(金正會) |
| 부안(3) | 박호병(樸好秉)·김철수(金綴洙)·김세길(金世吉) |
| 임실(1) | 최정균(崔正均) |

이러한 작가들의 남긴 서예 유산을 내세워 한국서예의 중흥을 선도할 것을 자임하고 나선다면 전북은 한국 서예의 진흥을 위해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 전국 최초의 서예가 기념관 및 전문 전시관과 연구재단

전북은 전국 최초로 서예가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세워진 곳이고 서예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서예학술재단이 설립된 지역이다. 강암서예관과 강암서예학술재단이 바로 그것이다. 강암서예관은 강암 송성용 선생님이 평생 모은 대지와 소장품을 전주시에 기증함으로써 전주시에서 강암 선생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 건립한 전국 최초의 서예전용 전시관이자 세미나관이다. 이 서예관에서는 서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서예가들이 모여 서예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작품 품평회를 갖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대중을 상대로 서예에 관한 강연회도 하고, 전국 규모의 서예공모전도 개최한다. 이러한 서예적 자산이 있는 전북은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해 나갈 자격이 있고 그 가능성도 높다.

강암서예학술재단은 강암 선생이 서예의 학문적 연구를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재단이다. 이 재단에서는 해마다 학생서예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년 우수 작가를 선발하여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며 서예전문 학술지 《동양예술논총》을 발간한다. 그리고 1년에 서예학술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외국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별 강연회를 개

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활동 내역은 <강암서예>라는 신문을 발간하여 전국에 알린다. 이처럼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서예학술재단이 있다는 것은 전북 서예의 저력을 대변한다. **이런 저력은 곧 전북이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기도 하다. 이런 저력을 가진 전북이기 때문에 한국의 서예는 전북이 나서서 선도적으로 진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 한국 최초로 대학에 서예과를 설치한 원광대학

전북에 자리한 원광대학은 한국 최초로 대학에 서예과를 설치한 대학이다. 원광대학에 서예과가 설치된 이후로 대구 계명대학에 서예과가 설치되었으며 이어서 대구 예술대학에도 서예과가 설치되었다. 이어 대전대학과 경기대학에 서예과가 설치되었다. 전북의 원광대학은 한국 대학에 서예과를 설치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원광대학에 설치된 서예과는 한때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한국 선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은 많이 배출하였다. 불행하게도 2010년대에 불어닥친 대학 구조조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과가 되는 비운을 맞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원광대학 서예과가 양성한 서예인재들은 전국의 각지에서 젊은 세대의 서예를 주도하고 있다. 이 또한 전북이 가진 커다란 서예유산이다. 전북은 한국 최초로 대학에 서예과를 설치한 지역이라는 점만으로도 한국서예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 **이 점 또한 전북이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해 나가는 데에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초의 도단위 서예 공모전을 주도한 전북

지금 전북에는 어느 서예단체보다 회원 수도 많고 활동도 활발한 서예단체가 있다. 바로 강암연묵회(강암 선생 작고 전 원래 명칭은 ‘연묵회’)이다. 연묵회는 1968년 2월 19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40번지에 소재한 전주 향교 재단 사무실에서 강암 송성용 선생의 문하생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하였다. 초대회장은 당대(當代)의 한학자이던 면와 이도형(俛窩 李道衡) 선생이 맡았고, 이사장은 황면주(黃冕周) 변호사가 맡았으며 부회장은 내방가사(內房歌辭) 문학연구의 대가인 소고당(紹古堂) 고단(高端) 여사가 맡았다. 당시 강암 선생은 국전에서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한 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할 때였고 마침 김제의 구택으로부터 전주시 교동 지금의 자택으로 이거했을 때이다. 강암 선생이 전주로 이거하자 강암의 서예술과 인품을 흠모하던 많은 서예 애호인들이 강암 선생의 사숙으로 모여들어 서예를 연마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연묵회가 창립된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연묵회는 전북 서단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서단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도 실로 큰 의의를 갖는다. 그 의의는 우선 특색이 있고 역량이 있는 지방서단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때 서예가 타 장르의 예술에 비해 팔시를 받은 적도 있지만 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소위 국전을 중심으로 서예가 다소 활성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활성화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일부 명성이 있던 작가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방 서단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 아래서 서예의 중앙 집중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서예뿐이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연묵회는 지방서단의 큰 맥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연묵회는 창립 다음 해인 1968년에 제1회 전라북도 서예 전람회를 공모전 방식으로 개최하였으니 이것은 정부 수립 후 지방에서 열린 최초의 서예 공모전이었다. 서예 분야에서 이처럼 공모전을 실시하자 이듬해에는 회화, 조각, 공예 등 각 분야의 예술인들이 공모전을 함께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마침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미술전람회라는 지방 미술대전이 공모전 방식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전라북도 미술전람회가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을 모델로 삼아 전국의 각 지방에서는 앞을 다투어 지방 미술전람회가 개최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각 지방에는 그 지방의 특색을 살린 미술전람회가 발전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북은 지방의 서단뿐 아니라 미술계를 선도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할 자격을 어느 지역보다도 잘 갖추고 있다. 이처럼 전북은 한국의 서예를 대표하는 지역이자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역인 것이다.**

■ 최초로 국제교류전을 선도한 지방 전북

전북의 대표적인 서예 단체인 연묵회는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서예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국제교류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점으로도 유명하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아직 중앙 서단의 서예 단체들도 국제교류전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인 1982년에 연묵회는 이미 <한중이문연의전(韓中二門聯誼展)>이라는 이름의 국제교류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한중이문’이라 함은 한국의 강암 선생 문하에 모인 연묵회와 대만의 서예가인 삼석노인 사종안(三石老人 謝宗安) 선생이 이끄는 문하생 모임인 감람재서회(橄欖齋書會)를 말하는데 이 두 문중간의 교류는 한국 서단과 대만 서단의 실질적인 교류를 실천한 가화(佳話)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1981년 겨울, 강암 선생은 대만 정부로부터 초대를 받아 당시 대만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립역사박물관 국가화랑에서 초대전을 갖게 되었다. 이때 대만의 서예가들은 앞다투어 강암 선생님과 인연을 맺으려고 하였다. 이때에 하호천(河浩天) 대만 역사박물관 관장이 중개에 나섰다. 그는 인품과 취향과 풍격 면에서 강암 선생님과 흡사하다고 여긴 사종안(謝宗安) 선생을 소개하면서 이문

(二門) 사이의 교류를 권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연묵회와 감람재서회는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 제1회 한중이문연의전을 전북예술회관에서 갖게 된 것이다. 요즘이야 국제교류전이 흔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국제교류전은 극히 드문 일이었는데, 연묵회는 선도적으로 국제교류전을 개최한 것이다.

연묵회와 감람재의 교류는 연묵회 내부에 새 바람을 일으킨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서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교류를 통해 당시 대만 서예의 조류와 장점을 흡수한 연묵회원들이 갑골문, 금문, 한간(漢簡) 등 당시 국내에서는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서체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연마하여 그 결과를 과감하게 작품에 도입하면서 국내 서단의 서경(書境)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최초로 국제교류전을 선도한 지방인 전북은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서예적 자산과 역량이 풍부한 지역이다. 따라서 **전북은 장차 한국 서단 발전과 한국 서예의 진흥을 주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성과의 탁월성

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한국서예의 선도자 역할을 담당해 왔다.

광복 이후 서예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문화 환경에 처해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러한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있음으로 인하여 한국의 서예는 발전의 동력을 잃지 않고 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서예의 선도임을 자임하고서 한국의 서예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한국서예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서예의 학문적 연구 면에서의 선도자 역할을 해왔다.

광복 이후 우리는 서예를 학문적으로 연구해본 일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서예사나 서예 이론을 제대로 정리해 본 적도 없고 외국의 서예 이론을 번역하여 소개해 본 적도 거의 없다. 이러한 까닭에 한국 서단은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 관점에서 파악된 서예사나 서론에 대한 교육이나 연구에 힘을 쏟아 본 일은 거의 없고 공모전에서의 주도권에 대한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전혀 지나친 평이 아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예계 일각에서 서예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서예계가 다소 변하는 분위기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번역서를 중심으로 서예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료도 더러 나오기는 하였으나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이 비하면 아직 형편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서예에 대한 학문적 연구 면에서 한국의 서예를 선도함으로써 한국서예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서예의 예술적 창작 면에서의 선도자 역할을 해왔다. 광복 후 한국의 서예는 학문이 앞장서 예술로서의 서예 창작을 인도할 수도 없었고 이미 창작된 작품에 대해서 학문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비평을 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서예 창작 수준은 날로 저하되었고 결국은 이처럼 저하된 허약한 창작 기반을 대중들에게 드러내게 되었다. 서예계 내부의 허약한 실상이 드러나자 서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날로 더 시들해지고 서예를 가까이하는 대중은 날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한국서예의 예술적 창작 면에서 바른 길을 안내하는 선도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국의 서예가 대중들과 유리되는 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어해 왔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서예계 자정(自淨)의 선도자 역할을 해왔다. 광복 후, 한국 서단에선 갑투든 공모전이든 ‘나누어 먹기’식과 ‘패거리’식이 적잖게 횡행했던 게 사실이다. 공모전의 심사를 놓고 ‘뒷돈거래’ ‘정실심사’ 등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때로는 경찰에서 서예 단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서예단체 간부들과 일부 서예가들이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항상 공정하고 정확하게 작가를 선발하고 모든 행사를 내실 있게 치름으로서 한국서예계 자정의 선도자 역할을 담당해 왔다.

②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서예의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21세기 문화 콘텐츠의 시대에 서예는 산업화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분야 중의 하나이다. 서예를 이용한 디자인의 산업화도 가능하고 서예심리치료 센터, 유명서예가 이미지 산업화 센터, 서예 공연 센터의 운영도 가능하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그러한 가능성에 입각하여 서예의 산업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③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한국서예 세계화의 주도자 역할을 담당해 왔다.

과거처럼 모필(毛筆:붓)이 유일한 필기도구일 때는 붓을 가지고 서예의 본원적인 매체인 한자를 일상으로 써온 중국이 서예의 종주국이 될 수 있었지만 모필 외에도 만년필, 연필, 볼펜 등 각종 필기도구에다 컴퓨터가 일반화된 지금 모필을 일상으로 쓰지 않기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이 시대의 서예는 일상 문자생활의 부대 예술로서의 서예가 아닌 독립된 장르의 예술로서의 서예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서예에서는 누가 더 철저히 서예의 예술성을 탐구하고 누가 더 서예의 예술적 특성을 살린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며 이러한 성패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서예의 종주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한국의 서예를 세계에 널리 홍보한다면 한국은 충분히 서예의 종주국으로 부상할 수 있고, 전라북도도 세계서예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서예, 전북의 서예

를 세계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전북이 보유한 풍부한 연구·기획 인력

전북은 현재 한국 서단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많은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서예에 대한 연구와 기획 능력을 갖춘 인물이 많은 지역이 바로 전북이다. 인인성사(因人成事)라는 말이 있다. 사람으로 인하여 일을 이룬다는 뜻이다. 전북은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서예에 대한 연구·기획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할 자격이 있다.

① 우산 송하경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 서예가로서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서예계를 이끄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서예의 독립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대한민국미술협회로부터 서예를 분리하여 오늘날의 ‘한국서예협회’를 창립하는 산파 역할을 하였으며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탄생시키는 주역으로 역할을 다하여 제1~3대 조직위원장(1996.8.~2002.8.)을 맡았다. 한국서예학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1998.2~2000.5)을 맡았으며, 한국동양예술학회 제1·2대 회장(1999.8~2003.8), 동아시아문화포럼 제1~4대 회장, 학술지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편집 주간(1998.8.~2006.7), 한국서예비평학회 제1~4대 회장(2007.7~2015.6)을 맡음으로써 한국 서단에서 서예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송하경 교수의 이러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서예학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한국미술협회이사(1986.2~1989.12), (재)예술의전당서예관운영위원(1987.4~1990.5), 서울지하철공사 전 시각품심사자문위원(1988~2012), (사)한국서예협회 창립준비위원장(1989.1~1989.4), (재)강암서예학술재단 부이사장, 이사장(1993~2000), 추사김정희선생기념사업회의 이사와 상임이사를 거쳐 부회장(1995~2001), (사)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회의 부이사장(1998~200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동산문화과, 2011.4~2013.4) 등을 맡아 한국 서예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한국서예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지금도 한국 서예계에 끼치는 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안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로서 작품 활동도 왕성하게 하여 국내외 서예전에 100회 이상 초대 출품하였으며 7회의 개인전을 가졌고, 대한민국 서예대전과 동아미술제 등 대한민국 최고권위 공모전의 운영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을 맡는 등 유명 공모전의 심사를 수십 회 맡아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경, 타이베이 동경 등에서 열림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서예의

위상을 높였다. 성균관대학에 서예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을 설과하여 많은 전문연구인력을 배양한 것은 송하경이 이룬 업적 중 가장 의미가 깊은 업적임과 동시에 한국 서단에 대한 큰 공헌이다. 송하경은 그가 배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한국 서단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큰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우산 송하경은 현재 한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 원로 서예가이자 서예학자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을 통해 쌓아온 큰 영향력을 활용하여 **한국 서예의 진흥을 도모한다면 전복이 한국의 서예를 선도할 수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산민 이용

이용은 세계서예전복비엔날레 총감독과 집행위원장을 맡아 세계서예전복비엔날레를 건인해온 서예가이다.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이며, 개인전 18회를 비롯하여 예술의전당·조선일보미술관·아랍미술관 등의 초대전과 동경박물관·베를린국립박물관·북경미술관 등 해외초대전 국제교류전에 500여회 참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장 등 국내 여러 공모전의 심사위원을 60여회 맡았으며 송재문화상, 효원문화상, Art Noblesse상, 원곡서예문화상, 목정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한국현대조형서예협회 이사장과 전주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서예협회 자문위원, 한국전각협회 자문위원, 국제서예가협회 부회장, 한국서예진흥재단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서예에 대한 연구를 겸하여 《예서시탐》, 《한묵금낭》, 《서예개관》, 《금문천자문》, 《소전천자문》, 《7체천자문-금문》, 금문《채근담》과 《한시300수 I, II》, 《명문100선》, 《금문총서-아계부 등 5권》을 출간하였으며 개인 작품집 18권을 출간하였다. 실질적으로 한국 서단을 이끄는 영도자적 위치에 있는 서예가이다. **이용은 전라북도가 나서서 한국의 서예를 진흥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예가이다.**

③ 하석 박원규

박원규는 강암 송성용 선생 문하에 입문하여 서예를 배웠고 대만에 유학하여 독옹(獨翁) 이대목(李大木) 선생으로부터 전각을 배웠다. 금둔 송창, 월당 홍진표, 지산 장재한 선생께 한학을 사사하였다. 1979년 동아미술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1984년 첫 번째 작품집 《계해집》출간을 시작으로 30권에 가까운 작품집을 출간하였다. 1985년에 출간한 《마왕퇴백서노자임본》은 현재 하버드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양현재와 사회교육원 서예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등에 출강하였다. 「한국서예100년전」을 비롯하여 권위가 높은 기획전에 여러 차례 초대 참여하였으며 1988년의 「하석 한간전」을 필두로 2020년의 「하하옹치언」 전까지 여섯 차례의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1999년에는 서예전문잡지인 월간 《까마》를 창간하여 약 7년 동안

국내외 서예사와 서예가를 조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는 서울 옥수동에 ‘작비서상(昨非書庠)’이라는 서예아카데미를 열어 후학을 지도하고 있으며, ‘석곡실(石曲室)’이라는 개인 창작공간을 갖고 있다. 박원규는 현재 한국 서단에서 가장 참신한 서예작품을 창작하는 서예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2020년 말에 가진 「하하옹치언」이라는 이름의 개인전만 보아도 그가 한국 서단에서 늘 주목받는 작가임을 직감할 수 있다. 박원규는 작품 창작으로 한국 서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서예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북이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하는 데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을 제공하는 데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서예가라고 할 수 있다.**

④ 현담 조수현

조수현은 서예학 연구자이자 서예가이다. 원광대학교 서예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서예 전문인력을 배양하였다. 《한국서예문화사-한국금석문연구총서》, 《마음과 역사를 담은 전각 세계》, 인보집인 《중용, 금강경, 도덕경 등의 전각 세계》를 출간하였다. 원광대학교 박물관장, 전북박물관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과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장, 한국서예학회 회장, 전북문화재 2분과 위원장, 한국 전각학회 부회장, 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부회장 등을 맡았으며, 원곡서예학술상을 수상했다. 1988년 한국 최초로 원광대에 서예학과를 신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원광대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금석문탁본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3국과 고려시대에 쓰여진 비문서체를 엄선하여 10여년에 걸쳐 《한국금석문법서선집》 1~10권을 출간하였다.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과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장 등을 맡았다.

조수현은 한국 ‘대학서예’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서예가이자 서예학자이다. 원광대학에 한국 최초로 서예과를 설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후 줄곧 동과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예관련 전문인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배양했기 때문이다. 조수현이 배양한 서예 전문인력은 현재 한국 서단에서 누구보다도 활발한 작품 활동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수현과 그가 배양한 서예 전문인력은 전북이 한국서예의 진흥을 선점적으로 담당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이당 송현숙

송현숙(宋賢淑)은 서예가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세심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문인화(文人畵)를 대표하는 문인화가이다. 지금은 문인화가 서예와 분리되어 별도의 조직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예로부터 문인화는 서예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서예가들이 문인화가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송현숙은 그러한 ‘겸하는 작가’로서 한국을 대표한다. 단순히 ‘겸하기’만 하는 작가가

아니라 실지로 문인화다운 문인화를 그리는 실력이 있는 문인화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인품이나 인문학적 소양면에서 문인(文人)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실지로 문인다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

전북서예대전초대작가 심사 운영 이사, 대한민국서예대전초대작가 심사 운영 이사(01~10), 대한민국문인화대전 초대작가 심사 운영 이사(03~10), 현대서예문인화대전초대작가 심사 운영 이사, 대한민국 마한서예문인화대전 초대이사장(07~10), 무등미술대전초대 심사 운영,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현), 국제서예가협회이사(현),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 익산시문화재단이사역임(09~14) 등을 역임하였다. 이처럼 서단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공모전 심사에 30여 회 참여하였다. 원광대학교 서예학과에 출강하기도 하였으며 효원문화상(2011), 익산예술상작가상(2012), 한국예술문화우수작가상(2020) 등을 수상하였다. 국내외 유명 기획전에 30여회 초대되었으며 9회의 개인 작품전을 가졌다.

추앙받는 실력은 물론, 고매한 인품과 탁월한 친화력으로 한국 서예계에서 존경을 받는 서예가이자 문인화가인 **송현숙의 역량과 영향력은 전북이 선점적으로 한국의 서예를 진흥하는데 큰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심석 김병기

김병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학자이자 서예가이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창립 당시부터 창립의 이론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후로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존립과 발전 지향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주도해 왔다. 관련 부처를 향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중앙일간지와 서예전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역할과 우수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뿐만 아니라, 서예진흥법 원안을 기초하였고 서예진흥포럼에서 3회에 걸쳐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서예진흥법의 제정을 독려하고 호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도 **서예진흥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며 서예진흥법 이후의 한국 서단이 나아갈 바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서예진흥위원회 이사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건립하고, 나아가 전북의 주도 아래 한국의 서예를 진흥시키는 데에 김병기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기는 중국 시학·미학·서예학 관련 논문 60여 편을 발표하였으며, 서예 평론문 2,000여 편을 집필하여 월간 서예잡지에 게재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예리한 서예평론을 하고 있는 서예평론가로 평가받고 있다. 제1회 원곡 서예학술상을 수상(2008년)하였으며 한국서예학회 회장(2009~2010), 한국 중국문화학회 회장(2014~2016), 북경대학 서법연구소 해외 초빙교수(2004~

2010), 대한민국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2013~2015)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총감독(2009~2017) 등을 역임하였다.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작품수집 심의위원,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장, 전주시 조선왕조실록 복본화사업 자문위원회 위원장, 전주시 완판본문화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주 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을 맡기도 했다. 전북대학교에 BK사업을 두 차례나 유치하여 14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했으며 7년 동안 전북대학교 「BK+ 한·중문화 ‘和而不同’창의인재 양성 사업단」 단장을 맡아 중국어문학 뿐 아니라 서예학을 연구하는 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현재는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면서 국제서예가협회 부회장, 강암연묵회 회장,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2분과 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카자흐스탄, 헝가리, 이탈리아, 러시아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초빙을 받아 한국서예와 중국서예의 차이점에 대한 특강을 하고 개인 작품전을 개최하며 서예퍼포먼스를 가짐으로써 한국의 서예를 서방에 알리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9년에는 서예의 종주국인 중국의 최고대학인 북경대학의 100주년 기념관 초청을 받아 개인 서예전과 서예토론회를 가짐으로써 한국서예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환기시켰다.

김병기가 지금까지 해온 이러한 활동을 잘 활용하고 김병기의 역량을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과 전북 주도의 선점적 서예진흥에 집중하게 한다면 사업을 성사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⑦ 호암 윤점용

윤점용은 현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이끌고 있는 집행위원장이다. 그리고 한국서예협회 제9대, 제10대 이사를 맡아서 한국에서 가장 회원이 많고 조직이 정비된 서예단체인 한국서예협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업적을 남겼다. 한국서예협회의 이사장으로서 한국 서예단체 총 연합회(서총)의 공동대표를 맡아 이른바 ‘서예 4단체’의 어떤 공동대표보다도 합리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함으로써 서예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서총의 공동대표로 평가받고 있다. 윤점용 공동 위원장의 활약으로 인하여 서예진흥법이 통과되었다는 게 서단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윤점용이 현재의 한국 서단에서 쌓은 이러한 공로는 그대로 현재 그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로 이어져 비엔날레관을 건립하고 **나아가 전북 중심의 서예 진흥을 도모하는 데에 큰 작용을 할 것이다.**

이미 국내외의 권위있는 서예전에 수 십회 초대되어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쿠웨이트 수교 30주년 초대전」,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초청 서예전 및 서예특강」을 갖는 등 해외 전시와 특강을 통해 한국의 서예를 외국에 소개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서예대전, 한국 현대서예·문인화대전 등 국내 유명 공모전의 심사위원장과 각 지방 서

예 단체가 주도하는 공모전에 심사위원장을 맡아 공정한 서단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효원 문화상과 원곡서예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는 전주대학교 서예 전담교수로서 출강하고 있으며 개인 서예연구실을 운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2019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대형(가로 7.2m*세로 2.4m)으로 제작한 윤점용의 작품을 수장하여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윤점용은 서예진흥을 위해 현재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정부와 국회의 관계자와 접촉하고 있는 서예가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에 대한 설득력 또한 누구보다 높은 서예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활동력을 갖춘 서예가가 현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이끄는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⑧ 고산 최은철

최은철은 현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사)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윤점용과 함께 한국서예단체총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아 서예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한 장본인이다. 한국서예협회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예 단체로서 한국의 서예단체가 4단체로 분화하기 전 원래 한국 서단을 대표하던 유일한 서예단체였다. 따라서 서예단체로서 전통이 가장 깊고 회원 작가층도 가장 두텁다. 이러한 단체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서예진흥법을 통과하게 한 주역으로 활동한 서예가가 전북 출신으로서 현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는 점은 장차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비엔날레관을 건립하고 서예진흥기구를 전북으로 유치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은철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이자 전작가이면서 동양미학을 전공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서예학자이기도 하다. 현재 홍익대, 성균관대, 부산대 대학원 등에서 서예와 도가미술사상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서예술사전」, 「서예명비감상」, 「노자와묵객」, 「최은철의 서예전각 논어」 등의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현재도 노자의 「도덕경」을 예술가의 언어로 풀어내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예술적 역량과 학문적 역량, 그리고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국가사업으로 건립하고 **전북이 중심이 되어 한국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할 서예가이다.**

⑨ 지송 이정옥

이정옥은 한국을 대표하는 한글 궁체 서예가이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회원 수가 많은 서예단체인 갈물한글서회의 제20대 회장을 맡아 한국의 한글 궁체서예의 발전을 주도해 왔으며 여성 서예가의 리더로서 여성서단을 이끌어 왔다. 현재는 갈물한글서회의 고문이자 ‘세종한

글큰뜻모임'의 이사와 추사기념사업회 이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장차 한글서예가 한국의 서예에서 차지할 비중과 한국서예를 세계화하는 데에 담당할 역할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한글 궁체 서예의 대표 단체인 갈물한글서예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이정옥의 경력은 차후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전북이 중심이 되어 한국의 서예를 진흥하고 한글 서예를 세계의 문화 중심에 서게 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서예가 이정옥 또한, 전북 출신으로서 전북을 대표하는 서예가이다.

이정옥은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서예대전 심사를 비롯하여 신사임당·이울곡서예대전의 심사를 맡는 등 전국 규모의 대형 공모전에 심사위원을 여러 차례 역임하였으며 신사임당·이울곡서예대전 초대작가회 회장도 역임하였다. 국내외의 권위 있는 서예전에 초대 출품하였으며 《궁체흘림으로 쓴 송강가사》(2014, 도서출판 서예문인화), 《궁체정자로 쓴 한양가 519년》(2008, 공저, 이화문화출판사) 등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7.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 예상 기구의 운영계획

전라북도가 국내의 어떤 지자체보다도 선점적으로 한국의 서예진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전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어떤 형태로든 짜임새 있는 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실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예진흥법 제정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조직한 서예진흥위원회(서예진흥재단)와 긴밀한 협조

2018년 ‘서예진흥법’ 제정을 위해 조직된 곳이 서예진흥위원회이다. 서예진흥위원회가 조직될 당시 서예계 인사 60인 사회 각계 인사 50인을 정책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추진위원으로는 서총 4단체 초대작가 2,721명이 참여했다. ‘서총’이란 ‘한국서예인 총연합회’의 약칭으로서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위원회(당시 위원장 최은철)’, ‘한국서예협회(당시 이사장 윤점용)’, ‘한국서가협회(당시 이사장 박양재)’, ‘한국서도협회(당시 회장 김영기) 등 네 단체의 연합회를 의미하며, 당시 네 단체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서예진흥위원회(서예진흥재단)과 서총의 상호협력으로 서예진흥법의 제정을 이루어냈다.

앞서 IX장 6)절에서 서예진흥법 제정 후 전국의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전라북도 서예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전북이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8가지 소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 중 (8) 항목에서 제시한 전북의 ‘풍부한 연구·기획 인력’을 활용하여 현 「서예진흥위원회(서예진흥재단)」 및 서총(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서예진흥위원회(서예진흥재단)」의 업무를 전북의 인력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재를 구축해야 한다.

2) 전북의 선점적 서예진흥을 위한 기구설립과 예상 조직의 구성

■ 기 설립된 각종 진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상황

전북이 선점적으로 한국서예의 진흥을 담당하는 데에 필요한 예상 설립 기구의 조직을 구상해 보기 위해서는 기 설립된 각종 ‘진흥 기구’의 조직과 운영 실태를 분석 후 사업수행이 가장 원활

하게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콘텐츠 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조직 운영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4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되면서 2005년 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민법 제32조)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주요사업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사업, 문화예술교육 학술 연구 및 조사,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위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재정에 대한 감사와 운영 전반에 걸친 심의를 맡고 있다. 사업 전반에 걸친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원장을 두고 있다. 그리고 경영기획부, 교육기반본부, 청소년 교육본부, 시민 교육본부 이렇게 네 개의 부서를 두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기획부에서는 경영기획, 인사, 총무회계 업무를 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교육기반본부는 지식정보 R&D센터, 국제협력, 교육연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본부는 교육기획,

미래교육, 교육지원, 교육연계 관련 업무를 팀으로 분업하여 담당한다. 시민교육본부는 지역협력, 시민교육, 교육나눔으로 팀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택트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조직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와 공공디자인, 전통생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2000년 4월에 설립되었다. 이곳은 공예문화를 향유와 소비 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를 운영, 창의적인 작가들의 상품개발과 유통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한국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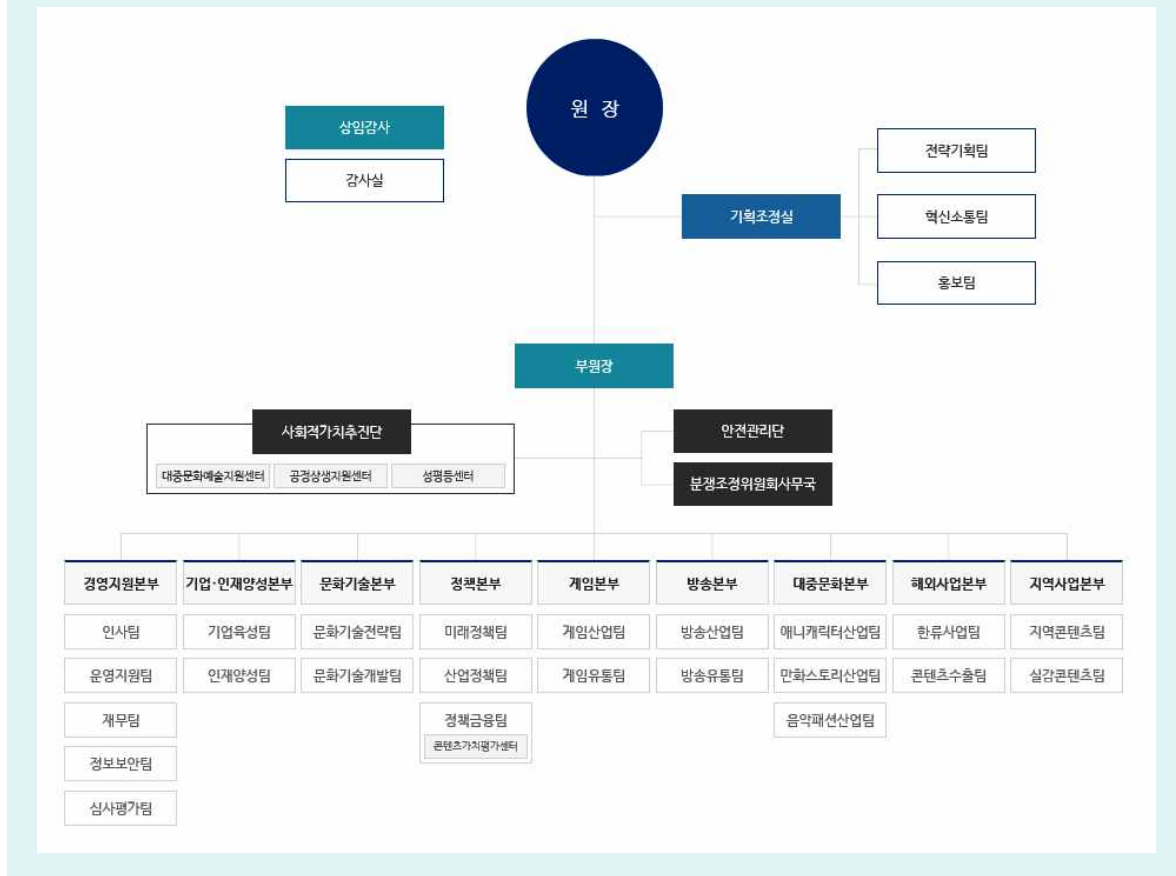
위의 조직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공예문화, 디자인문화, 전통생활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위한 부서들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흥원 운영을 총괄할 원장 아래 경영본부, 공예본부, 디자인본부, 전통생활문화본부, 한복진흥센터 다섯 개의 부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본부에서는 기획과 경영전반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공예본부에서는 공예문화, 공예산업, 공예기반, 갤러리 운영 등을 팀별로 조직하여 공예본부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디자인 본부는 디자인문화진흥, 공공공간사업, 문화역서울284 세 팀으로 분류하여 디자인문화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생활문화본부는 전통생활문화진흥과 전통생활문화산업 두가지로 팀을 나누

어 운영되고 있고 한복진흥센터도 한복문화와 한복산업으로 구별하여 팀을 조직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도〉



마지막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다. 2009년 1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2009년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게임,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 장르별 산업 지원과 해외수출, 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문화기술 개발, 정책연구와 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사업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의 표에 의하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체사업을 총괄하는 원장 1인과 부원장 1인을 두고 있으며, 상임감사가 있는 감사실과 원장 직속기관으로 운영되는 기획조정실 두 개의 실을 두고 있다. 기획조정실은 전략기획, 혁신소통, 홍보 세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원장 아래 경영지원본부, 기업·인재양성본부, 문화기술부, 정책본부, 게임본부, 방송본부, 대중문화본부, 해외사업본부, 지식사업본부 총 9본부를 두고 있다.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과 사회적가치추진단과 안전관리단 두 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9개의 본부로 나누어서 경영전반에 관한 운영총괄과 인재양성, 문화기술 개발, 미래정책 기획, 게임산업, 방송산업, 만화, 애니메이션, 한류사업,

지역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방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본부 아래 팀 별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 설립된 각종 진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다. 공예와 문화 예술교육 문화콘텐츠 관련 진흥원이다 보니 문화예술 방면과 교육 방면 사업 구성 및 수행부 분들은 전라북도가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설립할 수도 있는 기구의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서예진흥을 담당할 예상 기구의 조직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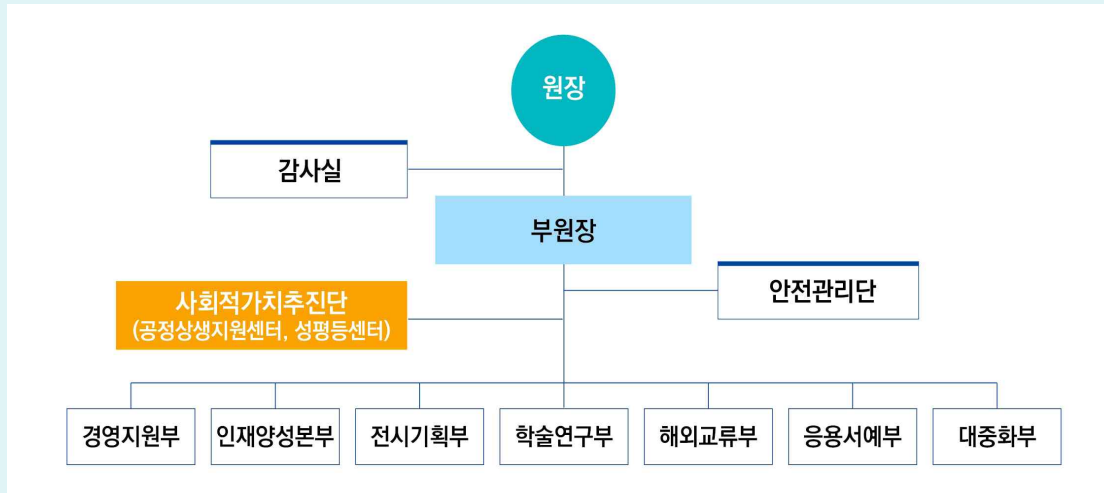
서예진흥법에 의한 서예진흥은 문자영상시대에 서예교육을 통해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 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예의 진흥을 담당할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구성원들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분야별로 분업화시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먼저 담당 기구의 임원 조직에 있어서 원장과 부원장, 이사, 감사를 구성해야 한다. 원장의 업무 분담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부 관리를 위해 부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원조직은 원장 1인, 부원장 1인, 이사15인 이내(원장1인, 상임이사 1인 포함)로 구성하며, 감사 1인(상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원장은 기구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기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상임감사는 감사실을 운영하며 기구의 업무와 회계 감사를 담당한다.. 상임이사는 원장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원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에서는 원장이 이사회의 의장을 담당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결사항에 대해 결의해야 한다.

기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 조직의 편제를 7본부, 2단으로 구성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장 아래 부원장을 두고 경영지원부, 인재양성본부, 전시기획부, 학술연구부, 해외 교류부, 응용서예부, 대중화부, 안전관리단, 사회적 가치추진단으로 나누어 총괄 운영한다. 부원장은 7본부와 2단이 부서별로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부를 둘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 관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부설기관을 설치해 별도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조직구 성에 대한 배치를 예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 〈서예진흥을 담당할 예상기구 조직도(안)〉



3) 서예의 진흥을 담당할 예상 기구의 운영방안

서예의 진흥을 선점적으로 담당할 기구의 운영방안은 앞장에서 제시한 예상 기구의 조직 구성(안)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운영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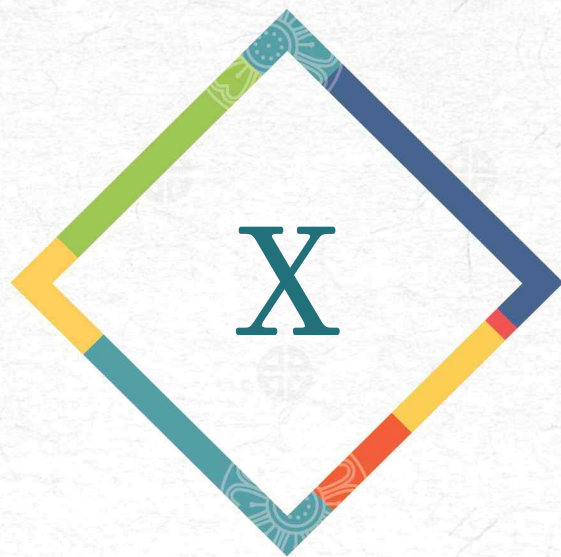
- 경영지원부는 인사팀에서 운영인력 구성 업무, 운영지원팀에서는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재무팀은 예·결산 편성 및 집행 그리고 회계관리, 심사평가팀은 운영인력 평가 및 기타 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입장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홍보팀은 홈페이지 관리 및 **기구 전체에 대한** 홍보를 책임지고 담당한다. 디지털 홍보자료 및 인쇄물 제작과 국내외 홍보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
- 인재양성본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인재양성팀을 구성하고 서예교육 전문가 양성 및 서예 작가풀 제도를 운영한다. 초·중등 서예교과서에 대한 개발과 연구를 통해 서예전문 교과서 제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서예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교육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전시기획부는 국내 작가섭외 및 작품 수집 및 표구, 운송 등을 관한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전시작품 설치 및 전시관련 책자와 리플렛 제작 등에 대한 기획을 담당한다. 전시관련 홍보물인 경우 전시기획부에서 기획한다.

- 학술연구부는 국내외 학술대회를 기획 진행시킨다. 국내외 연구자 중 서예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인력 확보방안을 기획하여 추진한다. 상시연구진과 초청연구진으로 분류해 연구 자료집 발간사업을 진행한다. 연구 자료집은 국내학술지와 국제학술지로 나누어서 제작한다. 아울러 서예유산 보존 정리 사업을 진행하여 고대부터 근·현대 작가의 서예작품들을 선별하여 수집하는 일들을 기획하여 운영한다.
- 해외교류부는 외국작가 섭외 및 작품수집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교류전을 기획하고 관련 업무들을 수행한다. 외국자료에 대한 통번역을 담당하여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행사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 국내작가의 해외전시를 추진하고 지원하여 국내작가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작가가 될 수 있도록 해외전시를 지원한다.
- 응용서예부는 문자디자인 분야의 작가 발굴 및 작품을 수집하여 응용서예 관련 전시를 기획한다. 문자디자인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서예의 대중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공연 관련 팀을 구성하여 서예와 공연이 함께 진행되는 공연서예 분야에 대한 기획과 작가 발굴 및 공모 등을 추진하여 서예와 타 분야와의 융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 대중화부는 서예진흥에 관한 정책연구를 담당한다. 그리고 서예교양교육과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 서예교양강좌를 기획하고 강사 섭외 및 수강생 모집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체험활동은 상시체험에 대한 개발과 특별전시, 기획전시가 개최됐을 때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는 활동 등을 기획한다.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부서 | 팀명 | 세부업무 |
|-------|-------------------------------------|---|
| 경영지원부 | 인사팀 운영지원팀 재무팀 심사평가팀 홍보팀 | 1. 운영인력 구성 업무 2. 예산·결산 편성 및 집행 3. 회계 관리 4.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5. 업무 협약 및 체결 6. 입장권 정책 수립 7. 홈페이지 관리 8. 기구 전체에 대한 홍보 · 디지털 영상홍보물 개발 및 홍보 인쇄물 제작 · 국내 및 외국정부,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
| 인재양성부 | 인재양성팀 교육산업팀 | 1. 서예교육 전문가 양성 · 서예 강사풀 제도 운영 지원 · 서예교육 실기 전문교재 제작 · 초 중 등 서예교과서 개발 2. 서예교육방법론과 서예교육산업 정책 수립 |

| 부서 | 팀명 | 세부업무 |
|-------|--------------------------------------|--|
| 전시기획부 | 행사운영팀 전시기획팀 전시홍보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관련 전반적 행사 준비 · 자원봉사, 운영요원 모집 · 전시작품 표구, 운송, 전시장 작품 설치 2. 전시기획 및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작가 섭외 및 작품수집 3. 전시 홍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도록·리플렛 제작 지원 · 전시 홍보영상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 |
| 학술연구부 | 국내학술연구팀 서예유산보존팀 서예유산정리팀 출판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관련 종합계획 수립 2. 국내외 학술대회 기획 3. 연구인력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연구진 구성 · 초청연구진 구성 4. 연구자료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료(학술지) 발간 · 국제학술지 발간 5. 서예관련 전문서적 발간 6. 서예유산 보존 정리 |
| 해외교류부 | 해외전시기획팀 통번역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작가 섭외 및 작품수집 2. 국제행사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전 개최 · 국제학술대회 개최 3. 국제행사를 위한 통번역 업무 |
| 응용서예부 | 문자디자인팀 공연팀 아트샵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자디자인 분야 작가 발굴 및 작품 수집 2. 응용서예 분야 전시 기획 3. 문자디자인 아트상품 개발 지원 4. 서예와 공연 분야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발굴 및 공모 5. 타장르와 융합 서예 연구 6. 아트샵 운영지원 |
| 대중화부 | 교육·체험지원팀 서예진흥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양강좌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 및 실기 서예교양강좌 기획 · 서예실기 전문강사 풀 확보 · 수강생 모집 및 운영 2. 체험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체험 행사 기획 · 특별전 및 기획전시에 맞는 체험 행사 준비 및 진행 3. 서예진흥에 관한 정책연구 담당 |



결론



X. 결 론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하여 서예문화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팽배하던 시절인 1997년 1월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발의 뜻을 올렸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참여작가 수가 많으며, 내용이 다양한 종합적 성격의 국제서예 행사”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필요성을 첫째, 19C 서세동점(西勢東漸)과 21C 동세서점(東勢西漸) 속의 한국문화 동향과 플랫폼 사업, 둘째, 서예의 ‘동세서점(東勢西漸)’ 경향과 지속적 확산 가능성, 셋째, 현대 예술로서의 서예의 매력, 넷째, 왜 한국서예인가, 다섯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실적 분석과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 여섯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국가사업 진행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필요성, 일곱째,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여덟째, 전북이 한국의 서예진흥을 선점적으로 담당할 필요성과 가능성 등에 대해 7개 방향에서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첫째, 19C 서세동점(西勢東漸)과 21C 동세서점(東勢西漸) 속의 한국문화 동향과 플랫폼 사업에서는 서양에서 밀려든 문화에 의해 점령당했던 19세기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문화가 이후 세계의 문화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음악 분야에서는 피아노, 체육 분야에서는 야구, 미술 분야에서는 유화를 중심으로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漸) 시기의 문화현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전통국악, 태권도, 대중음악, 영화 등을 통해 21세기 한국문화의 세계 진출 현황과 미래 지향적 가능성을 진단해 보았다. 이렇게 태동하기 시작한 동세서점의 문화현상을 살펴본 결과, 우리는 서예도 세계로 나아가 세계문화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한 한류의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은 온라인상의 플랫폼이라는 공간이 있었다. 세계의 10대 기업도 플랫폼화를 지향하고 있고 한류콘텐츠도 플랫폼과 연계되어 있다. 문화예술도 이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미술 및 서예시장의 플랫폼화 가능성을 진단해 보았다.

둘째, 서예의 ‘동세서점(東勢西漸)’ 경향과 지속적 확산 가능성에서는 서양에서 불고 있는 서예 바람의 실체를 확인해 보았다. 이탈리아 서예단체 FEIMO, 러시아 서예박물관 세계서법박물관(世

界書法博物館), 프랑스 이응노 파리동양미술학교에서의 서예활동을 살펴보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참여 서양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서예는 서양인들에게 주목받는 예술로 자리하고 있었고, 서예는 문화의 동세서점(東勢西漸)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대 예술로서의 서예의 매력에서는 21세기에 서예가 세계적 예술이 될 수 있는 이유와 한자문화권의 예술정신 및 서예의 예술적 성격과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 시대는 인류가 본래 미덕으로 삼았던 성실과 절약과 절제를 회복할 수 있는 문예사조의 형성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문예조류 형성의 길을 동아시아한자문화권 문화예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서예’에서 찾을 수 있다. 서예에는 한자문화권의 전통 예술정신이 담겨 있고, 서예는 ‘순수’예술적 성격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디자인’으로서의 부가가치, 심신수양과 심리치료 효과, 인성교육 효과, 서예의 ‘공연문화’ 속성 등이 내재 되어 있다. 서예가 세계의 예술로 부상할 수 있는 이유이다.

넷째, 그렇다면 왜 한국서예인가. 서예는 동양 예술로, 대표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행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서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후 암흑기에 접어들었고 문화혁명 발발 후에는 명맥마저도 제대로 잇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덩소평(鄧小平)의 개방정책 이후로 서예의 붐이 일어났지만, 전통에 기반하지 않은 현대서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서예 역시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탈아시아’ 정책으로 인해 동양의 전통 예술은 고립되었고, 이후 전위서예의 등장으로 한자 문화권 고유문화로서의 서예의 전통성이나 고유성은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서예의 종주국이라 자처하며 중국서예를 해외로 진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문화 전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예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동양문화의 핵심인 서예를 전파하는 데는 그 깊이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한국의 서예는 광복 이후 토대가 빈약했고 각성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지만, 1세대 대가 서예가들에서 2세대 서예가들로 이어지면서 서예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갈 간직하고 있었다.

다섯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실적 분석과 함께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1997년 이후 12차 비엔날레의 성과와 세계 최초·최대 서예예술 행사로서의 위상유지 및 제고방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확대방안 등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점검해 보고 한국서예의 세계화 가능성을 진단해 보았다. 세계 여러 나라 언론에서 보도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기사나 타국의 국제서예 행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 행사가 세계 서예행사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실시된 여러 서예전을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기획 방향과 시행 가능한 전시의 예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음악이나 무용, 한지산업, 한복 패션쇼, K-pop 공연문화 등 타 장르와의 연계를 통하여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꾀할 수 있음을 진단해 보았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화 가능성이 많은 한국서예 관련 연구자료가 현재 외국어로 번역된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한국서예 자산을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하여 한국

서예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여섯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국가사업 진행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상황으로 볼 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전북의 한 지역행사가 아닌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전문적으로 진행할 비엔날레관의 건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광주비엔날레나 청주공예비엔날레가 국비를 지원받았던 것처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도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받아야 한다.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체예산의 확보를 위해 한국마사회, 삼성생명, 일진그룹 등과 접촉하여 후원금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서예교육과 서예진흥에 진력하는 중국정부의 경우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전시공간의 활용 면에서, 수장공간 확보와 상설전시 필요성 면에서, 기획전시나 기존 예술공간과의 차별성 등의 측면에서 비엔날레관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건립추진위 구성방안과 후보지 검토 및 공간 설명, 비엔날레관 건립 후 운영계획 및 자립방안에 관해서도 자료를 조사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기록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 및 절차를 점검해 보고, ‘한글궁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과 ‘한글서예’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그리고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방향을 살펴보았다. ‘한글궁체’는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필요한 4가지 기준, 진정성과 독창성, 세계적 관점에서의 중요성과 보조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한글서예’ 역시 등재 기준에 적합하다. ‘중국서예(2009년)’, ‘몽골서예(2013년)’가 이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 ‘서예’의 등재 요건은 이미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는 한국의 ‘한글서예’가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인 한글로 쓰인 점과 ‘중국서예’나 ‘몽골서예’와는 다른 순진무구한 청정성과 성스러운 예술성을 갖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전북이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조직하고 설립할 필요성과 실행계획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예는 문화의 동세서점(東勢西漸)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술이고, 특히 서예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갈 간직하고 있는 한국서예는 세계 서예예술의 중심에 서서 세계의 서예를 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국제적인 서예 행사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진행해온 전북은 한국서예의 중심에 있다. 2018년 ‘서예진흥법’이 제정되고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서예진흥법 시대에 서예의 학교 교육은 확보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기관 혹은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 이러한 서예진흥의 역할을 담당할 기구는 당연히 지금까지 한국서예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온 전라북도가 주도하여 서예비엔날레관을 중심으로 설립을 구상해야 한다.

이상에서 진행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① 20세기 말 1990년에 후반에 컴퓨터의 대량보급으로 서예무용론이 대두할 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오히려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발하여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가 높은 국제적인 서예 종합행사로 성장하였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행사로서 한국의 서예를 선도해 왔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서울의 예술의전당의 서울서예박물관이나 수원의 서예박물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로 인하여 전북은 한국서예의 중심이자 세계서예의 중심지라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전북이 가진 이러한 국가적 위상과 권위를 유지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세계서예비엔날레관도 하루빨리 건립되어야 한다.
- ② 19세기가 서양문화에 의해 동양 한자문화권의 문화가 잠식당하던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동양 한자문화권을 대표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동양의 문화를 서방에 내보내는 ‘동세서점(東勢西漸)’의 시대이다. 한국의 서예는 동세서점의 문화조류를 선도할 대표적인 장르이다. 한국서예를 세계화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지금은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북이 중심이 되어 한국의 서예를 세계화할 때이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이 시급하다.
- ③ 21세기 세계의 기업은 플랫폼 사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세계 10대 기업 중 7개 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는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크게 전환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예술 시장도 플랫폼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도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플랫폼 사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없이는 세계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만한 콘텐츠를 창출할 수도 제공할 수도 없다. 한국의 서예를 세계화를 추진하고 서예를 통하여 새로운 한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 ④ 문화혁명의 상처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서예와 지나친 서구화로 추상미술화한 일본의 서예가 굴기하기 전에 한국의 서예가 선도적으로 서예를 세계의 예술로 재탄생시켜 21세기에는 한국이 서예의 종주국이 되어야 한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이 시급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 ⑤ 붓글씨를 비롯한 모든 ‘손글씨’가 실용적인 서사 활동에 사용될 때는 서예의 예술적 가치와 함께 실용적 가치도 중시되었지만, 이제는 서예의 실용적 서사 기능은 컴퓨터로 대체하고 서

예는 순수한 예술행위로 재탄생해야 하는데 이러한 예술로서의 서예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차츰 높아가고 있다. 한국서예가 주도적으로 서예를 세계화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이 시급하다.

- ⑥ 한국은 한자서예뿐 아니라, 매우 청정한 예술성을 가진 한글서예가 있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독특한 예술성과 매력이 있는 한글서예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한국은 한자서예와 함께 한글서예를 세계화하는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이 시급하다.
- ⑦ 2018년 11월 11일 대한민국 국회는 서예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서예진흥법에 따라 서예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기구는 당연히 그동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통하여 한국서예의 중심지이자 세계서예의 중심지라는 위상을 확보한 전북이 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창안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서둘러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먼저 건립하고 건립된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중심으로 전북이 한국의 서예 진흥을 선점적으로 주도할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기구의 설립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 ⑧ 전북이 한국의 서예를 선점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서예계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서예진흥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며, 서예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등 다양하고 시급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질 서예교육은 국어 과목의 ‘(글씨) 쓰기’ 항목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종 사업에 대해 이론적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은 감당할 만한 역사적, 문화적, 인적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북이야말로 그런 인프라가 가장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런 ‘역사적, 문화적, 인적 인프라’라는 구슬을 꿰기 위해서는 공간인프라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고 장차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중심이 되어 한국의 서예를 주도적으로 진흥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논문】

- 권瑚, 〈韓·中 初等學校 國語教育의 樣相〉, 《語文研究》 24호, 1996.
- 김미현, 〈피아노와 근대 -초기 한국 피아노음악의 사회사〉, 《음악학》, 2010.
- 김병기, 〈서예의 현대적 변용-본질과 전통, 변질, 변용에 대한 辨釋〉, 《중국학 논총》, 2001.
- 김병기, 〈서예의 무대 공연 시안(試案) 연구 -무용과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2009.
- 김석배, 〈박동진 명창의 삶과 현대 판소리사에서의 위상〉, 《무형유산》, 2019.
- 김선희, 〈서예를 활용한 국어교과 「쓰기」 교육, 왜 필요한가?〉, 《서예학연구》, 2013.
- 김영나, 〈‘박람회’라는 전시공간: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와 조선관 전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2000.
- 김중섭, 〈태권도 세계화 방안에 대한 제언-세종학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태권도컨퍼런스》, 2017.
- 김희선, 〈국악의 세계화〉, 《공연문화연구》, 2013.
- 문혜정, 〈공자학원의 중국서예 세계화 전략에 관한 소고〉, 《중국학논총》, 2020.
- 문혜정, 〈디지털 시대 손글씨 쓰기가 갖는 의미와 쓰기 교육 강화 필요성〉, 《서예학연구》, 2009.
- 박해성, 〈한국 사회에서의 피아노의 문화적 의미: 예술적 취향에 내재한 계급성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2014.
- 서우선, 〈피아노 도입기 수용계층의 특성과 피아노의 사회문화적 의미〉, 《음악과 민족》, 2007.
- 신진호, 〈중국문화의 세계화 전략-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중심으로〉, 《중국지식네트워크》, 2016.
- 안동준, 〈중국의 어문 교육고정에 대하여〉,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1》, 2004.
- 顏默, 〈對孔子學院傳播中國書法的策略研究〉, 《書法賞評》, 2014.
- 양현석, 〈광복 이후 요람기부터 성장기까지(1945~1979) 태권도변천사〉, 《체육사학회지》, 2004.
- 王嶽川, 〈書法文化輸出與書法國際傳播〉, 《中國書法》3期, 2013.
- 尹冬民, 〈基於教育與傳播的視角: 中國書法文化走出去的堅守與迎合〉, 《中國成人教育》24期, 2015.
- 윤여광,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팬덤과 성공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19.
- 이두희, 〈일본의 서예교육에 관한연구〉, 《서예학연구》, 2009.
- 이봉재, 〈K-Pop의 춤에 관한 소고: 〈강남스타일〉을 생각하며〉, 《대중음악》, 2012.
- 이호규, 〈한류예술산업의 세계화 동향과 전망 : K-POP, 국내 배우의 할리우드 진출을 중심으로〉, 《콘텐츠 문화》, 2013.
- 장미옥, 이은혁, 〈초등 국어 교과「쓰기」 교육을 서예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과 그 방안〉, 《서예학연구》, 2009.
- 鄭博仁, 〈試論對外漢語書法課程教學與實踐〉, 《西南交通大學學報(社會科學版)》4期, 2012.
- 정종진, 〈인문학 위기와 인문주의자들의 자세〉, 《인문과학논집》, 2000.

- 허성옥, 〈궁체에 나타난 전통 무용의 미적 요소〉, 수원대학교, 2010.
- 黃惇, 〈當代中國書壇格局的形成與由來-二十世紀末的思考〉, 《세계서예전북Biennale국제서예학술대회논문집》, 제2집, 세계서예전북(世界書藝全北) Biennale조직위원회, 1999,

【단행본】

- 〈에폴드 이응노-파리동양미술학교〉, 이응노미술관, 2015.
- 김병기, 《사람과서예-서예가 웰빙이다》, 서예문인화, 2004.
- 다케우찌도시오(竹內敏雄) 편, 안영길 등 번역, 《미학 예술학 사전》, 미진사, 1989.
- 마셜 밴 엘스타인 외, 이현경 역, 《플랫폼 레볼루션》, 부키, 2017.
- 박병천, 《한글 궁체 연구》, 일지사, 1994,
- 신기철·신용철 편,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75,
- 王向峰 주편, 《文藝美學辭典》, 중국遼寧대학출판사, 1987.
- 유홍준, 《정직한 관객》, 학고재, 1996.
- 정일성, 《후쿠자와 유키치-탈아론을 어떻게 펼쳤는가》, 지식산업사, 2001.

【보고서 및 기타】

- 〈談韓中書藝 - 북경수도사범대학 어우양중스 교수와 공주대학 김병기 교수와의 대담〉, 《월간서예》, 미술문화원, 1995년 9월호.
- 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결과보고서》, 1996.
- 김아미(K-ARTMARKET), 〈미술시장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통 패러다임 변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0.6.30.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유네스코 최고의 평가를 받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훈민정음〉, 2016, 《地方行政》, 2016.
- 문화체육관광부, 〈2020 서예실태조사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문화체육관광부,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 문화체육관광부,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 박병천, 〈한글서예 세계기록 및 인류유산 등재 추진운동 제안서〉, 《월간서예》 2016년 1월호, 2월호.
- 송하경, 〈왜 이제 인문학인가?〉 《월간서예》 2012년 1월호.
- 葉朗, 〈중국 최근 십년 서예예술의 표상(現狀)〉, 《월간서예》 1995년 6월호

- 우리말 교육연구소,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1》, 나라말, 2004.
- 이경민(K-ARTMARKET),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이동한 미술시장〉,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 전북연구원, 〈서예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2017.
- 최민하, 〈산업분석-미디어·광고분야 보고서〉, 한국투자증권, 2018.
- 홍윤기, 〈지구화 조건 안에서 본 문화 정체성과 주체성 -문화 혼합 시대의 공공주체적 자아의 구성〉,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이학사 간, 2001.